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5월호 통권 325호

가 획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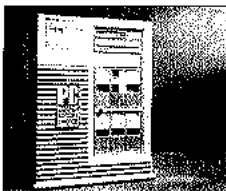
MAY

현재의 건축을 생각합니다!

미래의 건축CAD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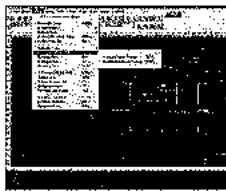


■ 하드웨어판매



컴퓨터/주변기기
NETWORK

■ 소프트웨어판매



2D/3D/모델링
ANIMATION SW

■ A/S 및 유지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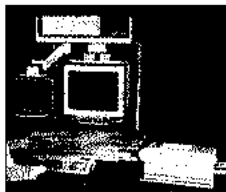
신뢰·성실 A/S
최신정보/기술지원

■ 건설컴퓨터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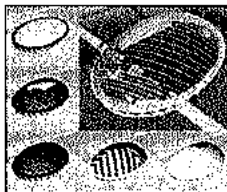
건축실무위주의
CAD교육 / 실무자양성

■ 건축CAD기술연구소



건축/건설/토목관련
SW개발, 용역

■ 건축CG연구소



건축 Presentation 전문
건축 CAD/CG 전문용역

고객감동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건축CAD전문회사로 성장해온 건캐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건축 CAD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700여 건축설계사무소 전산화를 경험으로 젊은 패기와 맘과 노력으로 국내 최초 건축CAD전문회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길만을 고집합니다.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584-6480 FAX. 587-1803

■ 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5 청신빌딩 6층
대표전화: (02)598-1486 FAX. 598-1487

■ 건축CG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
대표전화: (02) 597-6933 FAX. 521-3002

■ 건설컴퓨터학원 (CAD CLU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5 청신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2226 FAX. 597-1487

건축과 컴퓨터와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주) 건 캐 드

크로바서비스 080-900-6480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내화두께 (mm)		지정
		건축용	공장용	
로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삼손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업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사 · 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목재사업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구사업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울전세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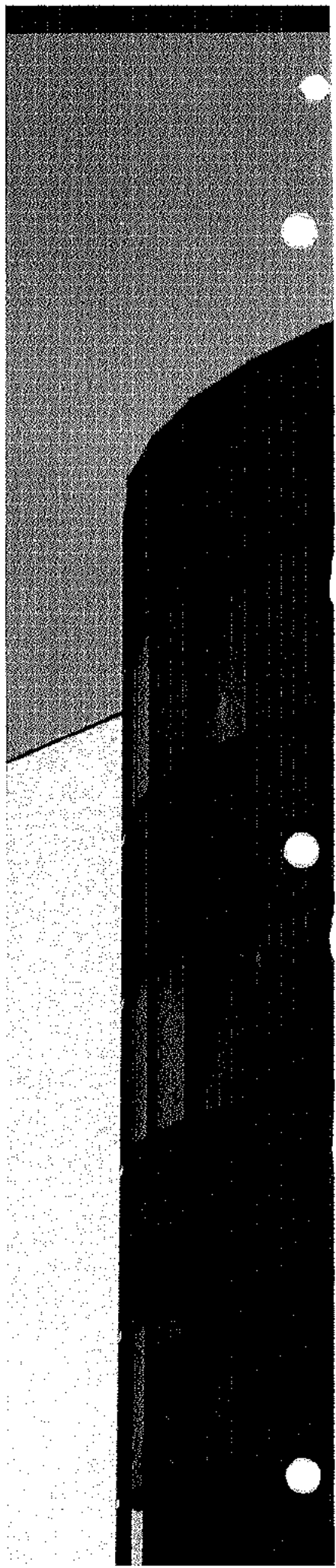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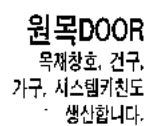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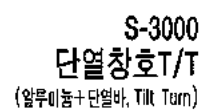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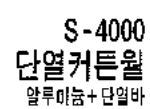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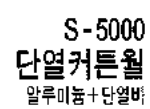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가치도 다릅니다.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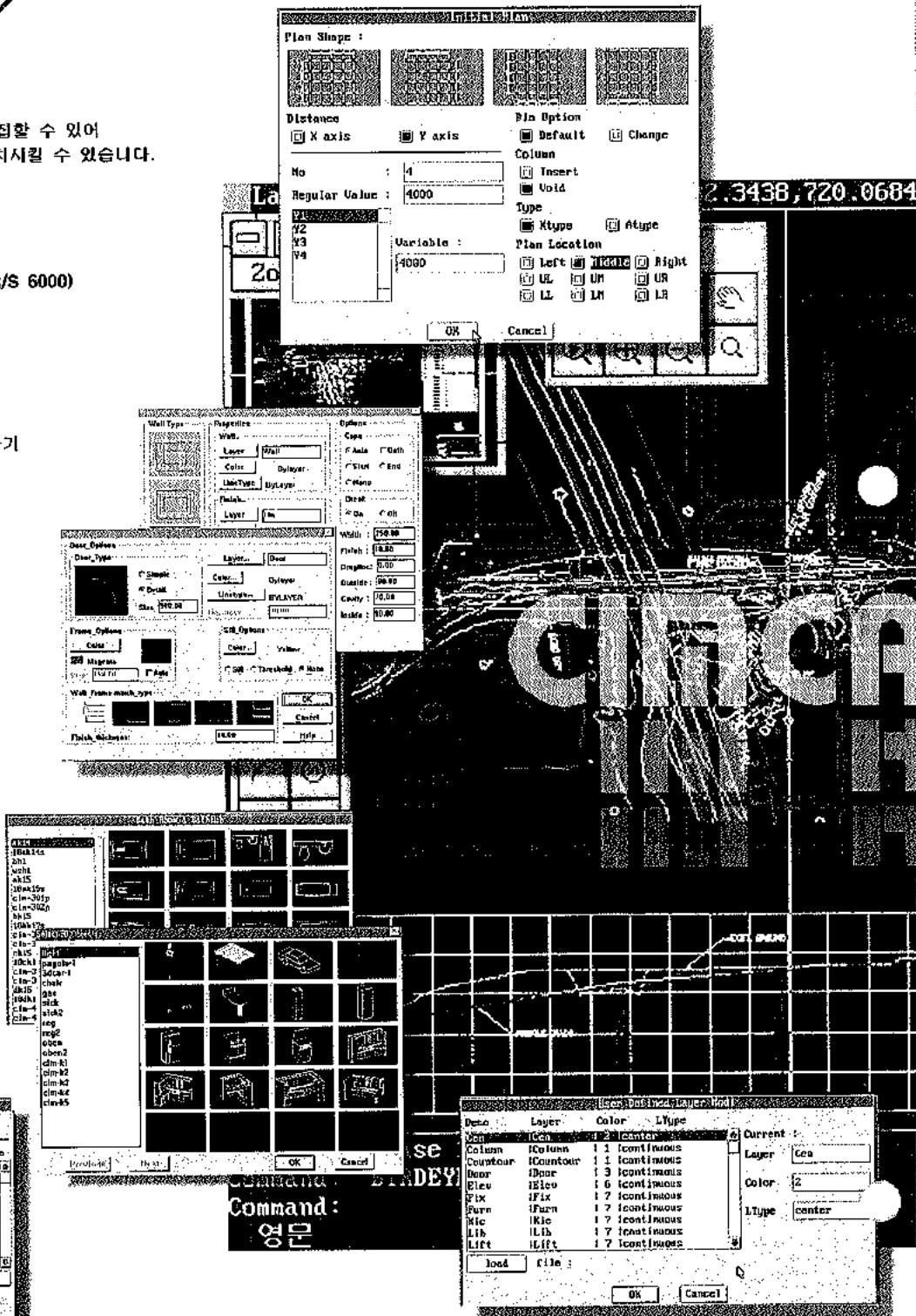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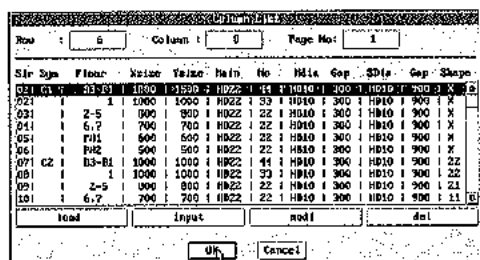
주요 기능

-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oubble 및 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듈화 하였습니다.

-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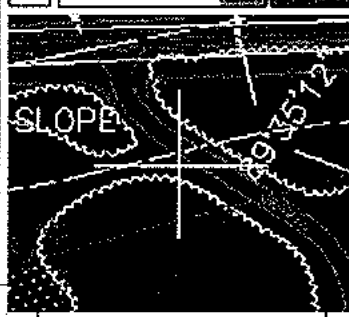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y Glass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다대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Screen Capture기능
-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입출력 가능

DL = 407 KB

4.0 X



USE BLOCKS
DIM: DISPLAY
DRAW
ED
IN
LA
MO
MU
PL
RE
SE
SU
UC
UT
SAVE:

C NAME LINE	DL	START	END	TYPE
1.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2.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3.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4.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5.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6.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7.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8.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9.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0.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1.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2.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3.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4.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5.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6.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7.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8.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19.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20. BASIC LINE	740	000000.00	000000.00	000000.00

CIMCAD V.6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설계정보 프로그램

- 산출 내역
총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를 평가 및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 of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애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CM 한국사아아(주)

ARON (주) 아론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군동빌딩 3층
TEL : 515-3167 (대), FAX : 515-3169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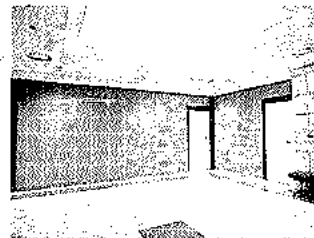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만시켜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리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영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히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새브리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이주대 무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사: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838-4545 (대)

FAX: 838-0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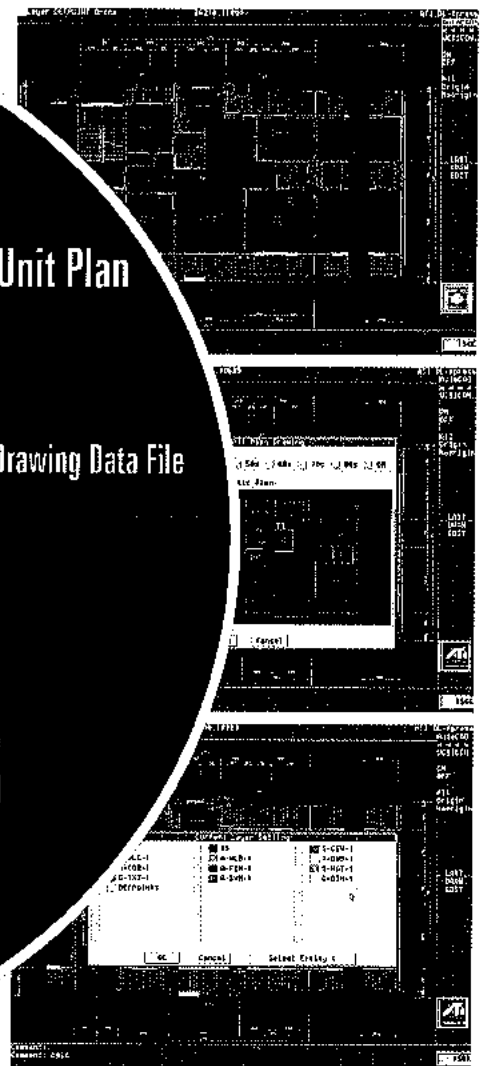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아 주 셔 터 공 사**



사용환경
DOS 버전 3.3 이상
AutoCAD R120 이상
CD-ROM Drive
386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최소메모리 8MB 이상
가격 : 70,000원, VAT 별도
(CD-ROM 1장, A3 매뉴얼 1권)

개발 및 판매원 : (주) 청우시스템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4-10 의성빌딩 4층
전화 : (02) 587-5168 팩스 : (02) 588-4156



아파트 평면도를 삼킨 CD

무려 120개의 아파트를 삼켜버렸습니다

AutoCAD Drawing Data Fil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파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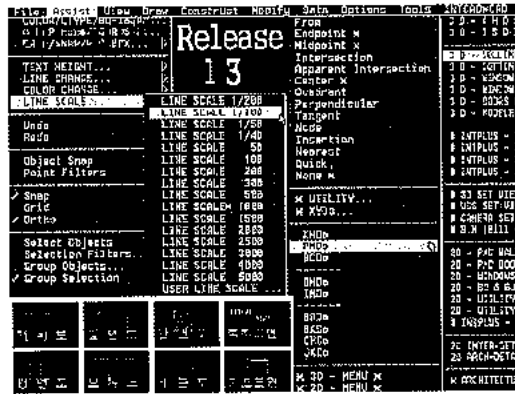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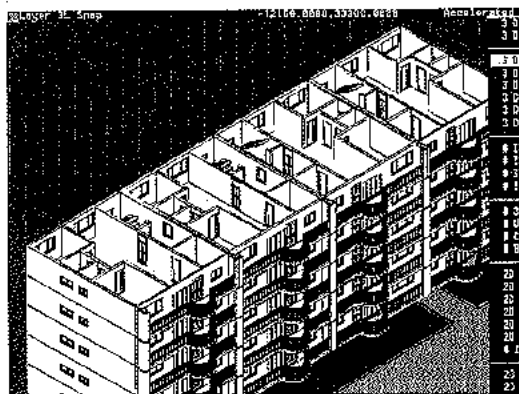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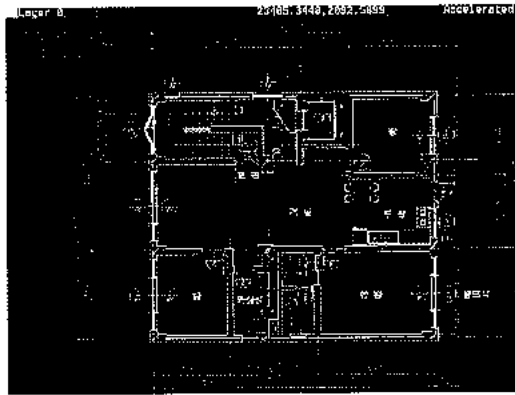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파일과 함께 Kfont한글유틸리티등을 제공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건축전공 학생 등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건축 법규가 내장된 국내 최초의 CAD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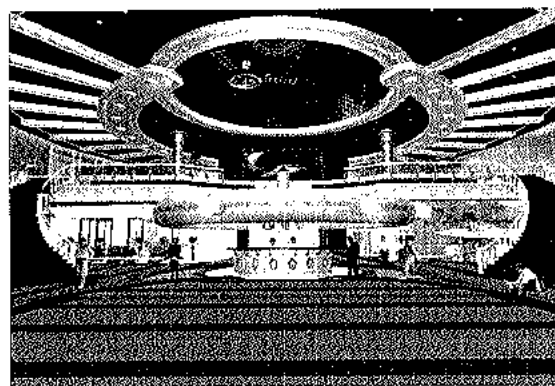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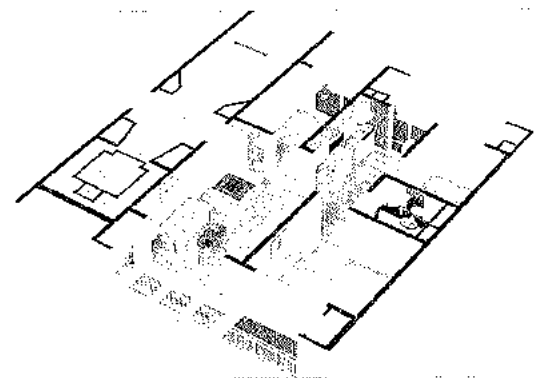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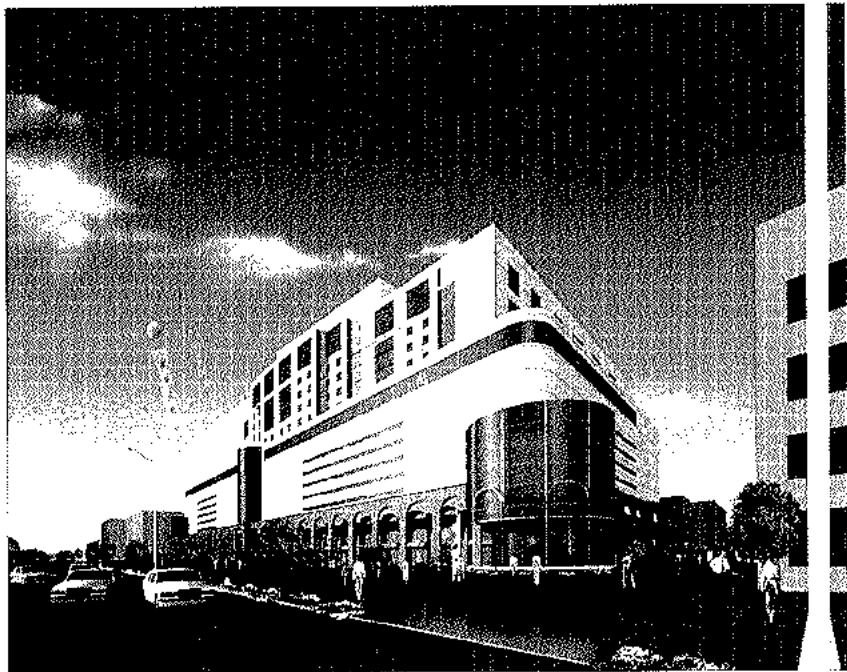


높이값이 인터캐드는 고정밀도를 가진
오토캐드보다도 10배 이상 빠르다

- ◆ 드로잉 환경의 건축법규 내장으로 빠르고 정확한 도면작성
- ◆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터치 드로잉 환경
- ◆ ICON 메뉴보다 10배이상 빠른 MOVE, 섀도메뉴와 P/G상의 SCREEN메뉴사용
- ◆ 가상 박스를 보면서 현실적인 드로잉 가능
- ◆ 각종 도면에 필요한 Text의 프로그램화
- ◆ 캐드명령보다 강력한 자동번체인식, 자동 불릿삽입, 자동 스트레치기능
- ◆ 필요한 수치기입의 차별화
(예. 1200=1.2, 2500=2.5, 3000=3.0, 12000=12 입력가능)
- ◆ SOLIDE를 이용한 진정한 3차원 설계기능
- ◆ 블록, 디테일, 2.3차원 DWG파일 2300여개내장
- ◆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캐드와 합체하면 앞으로 설계사무실 환경은 경리사님, 설계기사님, 경원수님 중상봉이 당연으로 승분합니다.

이런 캐드가 가장 빨리 도면을 완성 하는지...
다른 캐드와 꼭 비교 하십시오



인터캐드는 하루에 ...

지적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창호도, 구조도, 보복도, 배근도, 전기도, 설비도, 3차원투시도, 인테리어·익스테리어 투시도를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서 미팅을 하려 갑니다...

인터캐드

우)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3 한국빌딩 502호
TEL : 565-3270 · 교)3452-4734
FAX : 501-3054

◆ 인터캐드 영업품목 ◆

- 건축설계 프로그램(인터아키)
- 인테리어설계 프로그램(인터플러스)
- 인테리어견적 프로그램(인터큐)
- 블록&메트릭 3DS소스 라이브러리(전·측인테리어샵)



정부시설공사 EMS-1,2,3,4 선정

지속적인 UPGRADE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한 교육

견적/적산

건설 권적/적산업무의 모든
키는 EMS-1,2,3,4에
있습니다.



EMS-1,2,3,4
R C
K-FIN

● **내역 (도입, 실행)**

● 위대 가

● **별** (정) **경** **내** **하** **거** **영**

● **국립역사박물관 개관** (주요)

주요 작가 연도 / 품목 / 장소

2010年12月10日

● 경영진별 내·외부 환경

건설소프트웨어전문회사
KSB고려전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529-6071~4, FAX: 529-6075

K2E 고려전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529-6071~4, FAX:529-607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 세종문화회관 | ◎ 유관순기념관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 국립극장 | ◎ 흥원교회본당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 해라문화커힐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계동 센터 예술 극장 |
| ◎ 롯데호텔 |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 육군박물관 |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대전시민회관 |
| ◎ 이화여대강당 |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 강원대학교 |
| ◎ 과천시민회관 | ◎ 원주차악문화예술회관 | ◎ 충북문화 예술회관 |

주요 생산품목

- | | |
|---------------------------|------------------------|
| ● STAGE & STUDIO | — CONFERENCE ROOM |
| — BASIC EQUIPMENT SYSTEMS | — SCHOOL STAGE |
| — THEATRE STAGE | ● DESIGN & ENGINEERING |
| — TELEVISION STUDIO | ● MANUFACTURE |
| — OPERA HOUSE | ● TURN-KEY PROJECTS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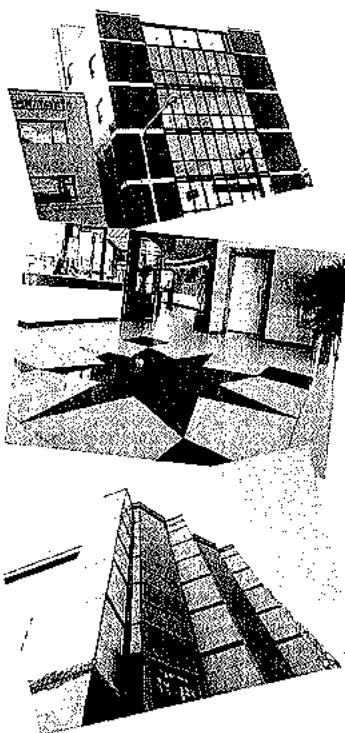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壁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이테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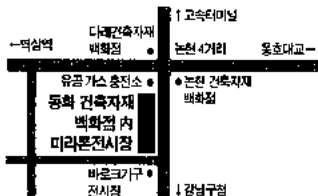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두께 : 12mm, 15mm, 20mm, 30mm
크기 :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콤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신제품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abc012 ABCabc012 ABCabc
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
012 ABCabc012 ABCabc012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제도용 OA기기 -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NED-316의 특징

- 한글47자, 영문 10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40mm, 메모리 8000자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제품구입 A/S문의 (02) 515-3287

DONG SHIN

DONG SHIN



이제 건물이 확 달라집니다 -

CITY WALL®

CITY WALL은 Laminating방식이 아닌

Flow Curtain Coating방식으로 제조되는 불소무늬 판넬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자유로운 패턴의 첨단 외장판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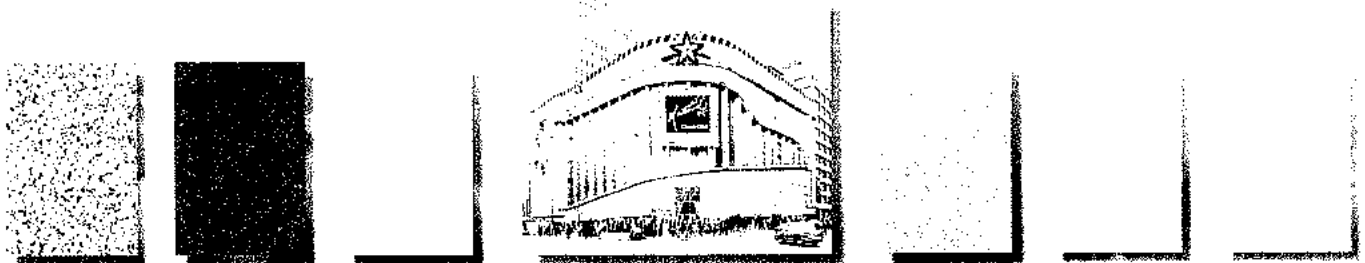
건물의 신선한 활기와 패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표현력으로 개성적인 외관디자인은 물론 건물의 이미지변경에 최적합합니다.

KBS별관/ 청주여객승용차터미널/ 메트로미도파/ 조흥은행 하남지점/

러시아 홈스크 현금계산센터/ 인도네시아 KIANI KERTAS빌딩등에

시공되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신개발 건축자재입니다.



메트로 이도파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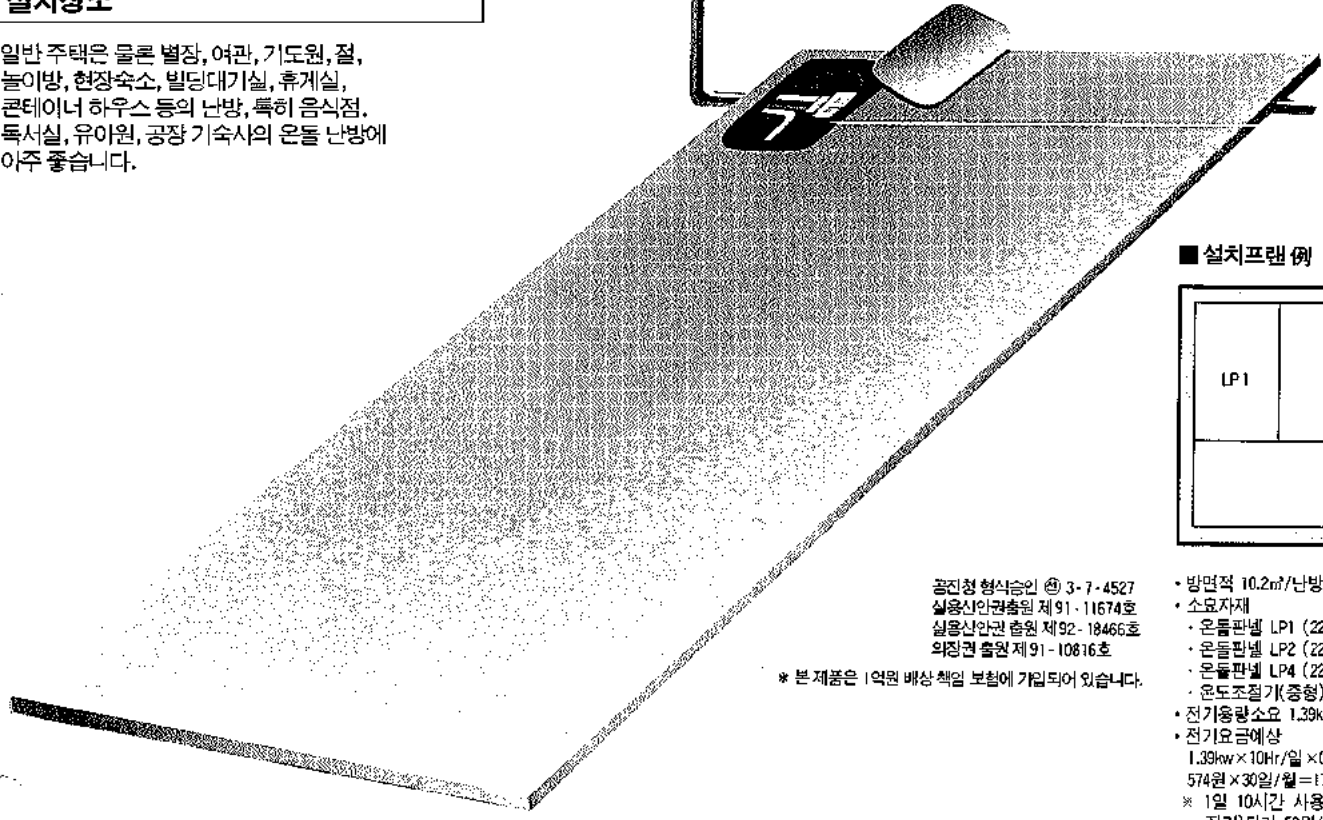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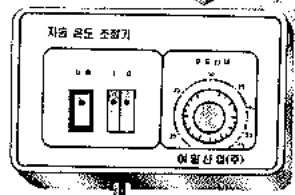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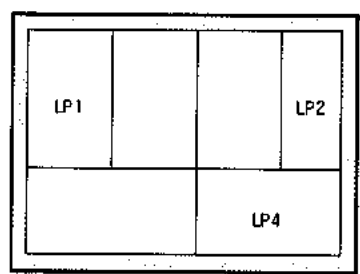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설치프랜 예



공진청 형식승인 ㉠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외청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설을 73.5%
- 소모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65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35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95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39kw
- 전기요금예상
1.39kw × 10Hr/일 × 0.7 × 59원/kwh = 574원/일
574원 × 30일/월 = 17,22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 단가 59원/kwh의 월간 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로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253-57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96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후원하는 '96한국건축문화대賞'은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현대적 정서 및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국내 최고권위의 건축공모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행사의 최고영예인 준공건축물부문 대상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따른 국민주거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본상 6점중 3점을 주거건축물에 배정하여 주택분야를 독려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계획건축물부문은 종래의 신인·학생 구분을 개방하여 신인, 학생뿐만 아니라 건축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성건축인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을 배우는 후진과 일반인들에게는 아심찬 도전의 장으로서 한국건축의 전통성과 맥을 충실히 이어나갈 '95한국건축문화대賞'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및 대상

- ▶ 준공건축물 부문 (95년 1월 ~ 96년 8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에 한함)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 계획건축물 부문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면허 소지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전문대 및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응모방법

- ▶ 준공건축물부문
 -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10" 사이즈 10매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스게서 첨부)
 - 패넬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며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 ▶ 계획건축물 부문
 - 작품주제 : ※ 5월중 서울경제신문 및 건축사지 6월호를 통해 공고
 - 패넬(90cm×120cm) 1매 및 모형(60cm×60cm×50cm) 1점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지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작품접수

- ▶ 준공건축물부문
 - 접수기간 : '96. 8. 12(월) ~ 8. 20(화)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4층 / 전화 581-5711~4)
- ▶ 계획건축물 부문
 - 접수기간 : '96. 9. 9(월) 09:00~17:00
 - 접 수 처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전화 736-2025~7)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 수상작발표 및 전시

- 수상작 발표 : 1996년 9월 16일자 서울경제신문 (압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수상작 전시회 : 1996. 9. 16(월) ~ 9. 24(화)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작품공모

□ 기타 출품규정

- 계획건축물부문에 있어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 패넬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패넬 및 모형의 보수·보강작업을 일체 금함
- 패넬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준공건축물의 제출 사진첨중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부문 우수상 이상의 패넬은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작품반출(계획건축물)

- 일시 및 장소 : 96. 9. 13 09:00~17:00 / 서울시립미술관내 서울600년기념관
(단, 입선이상의 수상작은 작품전시 후 반출)
- 1차심사에 탈락한 작품 중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은 주최측에서 임의 폐기 처리하게 되니 유의 바람

□ 시상내용

▶ 준공건축물부문

	건 축 사	시 공 자	건 축 주	비 고
대상(1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	대통령상
본상(6점)	"	"	"	주거3점 비주거3점
우수상(1~2점)	해당자에 한해 트로피, 해외시찰	-	-	설계 또는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
입선작(다수)	상패	-	-	
공로상	트로피	-	-	건축문화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계획건축물 부문

- 최우수상 (1 점) : 상금 700만원 및 상장
- 우 수 상 (2 점) : 상금 각 300만원 및 상장
- 장 려 상 (7 점) :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 선 (다수) :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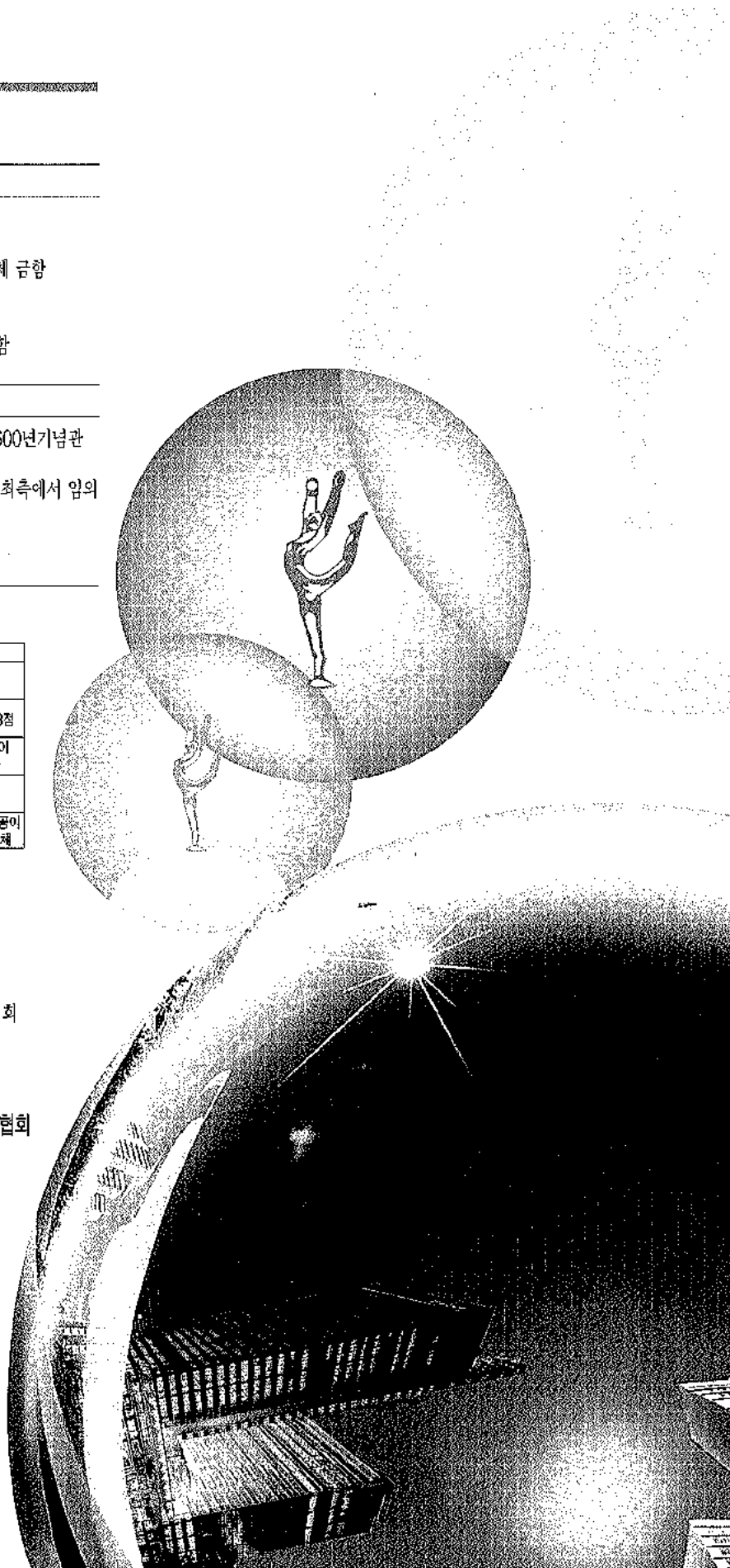
※ 수상자중 대학재학생에 한해 최고 성적자 2명은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학생멤버 파견 특전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

□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Tel. 581-5711~4)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建築士



표지사진 / 태신빌딩(설계:함인선)

발행인 : 김규태
 편집기획 : 편찬위원회
 위원장 : 조정상
 위원 : 방철린, 송호상, 심영선, 원대연
 편집·취재 : 사임부/양원식, 정호상,
 조한국, 윤대일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장빌딩 : 1996년 10월 23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 (02)586-8823
 등록번호 : 서울 라-26(월간)
 등록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064-2) : 0612(519)
 인쇄인 : 이봉수/정문사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Member : Bang Cheol-Rin, Seung Hchoh-Sang,
 Shim Young-Seop, Won Dai-Yun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23, March, 1967
 U. D. C : 69/72(06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차례 1996년 5월호 통권 325호

편집	
도시적 맥락과 건축 / 안건희	22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6) / 최찬환	24
회원작품	
경기도립박물관 / 장세양	32
JXTAD / 김인철	40
태안 소망교회 / 하학수+정시춘	46
태신빌딩 / 함인선	52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 김관석	56
인천남동농협 종합시설 / 김영석	62
개회작품	
한국산업은행 본점 / 이영희	66
평촌 복합빌딩 / 이영희	68
회원갤러리	
거제도 나룻터 20F / 김종국	70
분난(盆蘭) / 안중삼	71
일하며 생각하는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 주영정	72
작품노트	
광주 도자문화연구소 / 박연심+동정근	74
건축기행	
인도의 르 꼬르뷔제 작품을 찾아서(1) / 김석환	7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完) / 박길룡	85
전통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7) / 김지민	88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3) / 강병근	96
김대인 / 김희 건축정보센터 구축을 서두르자!	
정보화시대를 우리것으로 / 옥태범	103
현상설계경기	
해운산업연구원청사	104
연천군 보건의료원	108
대전 서구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112
대전 서구 다목적 종합체육관	116
해외건축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2) / 박효순	118
특기	
96년도 3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6
한글·건축정보	128

CONTENTS

VOL. 325 MAY 1996

COLLAGE

Urban Veins & Architecture / Ann Keon-Hyeok	22
---	----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6) / Choi Chan-Hwan	24
---	----

WORKS

Museum in Kyeonggi Province / Chang Sea-Yang	32
JUXTAD / Kim In-Cheul	40
Somang Church in Tae'an / Ha Hak-Soo & Cheong Shi-Choon	46
Taeshin Building / Hahm In-Sun	52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Hanam County Office / Kim Kwan-Seok	56
Inchon Namdong Nonghyeop Complex Facilities / Kim Young-Seok	62

ARCHITECT WORK

The Head Offic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 Lee Young-Hee	66
Pyeongchon Complex Building / Lee Young-Hee	68

GALLERY

A Ferry Point of Koje Island(20F) / Kim Jong-Kuk	70
A Potted Orchid / Ann Joong-Sam	71

ESSAY

To the Ideal from the Real / Joo Young-Jung	72
---	----

WORK NOTE

Institute of Traditional Ceramic Ware / Park Yeon-Shim & Dong Jeong-Keun	74
--	----

ARCHITECTURE TRAVEL

The Works of Le Corbusier in India(1) / Kim Suk-Hwan	78
--	----

SERIAL

Korean Architect-Cheong In-Kuk(E) / Park Kil-Ryong	85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 Kim Chi-Min	88
--	----

STUDY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3) / Kang Byoung-Keun	96
--	----

CAMPION (C)

Last Entrance to Information Word / Ok Tae-Beom	103
---	-----

COMPETI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104
Yonchon Public health Center	108
Ice-Link in Seo-Gu, Taejeon-shi	112
Gymnasium in Seo-gu, Taejeon-shi	116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 Park Hyo-Soon	118
--	-----

STATISTICS

	126
--	-----

NEWS

	128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편익구건축사회/834-0048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404-6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동작구건축사회/815-302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933-8078 · 양천구건축사회/683-2892 · 강랑구건축사회/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3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송탄지역건축사회/(03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9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2)684-5845 · 안산지역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859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3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3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8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인동지역건축사회/(0571)54-4832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칠촌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8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달성지역건축사회/(053)634-6336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745-640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6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거창지역건축사회/(0568)43-609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도시적 맥락과 건축

Urban Veins & Architecture

안건혁 / 명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Ann Keon-Hyeok

앞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로 도시의 개성과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이 도시간 경쟁시대에 주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역시 역사, 문화 자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보전하고,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도시적 맥락을 이어가는 일은 단 기간에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건축가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수준과 관련지어 도시개발의 발전단계를 구분한다면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살 수 있는 도시'로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만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살만한 도시'로서, 도시가 어느정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 도시환경이 갖추어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세가지 단계중에서 우리 도시개발은 어디에 속할까? 아마도 이제 겨우 첫단계를 벗어나 살만한 도시를 만들기에 급급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국민소득이 일반불을 돌파하면서 국민들이 도시환경에 거는 기대도 달라지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초에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는 당연히 좀더 나은 삶과 이를 가능케 하는 도시환경의 요구로 이어진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의 목표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살만한 도시'가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기능적인 도시를 의미한

다면 '살기좋은 도시'란 한마디로 쾌적한 도시를 말한다. 전문가들간에 공통된 견해로는 풍부한 녹지와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도시, 문화적인 도시가 쾌적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은 도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가는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도시의 기본이지만 정작 수준 높은 단계에 이르면, 역사성과 문화성을 겸비해야 선진도시로 각광을 받는다.

도시의 문화성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과 가로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축물은 3차원적인 도시공간 구성의 중심요소로서 건축물이 지니는 양식과 디테일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가로는 가장 중요한 도시의 외부공간으로 그 속에 시대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출된다. 건축과 가로공간은 어우러져 도시적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성을 논할 경우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도시적 맥락의 특성이 강할 경우에 우리는 도시가 개성있다고 하고, 그 맥락이 문화적 특성을 보일 때, 도시의 문화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 맥락은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도시를 다른나라의 도시들과 구분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도시의 가로경관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시에도 뚜렷한 도시적 맥락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만 대답은 부정적이다. 도시적 맥락의 미약함과 모호함은 도시경관의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한다. 그것이 우리도시의 실제 모습이다. 양질의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니면 최소한의 수준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 건축심의과정에 대해 건축가들이 계속 반발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건축물 외관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있는 도시적 맥락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건축적 실험행위도 건축가의

창작적 의도라 주장할 때는 제재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파리나 런던과 같은 곳에서는 건물의 외형이나 재료 등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어도 우리도시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껏해야 건축설계상 오류, 예를 들면 내부 계단의 위치나 화장실의 설계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러한 요구는 원래 심의 취지와는 어긋난다.

도시 특성에 따라 각각의 도시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일본인지 미국인지 알기 힘든 국적없는 경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이 안되는 거리 모습,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역사도시인지 신도시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개성은 앞으로 도 마스크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점차 동질화가 가속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도시의 도시적 맥락이 부재한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관심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도시화와 도시경제의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도시의 모습도 급변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시적 맥락이 축적되기 힘들다. 문화정책과 도시정책의 결여와 함께 정책결정자들의 무관심, 무지도 많은 이유중의 하나이다. 문화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도시의 문화성이 낮은 것이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물량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도 아직 문화공간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시의 가로와 건물들,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자체가 도시의 문화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도시문제의 해결사인 도시계획가들도 다를 바가 없다. 도시계획은 지난 30년간 개발에만 매달려 왔다. 개발이란 본래 경제성을 높이는 행위인 만큼, 경제성을 희생하는 어떠한 문화보전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치요, 낭비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외면하고 있다. 도시문화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건축가들조차 도시에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도시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자유의 공간이다. 건축을 구속하는 것은 건축법과 조례, 그리고 잘못된 제도와 관료주의의 악습과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 등이다. 이러한 것들만이 건축가의 창작의지를 가로 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건축가들의 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건축허가를 위해 제출된 설계도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건물의 위치와 입지해석이 중요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설계서가 주변상황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인접도로의 보도가 차도와 분리되어 있는지, 보도폭이 얼마인지, 인접지의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조차 않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교육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건축설계시간에도 학생들에게 건축의 디테일이나 평면구성, 건축양식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도시적 맥락의 해석이나 인접건물과의 관계를 짚어주는 교수나 Critic은 거의 없

다. 이렇게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는 건축가들에게 도시적 맥락의 보전과 새로운 창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반 시민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도시문화는 도시환경과 보통 사람들의 도시생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제, 공연장과 문화시설, 특정계층에 속해 있는 민나라 이야기이다.

전통양식이 저층의 목구조가 대부분이어서 현대적인 생활양식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 관리나 생산비가 엄청나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적 맥락의 단절이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도 있다. 도시의 맥락은 지역단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한 가로를 따라서도 이해된다. 그런데 서양의 도시들이 가로를 중심으로한 동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전통적 도시이해방식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동적 활동이 강조된 현대도시에서 이러한 정적 도시이해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를 도로중심으로 이해하는 서구식 개념은 십여년전 도시설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도시의 열개를 엮고 관리하는 도시계획체제는 불력단위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로 도시의 개성과 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이 도시간 경쟁시대에 주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역시 역사, 문화자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을 보전하고,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문화적으로 특성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얼마 남지 않은 문화적 공간과 도시적 맥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의 역사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는 우리생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공간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도시화도 둔화되어 가고 있으니 만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다듬는 일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요지를 만들어 놓는 일이 중요하다. 셋째는 도시공간의 인식, 문화에 대한 가치관을 달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들도 전체 국민이 바라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행할 수 없다.

도시적 맥락을 이어가는 일은 단 기간에 성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체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건축가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취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의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로 인한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대도시화의 무질서한 공간적 확산과 평면적 팽창이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도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은 불가피하였고 집적이익(集積利益)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 있으나 급격한 양적팽창과 거대화가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하게된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영국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그린벨트제도를 일본에 이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5개시, 35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5.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근교 또는 주변지역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

존하고 도시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규제로 인하여 무질서한 도시팽창을 다소 억제하였으며, 녹지확보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그 개념이나 총론에서는 그 효과나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개발제한 구역안의 토지 이용제한을 함으로써 그 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의 발전이나 도시 성장이 저해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특히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됨으로 회생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구역지정, 규제내용 등 세부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적절한 보상책마련 등 근본적 그리고 실질적인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배경과 지정현황 그리고 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구역 지정 배경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 인구집중 현상을 야기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거나 국방상 필요에 의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서울·부산·대구 등과 같이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머지않은 장래에 무질서하게 도시가 팽창될 우려가 있는 대도시, 도청소재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공업기지와 같은 국가주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산업도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지방도시, 군사시설보전 및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6)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을 근거로 하여 지정·고시하기에 이르렀다.

②구역 지정 현황

1971년 7월 도시계획법의 근거로 하여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개발 제한구역이 최초로 지정·고시되었으며, 12월에는 부산시에, 1972년에는 대구시에, 1973년에는 광주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고시되었다. 그 후 1977년까지 전국 35개시, 35개군에 걸쳐 전국토의 5.4%인 5,397.1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지정되었다. 1977년 여천지역의 지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km², %)

권역별	개발제한 구역면적	토지이용현황				
		대지	임야	경지	잡종지	기타
전국	5,397.1 (100)	195.0 (3.6)	3,226.8 (59.8)	1,454.7 (26.9)	95.6 (1.8)	425.1 (7.9)
수도권	1,566.8	75.2	930.0	404.4	38.9	118.2
부산권	597.1	17.8	319.5	159.6	11.4	88.8
대구권	536.5	17.3	337.9	142.2	12.2	27.0
광주권	554.7	26.4	25.2	221.2	4.3	49.5
춘천권	294.4	11.0	215.1	46.8	4.0	17.6
청주권	180.1	5.1	84.9	70.0	6.4	13.2
대전권	441.1	9.9	279.4	112.2	2.7	36.9
전주권	225.4	5.4	126.1	75.3	0.8	17.9
울산권	283.1	4.9	215.7	57.4	1.3	4.3
마산·진해	314.2	3.1	258.9	38.7	4.6	8.9
진주권	203.0	15.2	104.3	71.2	0.8	11.6
충무권	30.0	0.8	20.3	8.6	0.1	0.3
제주권	82.6	1.2	26.0	43.9	5.7	5.7
여천권	87.6	1.9	55.3	20.0	2.4	8.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지목별로 보면 전체면적의 5,397.1km² 중 임야가 3,264.6km²로 면적의 6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1,434.69km² (26.58%), 대지 177.97km² (3.30%), 잡종지역 89.24km² (1.65%), 기타 430.52km² (7.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순수녹지라고 할 수 있는 임야는 약 60% 정도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표2. 개발제한구역내 내용별 현황〉

분류	내 용
면적	5,397.1km ² (전국토의 5.4%)
대상지역	35개시 35개군
상주인구	106만 5천명(약 23만 5천여가구)
건축물현황	주택 및 부속건물 358,878동
	농림수산업 및 광공업시설 120,269동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4,517동
	부락공동시설 4,197동
	종교시설 및 기타 25,205동
취락	도시형 취락 598개소
	농촌형 취락 2,881개소
토지이용	대지 157.6km ² (2.9%)
	농경지 1,434.69km ² (26.58%)
	임야 3,264.68km ² (60.4%)
	잡종지 89.24km ² (1.65%)
	기타 430.52km ² (7.9%)

자료: 건설부, 국외요구자료, 1993. 5.

구역내 많은 상주 인구와 그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물들이 있고 토지의 개발권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③취락현황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현황을 보면 3,497개 부락 중 도시형취락은 598개소, 농촌형취락은 2,88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호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호수별 취락분포 현황〉

(단위: 개)

	20호 이하	21-50호	51-100호	101-200호	200호 이상
도시형취락	179	119	210	49	41
농촌형취락	901	1,133	687	141	19

자료: 건설부, 국외요구자료, 1993. 5.

④건축물 현황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지정당시 기존의 건축물과 그 이후 행위제한 완화로 인해 새로이 들어선 건축물을 포함해 현재 513,066동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주택 및 부속건물은 358,878개(69.94%), 농림수산업 및 광공업시설 120,269개(23.44%),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4,517개(0.88%), 부락공동시설 4,197개(0.82%), 무허가 건축을 포함한 기타 25,205개(4.91%)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화 시켜보면 주택의 경우 본건물 189,086동, 부속건물 169,792동, 농림수산업의 경우 축사 72,330동, 창고 26,865동, 관리사 2,463동 기타 16,341동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기관 594동, 학교 1,185동, 공공건물 991동, 군사상 필요시설 876동, 문화시설 170동, 기타시설 591동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⑤민원현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제기된 민원을 개발제한구역의 해체 또는 보상, 행위규제완화 건의, 불법행위고발 및 보존요구 등을 중심으로 82년부터 92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개발제한구역에서 제기된 민원현황〉

(단위: 건)

연도	82	84	86	88	90	92	10년간 총계
구역해제및 보상	1	18	29	24	26	49	284
행위규제 완화건의	75	41	77	107	93	104	866
불법행위고발 및 보존요구	43	26	21	36	72	94	449

2.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내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선 구역경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경계선을 100m마다 표석을 설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 10km마다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초소마다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비치, 관리하고 매년 1회이상 항공사진을 촬영, 그 성과에 의하여 불법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3개월마다 1회이상, 시장, 군수는 매월 1회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3.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정책

1) 영국

영국의 Green Belt 설정은 1930년대 이후 농업보호 및 위락공간의 제공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의 규제라는 2차원적 측면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 추진경위는 표5와 같다.

〈 표5. 영국의 그린벨트 추진경위 〉

기 간	지 정 목 적	특 기 사 항
~ 1955년	▶ 농업 및 위락공간의 확보를 위한 다목적 Green Belt의 지정 ▶ 전후 수도의 복구 및 성장억제	▶ 그린벨트법 제정(1938) ▶ 200km의 공유토지 조성(1939) ▶ 폭 8km-12km의 대상녹지지정(1942)
1955년~1974년	▶ 도시지역의 확산방지 ▶ 인근도시의 연합방지 ▶ 도시의 특성을 보존	▶ 런던시 권역의 면적 399,800에이커 중 30%인 90,900에이커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1974년~현재	▶ Green Belt내의 경관보호 ▶ 도시지역의 확산방지 ▶ 도시의 특성을 보존	▶ Green Belt내에서의 경관을 손상경관 위협경관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의 개선을 도모

2) 일본

일본은 1956년에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하여 기존도시지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녹지대인 근교지대를 설정하였으며, 1965년에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하여 근교지대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 후 1968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한시적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을 갖는 시가화조정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각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특성비교 〈 표6 참조 〉

4.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① 구역지역의 불합리성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경계선이 한 마을의 중심부를 통과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그 경계선이 하나의 대지를 두동강으로 나누고 단일건물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엄격

〈 표6 〉

구 분	한 국	영 국	일 본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근교지대	▶ 시가화조정지역
설치목적	▶ 성장억제 ▶ 환경보전	▶ 성장억제, 환경보전, 의학적 활용사대에 따라 중점목표화	▶ 성장억제 ▶ 환경보전	▶ 계획적시가화개발 행위의 잠정유보
설치주체	▶ 건설교통부장관	▶ 지방정부 ▶ DCB승인	▶ 건설대신	▶ 지사
행위제한	▶ 강력한 제한 ▶ 획일적 제한	▶ 지역별로 상이, 토지 이용에 따른 제한	▶ 상제한, 제한 ▶ 확일적제한	▶ 미온적 제한
지정면적	▶ 5,392㎡ ▶ 전국토의 3.5%	▶ 15,813㎡ ▶ 전국토의 10.3%	▶ 350㎡ ▶ 전국토의 0.1%	▶ 36,400㎡ ▶ 전국토의 9.6%
지역경계 변경가능성	▶ 엄격한 제한	▶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변경가능	▶ 1965년 제정	▶ 일정기간 경과후 변경가능
설치효과	▶ 대도시의 성장억제 ▶ 대도시 주변의 녹지확보	▶ 도시면적제한, 위락 공간 제공 ▶ G.B내 위락의 집약적 토지이용	▶ 제지	▶ 시가지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 유도
관리상의 문제	▶ 경계설정의 부분적 불합리 ▶ 토지소유권 제약	▶ 환경훼손억제 ▶ 계획적 활용방안 미흡	▶ 통제력의 미진으로 제지	▶ 통제력 미흡

한 토지이용 규제로 구역내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과 지형 및 인접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불합리한 경계선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격이 주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불이익이 크다.

② 일반적 강제적 사적 재산권 침해

개발제한구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이 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 보상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역내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편의시설부족과 전면적인 규제에 인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기땅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엄격히 감시받고 있으며 선량한 주민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③ 구역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구역주민들은 토지가격 미상승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과 토지이용의 제약, 그리고 주택의 증·개축의 불허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구역내 기존 주택 및 건축물 만들 허용하는 총량적 규제나 획일화된 개발규제로 인해 구역내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및 보지서비스를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역내에서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 및 이전만을 허용하며 이전대상지도 가까운 생활연고지에 한정함으로써 구역내에서 새로운 기초생활시설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구조적으로 될 수 없어 일상생활권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④ 규제에 따른 보상책이 전무

구역내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접지역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역에서는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으나, 구역내의 지가는 반대로 하락하였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

로 심한 지가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역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감소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매매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도 쉽지 않는 등 명목상의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상 손실을 당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이에 대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존을 위한 이용과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존에만 재도규제의 초점을 두거나 집착하는 경직된 운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소극적 방치와 구역내 주민의 강압적 규제 및 재산권행사의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게 되었다.

구역내 이해당사자들은 부당한 일방적 규제에 대한 불만이 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이나 재정자립에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커녕 도리어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을 맡고 있어 이중적 부담이 되고있다.

최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감시)에 필요한 비용이 시·군예산에 편성될 경우 이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연히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역지정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함에도 도리어 피해자가 수혜자를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는 부당한 모순은 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⑤비지적(飛地的) 도시개발의 확산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도권 및 대도시인구집중억제에도 실패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본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공간구조의 왜곡을 초래했다. 즉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도시가 팽창하는 비지적개발이 진행됨으로써 수도권이 광역화 비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평면적 그리고 외연적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인천·서울—수원의 지역간에는 거의 도시연담화가 이루어졌고, 개발제한구역밖에 신도시 내지는 소도읍이 급격히 개발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는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제 엄격한 보존위주에서 녹지활용과 여기선용 등 자연친화적 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규제내용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방자체제의 실시, 정보화사회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21

세기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 등 환경과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⑥토지자원의 효율적관리와 활용보존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

개발제한구역토지는 대부분 임야나 전답으로 농업적 이용토지가 많고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당해 구역내 토지가 농민이 아닌 도시민의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과도한 행위제한은 당해 구역내에 위치하는 토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생산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존과 개발역제라는 측면에서 토지자원의 효율적이용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활용보존을 위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⑦임시적 가건물의 난립으로 경관저해

개발제한구역내 건물이 부분적으로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농림업 등 1차산업에 필요한 부속건축물의 건축이 대부분이며, 임시적 가건물이 난립되고 있다. 여기에다 기존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도시경관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발제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도시민이나 구역내 주민에게 상호도움을 줄 수 있는 국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존과 개발 그리고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⑧복잡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는 허용된 범위의 사업일지라도 허가권은 상부기관의 사업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증축은 거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이나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산림 안에서의 토석채취 등은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승인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규칙중 개발제한구역관련사항은 일개 부령인데도 이의 개정시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사전재가가 있어야 하고 이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는 지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결재를 필요로 한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규제를 보면 일반적 규제내용을 담은 규칙이라기 보다는 사업단위로 이루어진 개발허용 및 훼손의 목록과 같이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따라서 법령의 일반화·단순화·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사업이나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은 2년 이내에 건축하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증·개축을 허용하는 총량적

규제와는 상반될 뿐아니라 구역내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역지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단 기간에 이축하기도 쉬운일이 아니므로 2년이내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필요하다면 10년정도의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⑨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과 훼손은 공공이 주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미숙은 구역관리의 무원칙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간의 규제완화 조치가 민원(民願)을 뒷전으로 미룬 채 공공의 요구에 따른 관원(官願)을 앞세우는 행정 편견주의적 발상에 따라 이루어진 데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1975~1985년간 국무회의에서 개발을 허가 한 사례를 보면, 공익·공공시설이 152건으로 전체 347건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정부는 주민들의 규제완화요구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행정기관의 각종 요구에는 문호를 폭넓게 개방해서 공공건물의 난립을 방조해 왔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행정적 문제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이들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공공기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은 묶어두고 구역내 개발을 독점하고 있어 이는 도덕성과 신뢰성 그리고 윤리적규범에 관한 문제이다. 즉 호화 별장, 호화음식점 등의 기업형 훼손사례가 폭증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훼손사례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철저히 강제규제하는 편파적인 관정이 비일비재하다.

⑩총량적 일괄규제보다는 국지적 특성있는 규제의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는 지역적·국지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특성과 현재의 이용형태 및 장래의 수요, 환경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등의 요구에 비추어 그린벨트를 다음과 같이 4개의 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차등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절대보전구역 : 환경보전기능의 강화에 주안을 두고 공공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엄격한 보존·관리를 한다.

▶ 상대보전구역 : 기존개발제한구역 규제수준

▶ 소극정비구역 : 취락지역으로서 상당한 기존건축물이 집단화 되어있는 기존마을로서 이미 훼손되어 있는 인접한 일정한 범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지역수준으로 규제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 적극정비구역 : 시가화 구역

소극정비구역과 적극정비구역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과 이에 따른 각종의 불가피한 훼손, 관리유지의 과도한 부담과 마찰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이미 개발이 되어버린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⑪개발제한구역내 토지수용 보상 방안

개발제한구역내의 재산권행사에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수용보상하여 소유권은 국공유지로 국가 또는 공공에게 귀속하게 되면 재산권행사의 규제에 따른 민원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공공재원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가와 공공이 국공유지로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농업적 이용 등에 있어서는 극히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유권전체를 국공유로 하기보다는 소유권의 3요소인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 중 사용·수익에 관한 권한은 그대로 두고 처분에 관한 권한을 국·공유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가 댐을 축조할시 만수위나 홍수위를 기준으로 수몰될 수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평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주민들이 이용(경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몰로 인한 피해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가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전체의 수용보상보다는 처분권의 국·공유화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⑫개발권이양(開發權移讓)제도의 도입으로 보상책을 마련

개발권이양제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는 영국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개발권의 공유화 및 균형화 방법이다. 즉 전체적으로 적정개발밀도를 설정하고 이를 개발권으로 인정하여 특수한 여건으로 개발하지 못하거나 적정 규제밀도에 미달되게 개발할 경우 그 잔여 개발밀도를 필요한 지역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게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각 대지안에서 독립적으로 용적률을 허용함으로써 용적률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등화가 안되고 있으며 이들 개발권에 대한 잔여권리의 공간적 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위치에 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환지위치를 변경한 비환지(飛換地)를 적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와같은 비환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대지에 대한 일반적인 적정밀도를 정하고 법적규제 밀도를 설정한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밀도규제에 따른 잔여 개발권을 도시지역내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면 이로 인하여 도시지역은 고밀화하게 되어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권을 이양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도 부합된다.

5. 개선방안

①개발제한구역 관통부락 및 건물의 구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자연부락 혹은 단일건물을 관통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철거하고 엄정한 현지조사와 확인거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조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환경기능보전의 강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는 그 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존재의의로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기능이 환경보전기능이다. 대도시의 경우 나날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의 녹지야말로 대도시의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대기오염 완화효과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보전구역을 대상으로하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민원해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주민들은 그린벨트의 설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에 이들의 민원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탈법적으로 호화주택을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④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그 동안 규제되었기 때문에 거의 방치해 두는 상황이고 특히 소유자가 외지인일 경우는 방치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 농경지의 경우 경작을 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역내의 토지는 우리나라국토의 5.4%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⑤개발이양권제도(TDR)의 도입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수혜자가 구역내 이해관계자의 재산

권 행사의 제약에 따르는 불편과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이를 적정 용적률을 설정하고 개발권의 공간적이용과 과양여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⑥Green Area 개념의 도입

영국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Green Area 개념으로서, 이는 오늘날 광역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써 특정한 도시하나에 국한해서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도시를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설정해서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내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경계선을 지정할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익과 사익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⑦개발제한구역법의 제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규가 도시계획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한 실정이고 예외조항을 많이 두어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독립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하여 개발구역에 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및 관리와 이용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개발제한구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도시정책적 성과도 갖고 있다. 다시말해서 성공적인 면과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존치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인 규제와 완화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시행을 위한 일관적인 규정을 법규로 계속 둔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개발사업에 국한되는 예외적 특례로서 남는 경우는 이를 일반화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과 생업을 위한 필요한 시설은 다양하고도 세세하게 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현상의 모든시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인 일반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법규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주민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것도 거주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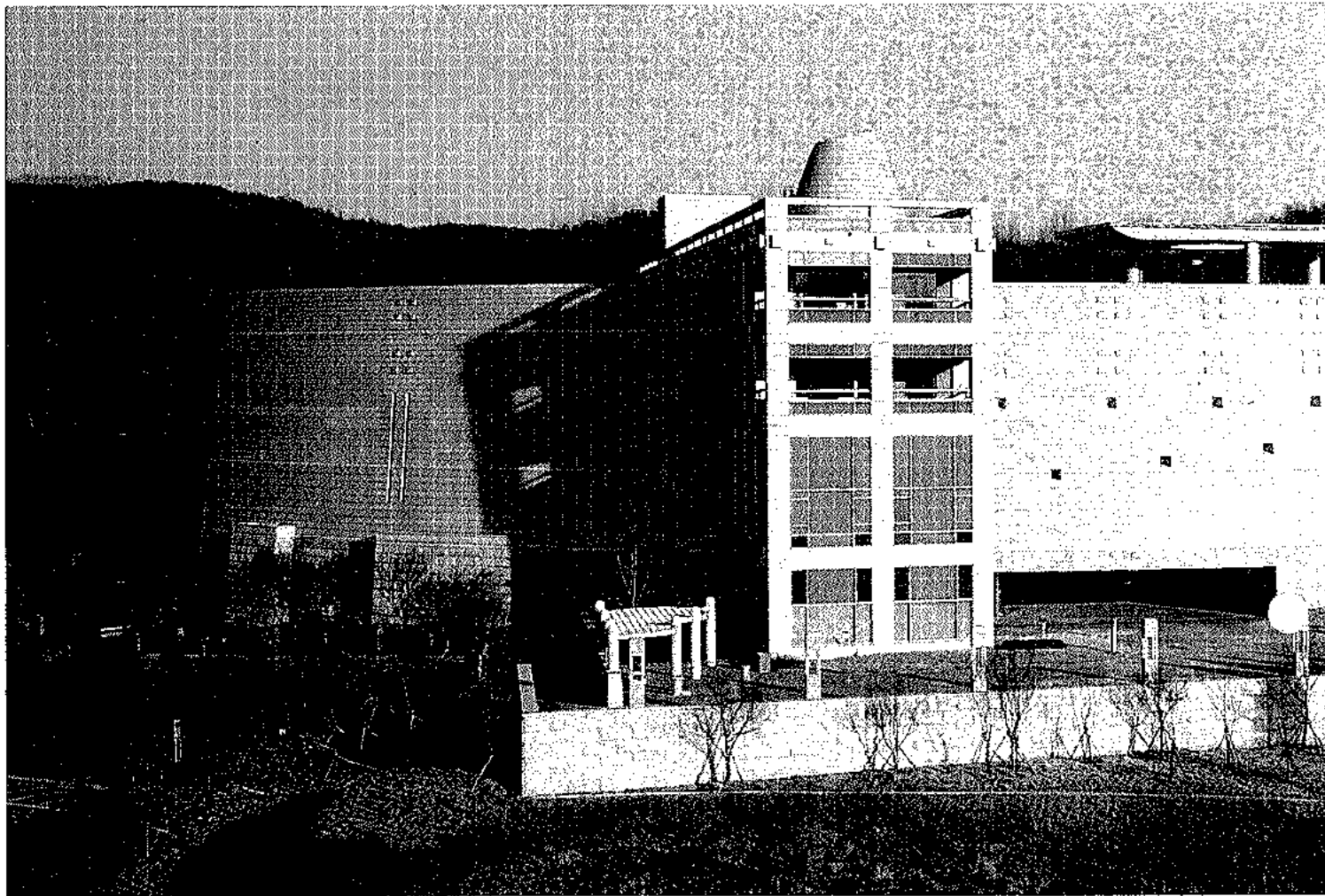
외원작품

경기도립박물관

Museum in Kyeonggi Province

장세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ea-Yang



위치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성갈리 산48번지

대지면적 / 41,394.81㎡

건축면적 / 4,668.86㎡

연면적 / 10,153.34㎡

건폐율 / 11.28%

용적률 / 18.24%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 마감재 / 화강석

구조 설계 / 한국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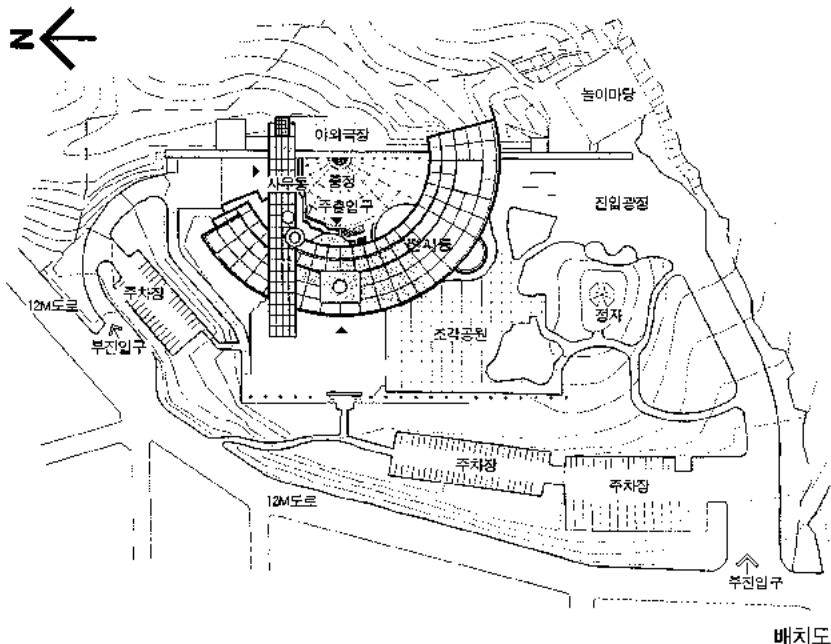
기계 설비 / 삼영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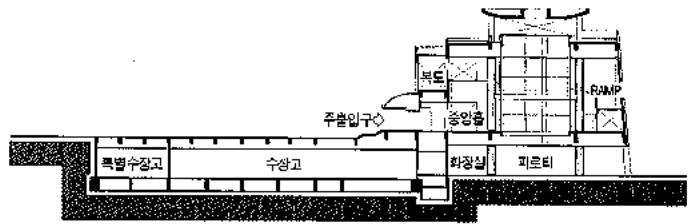
전기 설비 / 우림전기

조경 설계 / 한림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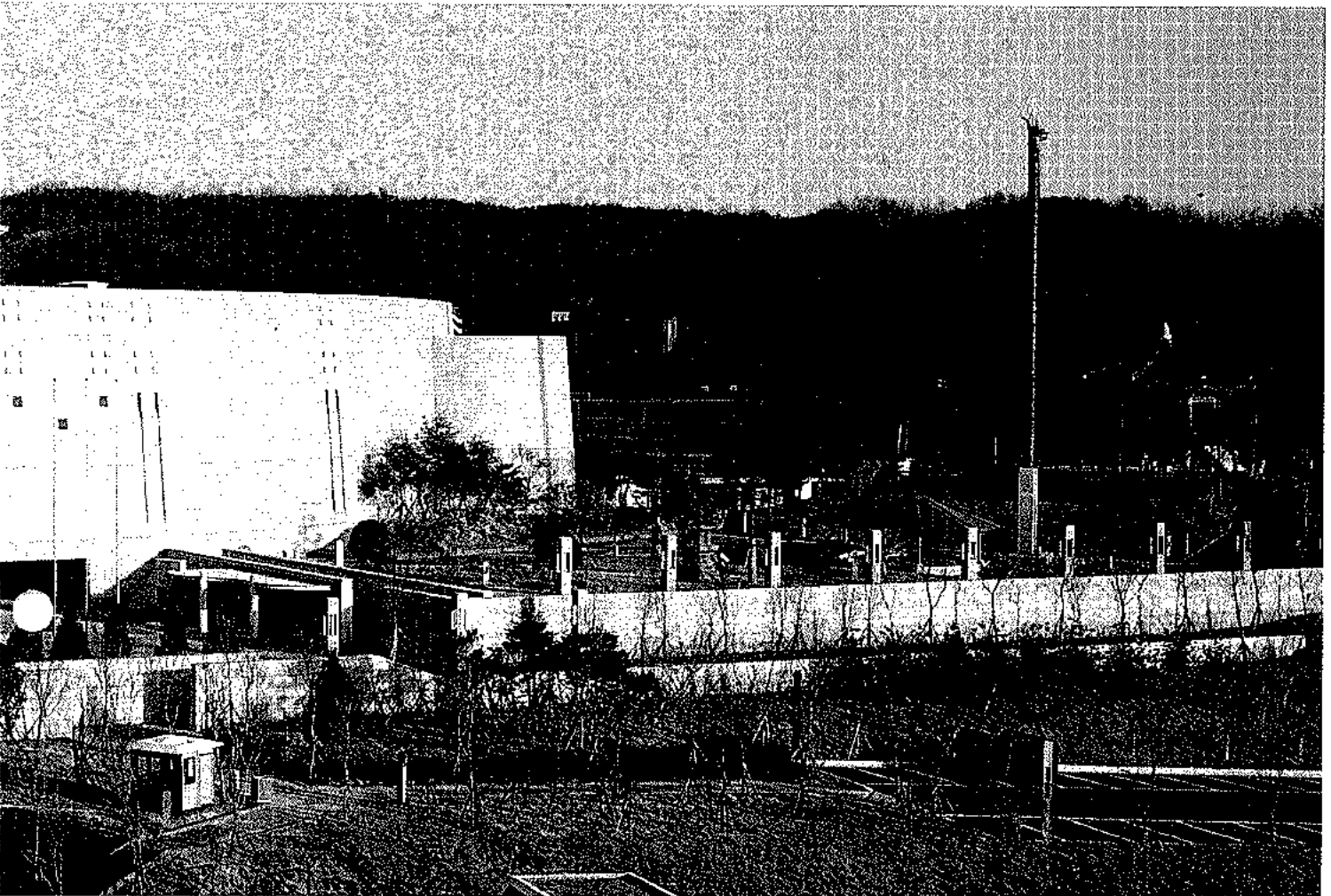
건축주 / 경기도청

공사기간 / 93년 2월~9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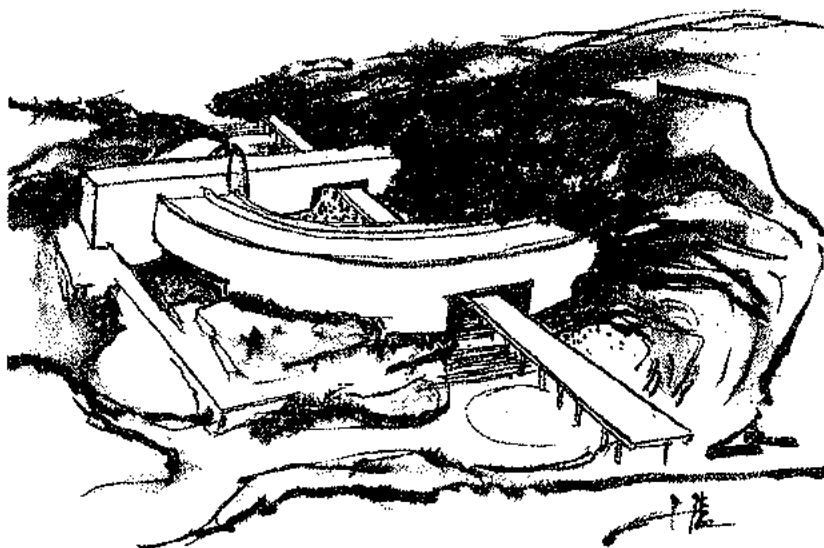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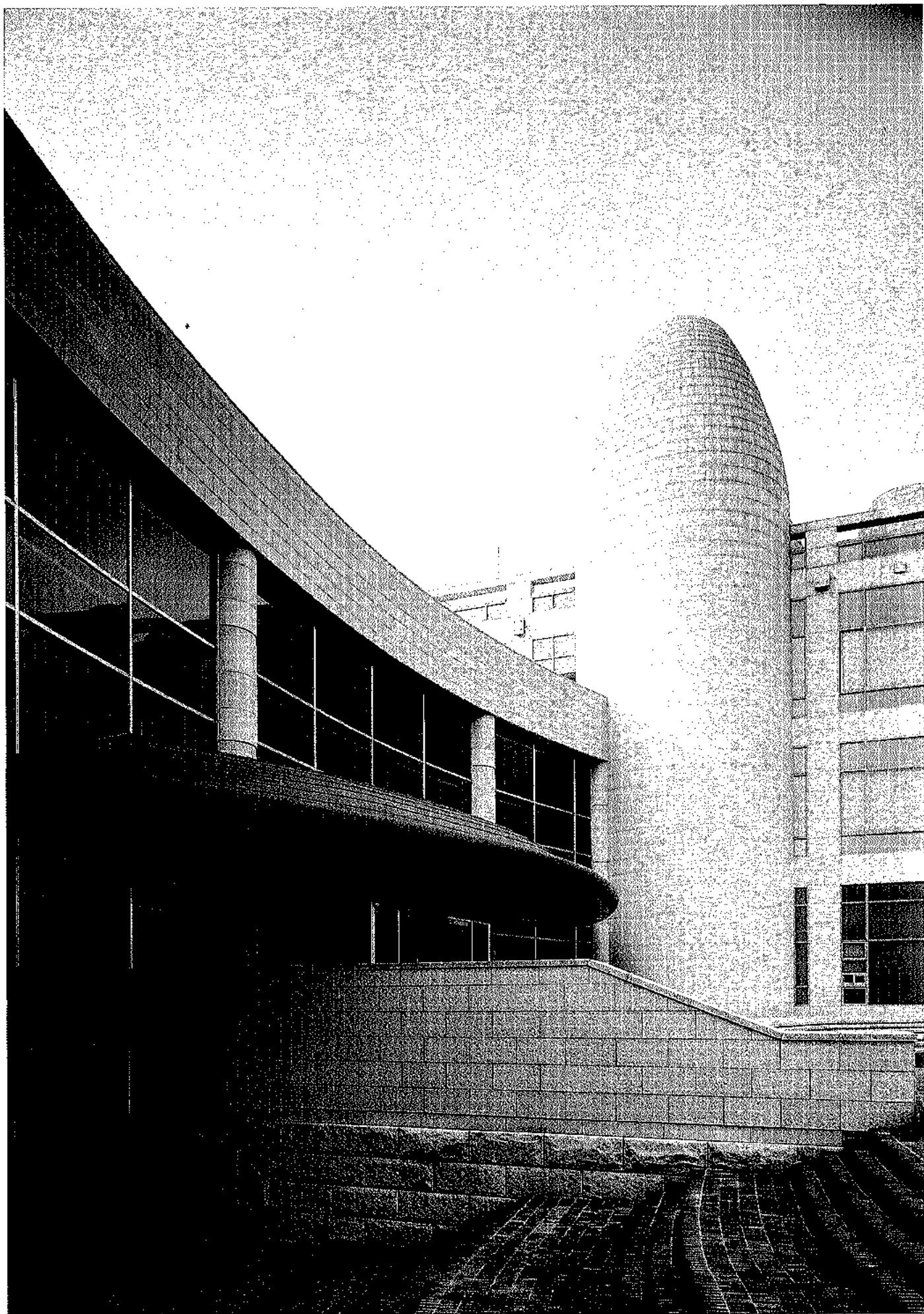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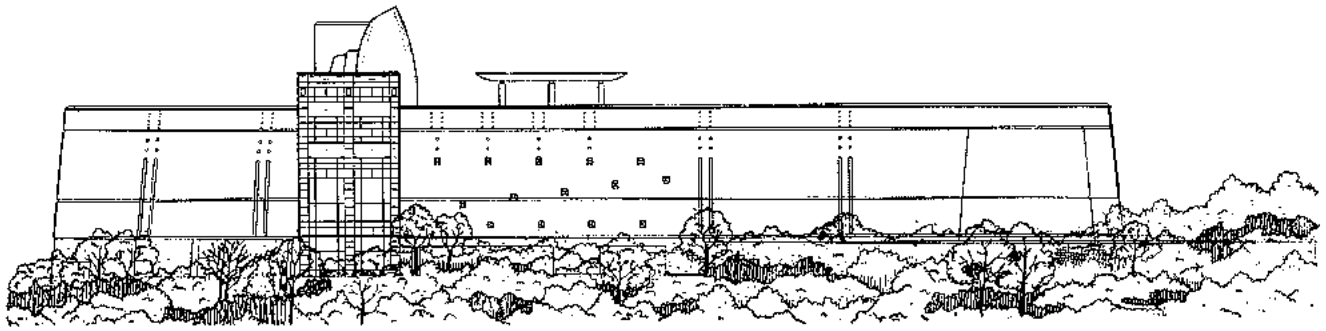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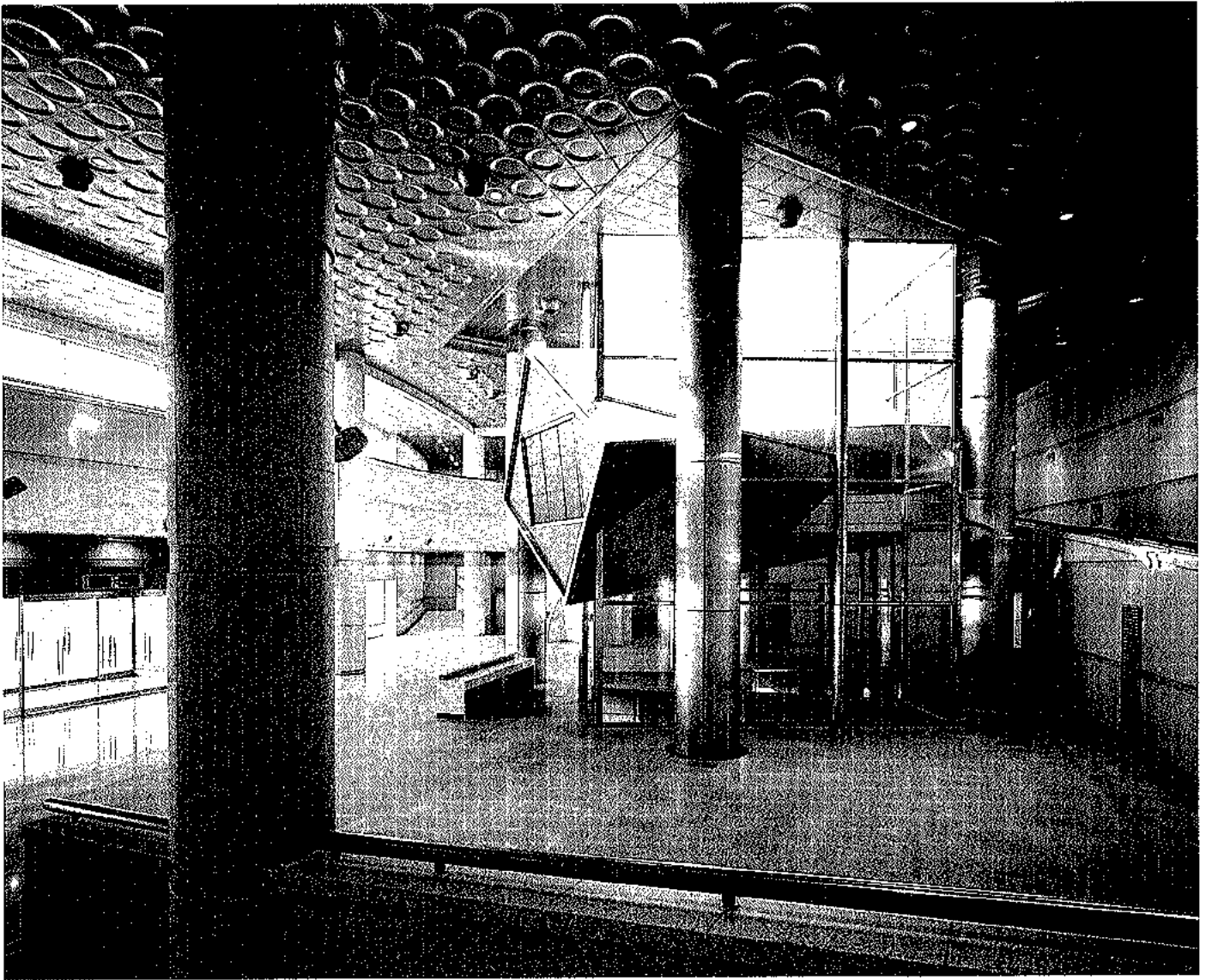
Location / 48, Sanggah-i, Kiheung-Eup, Yong-in-gun,
Kyeonggi-do
Site Area / 41,394.81㎡
Bldg. Area / 4,668.86㎡
Gross Floor Area / 10,153.34㎡
Bldg. Coverage Ratio / 11.28%
Gross Floor Ratio / 18.24%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Structural Design / Hanguk
Mechanical Services / Semyoung
Electric Installation / Woorim
Landscaping / Hallim
Client / The Administration Hall of the Kyeonggi Province
Construction Term / 93. 2~9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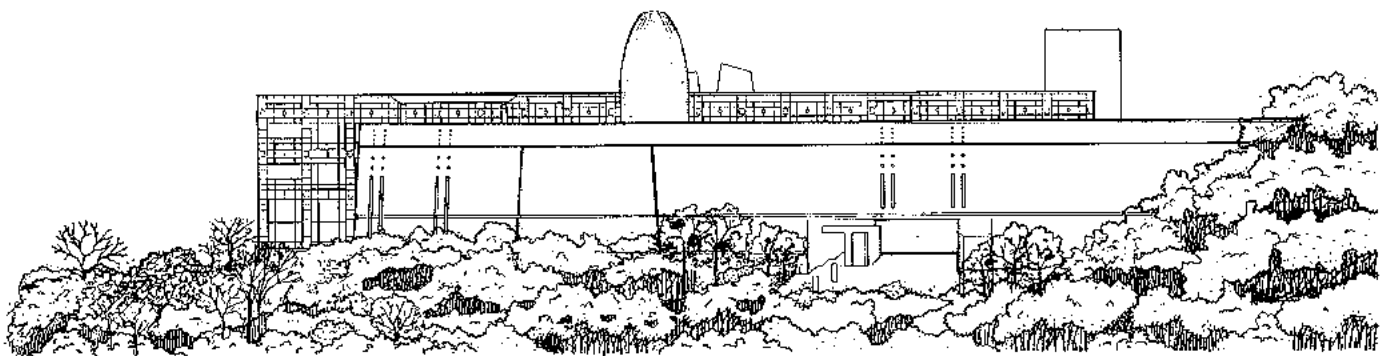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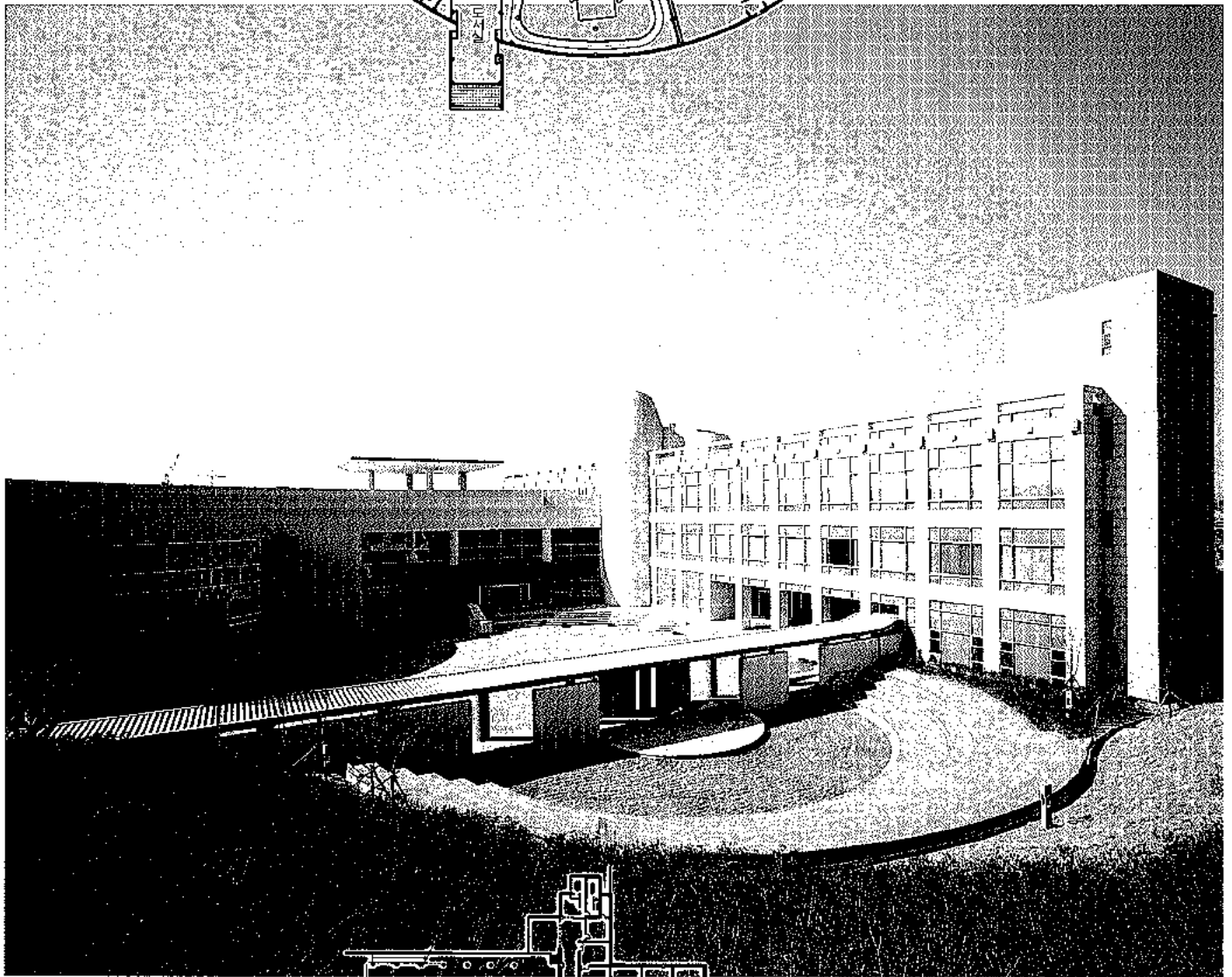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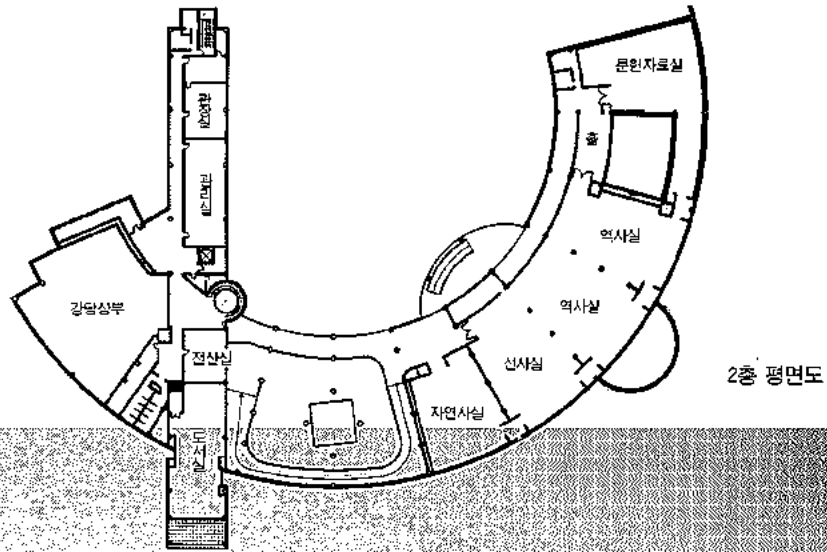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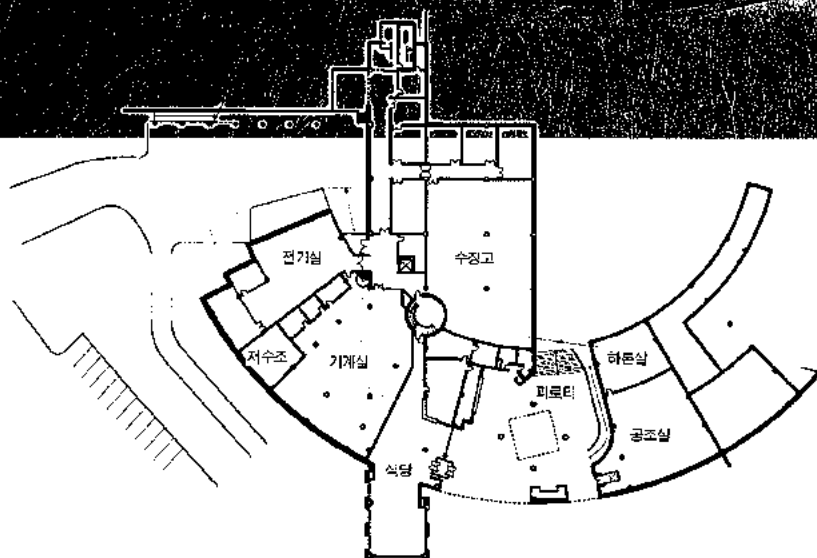
1층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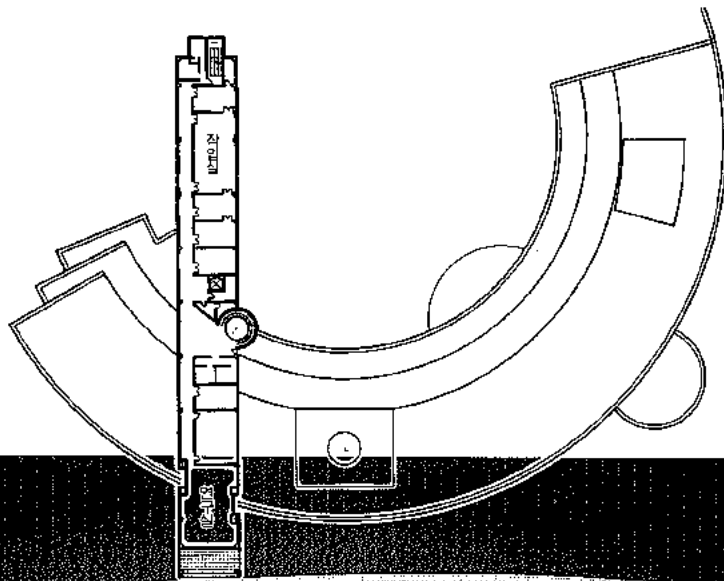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남동측 전경(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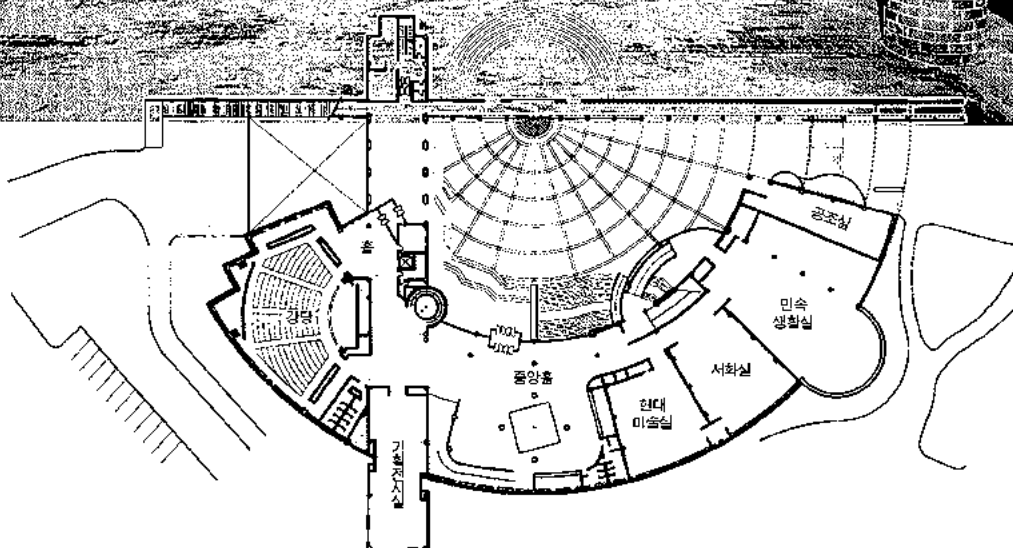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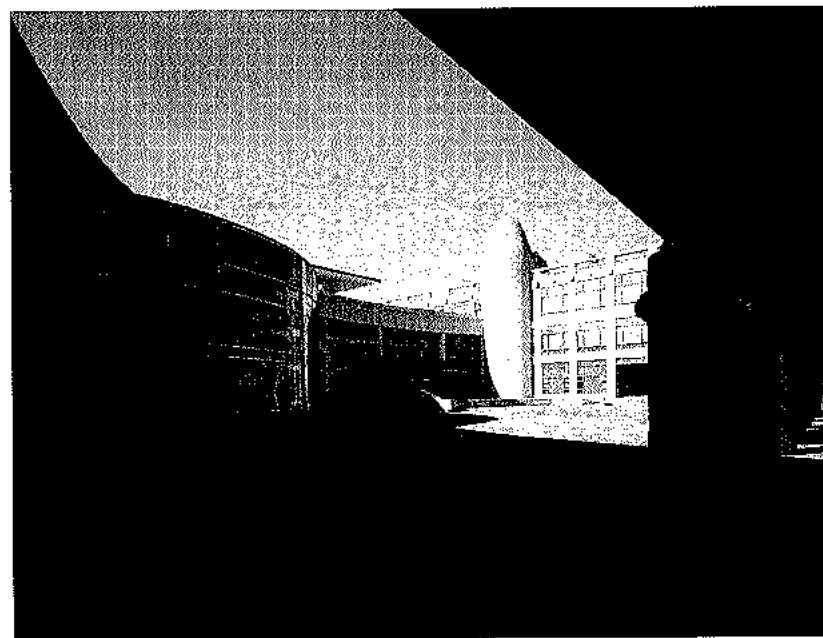
남측 진입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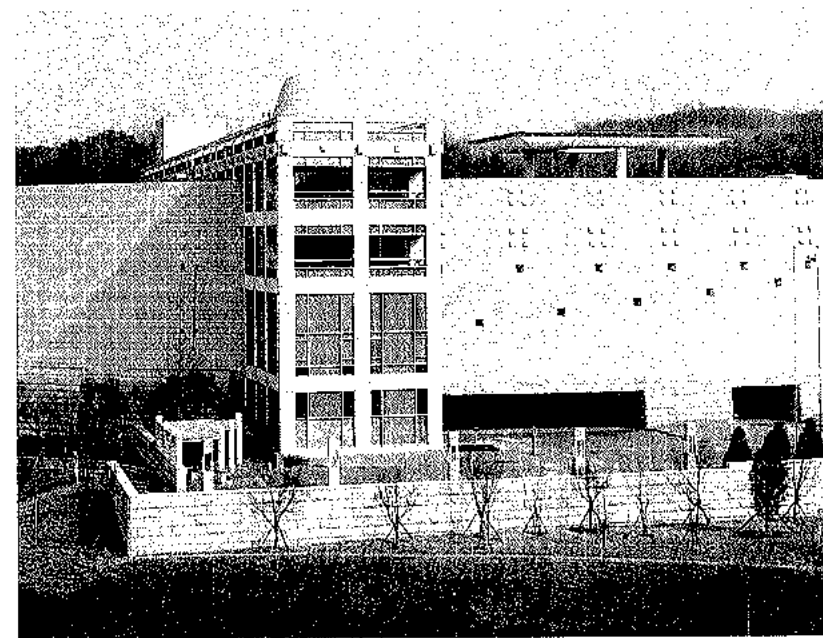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전입구에서 본 남서측 전경



진입광장쪽에서 본 중정



서측 사무동 전경

성격 / 역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 육성에 힘입어 지역 박물관의 새로운 설립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발의된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 박물관이다. 경기도립박물관의 계획은 경기지역 고유문화 유산의 재조명으로 미래를 향한 경기도민의 애향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내(道內)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기전(記傳)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그 설립목적(設立目的)을 두고 있다.

또한 도민의 문화적 긍지를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문화시설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고 하였다.

주변성

대지는 상갈공원 지역에 입지하는 12~20%내외의 완만한 경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북서측의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통과 도로가 인접한 대지조건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보아 여러각도에서 정면성을 부여해야 하는 조건과 더불어 소음에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지의 동측은 울창한 수목지대가 형성되어 자연적 입지 경계가 형성되고, 공원과의 연계를 요하고 있다. 대지의 서측은 주택군이고, 남쪽으로는 신갈고교와 루터신학교가 위치한다. 또한 수원성과 민속촌이 인접한 관광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배치 / 건축특성

계획은 주변 상갈공원과의 연계를 위해 놀이마당과 산책로를 형성하면서 주전입부에는 진입광장과 휴게공간을 겸한 야외 조각정원을 설정하여 전면부에 여유공간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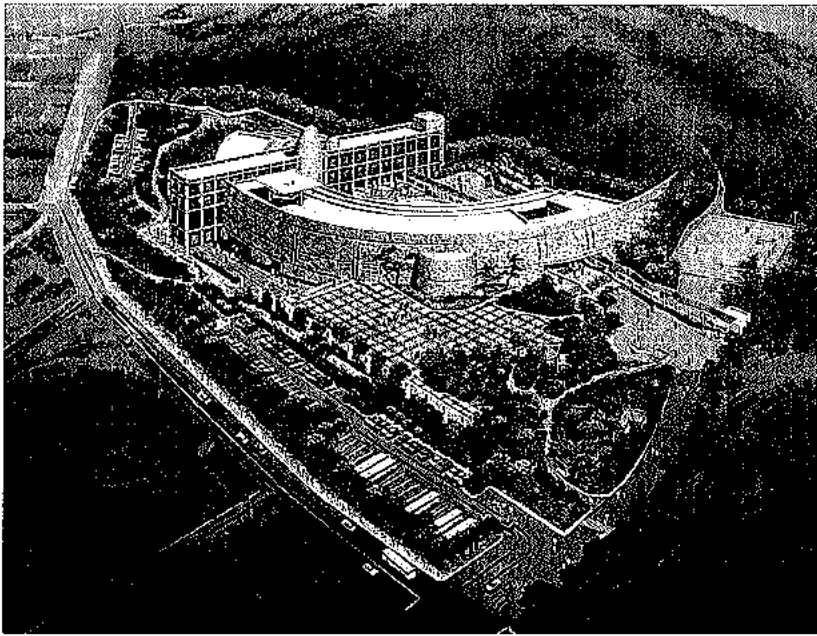
박물관에의 주출입은 진입광장을 지나 건물밀을 통과하며 만나게 되는 중정에 두었다. 이 중정은 주변도로의 소음에서 벗어난 완충공간으로서 역할이 되며, 전통사찰건축에서의 옥외 대공간처럼 건물로 둘러싸인 아늑한 중심광장이 된다.

건물의 배치는 경사지의 조건에서 기용면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전시동과 연구·사무관계동과는 기능별로 분리, 결합시킨 형식이다. 즉 전시동은 강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곡면의 볼륨을 취하고 거기에 연구·사무동을 남향을 고려한 직선의 볼륨을 관입한 형국을 이루었다. 따라서 내부에서는 원활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전체의 배치는 웅성(擁城)의 형식에서 유추된 듯한 구성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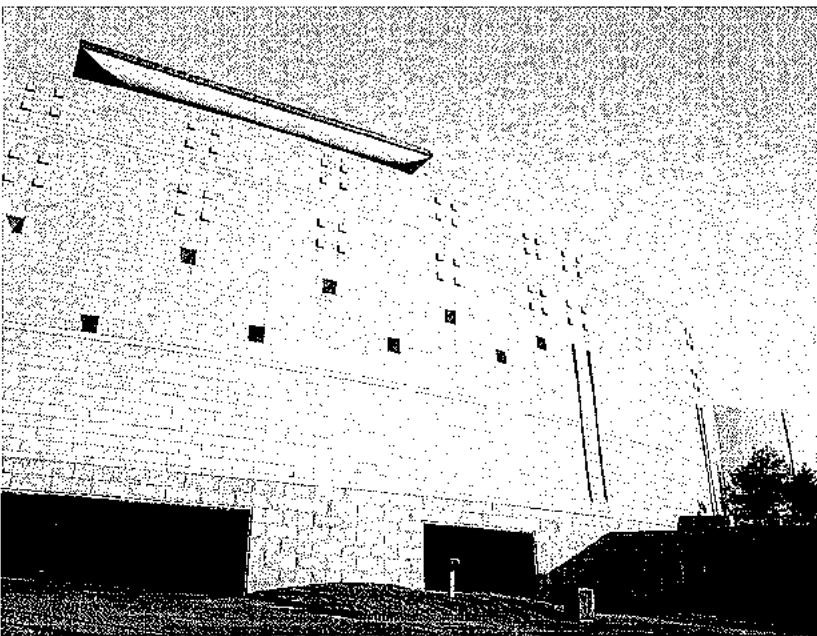
공간구성

이 박물관의 메이저 스페이스라 할 중앙홀은 중정과 더불어 중심적 테마가 되는 공간으로 상하층이 개방된 주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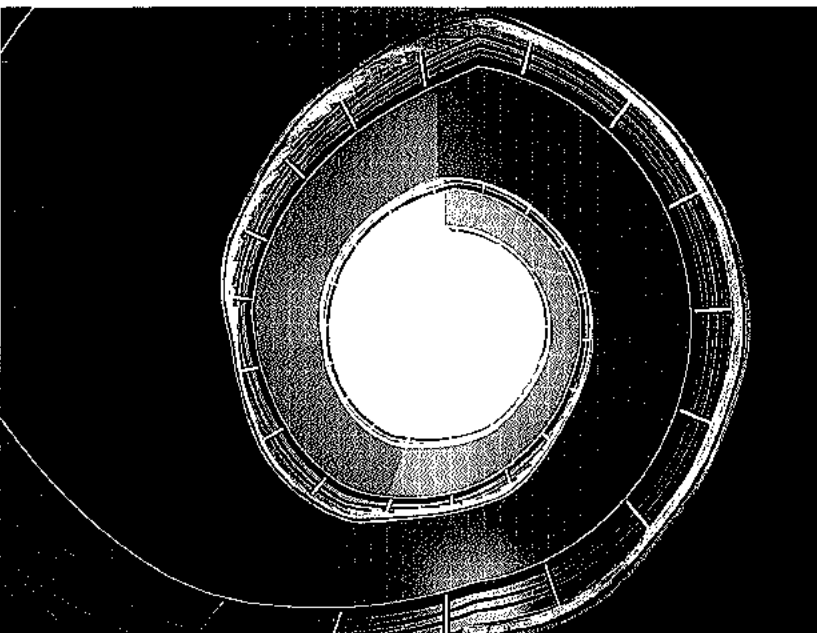
이를 통해 전체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바 이미 국립전주박물관(공간건축, 1984)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2층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다이내미즘을 느끼게 한다.



조감도



서측 응성 상세



올려다 본 원형계단(사무동과 전시동의 결합부분)

입구 중앙홀에서 전시공간과 교육, 연구, 관리부문이 구분된다.

진입부 전면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폐쇄적인 내부기능을 보조하며, 대공간으로 형성되는 중심부는 상하층을 개방하는 램프를 두어 상하층을 연속시킨다. 강당과 기획전시실은 1층 우측에 배치하고, 관리관계실을 상층에 배치시켰다.

전시실의 평면형식은 깃북도에 의해서 드나드는 형식으로 각실이 독립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폐쇄 가능토록 하였다.

전시관람의 시발은 2층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일정 경로에 의해 순환되어 1층에 도달하는 동선 유도체계이다. 이 방법 또한 국립진주박물관이나 국립청주박물관(공간건축, 1987)의 하향적으로 유도시킨 관람형식과 유사하다.

옥외 전시 공간으로는 진입광장 좌측의 휴식광장과 중정을 이용했으며, 노천극장을 중정의 경사지를 이용하였다. 놀이마당은 공원과 연계해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배치시켰다.

식당과 매점을 지하층 전망이 좋은 곳에 옥외 데크와 함께 계획되었다.

전시 / 상세

시대별, 주제별로 연속성 있는 종합전시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전시체계상 개별전시실의 구획성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건축적 공간의 의지대로 보다 적극적인 개방전시형식으로 노출될 여지를 보인다. 중심공간에는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거대한 상징조형물이 자연채광 유입과 함께 인상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공간의 구성은 1층 - 민속생활실, 서화실, 2층 - 자연사실, 고고미술실 등이 주체적인 전시내용이 되며, 현대미술을 위한 1개실이 할애되고 있다.

야외전시

야외전시는 진입광장으로 이르는 주진입로 옆에 위치하여 관람자가 옥내전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정신문화·생활문화와 관련된 전시물을 산책로 변에 배치하였고 산책로를 따라가면 야외조각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조형성

경사지를 이용하여 자연에서 솟아난 듯한 조형형식을 취하고, 상징성을 위하여 외형적으로는 수원성(水原城)이 모티브가 된 듯한 역사적 연상의 의도가 강하다.

전시동의 외벽면을 경사지위 안정감을 도모하고, 외부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조형은 한국적 외부공간의 체험을 느끼게 할 것이다.

김인철 / 건축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l



전경

위치 / 마산시 합포구 장군동 2가 1-29, 30, 31, 57, 58

지역 / 일반주거지역

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 / 567.6㎡

건축면적 / 210.15㎡

연면적 / 430.11㎡

건폐율 / 37.02%

용적률 / 75.78%

조경면적 / 1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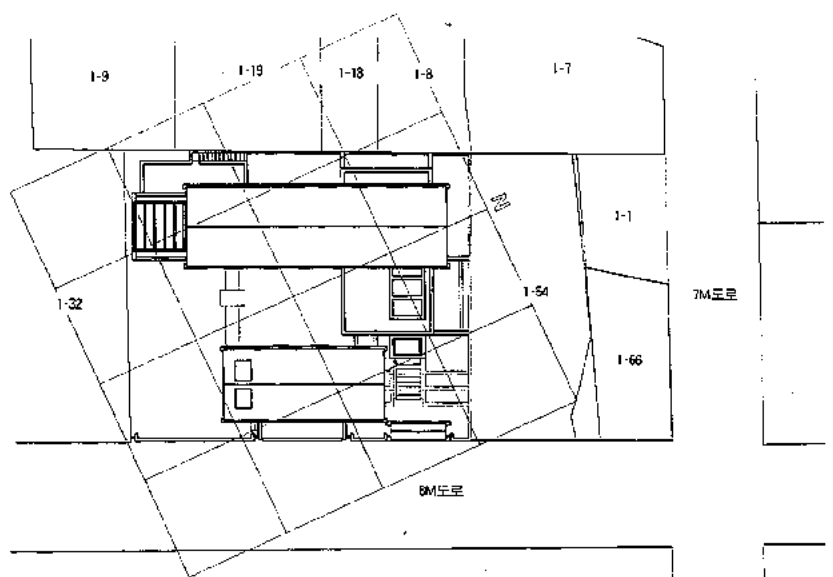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외벽 - 화강석, 드라이비트

지붕 - 경사슬라브위 천연 스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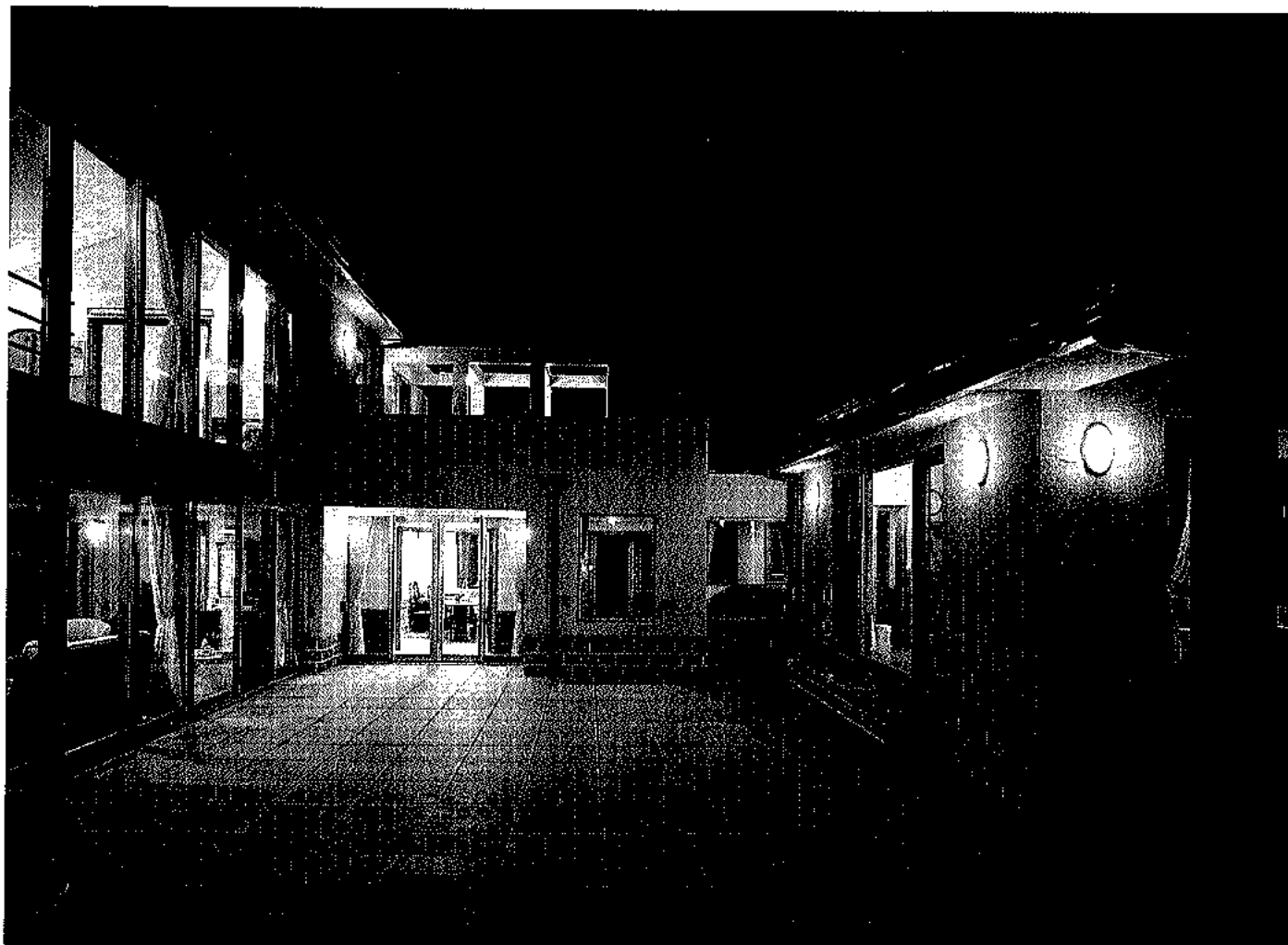
유리 -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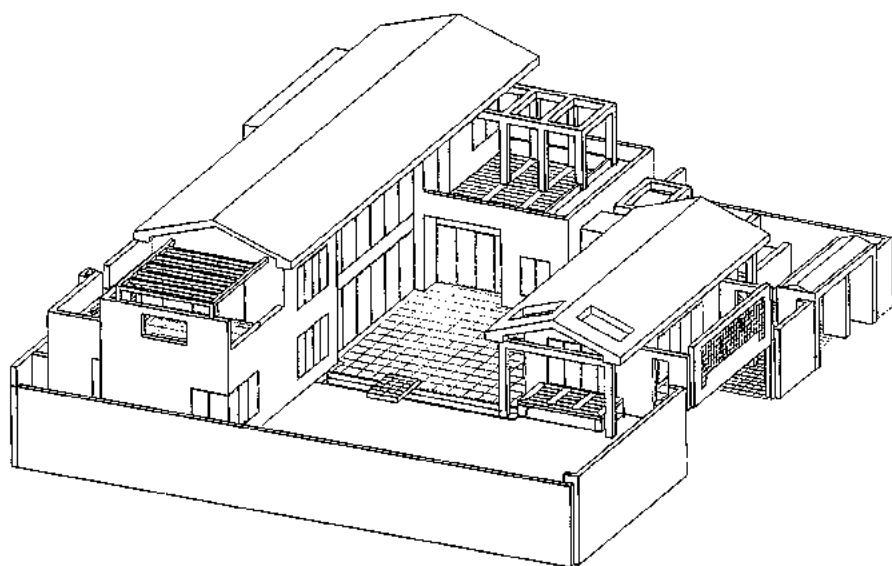
배치도



배면도



거실과 높이를 맞춘 마당



Location / 2-ga, Changgun-dong, Hapoo-gu, Masan-shi,
Kyeongsangnam-do

District / Houses

Use / Dwelling House

Site Area / 567.6m²

Bldg. Area / 210.15m²

Gross Floor Area / 430.11m²

Bldg. Coverage Ratio / 37.02%

Gross Floor Ratio / 75.78%

Landscaping Area / 131.47m²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Wall - Granite, Dryvit

Roof - Slate

Grazing - Double



안마당과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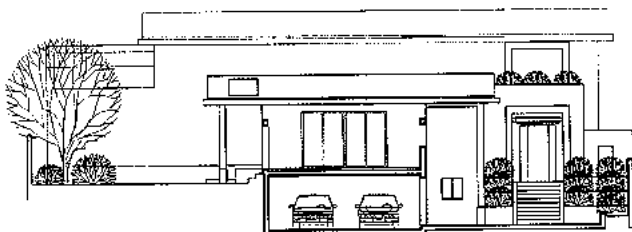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는 회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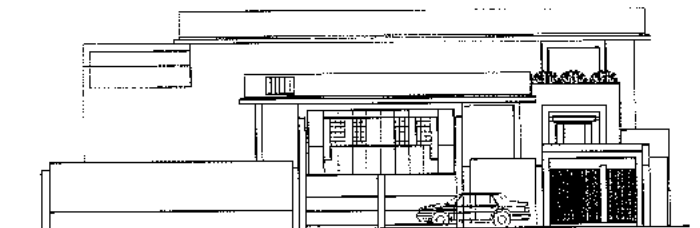
안채와 사랑채의 뒷마루



사랑채에서 바라본 안마당과 안채



정면도-1



정면도-2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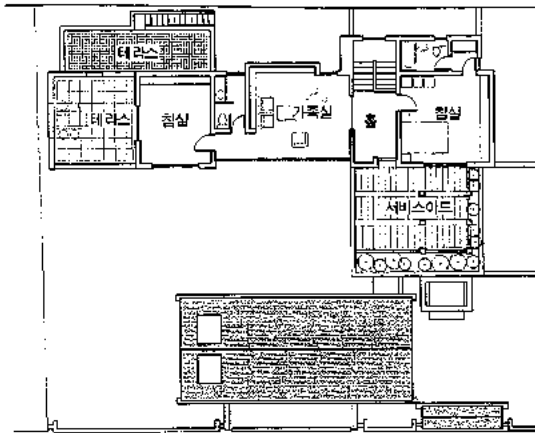
미산의 한 건축사로부터 며칠 내로 주택설계를 의뢰하는 연락이 있을터이니 잘 부탁한다는 전갈을 받는다. 뜻밖의 전화에 당황하여 자초지종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런가보다 한다. 일주일 뒤 미산의 M식품으로부터 한 번 만났으면 한다는 부탁이 온다. 현장확인까지 해낼 작정으로 마산에서의 선보기를 제안한다. 김포와 김해를 거쳐 마산에 이르기까지 네시간여가 걸린다. 부산을 자주 왕래하고 있고 이웃한 진해에서 어린시절을 보냈으므로 낯선곳은 아니지만 세월의 간격을 실감하게 하는 풍경에 눈길이 간다. 역앞을

지나며 얼핏 마산성당의 자락이 보인다. 다음에 오게 되면 들러 보리라 마음먹는다. 새로 지어진 시청을 처음 본다. 언젠가의 을씨년스러웠던 거울이 떠오른다. 화물로 부쳐진 설계경기 패널을 찾아 마감시간에 맞추느라 애태웠던 씁쓸한 기억이다. 늦은 시간의 식당에서 첫인사를 나눈다. 전화한 이치규소장과 안주인을 마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부터 묻는다. 건축주의는 친구인 이소장이 설계자로 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인사말처럼 간단히 한다. 86년의 논현동에 만든 삼현제가 힌트인 것 같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자신의 것일 수도 있는 일을 넘기려는 이소장의 속마음이 못내 궁금하다. 단순히 지역의 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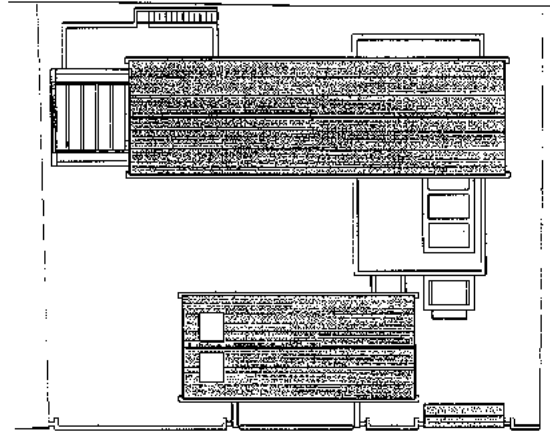
로만 설명되기에는 석연치 않다. 친구의 집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직업론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반신반의한다.

안주인의 온화한 느낌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암시를 주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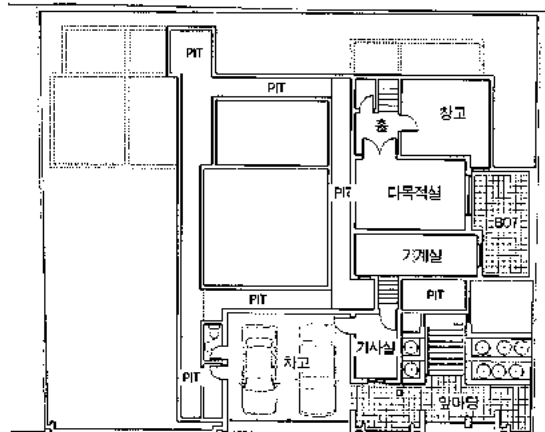
지금의 집과 현장을 본 뒤 안을 만들고 그것에 합의한다면 계약을 하지는 통상적인 제안에 이소장이 흥분한다. 이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송금된 뒤에 일을 시작하여야 미땅하다는 것이다. 말쑥만으로도 고마우나 서로 준비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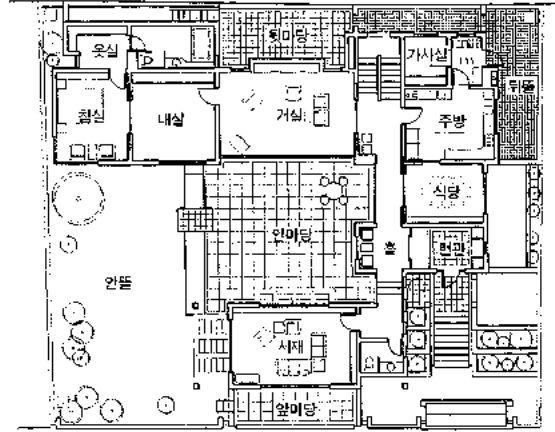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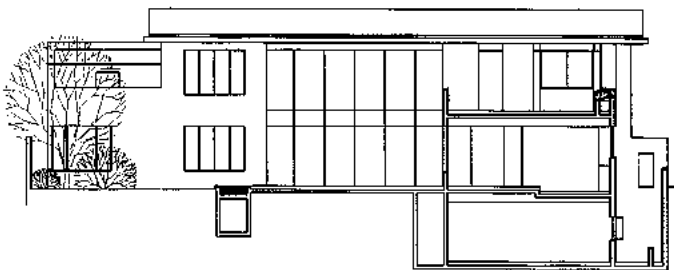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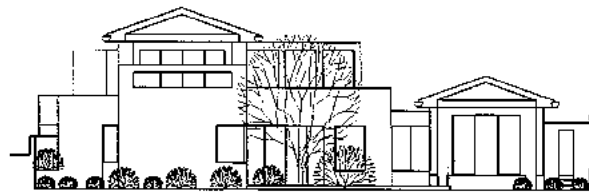
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3



좌측입면도

어 있지 않으니 다음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양해를 받는다. 이소장과는 따로 시간을 갖기로 작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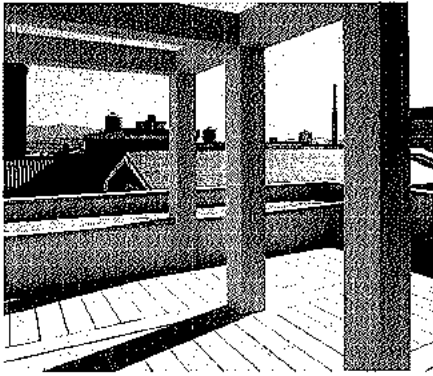
현장

마산은 구마산과 신마산으로 구분되어 불린다. 마산엘 오면 항상 헛갈리는 것이 신·구의 구분이다. 신쪽이 옛스럽고 구쪽이 새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에든버러의 뉴타운이 18세기에 만들어진 것처럼 신마산은 식민지시기에 만들어진 도시지역이어서 지금의 눈으로 보면 당시에는 낙후지역이었던 구마산쪽이 나중에 개발되었으

므로 새로운 도시처럼 보인다. 신마산쪽에는 일제의 계획도시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과거의 주거지역 모습이 새롭게 바뀌고 있으나 식민관리들의 사택과 관사 등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건축주가 마련한 대지에는 옛 철도관사였던 목조의 단층주택이 길게 늘어서 있다. 네채의 가구가 연속되어 있는 중에서 세채분이 확보되어 있다. 해안에서부터 완만하게 이루어진 경사지형으로 인해 도로와는 얇은 축대로 연결된 일본식 건물들은 이미 비어있어서 앞마당과 뒷마당을 구분하는 건축의 형태만 남아 있다. 세필지를 합하면 정방형에 가까운 모양이 될 듯한 대지는 상대적으로 주변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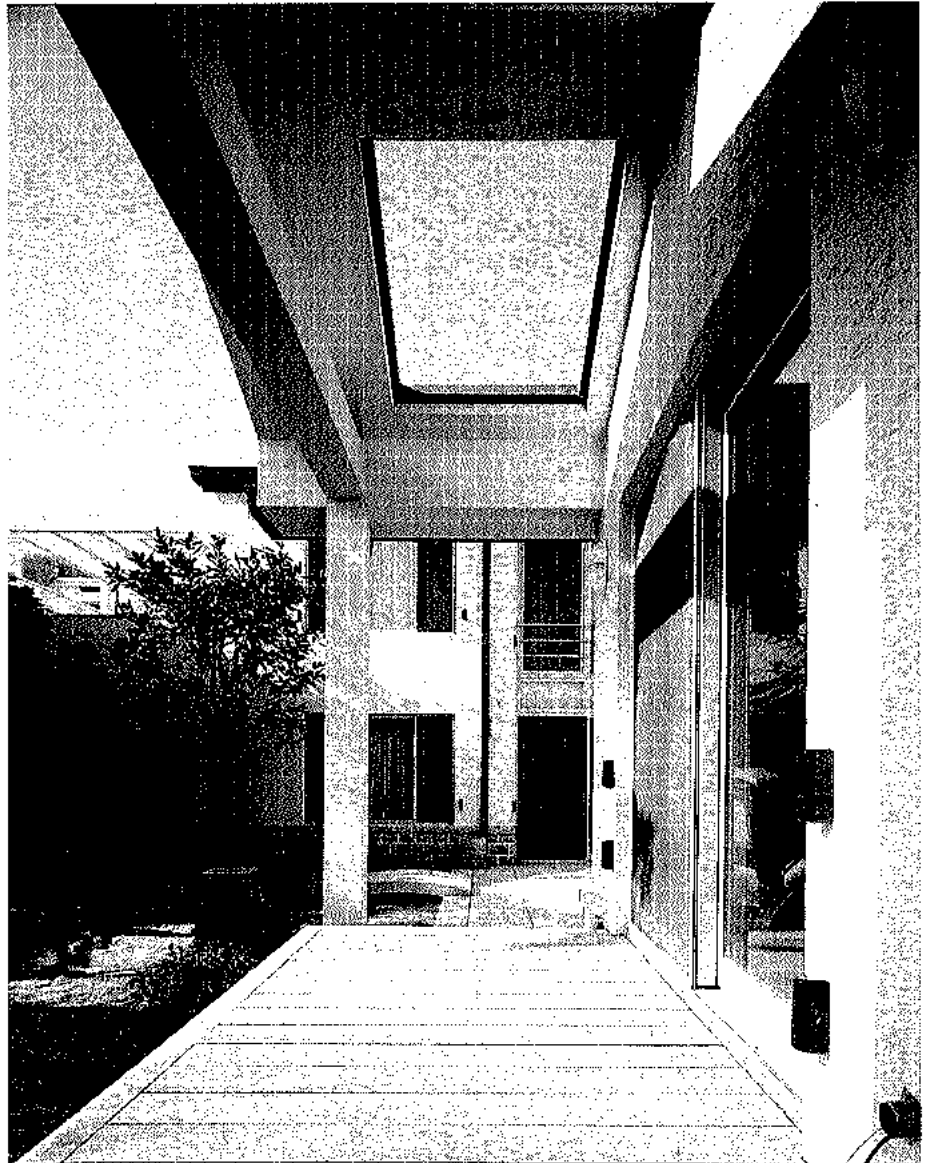
들보다 크게되어 서민적인 주위환경과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웃의 공사중인 건물에 올라 보아도 지척에 있는 바다의 존재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높게 서서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와 해안 근처의 구조물들로 인해 바다는 한 조각씩의 푸른색으로 뿔뿔이 나뉘어 있다. 석탄으로 물을 데웠던 흔적인 목욕탕의 높은 굴뚝들이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요소가 되어 기묘한 장영을 만든다. 지방도시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곳 역시 도시의 색깔은 수성페인트의 파스텔톤과 벽돌의 붉은색으로 결정되어 있다. 미색, 옥색, 회색 등의 중성적인 색들은 이미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봄철의 개나리



2층 서비스아드



사랑채의 안마당



사랑채의 뒷마루에서 본 안채

꽃과 진달래꽃이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조화처럼 우리에게 일상적인 감각으로 존재한다.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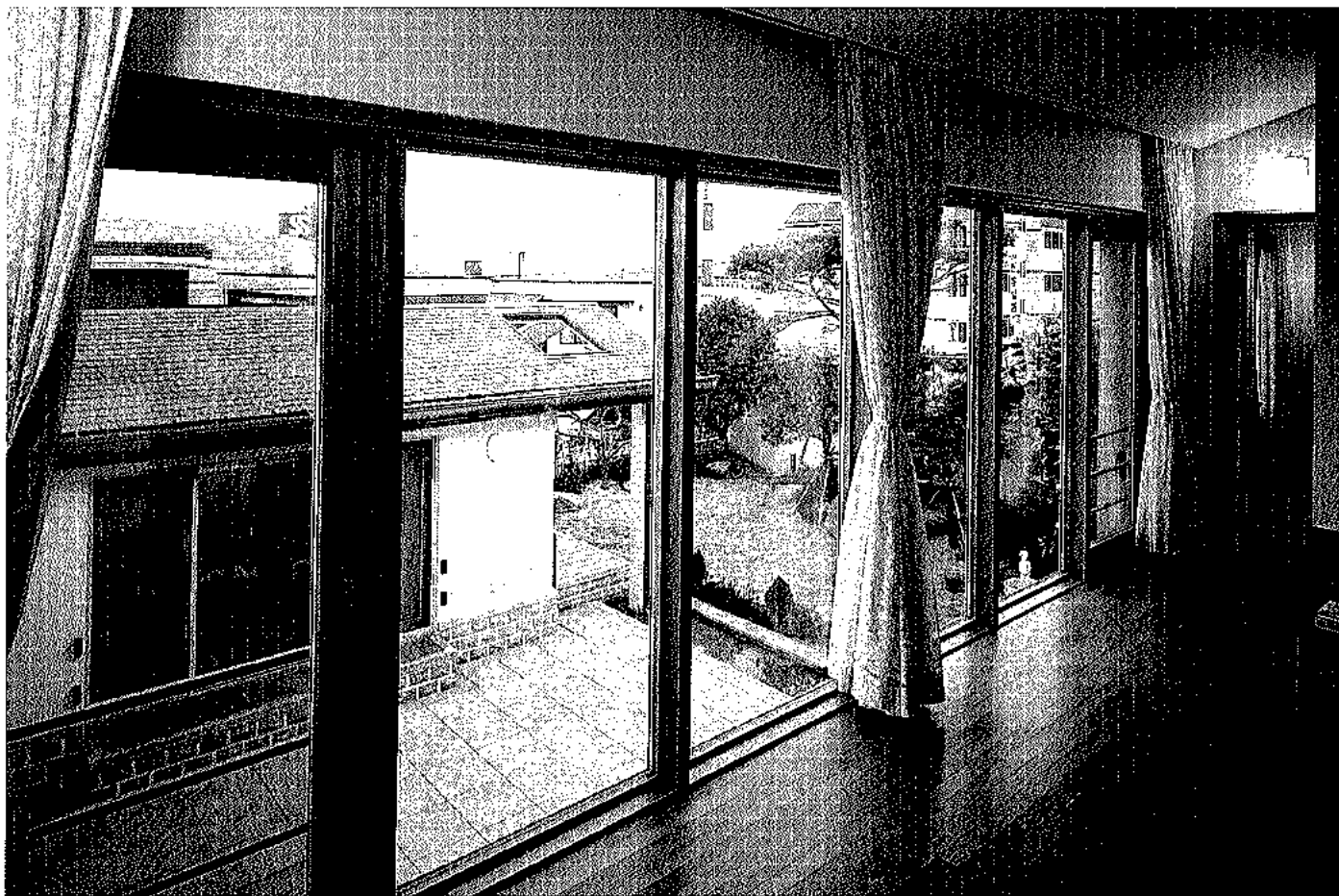
돌아오는 길에 대강의 윤곽을 만든다. 현장에서의 느낌과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관념들을 서로 연관시켜 몇가지의 원칙을 상상한다. 원래 있었던 집처럼 새집도 길과 나란한 모양이 된다. 길과 이웃에 대하여 겸손한 모양을 갖는다. 결코 과장된 모습을 만들지 않는다. 이미 채워져 있는 주변을 인정하고 가능한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어렵쫄한 윤곽이 그려진다. 컴퓨터에 떠오른 지적도에 생각들을 정리한다. 바깥채와 안채를 만들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가운데 놓이게 될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로 여러 가지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회랑의 형식을 갖는 투명한 구조를 대입한다. 도면과 모형이 만들어진 뒤 마산으로 향한다. 이소장의 입회 아래 건축주와 의견을 나

눈다. 개념에는 모두 동의한다. 다만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에 주부의 동선이 자리하기를 바란다. 회랑이 두꺼워지게 되지만 받아 드리기로 한다. 이소장의 도움으로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 설계와 감리를 계약한다. 두 번째의 모형으로 모든 것이 확정된다. 집의 외부는 드라이버트를 고집한다. 완벽한 단열에 대한 기대보다 색깔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이다. 역시 이소장의 도움이 크다. 이후의 진행은 FAX로 이루어진다. 마산의 한일건축과 인제건축사이에 글과 그림이 오가며 설계가 만들어진다. 설계자의 의도와 건축주의 요구가 중계되는 과정에서 이소장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건축주의 성격과 습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 FAX를 지금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소중히 보관한다는 것이 어디 두었는지 모르게 되어 공개할 수가 없다. 고마운 마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양주를 한 병 보낸다. 좋은 설계로 보답하겠다는 명분보다 술을 즐기는 이소장에게 겨우 생색을 내었지만 나중에 안 것은 소주이어야 즐거운 취미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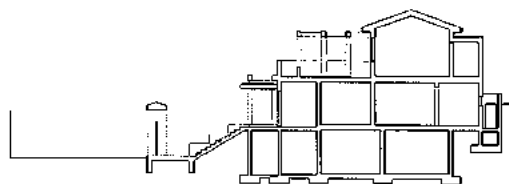
무안해진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허가수속까지 새건축운동의 정신에 맞추어 무사히 끝난다.

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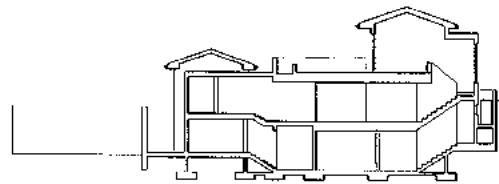
마산의 목수에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은 더 이상 아랫사람들을 거느리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의 한숨으로 사라진다. 시공자의 물색까지 떠맡아 결국 확인건설이 내려가게 된다. 설계와 시공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 만큼이나 부담이 커진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현장으로의 발걸음이 잦아진다. 건축의 형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꼬박 하루가 소요되는 나들이지만 지속적인 감리는 한계가 있다. 과정에 대한 검토없이 되어진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일이란 서로 피곤한 일이다. 기능공과 자재의 현장연결도 매끄럽지 못하다. 확인건설의 정사장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손발에 답답해한다. 이곳 저곳에서 미처 검증되지 못한 어설피미 보인



2층 가족실에서 본 안마당과 사랑채



주단면도 1



주단면도 2

다. 거실과 같은 높이로 맞춘 마당이 완성된다. 외부이지만 내부로 변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사랑채의 툇마루가 늘어난다. 부분적으로 시도한 노출콘크리트가 부분적인 소홀함이 흠이 되어 철로 마감된다. 화강석과 드라이비트의 조합은 기대보다 낫아 보이지만 미처 도면화시키지 못한 흠통의 형태가 거슬린다. 서재인 사랑채의 마당으로부터 거실의 뒷마당에 이르는 공간의 개방된 연속성을 좀더 강조하고 싶어진다. 외벽의 색깔, 벽지의 선택, 조명 등의 선정까지 가능한 한 욕심을 낸다.

그러나 가구와 실내용 소품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틈틈이 스케치한 슬라이드가 상당한 양이 된다. 시공과정의 기록이 아니라 설계의 검증을 위한 작업이다. 주인의 취향에 맞추어진 조경에 조금더 욕심을 내고 싶어진다. 시간을 두고 다듬어 질것으로 기대하기로 작정한다. 마무리를 채 끝내지 못하고 이사를 든다. 집사람들과 알하는 사람들로 번잡스럽다. 현장으로부터 빠져나와 멀리에서 집을 본다. 처음 이곳에

서 꾸렸던 상상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구체화된 상태가 어떤 고리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대상의 객관화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일년을 넘어 걸린 시간이 타성의 관점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

종결

건축주에게 넘겨줄 준공도면들을 정리한다. 발표할 원고용 도면과 함께 만든다. 박영채와 사진의 앵글을 잡는다. 마침 앞집의 지붕에서 마땅한 그림이 만들어진다. 마당안의 그림자가 정리되기를 기다려 장면을 고정시킨다. 실내로부터 마당을 향한 앵글이 쉽지 않다. 24밀리 광각렌즈로도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설계의 잘못이다. 좋은 건축은 카메라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해 불안하다. 예정했던 느낌의 확인이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 버릇처럼 다음을 기약한다. 설계의 제목을 정하지 못한 것이 초조하다. 대개 설계를 시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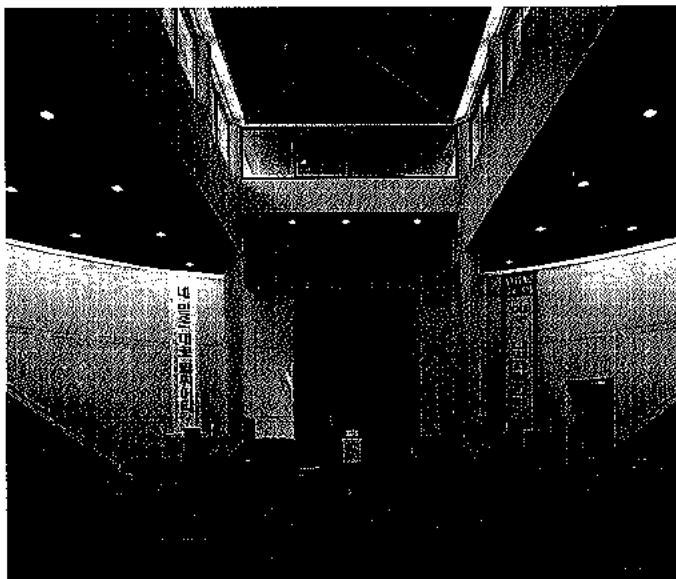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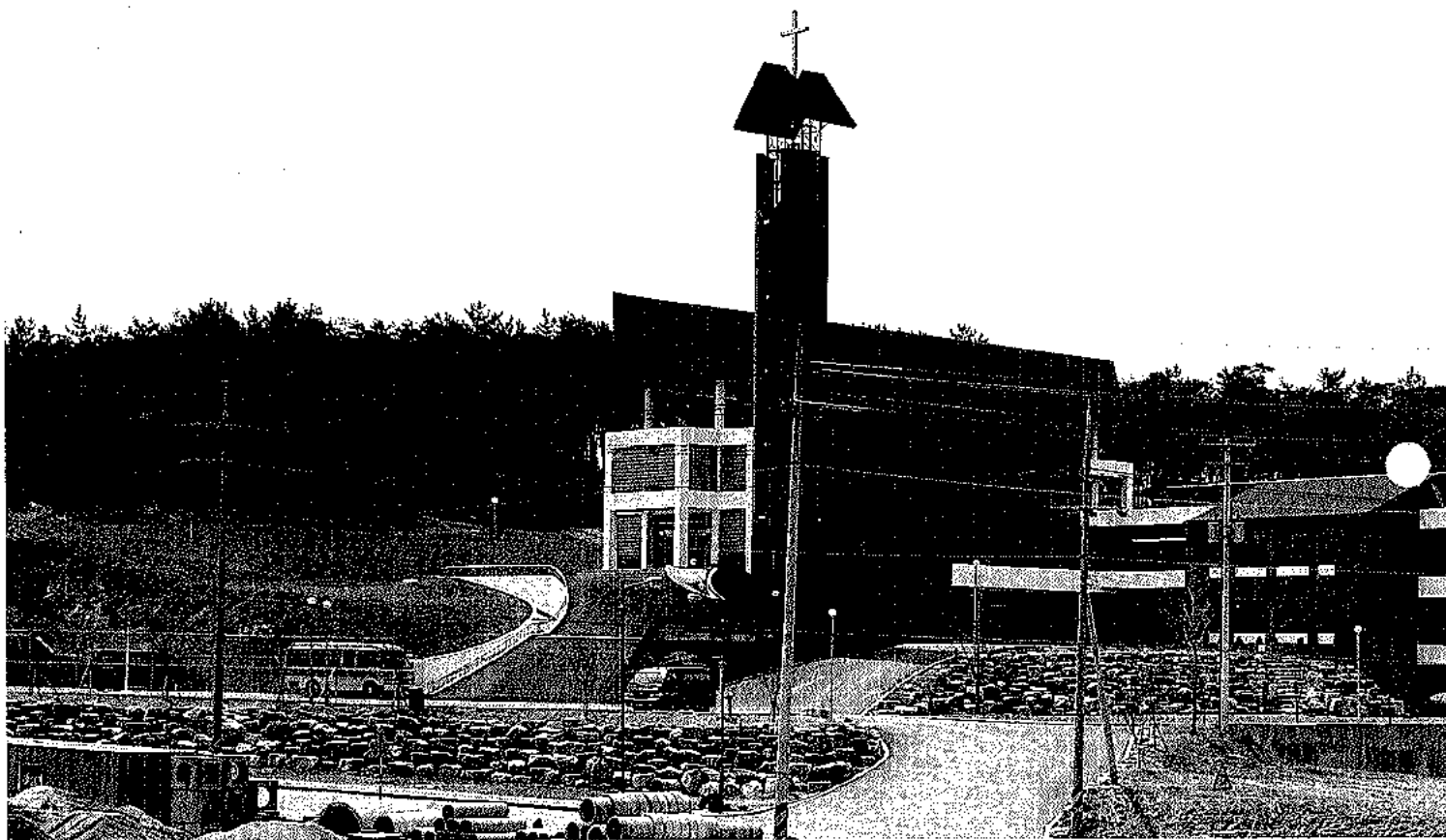
나 중간단계에서 이름이 정해지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건축이 완성되도록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나란히 배치된 두채의 집이거나 마당이 주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병치된 형태가 개념적으로는 앞선다. 마당을 사이로 나란한 것은 도로와 도시와 바다와 결국 나란하고 있다. 커를 이루며 중첩된 모습이 건축의 주변을 형성하는 형식이라면 건축자체의 중첩 또한 개념적인 요체가 된다. 커와 커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형식은 개체의 문제이지만 나아가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로 건축은 연속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마산성당에는 끝내 들러보지 못한다. 수십번을 지나치면서도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되고 만다. 어린시절의 소풍지였던 성주사와 언젠가는 봐두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조개무덤도 찾지 못한다. 신도시 창원과 이지역 건축가들의 작업을 살펴보려던 처음의 계획 역시 다음으로 밀리어 있다.

태안 소망교회

Somang Church in Ta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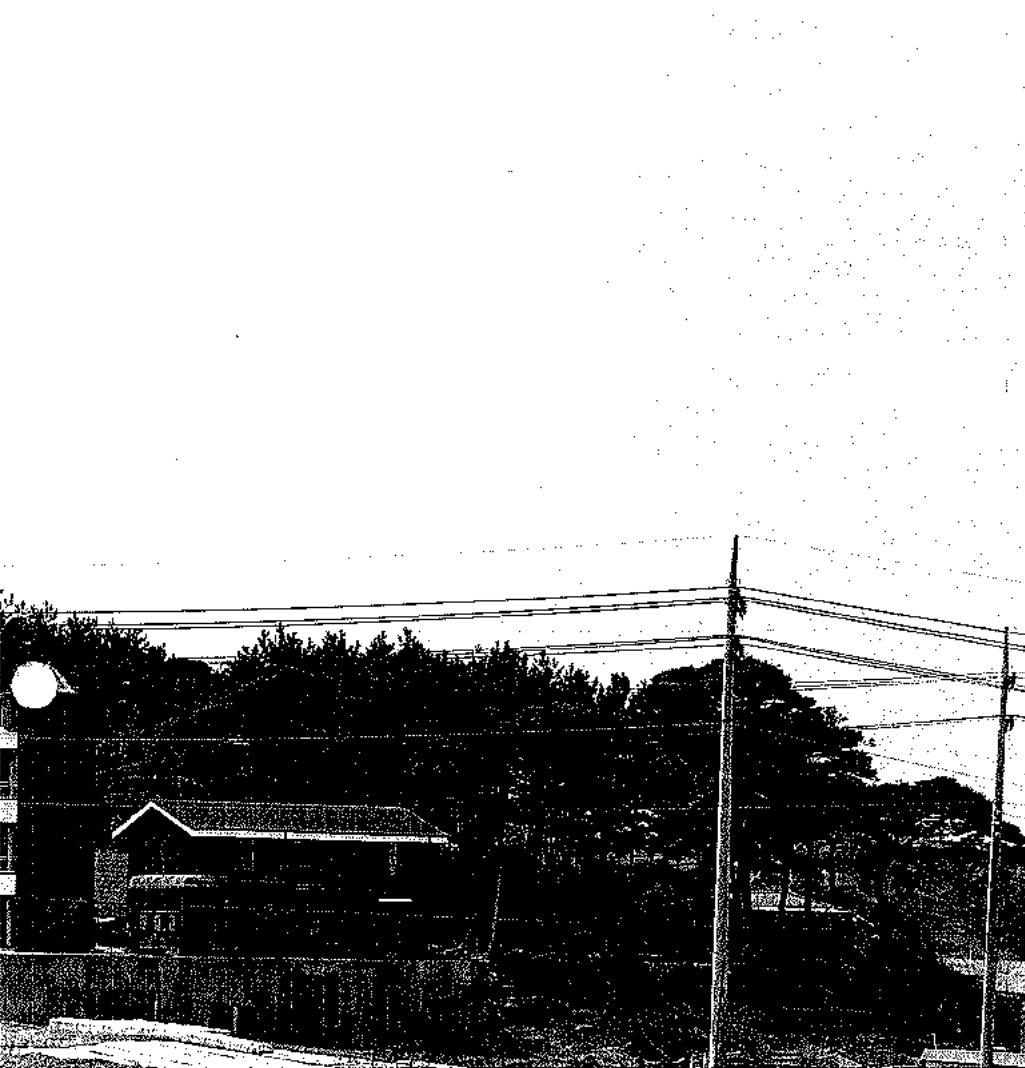
하학수 / 건축사사무소+정시춘 / 경희대 건축과 교수
Designed by Ha Hak-Soo & Cheong Shi-Choon



복합 내부



중2층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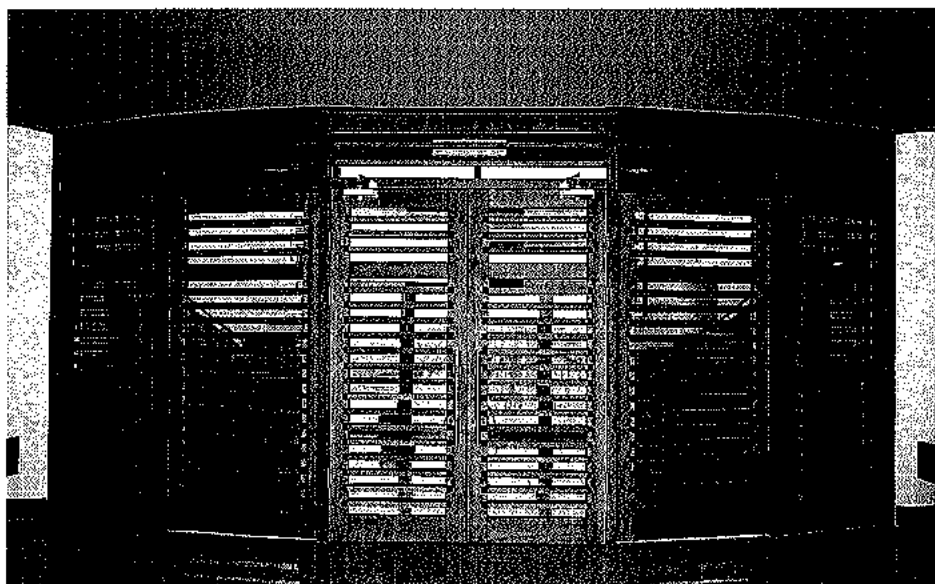


위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45외 4필지
 대지면적 / 4,696㎡
 건축면적 / 99.52㎡
 연면적 / 2,243.27㎡
 건폐율 / 19.58%
 용적률 / 42.86%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외부마감 / 붉은 벽돌 치장쌓기, 아스팔트 상글
 설계담당 / 심경주, 도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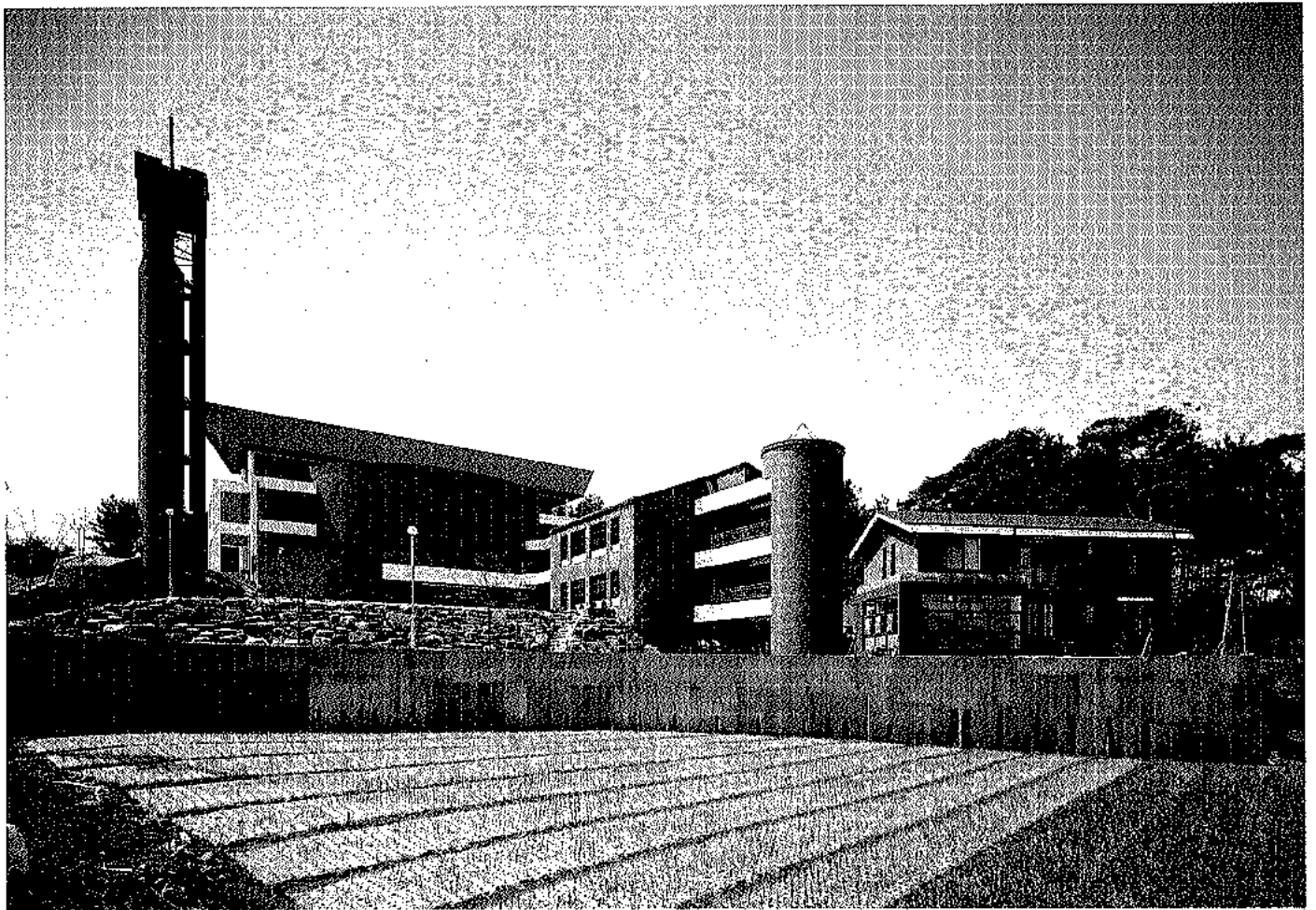
Location / 445, Nammun-ri, Taeon-up,
 Taeon-gun, Chungcheongnam-do
 Site Area / 4,696㎡
 Bldg. Area / 99.52㎡
 Gross Floor Area / 2,243.27㎡
 Bldg. Coverage Ratio / 19.58%
 Gross Floor Ratio / 42.86%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C. Rhamen
 Exterior Finish / Lay Red Bricks, Asphalt shingle
 Design / Shim Keyong-joo, Do Kyeong-Sun

충남 태안군 외곽에 위치한 이 교회는 서해안의 만리포와 서산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하며,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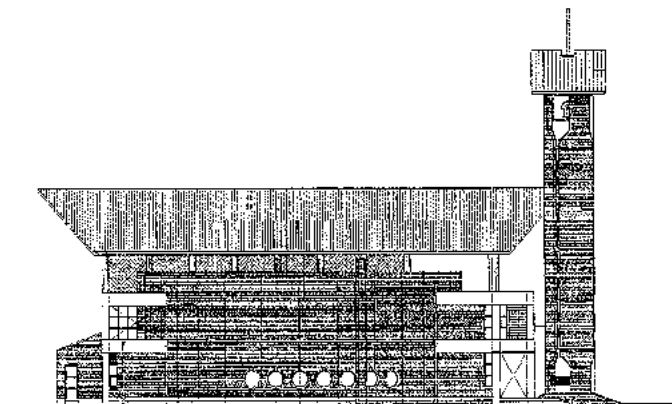
계획부지는 낮은 구릉지위에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경사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의 경관에 순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징성이 부여된 원형의 종탑을 주축으로 기본형태인 원형, 사각형, 삼각형의 매스를 조합하여 단순함과 조형미를 이루도록 하였다. 본당은 사각형에 원통형을 조합하여 부드럽고 은화하며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붕의 삼각형 매스는 축을 강하게 인지되도록 하였다. 교회의 주기능인 예배공간을 주축으로 사무공간과 교육공간, 생활공간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독립된 각각의 매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건물군으로 형성하였다. 또한 앞마당과 종탑을 중심으로 교회 신도들과 주민들의 만남의 장, 휴식의 장, 나눔의 장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전원적 종교건축으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곳으로 남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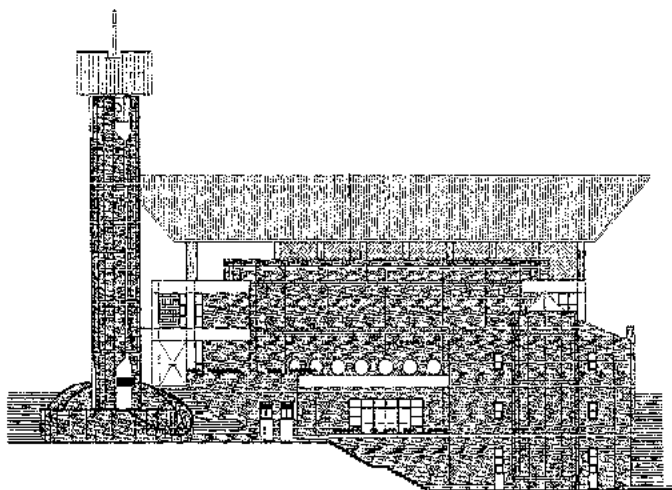
본당 출입문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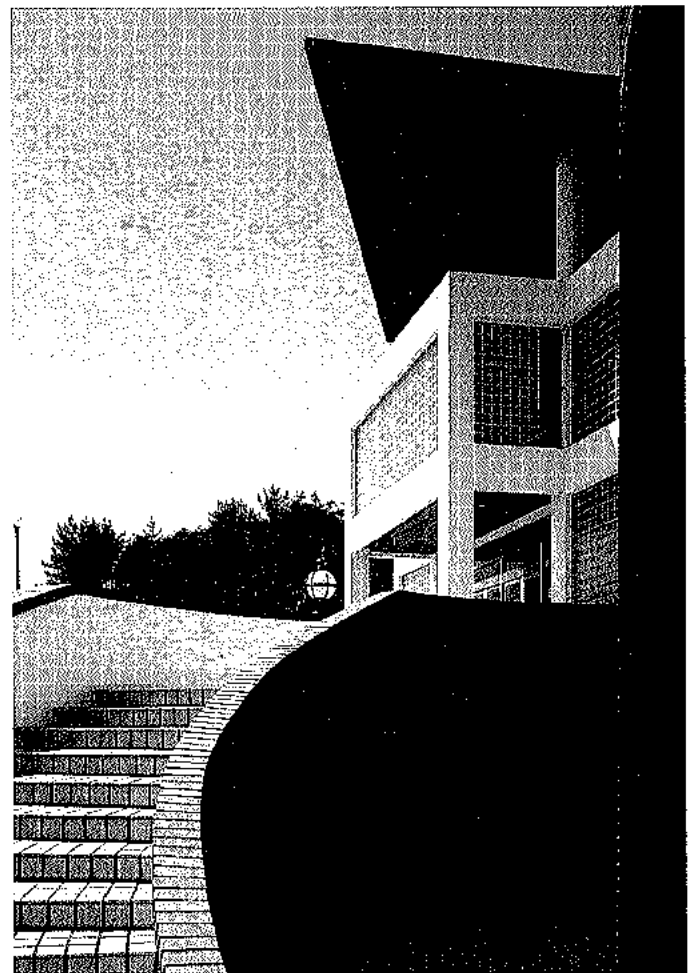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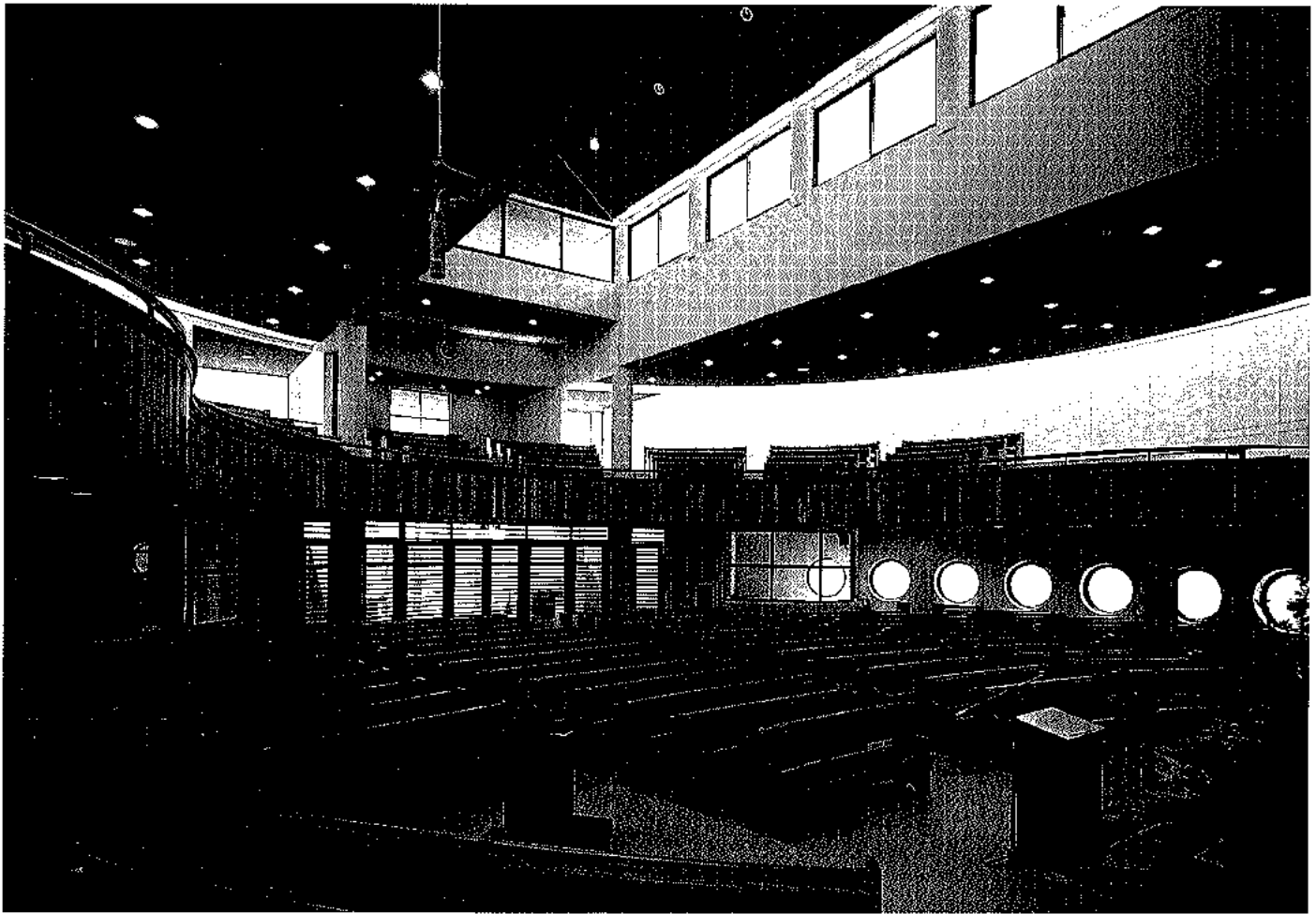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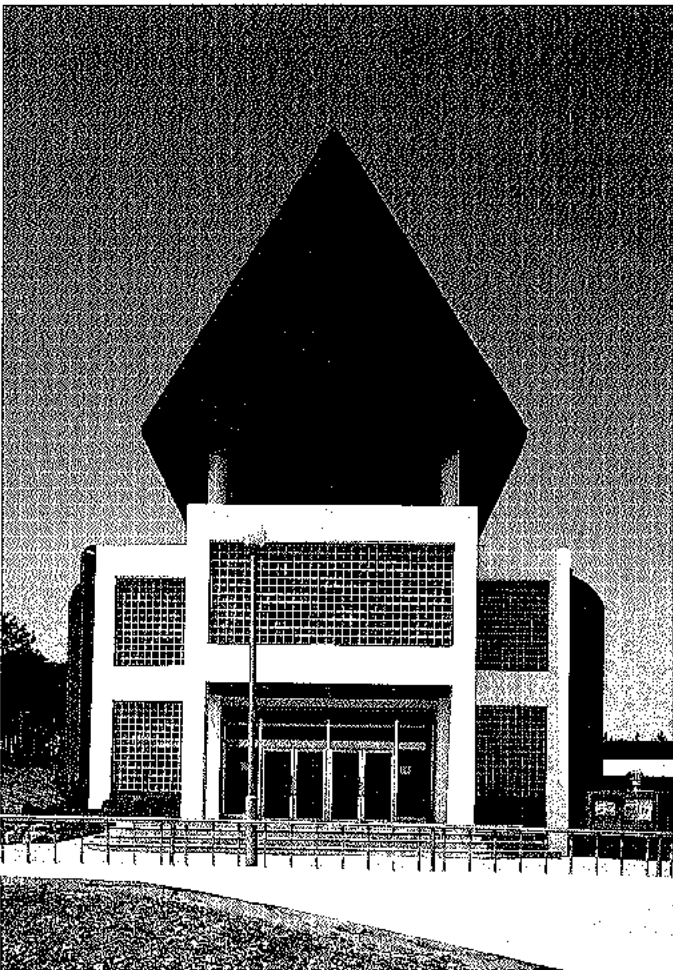
북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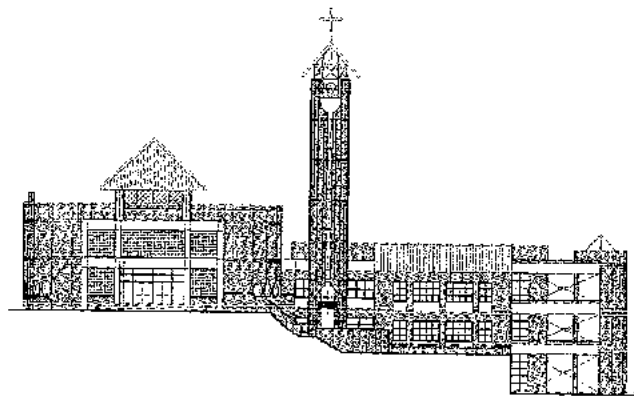
동측 진입계단에서 본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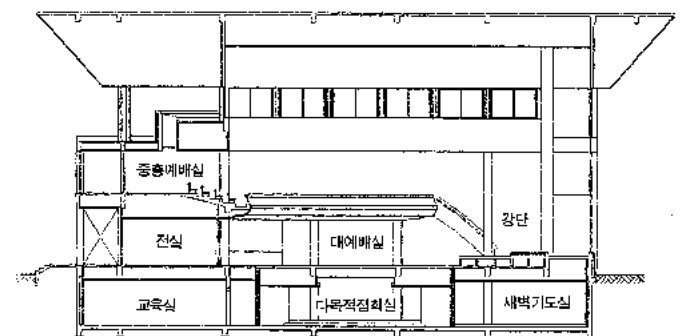
본당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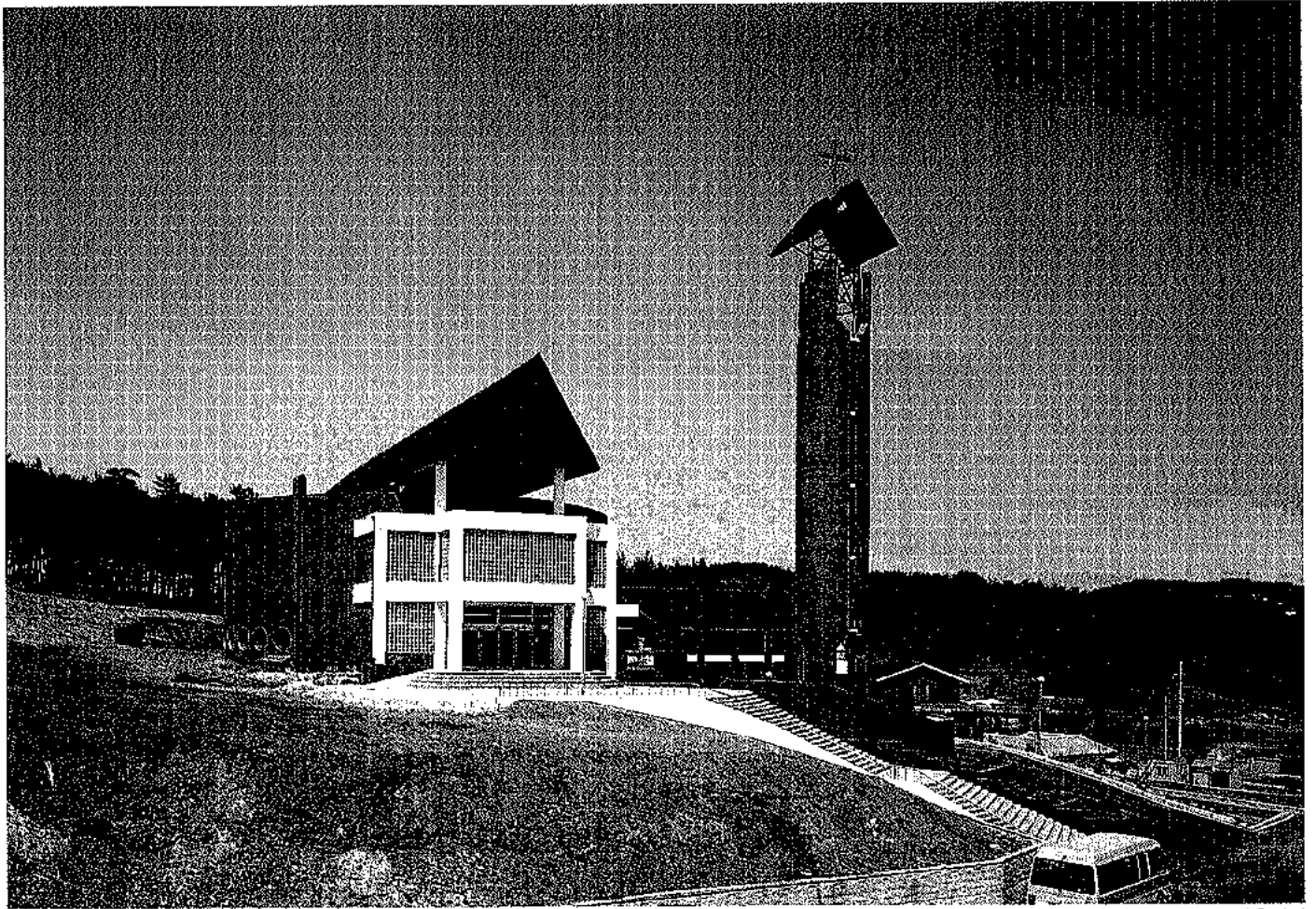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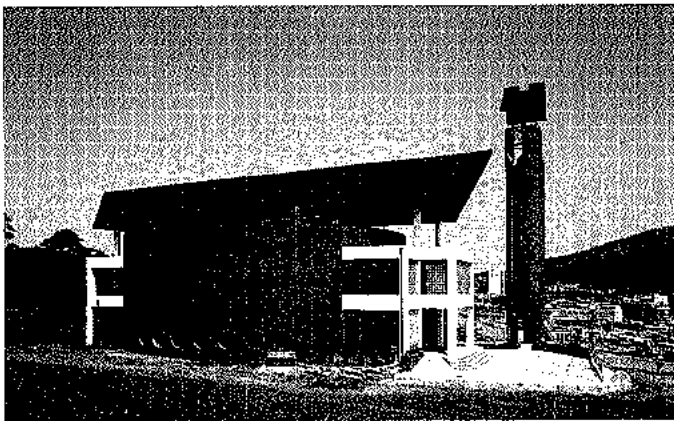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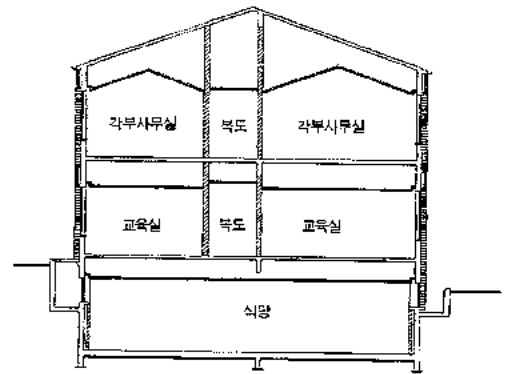
주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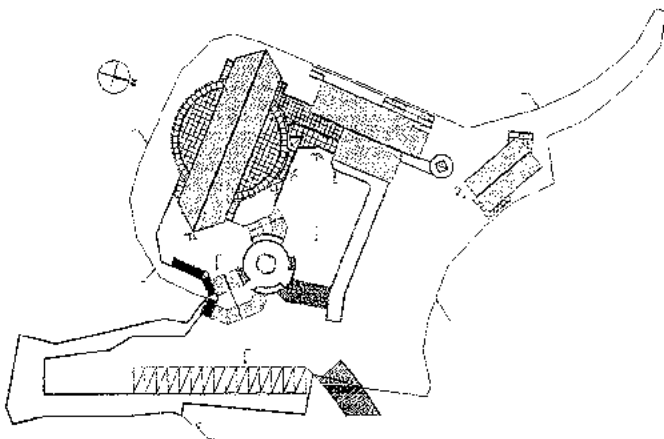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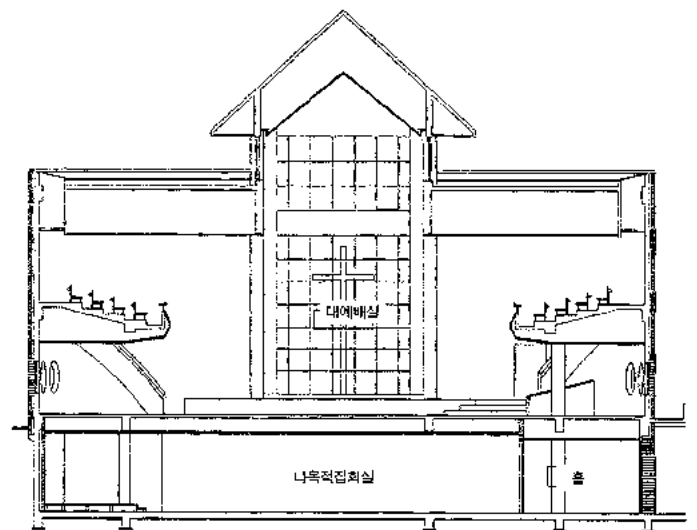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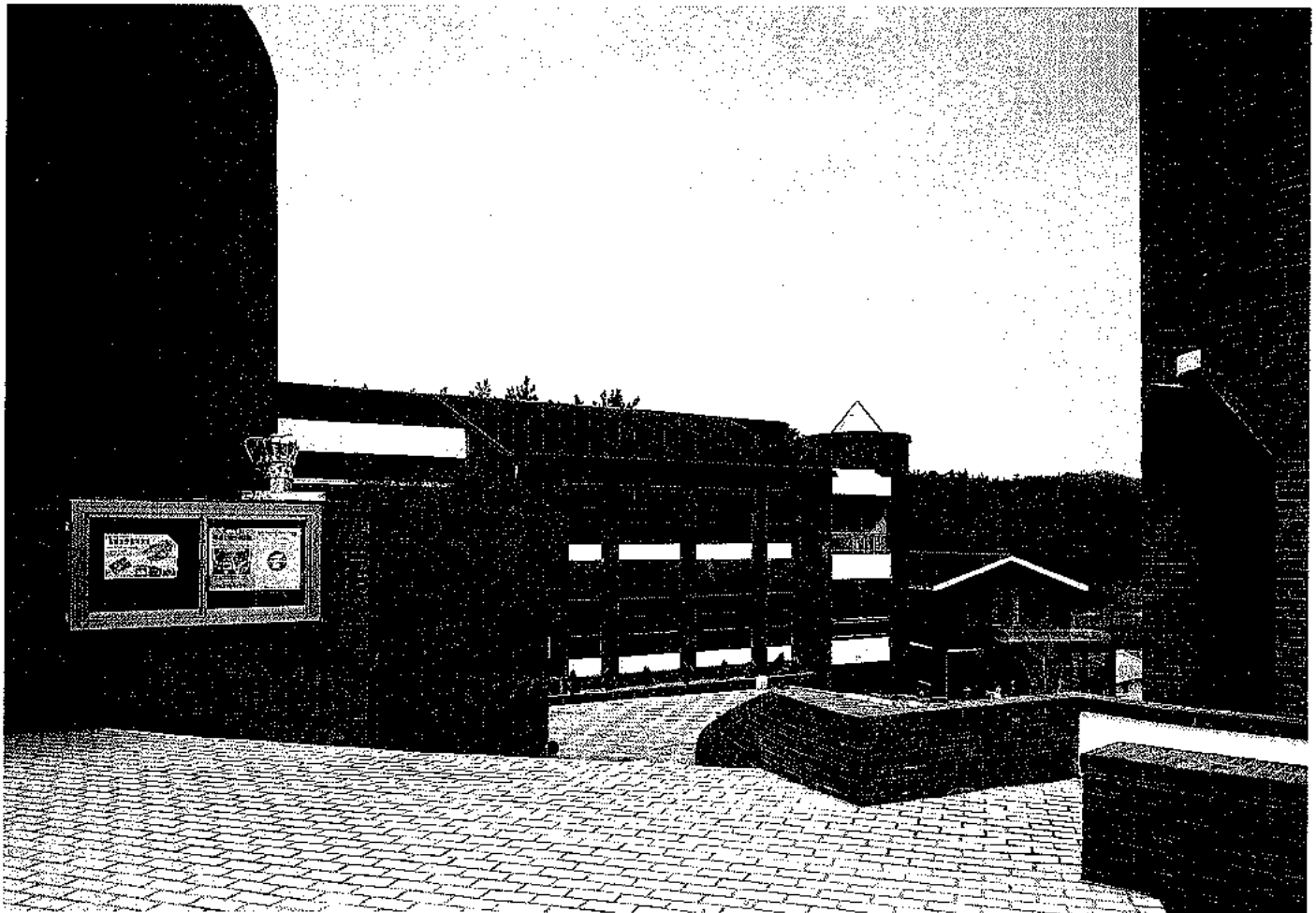
주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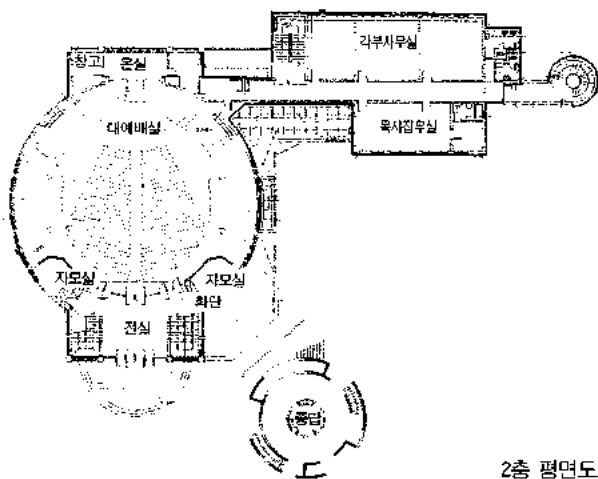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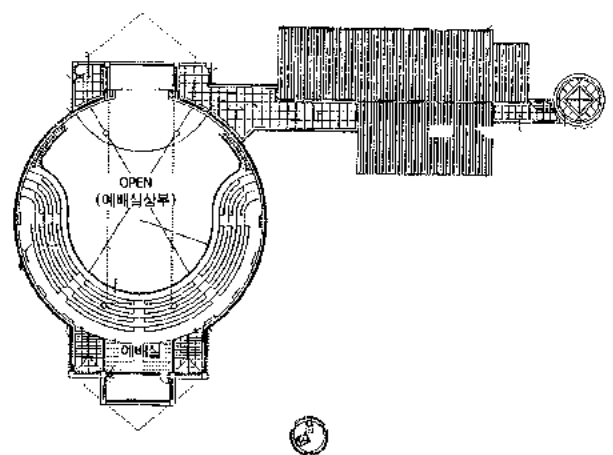
주단면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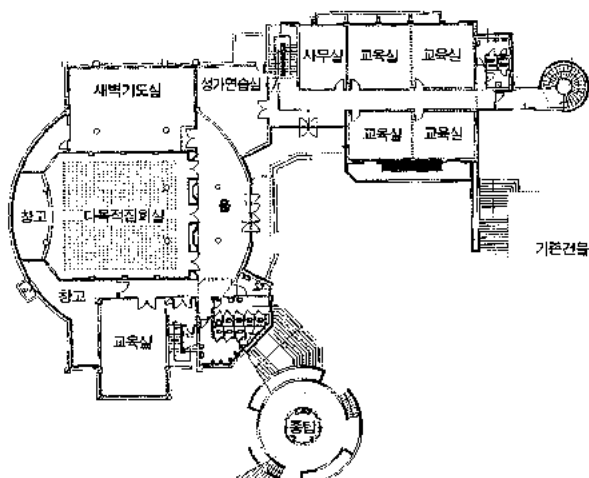
동측 교육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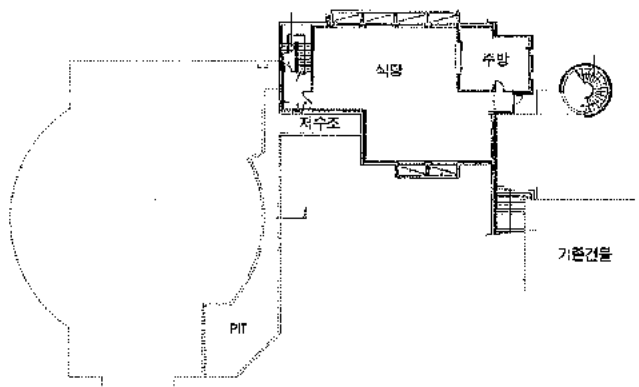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중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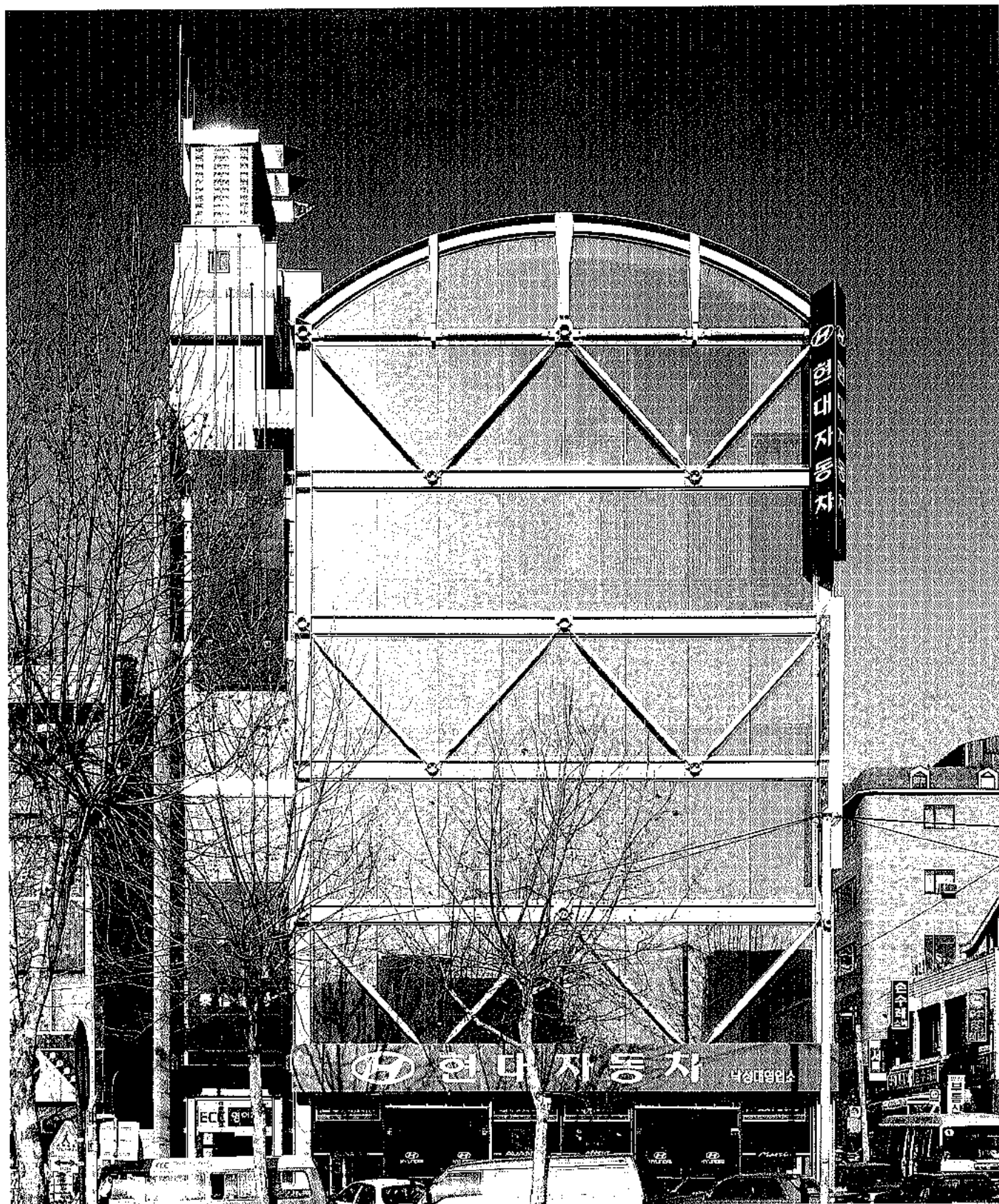
Works

회원작품

태신빌딩

Taeshi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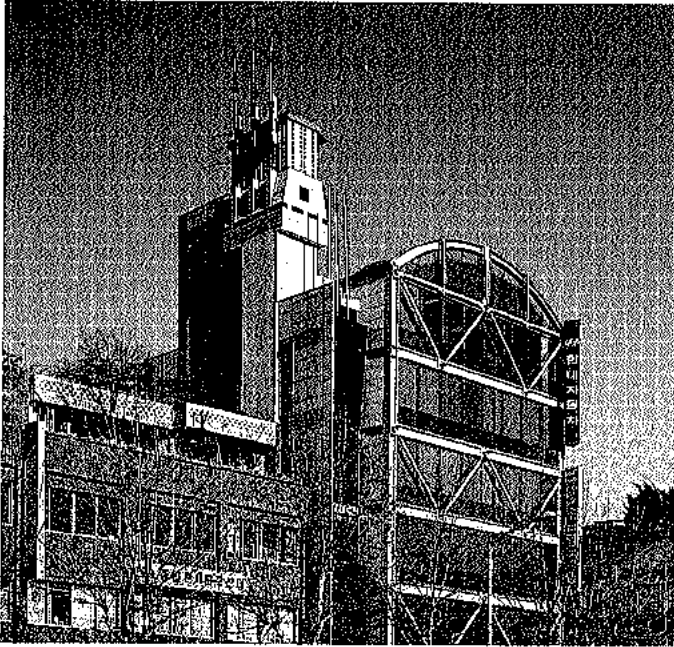
함인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Designed by Hahm In-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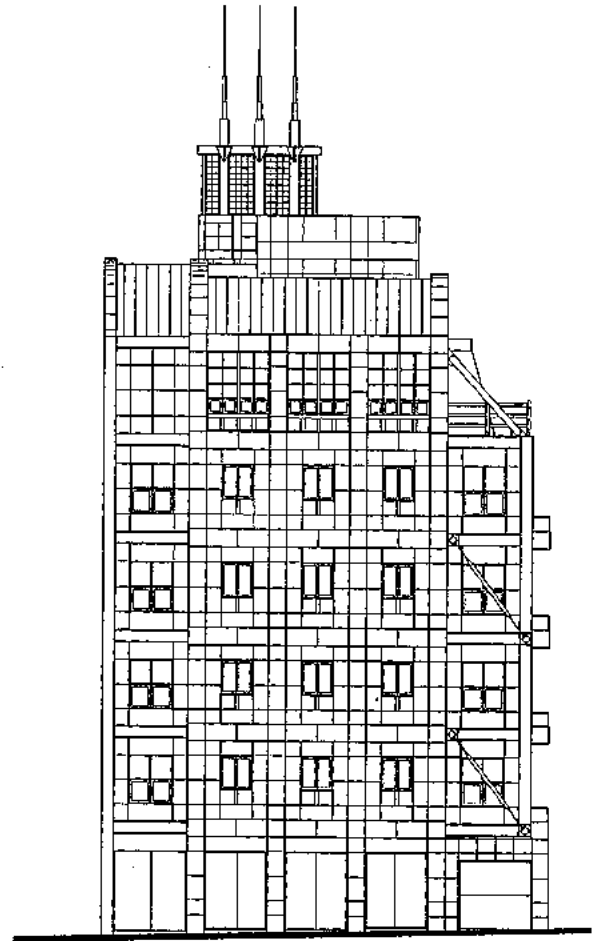
정면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80-31호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대지면적 / 357.60㎡
 건축면적 / 209.58㎡
 연면적 / 1,642.79㎡
 건폐율 / 58.61%
 용적률 / 327.80%
 규모 / 지하2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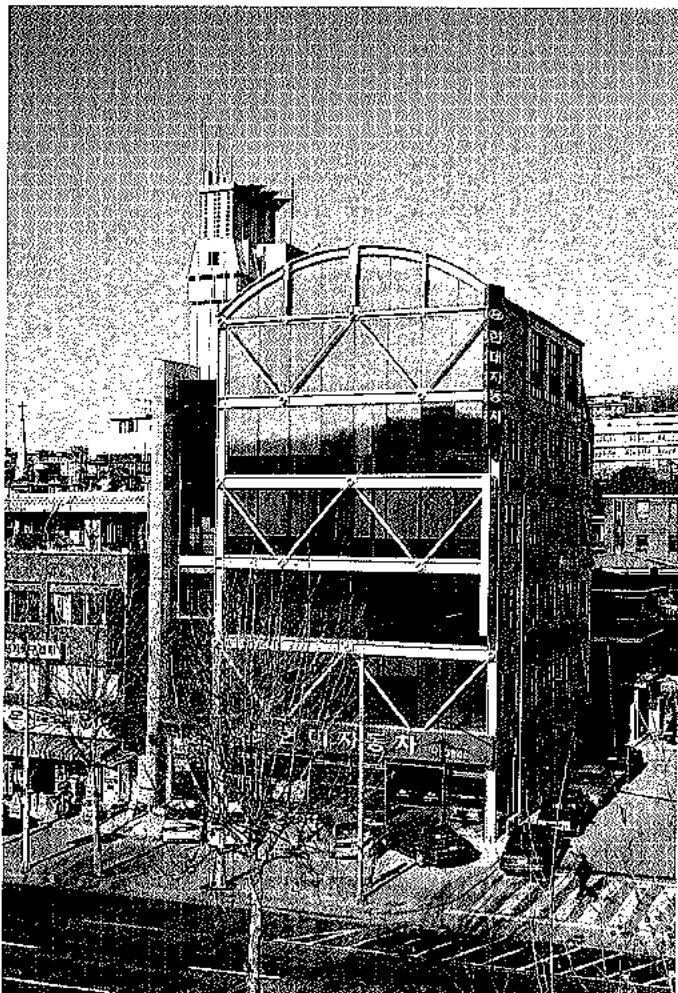
Location / 1680-31, Pongcheon-dong, 6 Stories Above Ground
 Kwanak-gu, Seoul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Use / Neighborhood, Education, Exhibition
 Site Area / 357.60㎡
 Bldg. Area / 209.58㎡
 Gross Floor Area / 1,642.79㎡
 Bldg. Coverage Ratio / 58.61%
 Gross Floor Ratio / 327.80%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상부 상세



우측면도



남측 전경

대지는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 바로 옆에 위치한다. 배후의 두터운 주거지 쪽으로는 닫혀있으면서 전면 광로에 대해서는 열려있게 하는 것이 이 대지에 요구되는 도시적 질서에 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측면과 배면의 R.C.구조+석재붙이기와 전면의 Steel조+유리벽은 닫힘과 열림이 극명하게 대비되게 하기 위하여 채택된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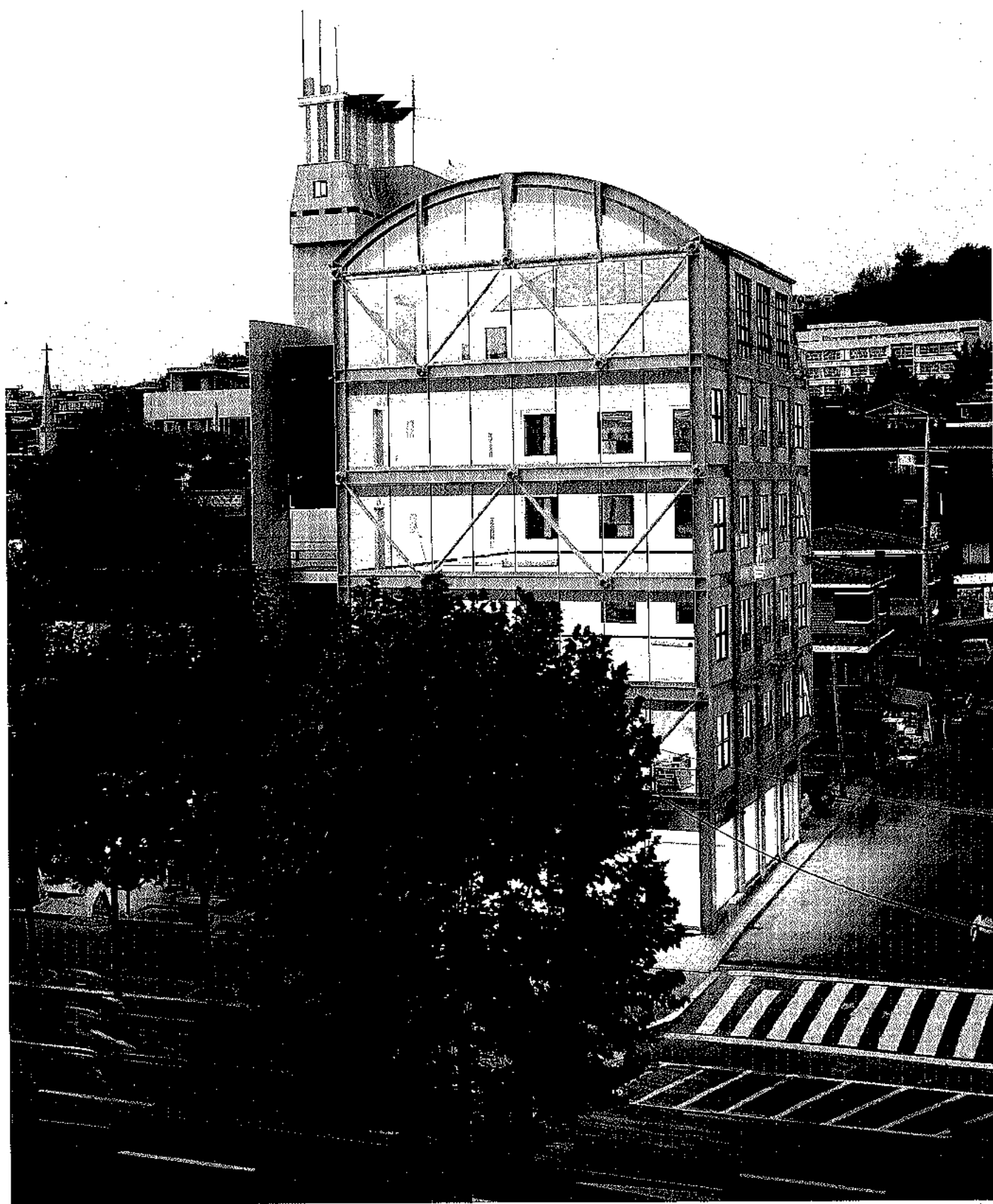
건물이 '구조'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구조'가 건축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연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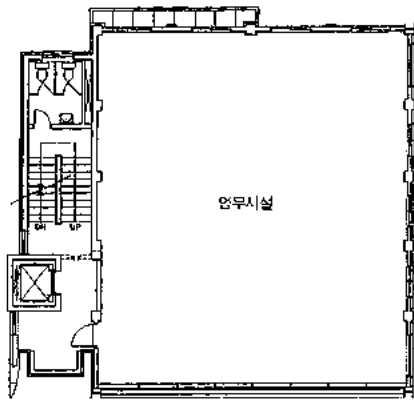
이 건물이 큰 가로에 대하여 열려있었다함은 단순히 개구부가 크다라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진다. 즉 이 건물은 스스로의 '구조(=존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써 '구조'가 주인 노릇하는 수많은 도시건축들의 도치법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면은 할 수만 있었다면 완전한 유리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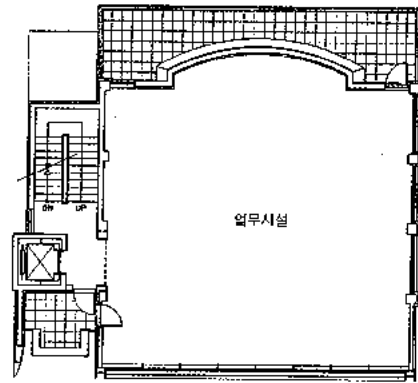
채택된 철구조는 최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구조'이다. Alternate Floor Truss라 부른 트러스가 2, 4, 6층에 있어 짝수층의 하중은 매달리고 홀수층의 하중은 없한다. 이럼으로써 홀수층에서는 실로 완전한 유리벽이 생긴다.

도시의 코드를 찾아못해 대지 경계선 같은 것을 가지고도 컨텍스트라고 우기고 싶은 불행한 이 도시의 건축가들에게는 차라리 '자기부정'이 더 마땅한 태도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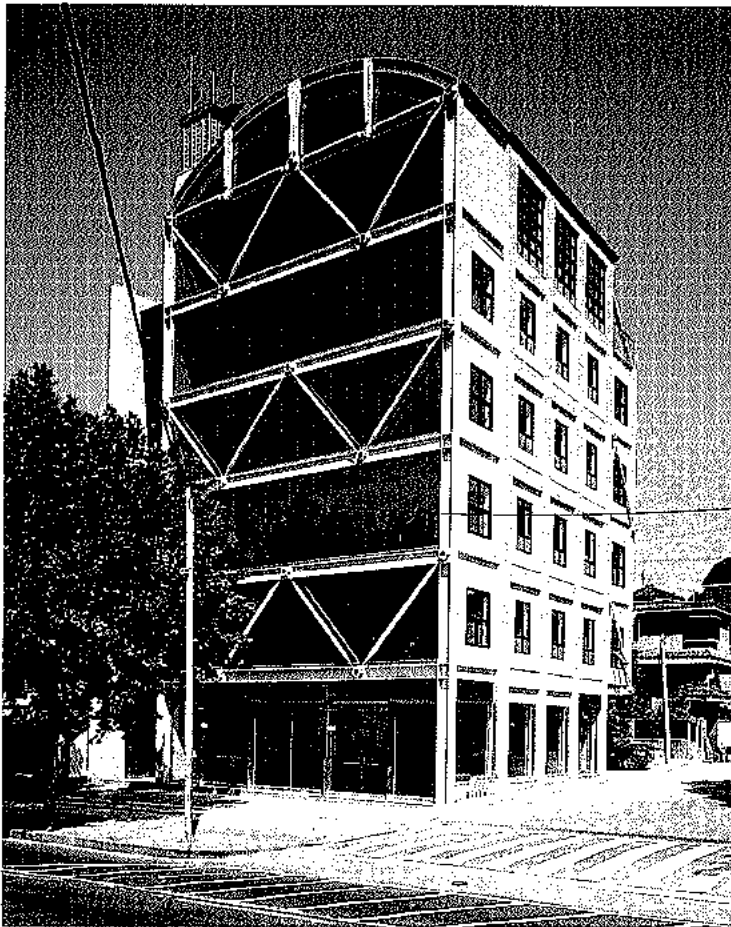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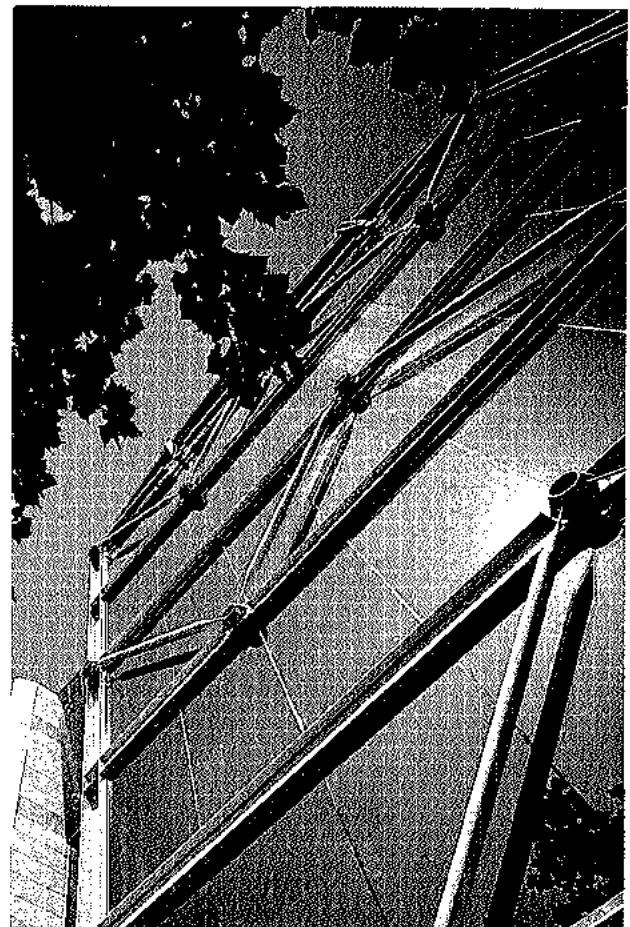
2~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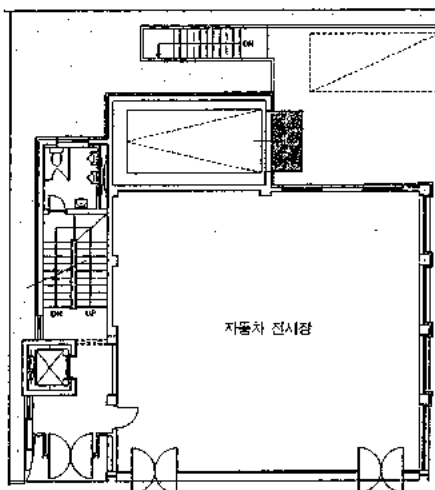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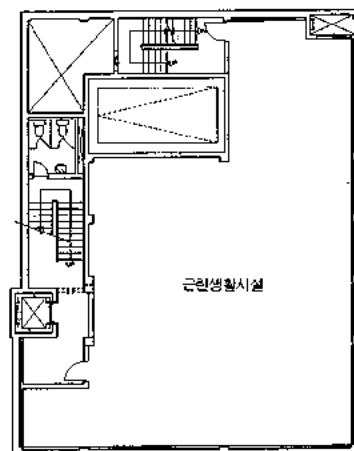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주출입구에서 올라다 본 전면 벽면 상세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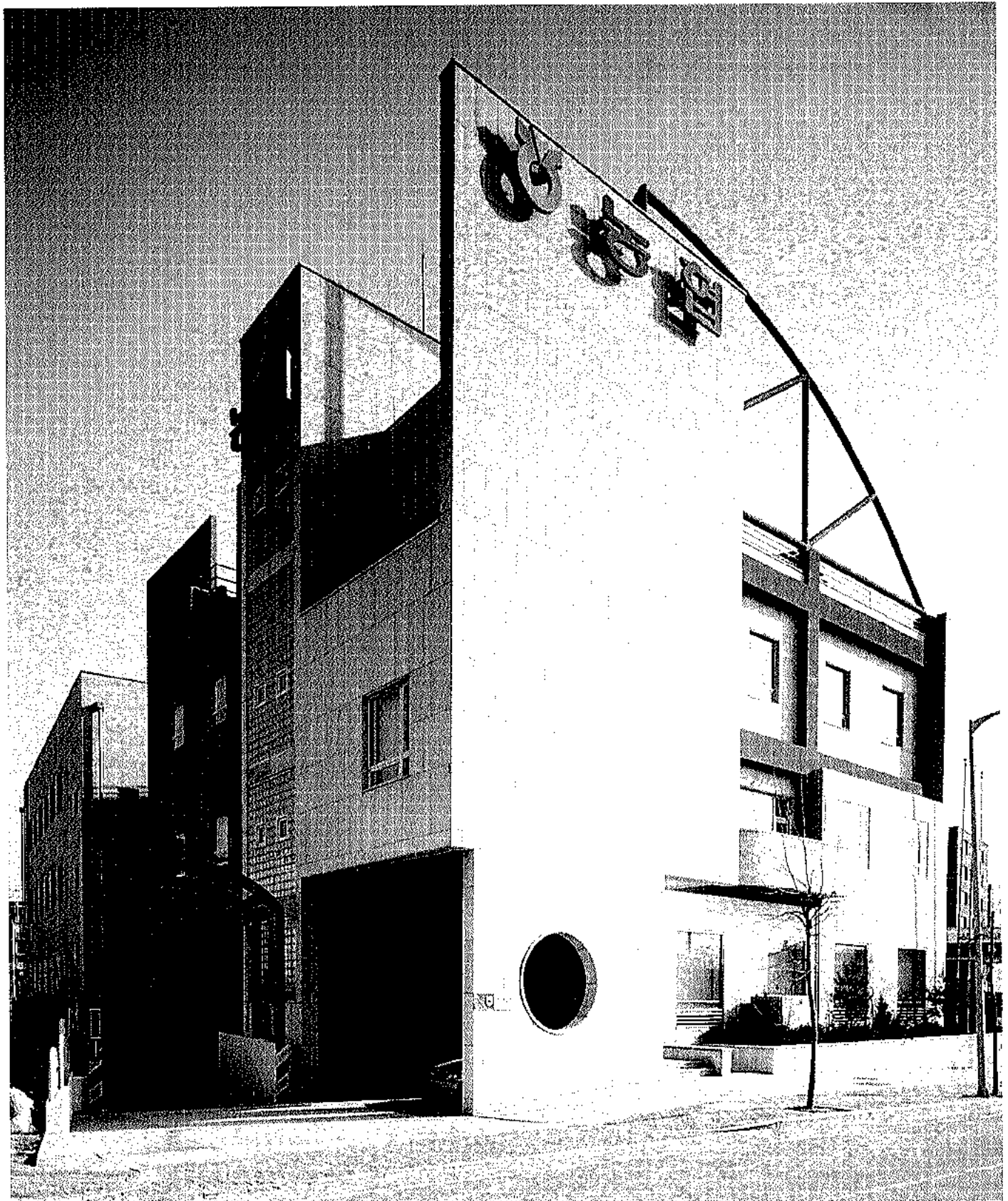
Works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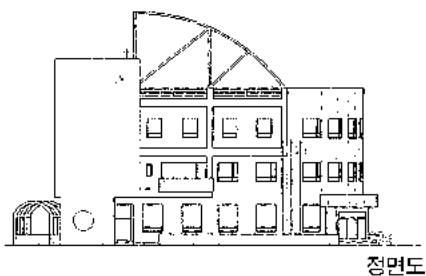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Hanam County Office

김관석 / 건축사무소 아르텍
Designed by Kim Kwan-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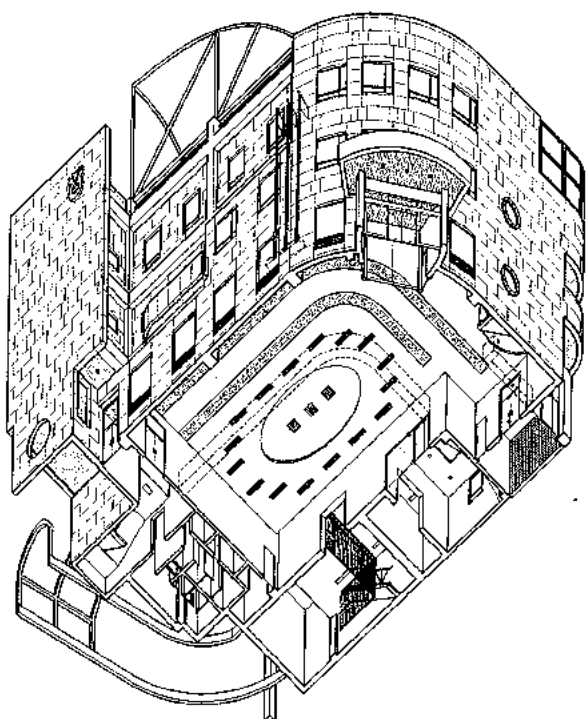
북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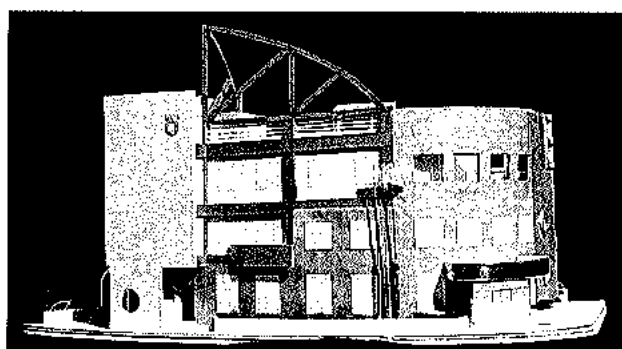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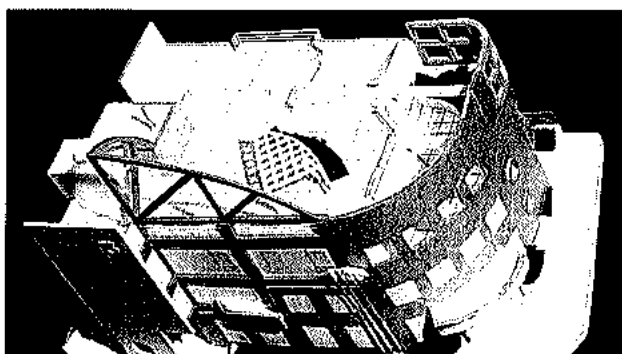
서측 전경



투상도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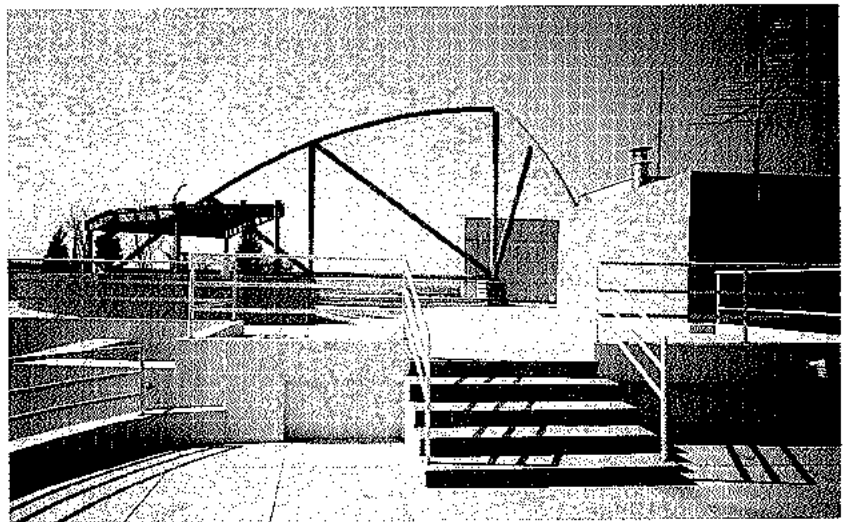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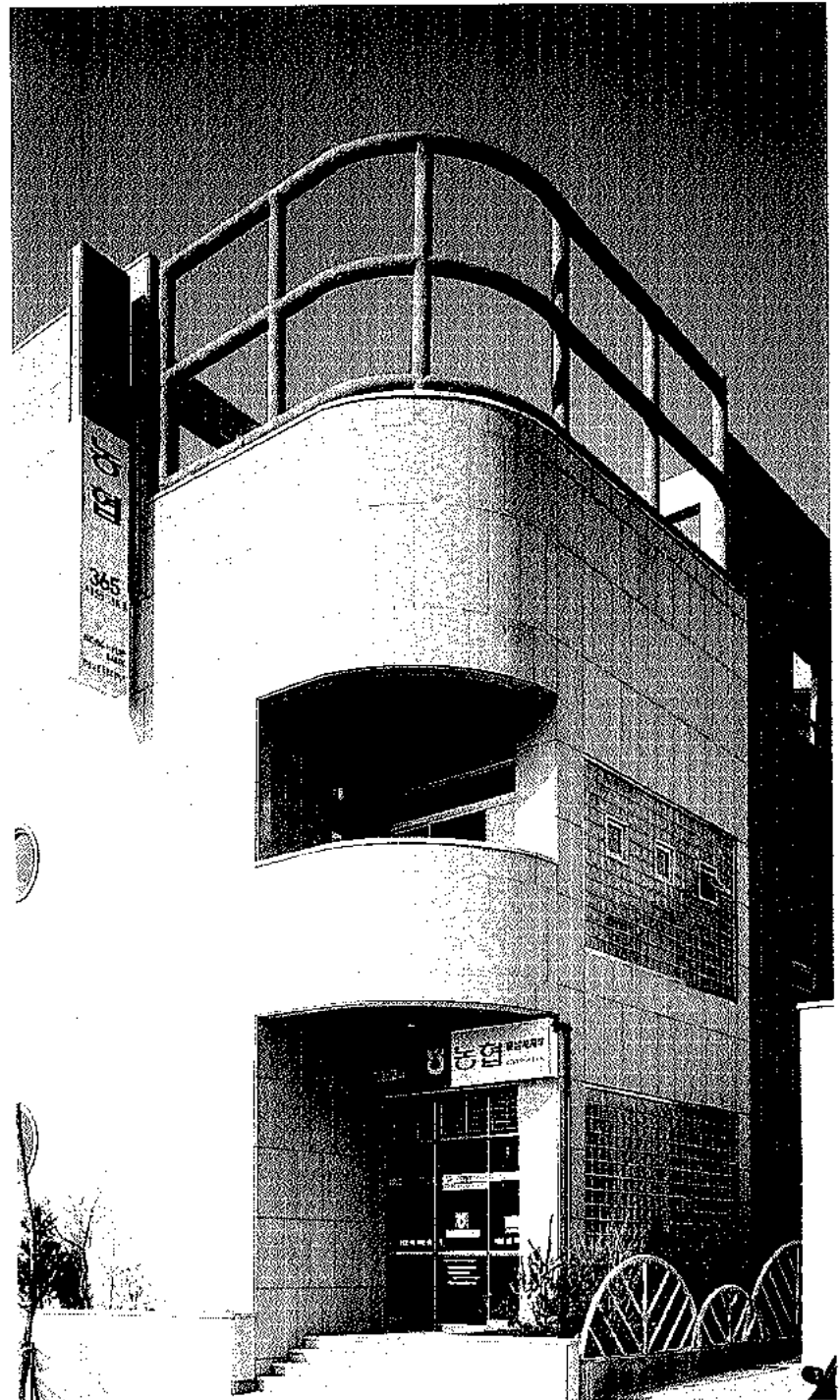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2번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1,024.20㎡
 건축면적 / 605.47㎡
 연면적 / 2,314.05㎡
 건폐율 / 59.11%
 용적률 / 156.10%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최고높이 / 18.8m
 주요설비방식 / 팬코일유닛 냉난방
 주요용도 / 업무시설
 외부마감 / 벽 - 화강석 베너구이, 마감코팅
 지붕 - 아스팔트싱글
 내부마감 / 바닥 - 화강석 물갈기, 데코타일, 무석면타일, 비닐장판
 벽 - 화강석 물갈기, 본타일, 수성페인트
 천정 - 천정지, 암면텍스, 알반텍스

설계담당 / 이재영, 김경섭, 이경선
 감리담당 / 이재영
 건축주 / 농업중앙회 하남시지부
 시공자 / 상우종합건설(현장 : 김태영 소장)
 설계기간 / 1994년 5월~11월
 공사기간 / 1994년 12월~1995년 12월
 구조설계 / 일원구조(손대호 소장)
 설비 / 유성설비(김재율 소장)
 전기 / 대동전기(김낙경 소장)
 인테리어 / 아르텍 설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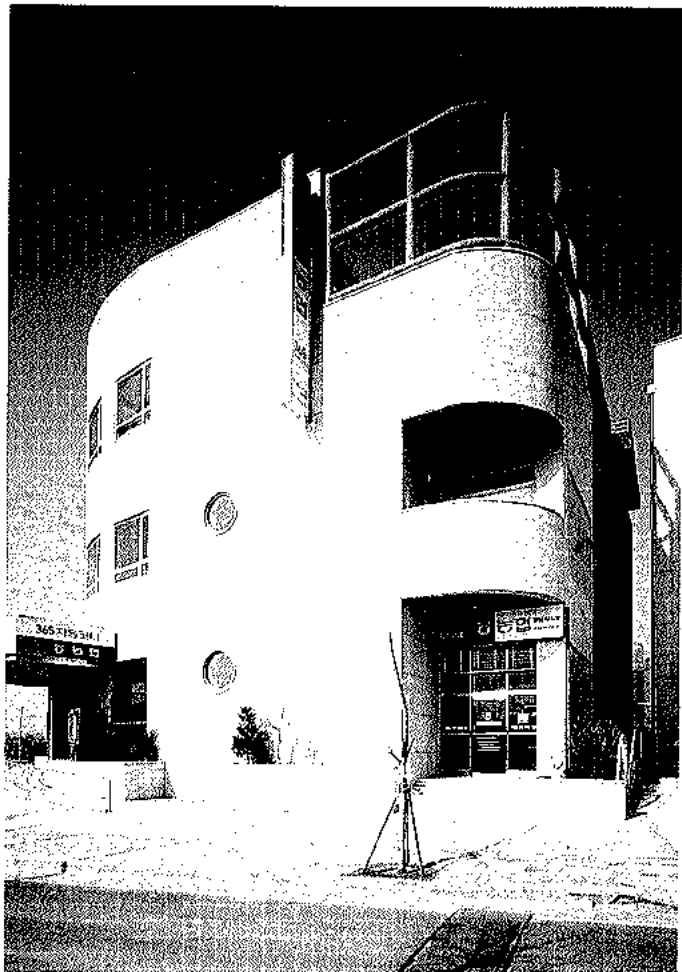
Location / 522, Shinjang-dong, Hanam-shi, Kyeonggi-do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1,024.20㎡
 Bldg. Area / 605.47㎡
 Gross Floor Area / 2,314.05㎡
 Bldg. Coverage Ratio / 59.11%
 Gross Floor Ratio / 156.10%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Rigid Frame
 Height / 18.8m
 Facility System / Fancoil Unit
 Use / Business
 Exterior Finish / Wall - Granite
 Roof - Asphalt shingle
 Project Team / Design - Lee Chae-Young,
 Kim Kyeong-Sup,
 Lee Kyeong-Sun
 Supervision - Lee Chae-Young
 Construction / Sangwoo Cons. Co., Ltd
 Design Term / 1994. 5~11.
 Construction Term / 1994. 12. ~ 1995. 12.
 Structural Design / Ilwon
 Mechanical Services / Yuseong
 Electric Installation / Deadong
 Interior / Artch Architects &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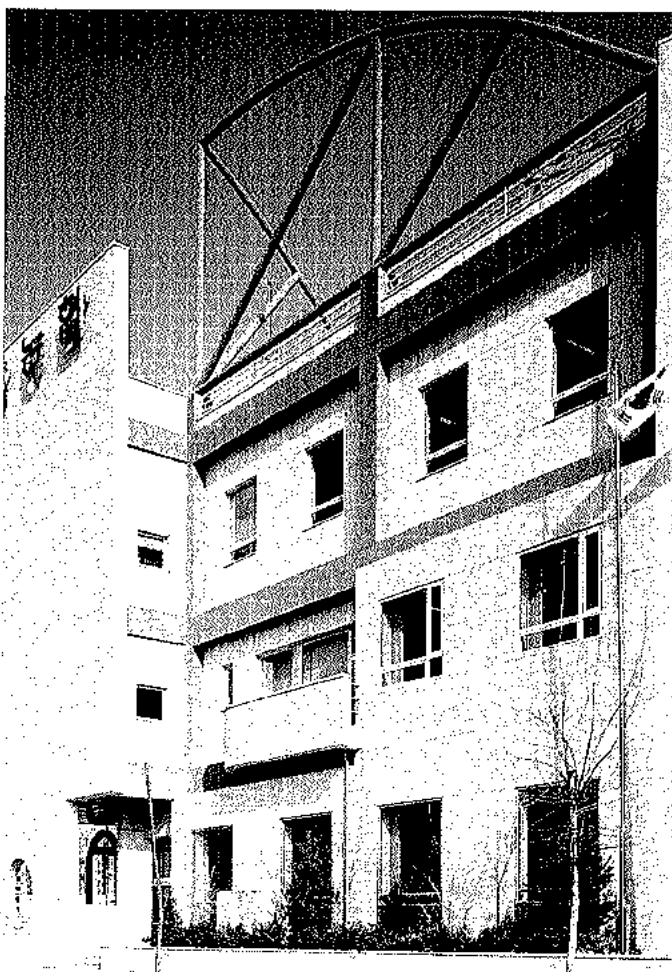
옥탑층



부출입구 전경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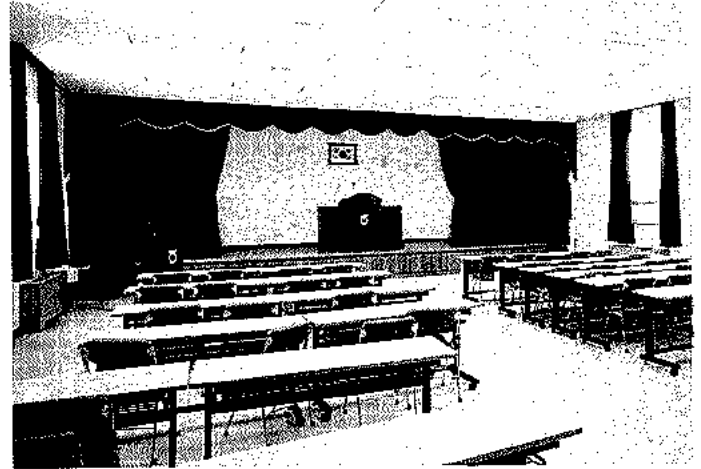
북서측 측면



옥상정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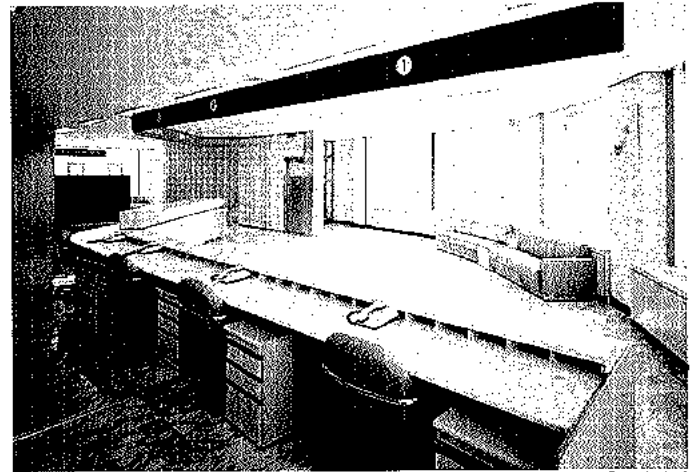
식당에서 본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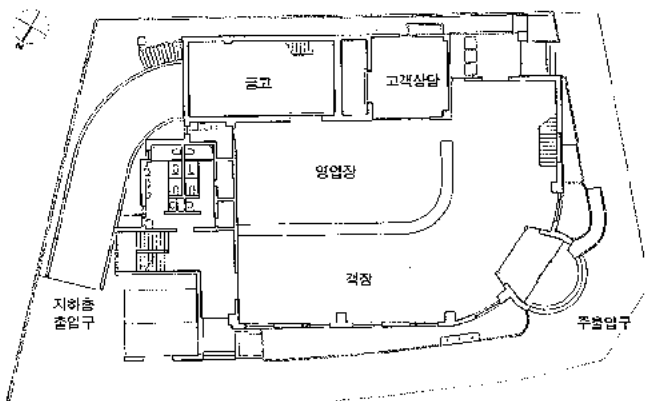
4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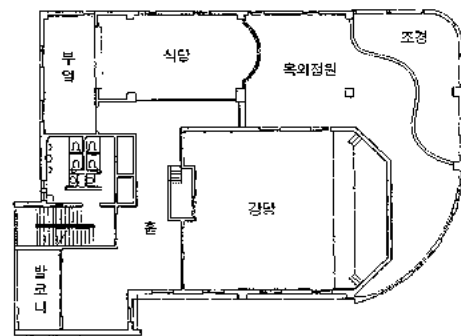
1층 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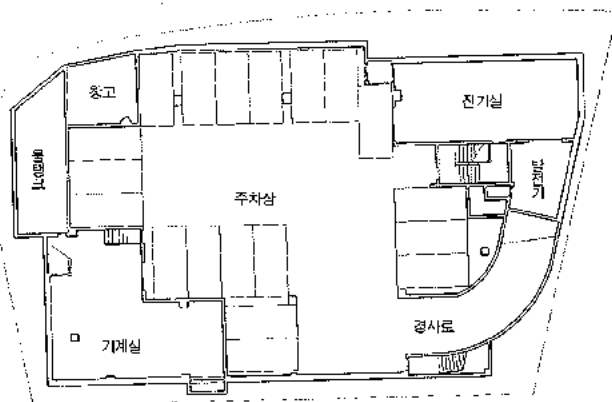
3층 영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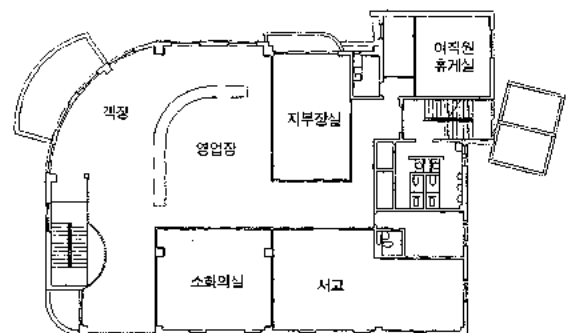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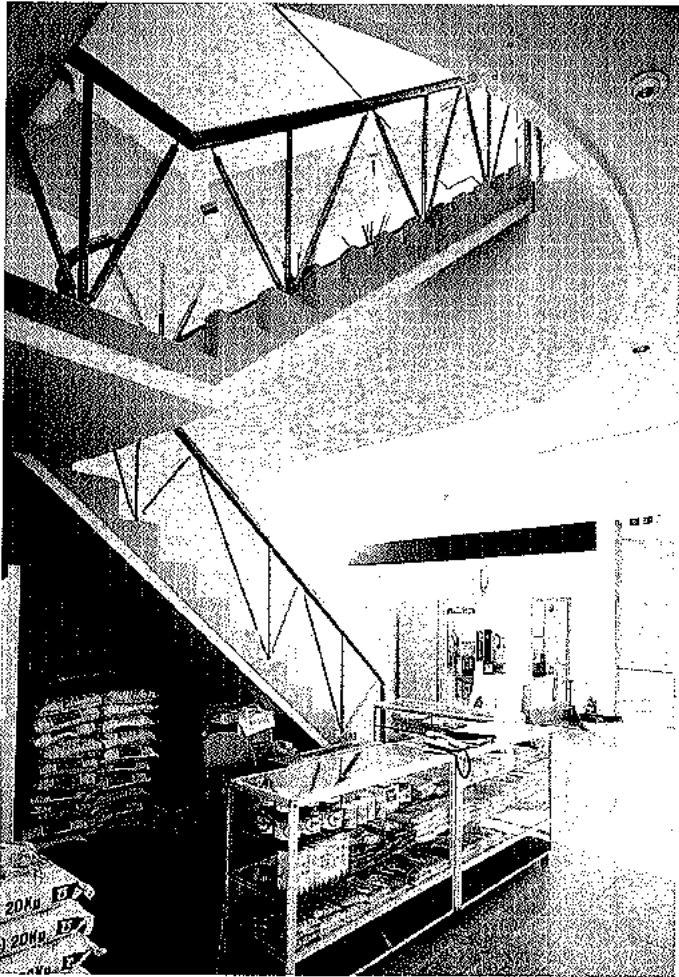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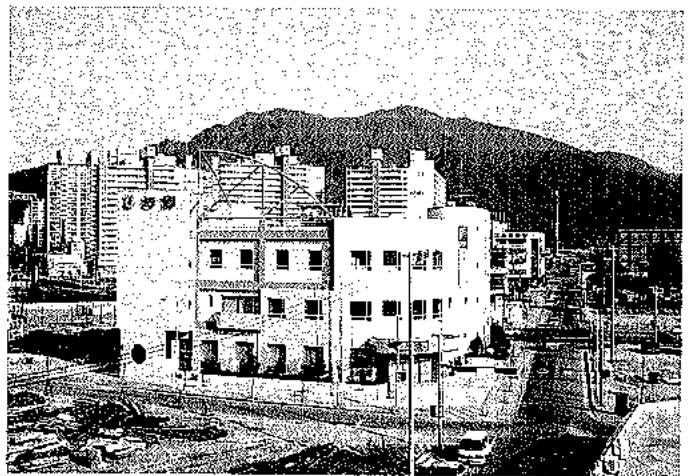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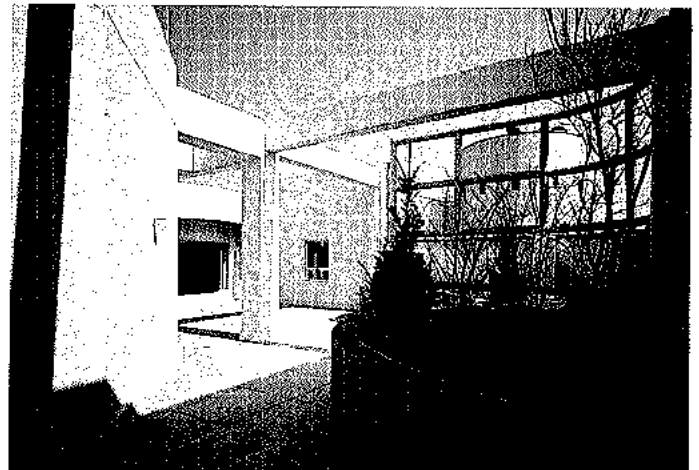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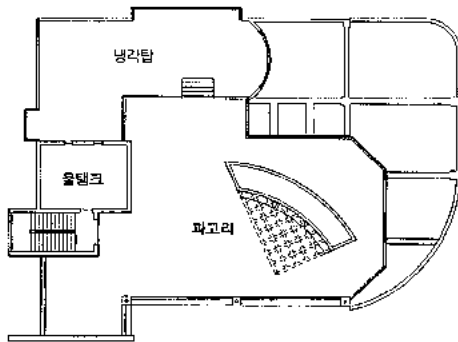
2층 연결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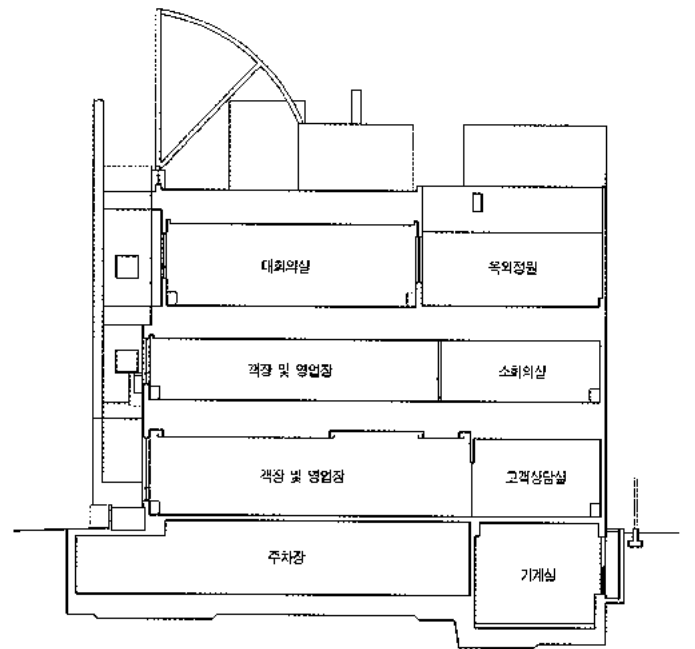
북서측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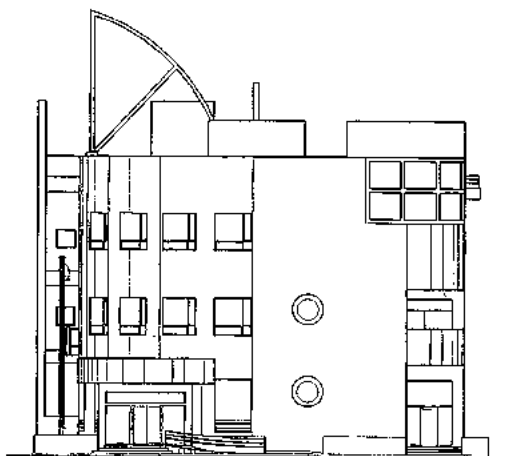
옥상정원 2



옥탑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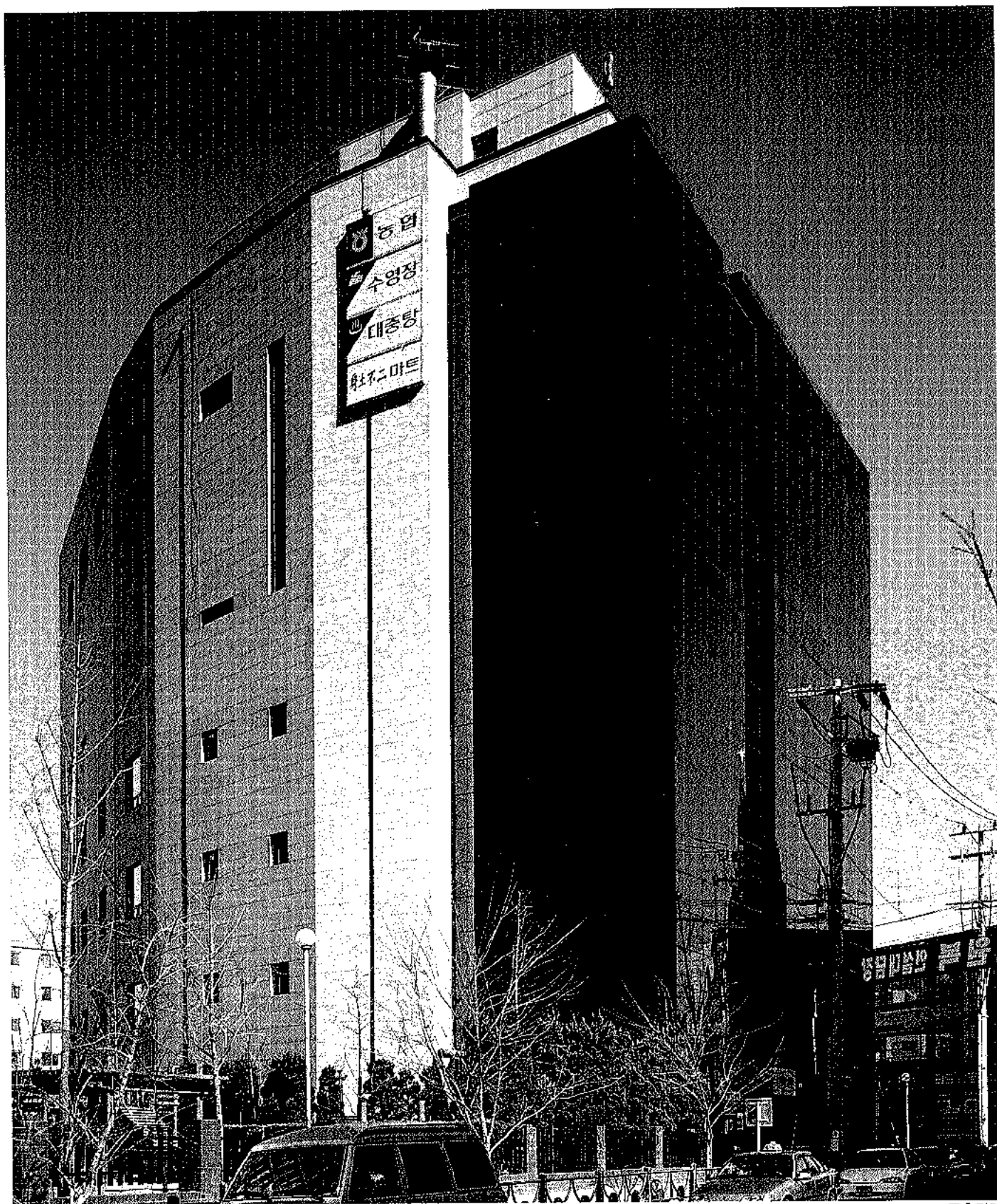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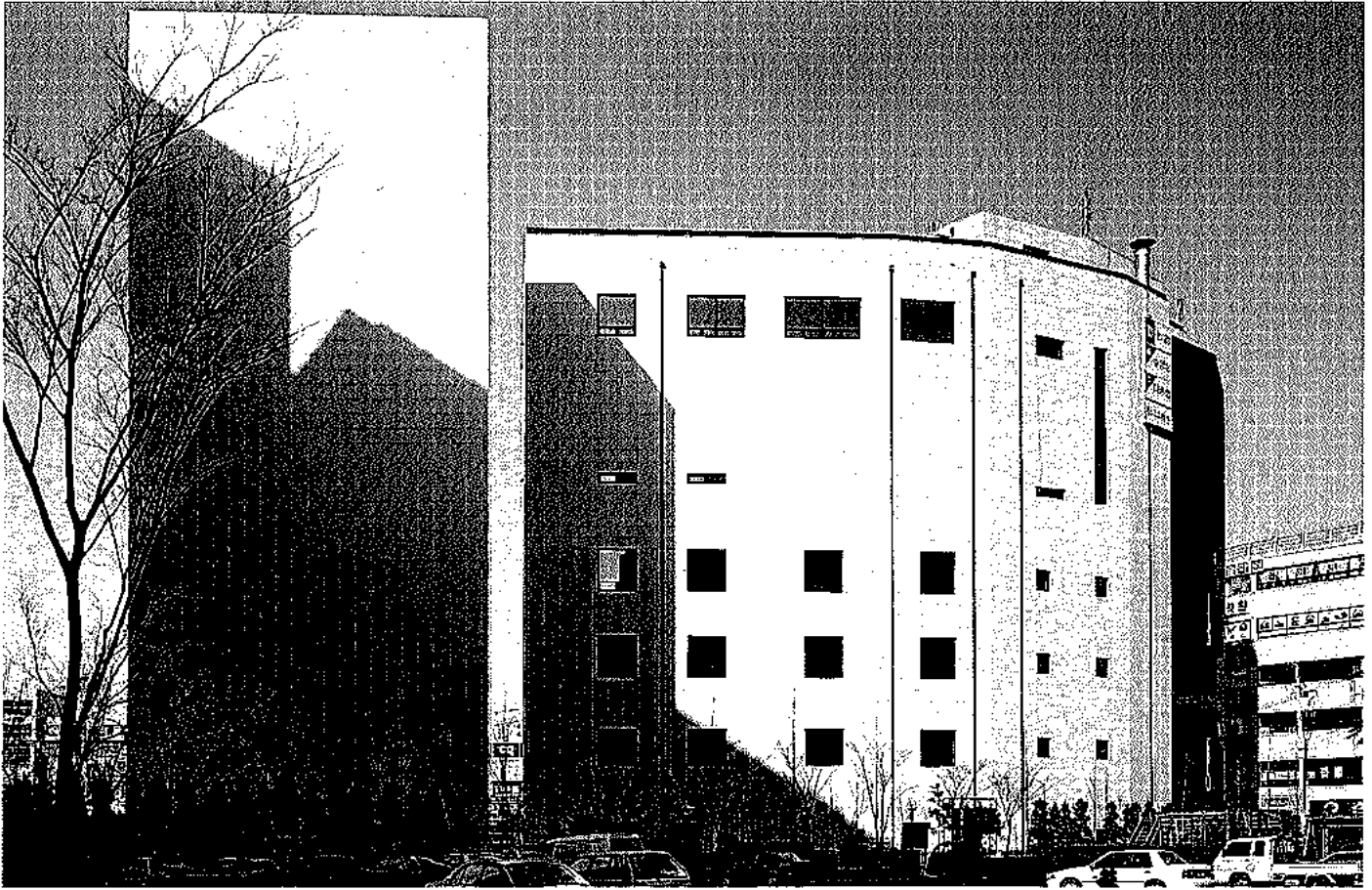
인천남동농협 종합시설

Inchon Namdong Nonghyeop Complex Facilities

김영석 / 극동영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Young-Seok



동측전경



아파트 단지내에서 본 남측전경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지구 15블럭 5, 6로트,

만수동 1014-1

대지면적 / 2,525.40㎡

건축면적 / 1,311.82㎡

연면적 / 8,960.40㎡

건폐율 / 51.95%

용적률 / 246.91%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외부미감 / 파스텔 목층유리 커튼월, 화강석 베너구이

시공자 / (주)태영

Location / Mansu-zone, Namdong-gu,

Incheon-shi

Site Area / 2,525.40㎡

Bldg. Area / 1,311.82㎡

Gross Floor Area / 8,960.40㎡

Bldg. Coverage Ratio / 5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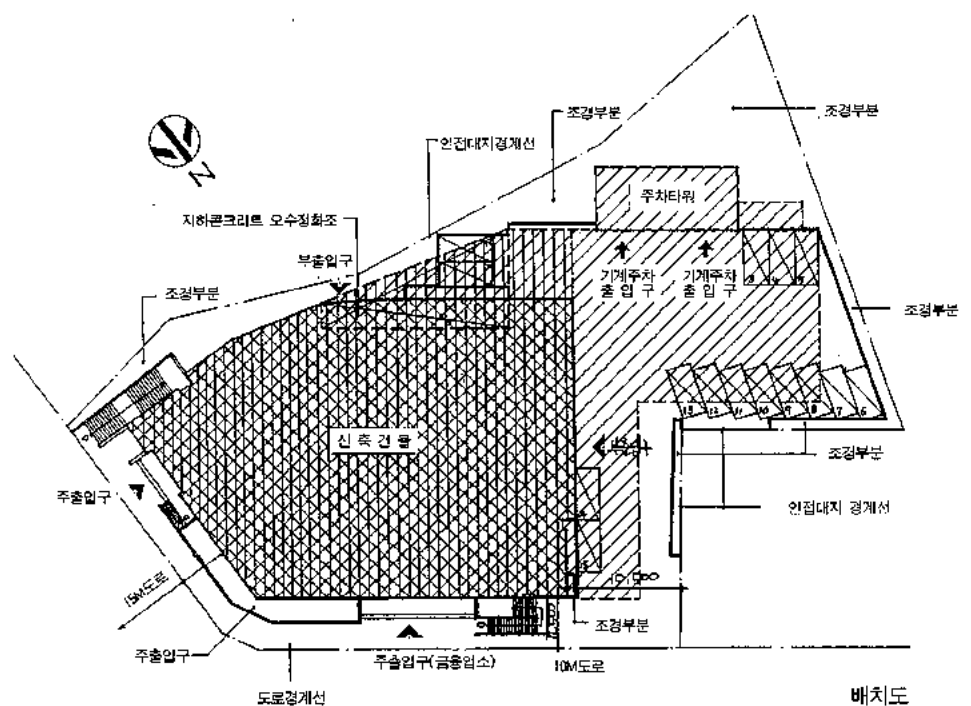
Gross Floor Ratio / 24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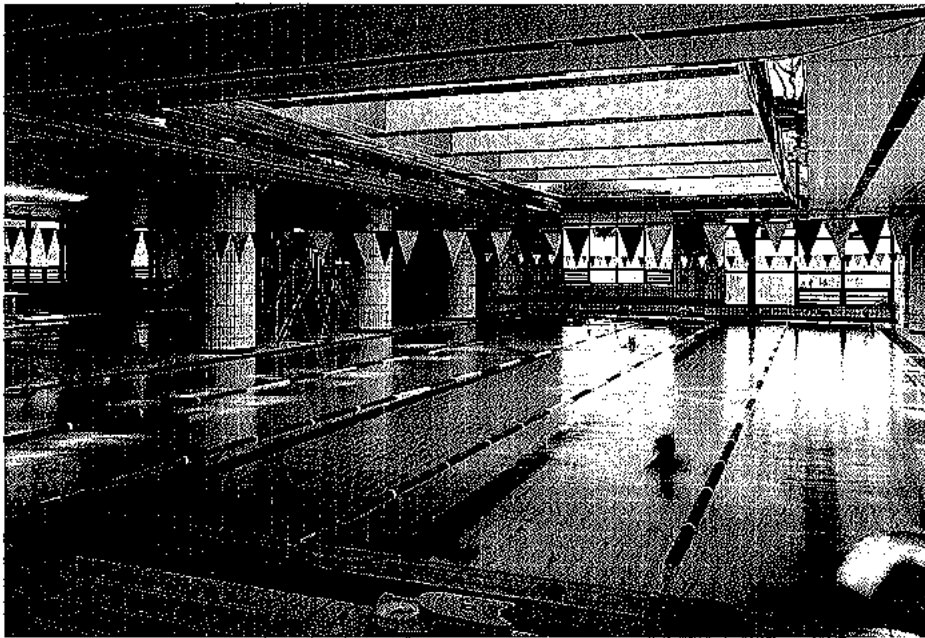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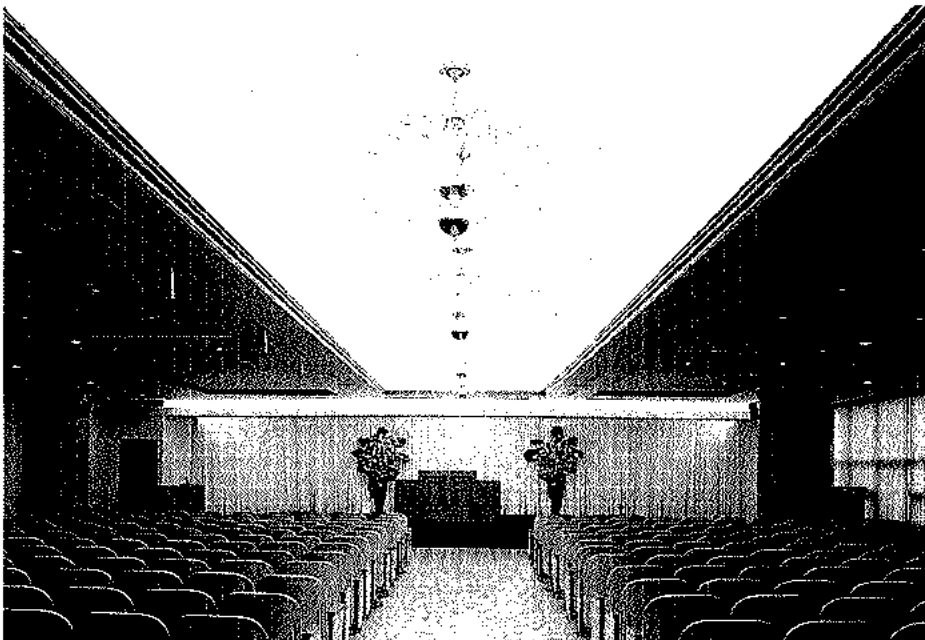
Exterior Finish / Granite

Constructor / Taeyoung Cons. Co., Ltd





6층 수영장



3층 예식장



1층 금융시설

수십년 동안 이곳 지역 농민들의 지도자인 이계우 남동농협 조합장과 관련 직원으로부터 본 설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강하게 느낀 소감을 소개하면서 설계 설명을 요약하고자 한다.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위치한 곳은 인천 남동 만수동 일대의 낙후된 농토의 중심 일부에 있었으나 주변에 아파트군이 생기고 남동구청이 이곳지역으로 신축 이전되면서 주변 상가로 발전되어 신도시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꾸준한 농민 조합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매진해오면서 농민의 피와 땀 하나하나가 모인 결실이 오늘이 있게 된 동기에 감명받아 건축 계획을 하게 된 것이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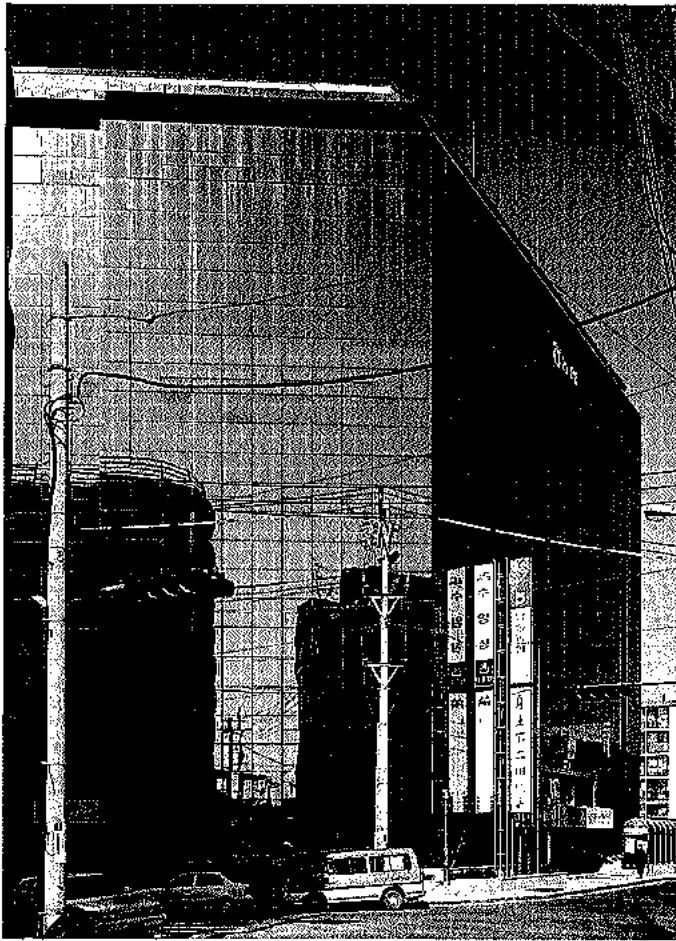
수원행 국도변에 위치한 대지로서 도로 폭이 좁은 것이 이 대지의 단점임으로 건물 배치를 도로변에서 후퇴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했고 보행자의 건물사용 출입과 주차타워 출입을 위해 주차공간을 배려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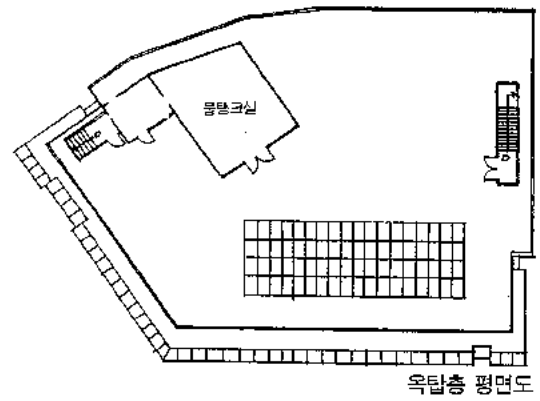
1층은 신용사업, 2층은 지도 경제사업, 3층에는 회의실, 4층은 식당, 5층은 기계실 및 탈의실, 6층은 수영장, 지하1층을 슈퍼마켓, 창고, 지하2층에는 전기, 기계실을 배치하고 각층 홀에서 E.V를 2대 두어 수직동선으로 각층과의 연대 관계를 갖고 지하1층의 슈퍼마켓에는 외부에 2개의 출입구를 두어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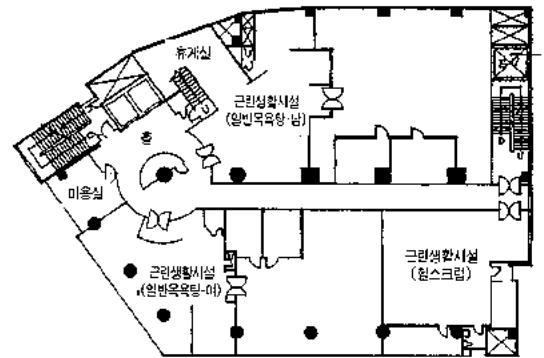
동남쪽에는 커튼월 복층유리로 처리하여 채광을 건물내부 깊숙히 받아들이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입면은 부드러운 감각을 유지하게끔 처리하고, 서북쪽면에는 서쪽의 햇빛과 북쪽의 겨울철 추위를 고려하여 이중벽 보온처리를 하였고 화강석 버너구이 마감으로 외부 미관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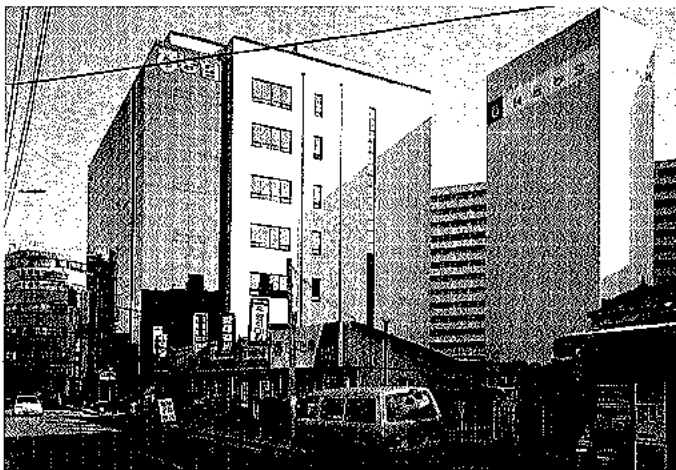
북측 파사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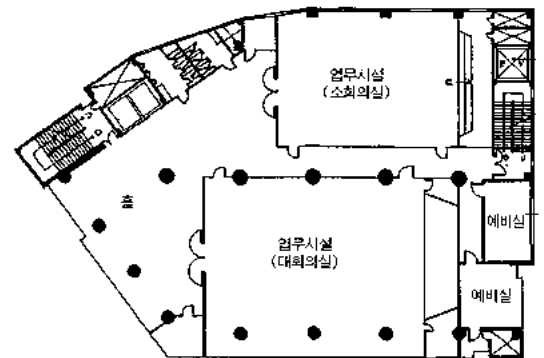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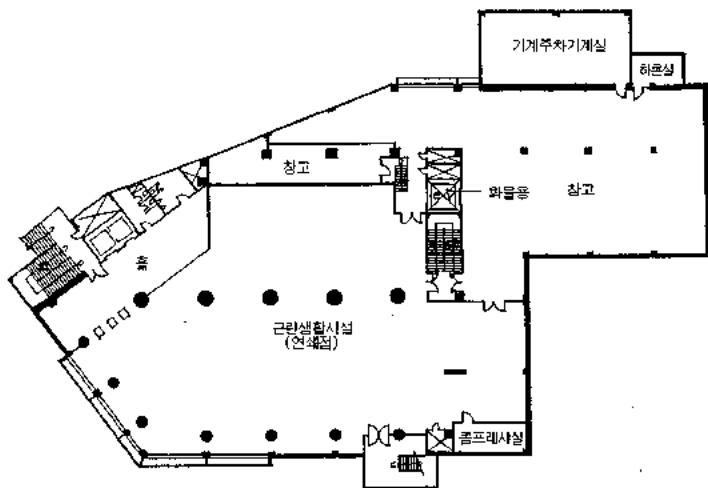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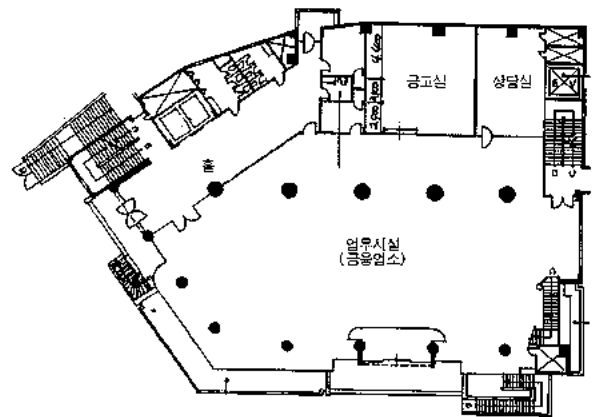
주진입로에서 본 서측전경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The Head Office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
구, 1종집단비관지구, 공공시
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
(40m)

대지면적 / 21,468㎡
건축면적 / 9,128.58㎡
연면적 / 지하-51,395.97㎡, 지상-
46,806.94㎡
건폐율 / 42.52%(법정: 60% 이하)
용적률 / 218.03%(법정: 100% 이하)
규모 / 지하4층, 지상8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업무시설
도로현황 / 남측-59m도로, 서측-100m도로,
북측-25m도로
건물높이 / 42m
외장재료 / THK20 화강석 배너마감, THK24
파스텔복층유리

Location / 16-3, Yoeuido-dong, Youngde-
ungpo-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21,468㎡

Bldg. Area / 9,128.58㎡

Gross Floor Area / Below Ground -

51,395.97㎡

Above Ground -

46,806.94㎡

Bldg. Coverage Ratio / 42.52%

Gross Floor Ratio / 218.03%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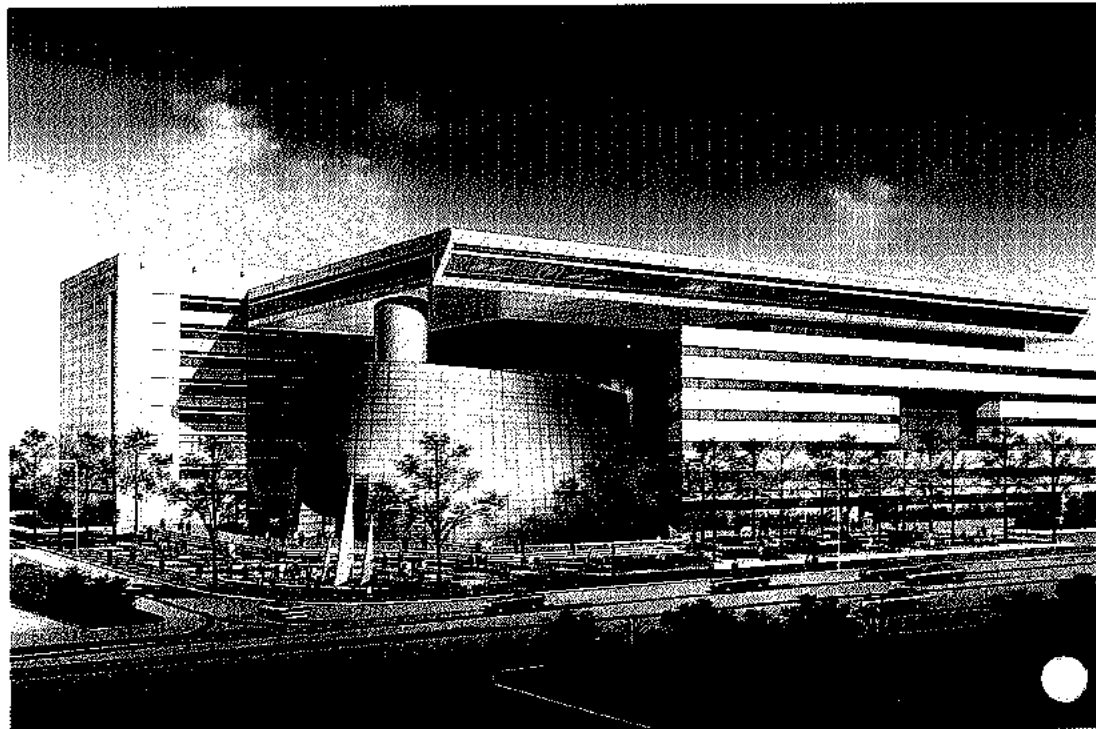
8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Fram and Reinforced
Concrete Composit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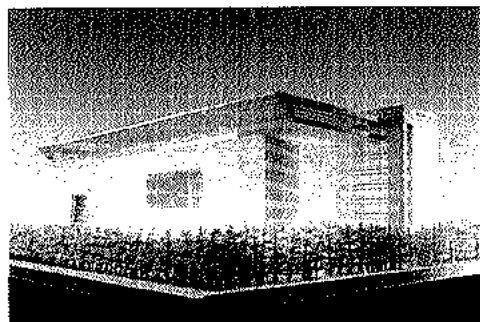
Exterior Finish / THK20 Granite, THK
24Pastel Double Glazing

Use /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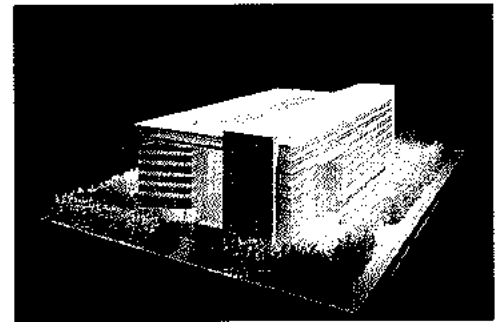
Height / 4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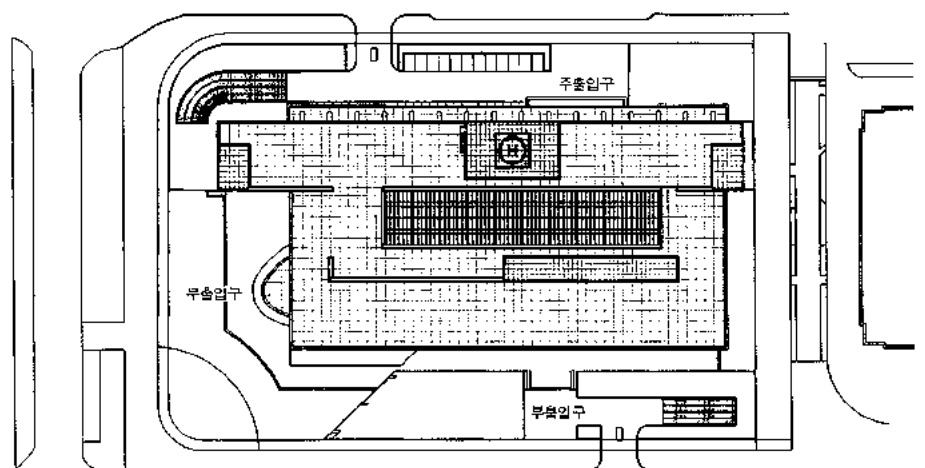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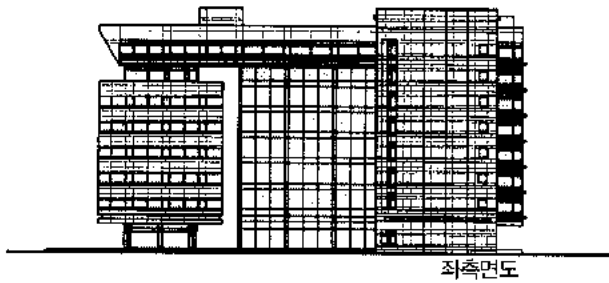
CAD 모델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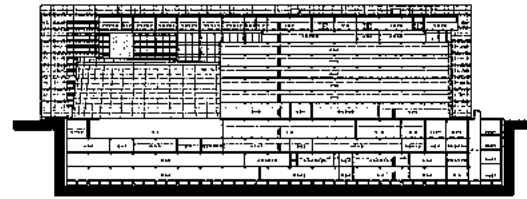
CAD 모델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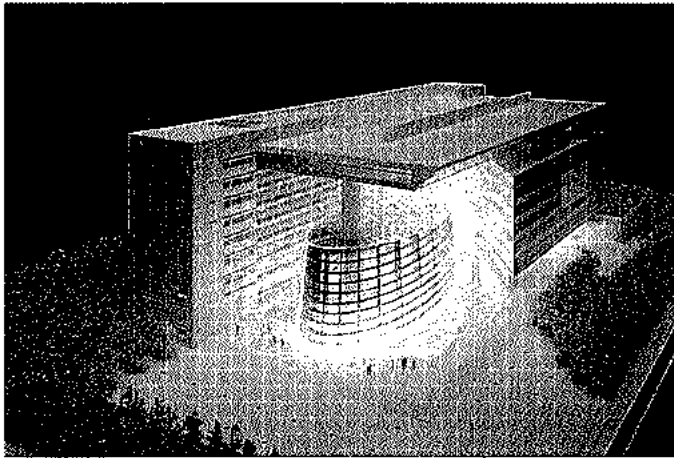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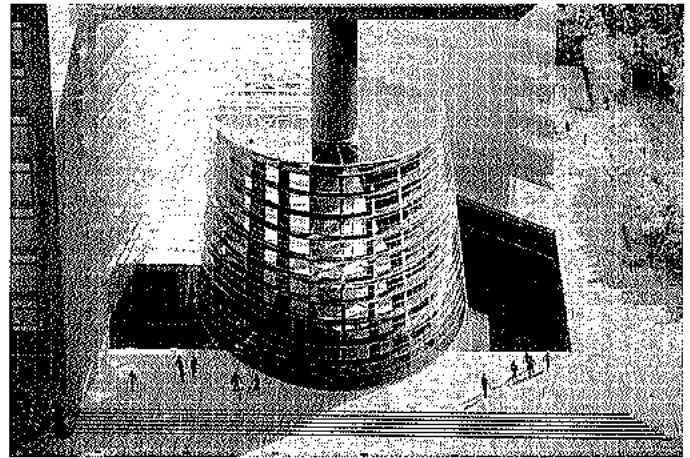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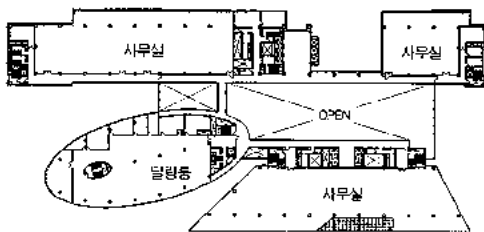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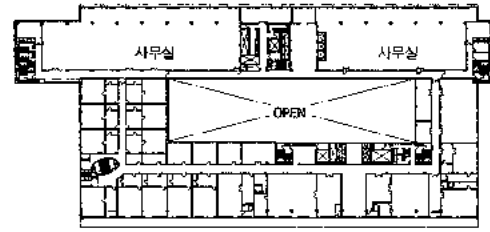
CAD 모델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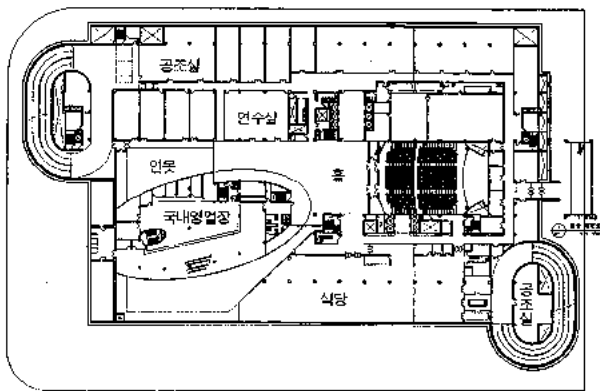
CAD 모델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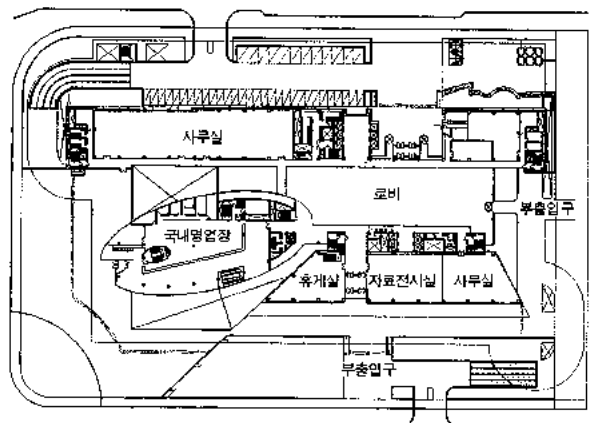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8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불과 30여년전 한강에는 맑은 물과 나룻배가 있었다. 건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진화단계에는 각자의 지방적인 고유의 향수가 있다. 건축과 자연의 화해로써 여의도 광장의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지에 흐르는 Force를 자연스럽게 수용코저 하였다. 상징적인 의미로써 국회의사당의 강한 축에 대해 이 부지의 코너는 반응하고 도시적인 스케일에 순응하여 두개의 Bar 건물과

하나의 타원으로 기본형태는 변형되었다. 그 빈 공간에는 자연스러운 아트리움이 형성되었다. 우리의 긴 역사 속에 묻혀져 있는 우리의 건축문화의 향기를 현재의 기술과의 결합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서와 향수, 깊은 지붕과 유연한 곡선, 기능적인 공간구성의 건축적 어휘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맑은 물에 수각(水

閣)의 그림자가 어우러져 있는 정원, 선조들이 여유롭게 음미해 왔던 우리들의 자연속에 있는 정원의 향기.

건축과 정원은 서로 여유롭게 한다.

잘게 Overdesign한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원 같은 향수를 이 곳 정원 꾸미기에 인용하여 보았다. 있는 그대로의 정원처럼.

평촌 복합 빌딩

Pyeongchon Complex Building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인양시 평촌에 위치하는 이 시설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가 갖는 수도권 인구분산책에 따른 추출 인구의 수용 기능과 기존 도시와의 조화속에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중심상업기능의 보완, 생활편의 시설 이용의 편의 도모를 전제로하여 계획되었다.

배치계획

평촌역과 비산역을 축으로 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끝부분에 옥외광장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백화점, 호텔, 관람집회 시설을 배치하여 인근의 전철역과 근린공원 주차장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다양한 옥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옥외광장을 끼고 들어선 고층의 호텔은 보행자 동선축의 끝부분에 위치한 상징성이 강한 Mass로서 도심내의 Land Mark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 하였다.

평면계획

지하 2층과 1층에서는 주변의 전철역, 백화점 등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두어 주변시설과의 연관성을 높였고, 1층 부분에서는 옥외 미관광장을 중심으로 호텔, 백화점, 관람집회시설들의 출입구를 두어 적절한 기능의 분화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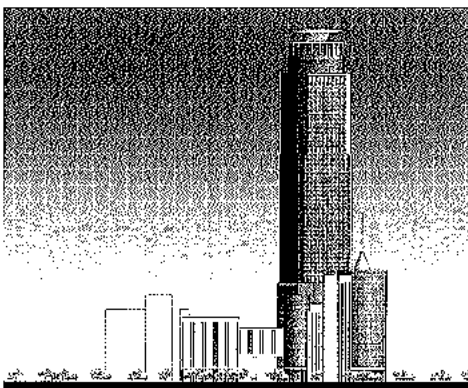
입면계획

고층부에서는 도심내 Land Mark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호텔상부에 원통형의 Mass와 부채살 형태의 장식물을 설치하였고, 옥외 미관광장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이 가질수 있는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Void한 유리면의 원통형 Mass와 Solid한 Mass를 적절히 혼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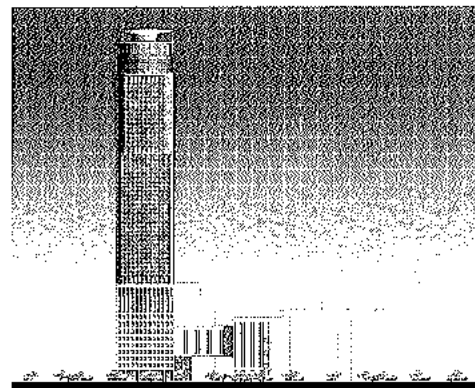
저층부에서는 옥외광장과 주변도로와 인접해있는 면을 약간씩 Setback하여 시설의 이용시 접근성과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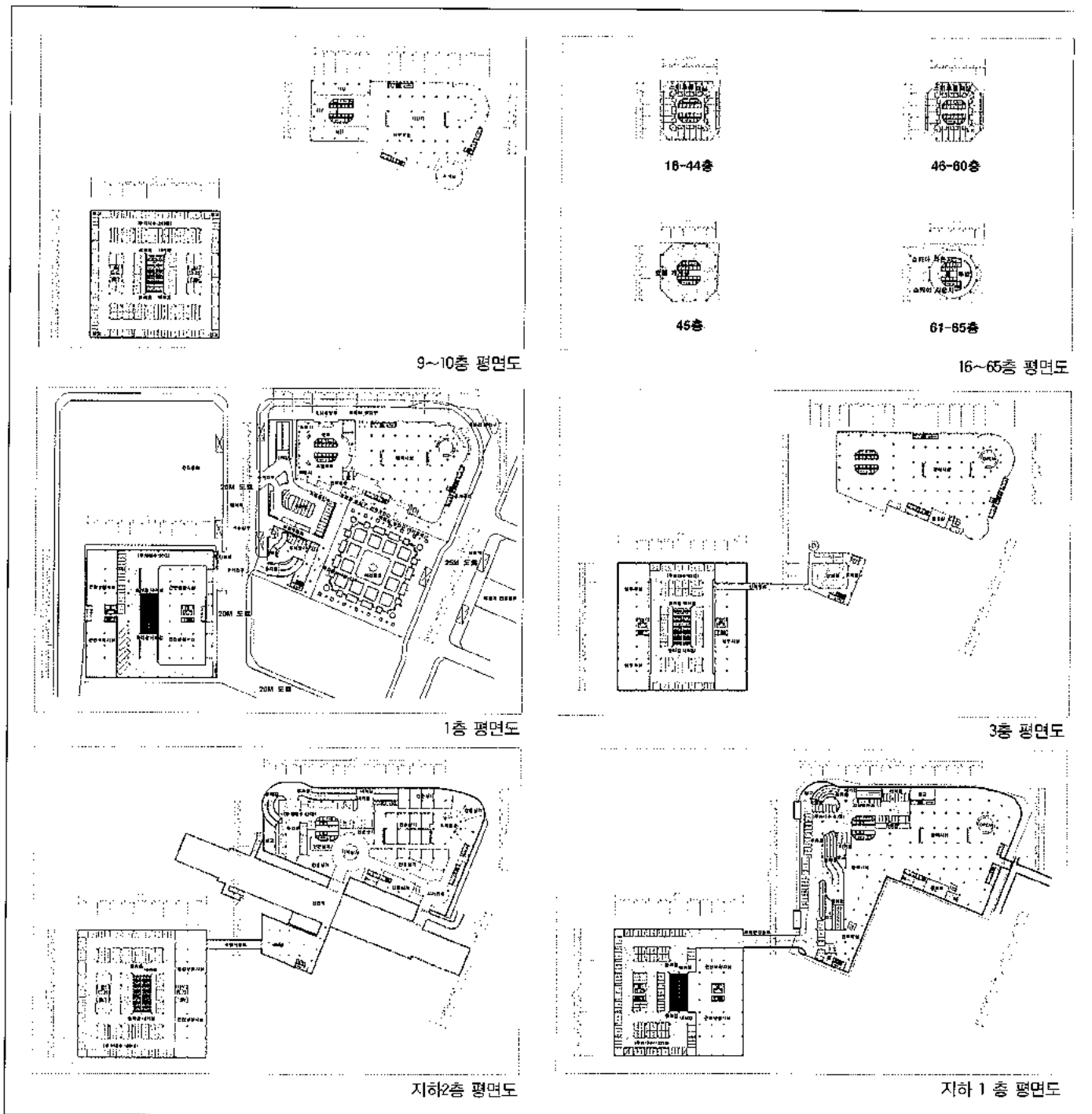
초기계획안 투시도



입면도 1



입면도 2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택지개발지구 도시설
계구역 C-1, 2

지역 · 지구 / 중심상업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용도 / 판매, 숙박, 운동, 근생, 업무

대지면적 / 22,120.5㎡

건축면적 / 15,526.5㎡

건폐율 / 70.30%

연면적 / 321,387㎡

용적률 / 1,034.8%

규모 / 복합빌딩 - 지상 65층, 지하 8층

주차빌딩 - 지상 10층, 지하 3층

Location / C-1, 2 Urban Design zone,

Pyeongchon-dong, Tong-an-gu, Anyang-shi
District / Commercial

Use / Business, Neighborhood

Site Area / 22,120.5㎡

Bldg. Area / 15,526.5㎡

Bldg. Coverage Ratio / 70.30%

Gross Floor Area / 321,387㎡

Gross Floor Ratio / 70.30%

Bldg. Sca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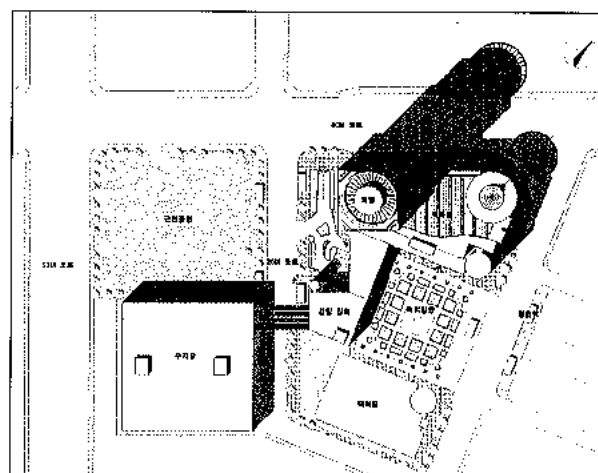
Main Bldg. - 8 Stories Below

Ground,

65 Stories Above Ground

Parking - 3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배치도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To the ideal from the real

주영정 /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by Joo Young-Jung

수없이 많은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소위 작품을 한다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가로서 자란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유명 작가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책임감 있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여건을 충분히 알아두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학교나 설계사무소에서 그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건축가라는 작가 정신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직업적인 면에서 내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필연적으로 회생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일하며 생각하며'라는 칼럼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아마도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차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디하는 것도 건축하는 사람의 책임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건축 설계 분야에서 활동할 후배들이 초기에 거치게 되는 현 교육현실에 대해서 생각한 점을 몇 자 적고자 한다.

많은 학생들이 건축과로 진학한다. '멋 있어 보여서',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또는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라는 것들이 진학 이유인 것 같다. 초기의 이러한 생각들은 설계수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졸업한 뒤 실무경험을 통해 많은 정신적 명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무감과 자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즉 건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건축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건축이란 지고지순한 어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수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라고만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사회변화나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자세로 일관하는 모습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독재자의 권위에 아부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처럼) 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행정제도나 사회분위기를 탓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학이나 전문대에서의 건축교육이 역사에서부터 디자인, 시공, 환경설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전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세분화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자각을 느끼게 하는 인성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는 전체 건축과 학생들 중 40~45%정도는 건설 회사로, 15~20%정도는 설계 사무소로, 나머지는 유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견 설계 사무소로 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그러한 비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인 벽에서 일자로 길러진다고 할까 출강을 통해 학생들의 설계 지도를 하다 보면

자유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창의력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오히려 엄격한 틀과 방향 제시를 통한 수업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나쁘게 말하면 반발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현재의 공학 교육제도하에서는 설계수업이 다른 수업과의 형평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시간 수가 빈곤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프로그램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설계수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3~5배에 달한다. 6년정도의 대학교육의 재교육기간까지의 건축교육을 대학이 거의 전담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졸업후 일정기간 설계사무소의 훈련기간 및 재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학제는 대학에서의 교육기간이 짧고 설계사무소의 재교육기간을 상당기간 두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설계사무소의 여건상 질이 높은 재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축교육의 주된 특징은 방대한 건축관련교과중에서 환경, 설비, 시공, 재료, 구조, 역학 등이 별도의 학교에서 수학토록 되어 있고 건축교육은 대학체제가 아닌 Ecole에서 수행되는데 있다. 즉 건축은 시나 음악, 미술 등과 같은 Beaux-arts로서 완전 분리되며 건축관련 과학부분은 예술로서의 건축과는 이분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미(美)의 판단기준이 기호의 변화에 따르는 상대적인 것이나 아니냐하는 페로와 블롱델의 유명한 친구 논쟁 이후로 예술은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고 과학기술과는 분리되어 왔다.

프랑스의 건축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전체 교과목에 할당되는 시간중 1/3은 대학의 재량에 맡기며 무엇보다도 교수진이 모두 실무를 겸하는 건축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론과 실질적인 측면이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이다. 국내처럼 교수 겸직이 불가능한 점은 여러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학문적 수련을 거치지 않고 손으로 얻어지는 기술만을 연고자 하는 건축가는 수고로움과 관련된 권위있는 자리에 결코 오를 수 없다. 반면 이론과 학문적 수련에만 의존하는 건축가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을 사냥하는 것이다. 양자에 정통한 지식을 얻는 건축가만이 목표를 보다 빨리 얻게되고 권위도 얻게 된다' 비트루비우스의 이러한 말은 요즘에도 옳바름만한 것 같다.

과거 학부시절과 실무를 지나는 나의 경험과 비교하여 볼 때 앞으로 건축설계에 몸담을 후배들은 아마도 더욱 더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세분화되고 정렬한 범주 및 새로운 전문지식들과 싸워야 할 처지다. 사

회변화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문화예술 쪽의 대중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오늘날에는 소위 작가군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몇 배나 더한 경쟁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사조를 소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의 '자리 찾기'도 시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계 미학의 모방적 디자인은 현대 모던건축의 단편적인 신앙에 바탕한 건축 교육의 산물일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창조해 낼 수 있고 역사주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실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건축에서의 수와 논리의 복잡 미묘한 성격을 탐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20년대 문화적 격동의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건축의 오브제들이 태어나고 오늘날처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과 함께 건축가들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건축가들은 오브제들의 다원적 성격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건축과 장소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를 개발시켜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포르츠담의 서술은 그러한 편향된 분위기부터 탈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신념은 초기 건축 교육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텐데 졸업 이후의 실무는 루틴한 작업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타 사무실의 경우에도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 앞의 이 친구들이 언필칭 건축가로서 벗어나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초조하기도 하고 되도록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건축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수없이 많은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소위 작품을 한다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가로서 자란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유명 작가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책임감 있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여건을 충분히 알아두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학교나 설계사무소에서 그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도자(陶磁)문화의 부흥을 기대하며

광주의 도자문화연구소는 연구기능외에 종합문화사업, 대중문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사업으로 도자문화의 질적향상과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졌다. 경기도 이천군의 칠만여평 대지에 건립 예정이며, 우리 문화의 정수인 도자문화를 되살려 대중적이며 수준높은 작품으로 모든 국민이 친숙히 도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 홍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술 도자기 분야와 생활 도자문화 분야를 크게 대별하고 도자기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식생활과 차생활을 연구하여 전통적 도자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려 당연히 실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하였던 옛날 도공의 기술과 멋을 담당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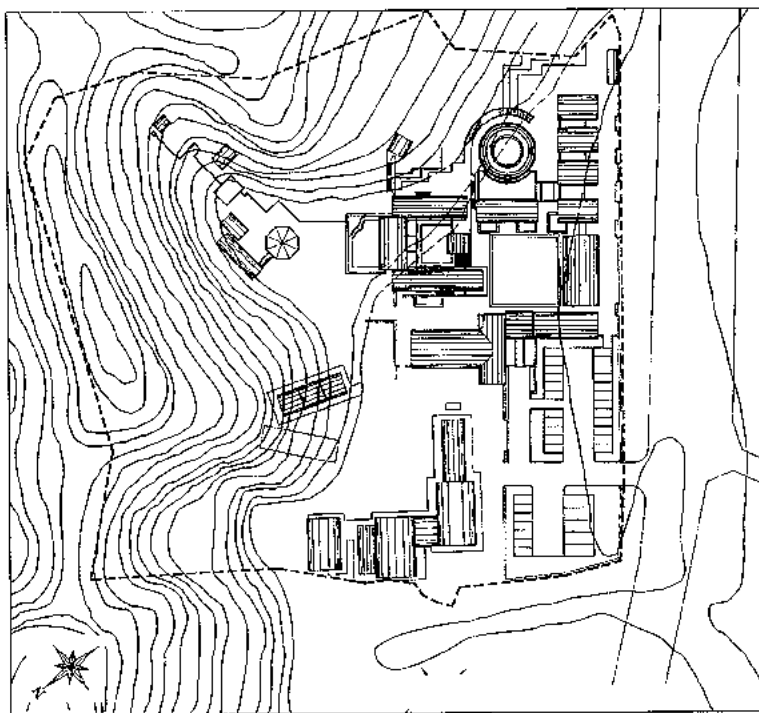
도자문화 연구분야의 생활도자기부에서는 실험공장을 중심으로 최첨단 정보를 바탕으로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에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전통을 현대화한 디자인 등으로 생활도자기의 제분야에 새로운 도자문화를 창조하고자 한다.

광주 도자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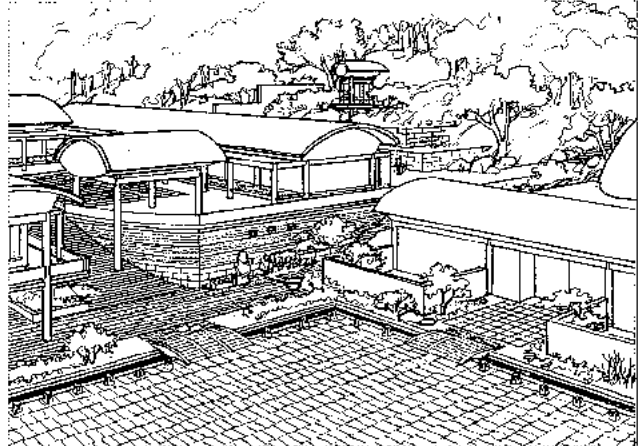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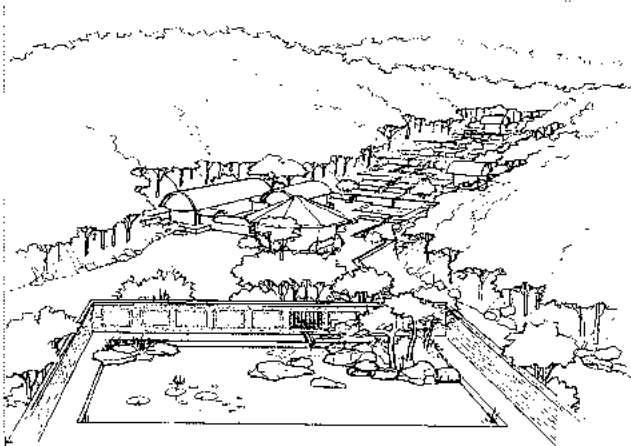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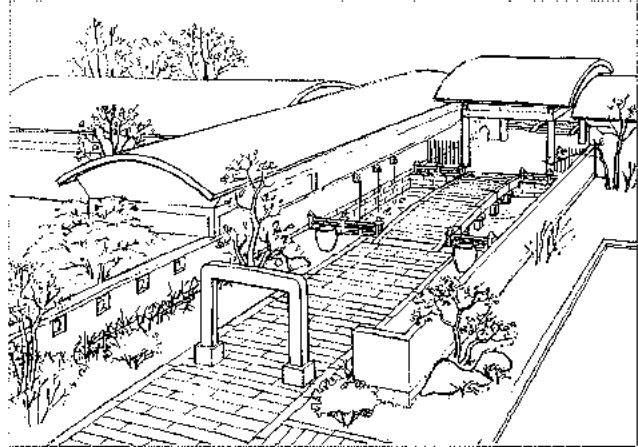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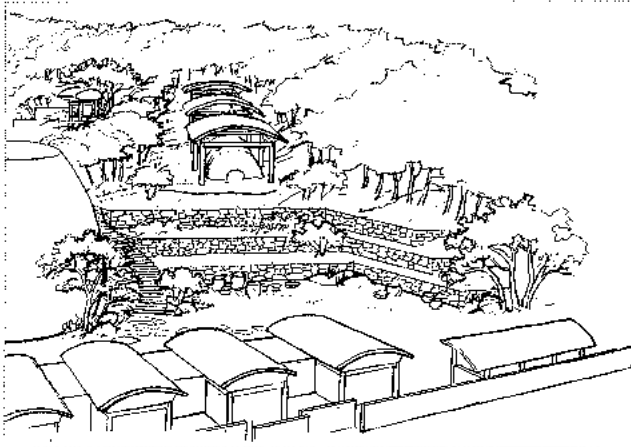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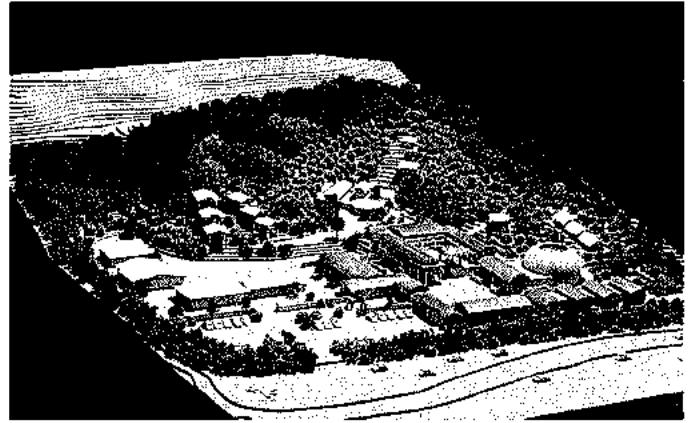
Institute of Traditional Ceramic Ware

박연심 / 장원건축+동정근 / 안해대 교수
by Park Yeon-shim & Dong Jeong-Keun

도자기는 그간 우리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재 혹은 예술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화의 고고학적 보관소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안치된 박제된 문화는 아무리 보존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문화인 것이다. 고여있는 물보다는 생동감있게 흐르는 물이 자체 정화로 맑은 물이 되듯이 생활속에서 유통되는 문화만이 살아있는 문화이며, 발전되어 가고 있다. 땅과 더불어 생활하지 않는 현대 도시생활은 이곳저곳 생활의 방편을 찾아 떠다니는 유목생활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방식도 이동에 유리하도록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으며, 소유할 필요가 없는 주거 형식도 가족의 독특한 생활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텐트속같이 임시 거처하고 쉽게 적응이 가능한 똑같은 유형의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생활도구들도 이동이 용이하고 간편한 형태로 바뀌어 왔으며,



단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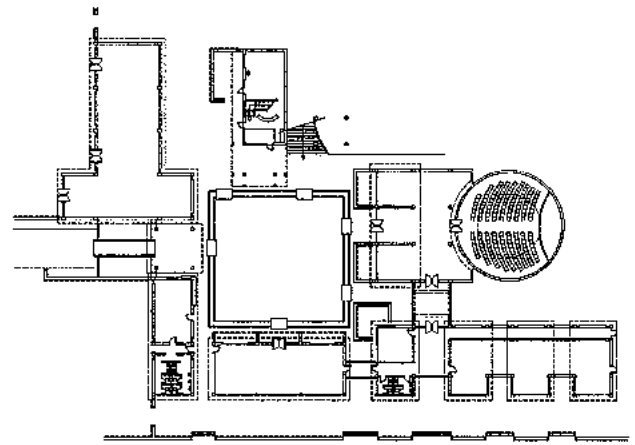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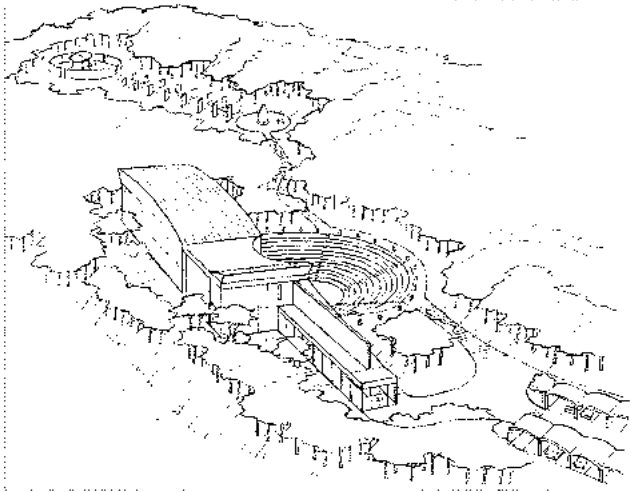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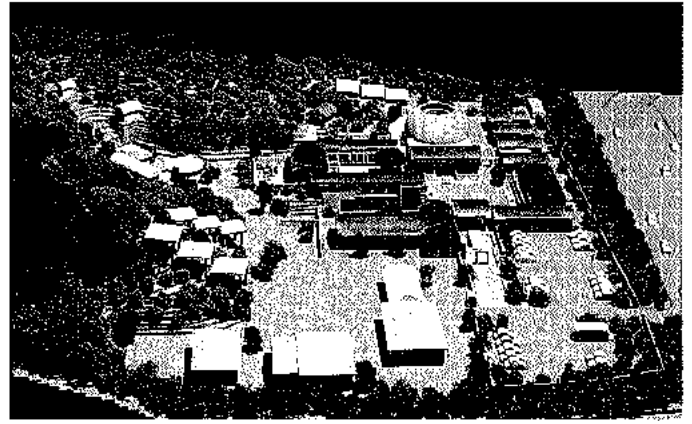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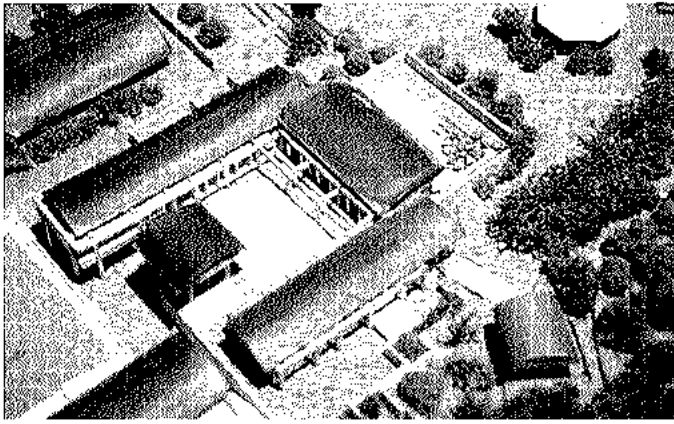


이러한 현대 유목생활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플라스틱 도구들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문화를 「플라스틱 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느 형태로도 모조가 가능한 플라스틱은 우리의 생활문화까지도 모조의 문화로 바꾸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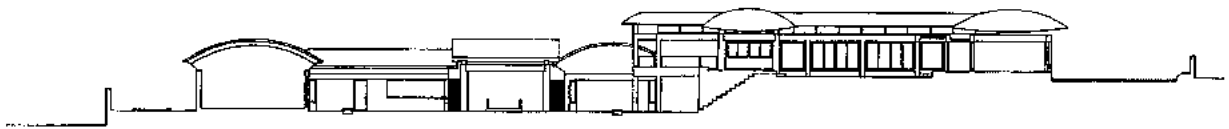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 이후는 생활의 방편을 찾아 이곳 저곳 떠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어느곳에서도 이곳저곳과 연결이 가능하게 되며, 어느곳에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 문화, 정치적 접촉도 가능하게 된다. 이후 생활은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독특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착생활로 다시 복귀하면서 플

라스틱 문화에서 질그릇 문화로 바뀌어 가게 된다는 희망이 있다. 주거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주거생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활 문화 전반의 문제이며,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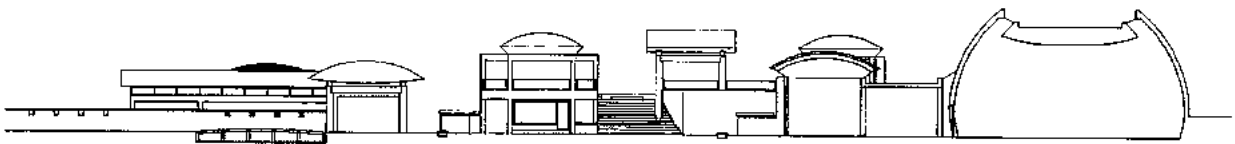
이곳 연구소에는 그린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코스를 계획하고 있다. 공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도자의 예술적 계승을 담당할 도예부분은 전통도자의 뿌리를 찾아 연구, 창조함으로써 환경과 생활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장식품을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여 옛날 도자문화를 이땅에서 되살리고자 한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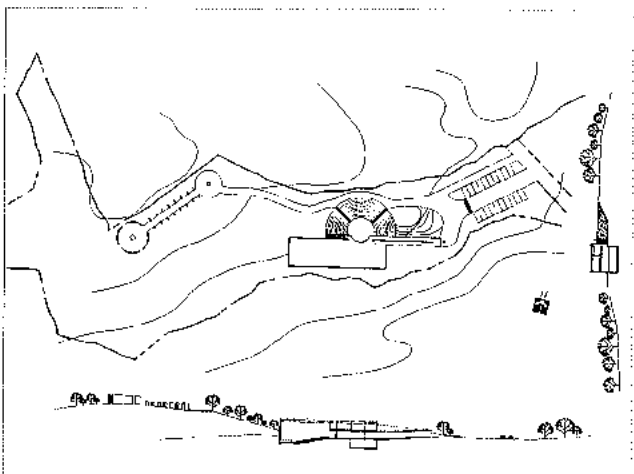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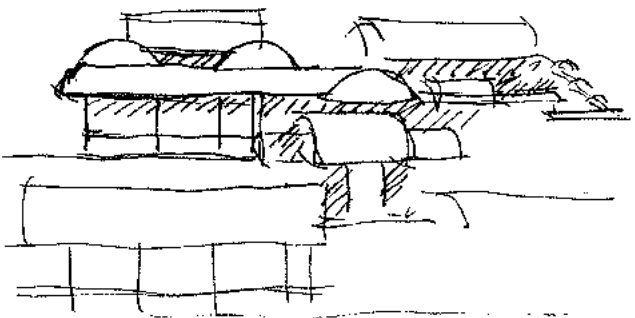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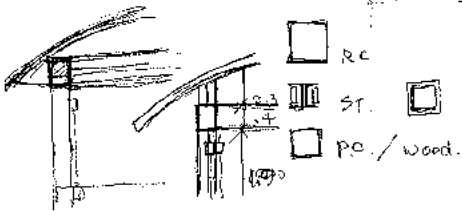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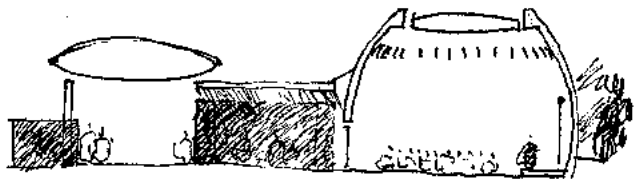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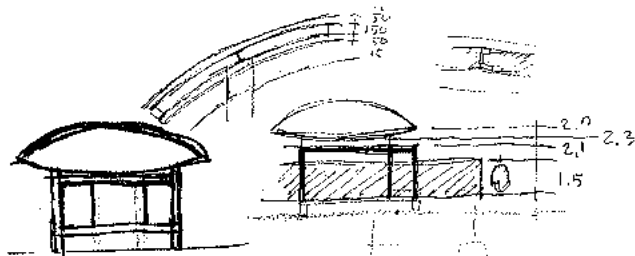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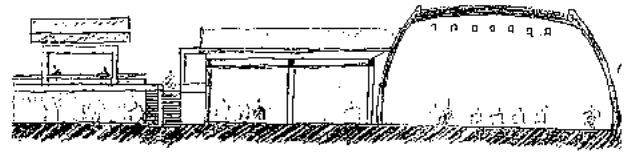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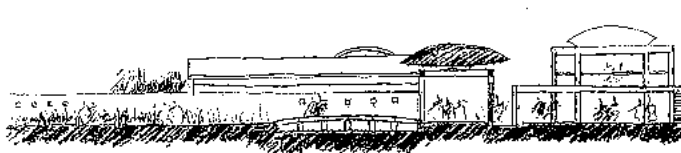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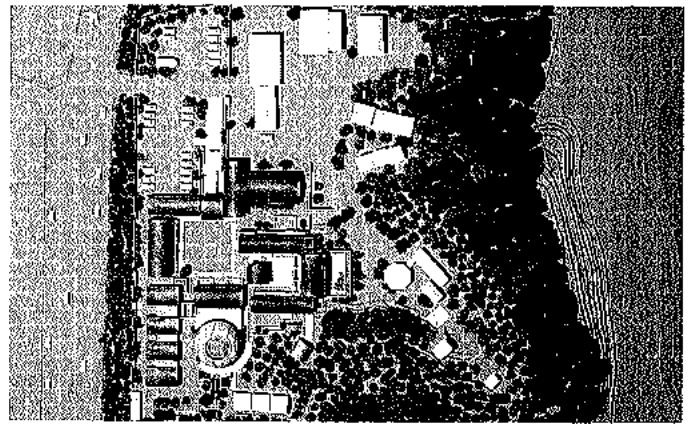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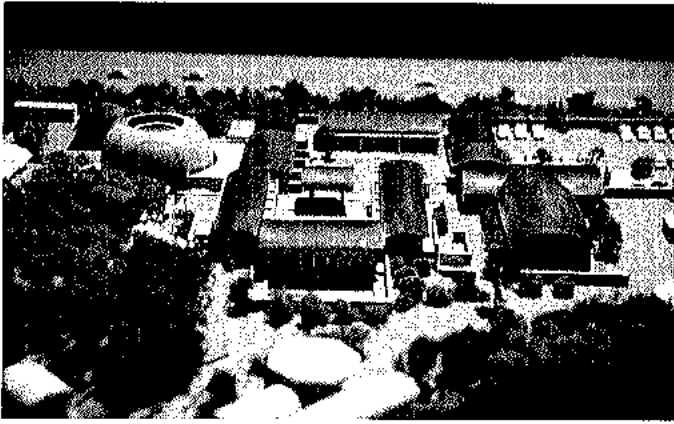
단지 종단면도



단지 횡단면도

한국의 전통적 공간속에서 모임을 갖고 대화하며 전통 음식을 시음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문화연구소와 그리고 차생활문화연구소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로 차 생활문화를 교육 보급하여 나아가서는 전통다도를 정립 하고 한국차문화 발전을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전통 정원을 되살리고 멸종되는 한국의 야생화를 가꾼다. 도자기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마가 딸린 공방, 작업장과 그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강당 등이 있는 도자문화연구소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소유 하고 있는 전통 도자기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이 단지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와 차생활문화의 연구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식생활문화와 차생활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보다 국제적 감각에 맞게 연구, 적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승도자기의 생활화로 이어지며 이는 일제시대의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본연의 것을 찾아서 일반인들의 경험의 장이 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의미와 외국의 손님에게는 이국적 풍물의 풍부함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봄직하다.



이천 도예문화 센터

인도의 르 꼬르뷔제 작품을 찾아서 (1)

The Works of Le Corbusier in India

찬디가르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by Kim Suk-Hwan

1. 찬디가르
2. 아메다바드

1. 찬디가르

찬디가르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225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델리에서 인도의 특급기차를 타면 약 3시간 30분 동안 가는 동안 차창 밖에 펼쳐진 폐허와 원시의 풍경을 지나 찬디가르에 당도하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달려온 거리 사람들의 행렬에서 벗어나 마치 현대 도시의 이성적 냉기가 서려있는 듯한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느낀다. 그곳이 인도의 현대도시이자 르 꼬르뷔제의 도시인 찬디가르이다.

1947년 편잡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서 분할되었을 때 고대의 도시 라호르는 파키스탄에 편입되었다.

1,250만 인구를 안고 있는 등 편잡을 위해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다. 1950년에 인도정부의 우수한 기사 바르마에 의한 항공기 답사에 따라 히말라야의 산록의 경사진 고원에 위치한 맛있는 부지가 발견되었다. 신수도는 그 토지의 촌락의 이름을 따서 Chandigarh이라 명명되었다. Chandhi는 「달의 신」의 이름이다.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였고 제 1기의 구역은 15만의 인구에 대한 것이었다.

인도는 르 꼬르뷔제에게 1925년에 발표한 「빛나는 도시」 이래 25년간 도시계획을 연구하며 다듬어온 솜씨를 처음으로 실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광활한 신천지에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평생동안 이상도시의 꿈꾸기를 그치지 않았던 시인이자 건축가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찬디가르에는 르 꼬르뷔제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정신과 설레임과 모험이 숨어있다. 건축가로서의 그의 가슴에는 항상 이상



인도의 르 꼬르뷔제 작품 소재지

적인 모델의 이미지가 잠재해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에 여행했던 아크로폴리스였다. 파르테논 앞에서 건축의 계시를 받았노라고 말한 그에게 아크로폴리스는 항상 뇌리에 건축의 원형으로서 자리잡고 그의 작업이 그 외같은 상태를 지향해 가도록 이끄는 내면의 힘이 되었다. 「파르테논과 같은 위대한 작품은 어디에서도 또한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다. 2000년 동안 파르테논을 보아 온 사람들은 여기에 건축에 대한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느껴왔다.」 그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을 때 그는 아크로폴리스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근대건축이 자라서 국제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르 꼬르뷔제에게는 그것이 올바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찬디가르의 계획이 수립되어가고 있을 때 이미 세계각국에 건설된 근대도시는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간 시대보다 환경이 황폐해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도 그러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그 자신이 주도한 근대건축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도래한 현실을 의식했다. 여기저기서 근대건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로피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아이를 낳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크게 성장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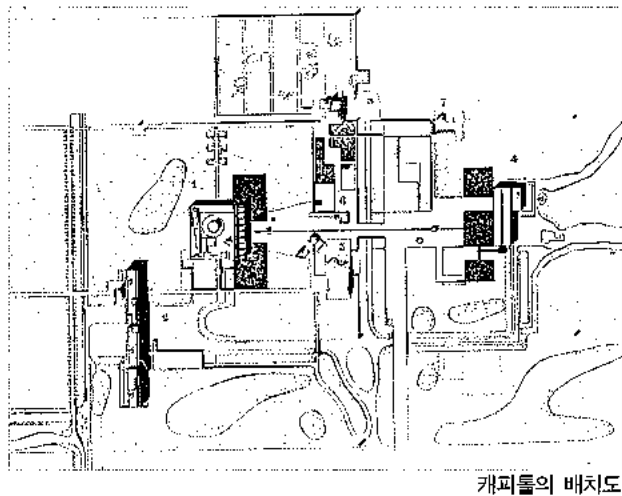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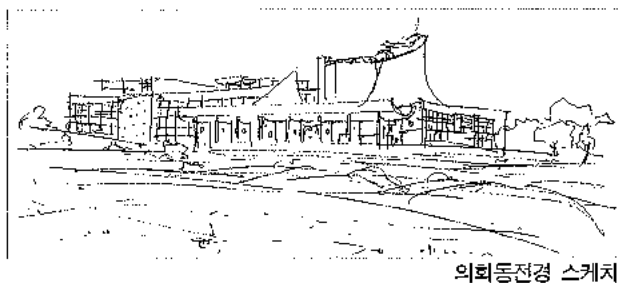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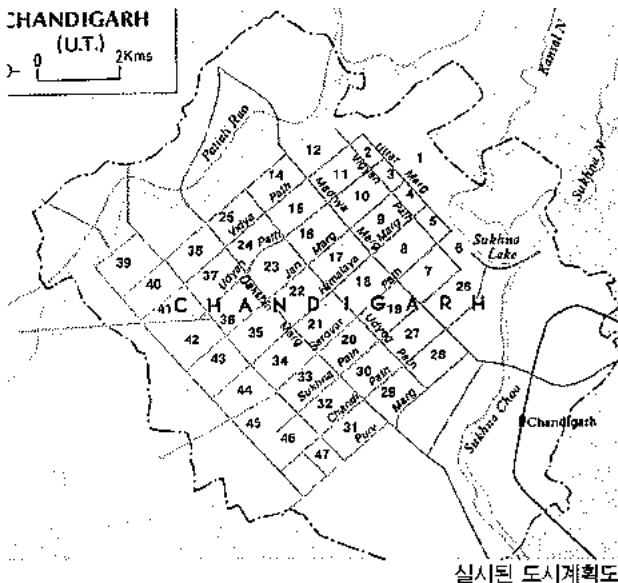
그는 찬디가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기계문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대의 도시의 문제에서 자연의 구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인도는 오늘날 사라져버린 기계시대의 최초의 동란의 시대를 살 필요는 없었다. 반대로 인도는 모든것이 가능해

졌을 때 눈을 떴다. 인도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는 결코 아니며 가장 고도로 또한 가장 오랜 문명을 갖고 있다. 인도는 예지와 윤리, 그리고 자각을 가지고 있다.」 기계 문명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해진 것은 자연과 인간의 회복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찬디가르 계획을 위해 인도를 접하면서 인도의 문화와 풍토를 이해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달리 틀에 갇혀있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인도인의 종교의식, 명상의 삶, 가난하지만 구속이 없는 삶, 자연과 인간의 공존, 태양의 축, 그들의 숲, 평원, 명상, 조용함, 침묵.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이미지가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2. 도시계획

찬디가르의 가로망은 근린주구 섹터의 단위로서 1,200m×800m의 모듈로 구획되어 있다. 그리고 캐피털은 거리의 머리부분에 위치하여 거리의 주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거리와는 분리되어 있다. 도로는 7V의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다. V1과 V2는 고속도로, V3은 섹터를 나누고 있는 도시의 일반적인 도로이다. 각 섹터 내부의 출입은 자동차용 도로로 부터는 그 연변에 있다 하더라도 섹터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고 섹터안으로 진입하는 V4로부터 V6를 이용해야 한다. 교통이라면 자전거, 스쿠터 택시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자가용차만 왕래하는 실정에서 곧썩은 도로는 항상 비어있다. 이곳에서는 인도인의 습관으로 인하여 <유니테 다비타시온>류의 고층건축 건설은 제외되었다. 섹터에는 사회계급에 따라 서열이 부여되어 있다. 이것이



현대의 도시계획 이론을 적용한 도시에 부정합한 영향을 끼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찬다가르의 도로를 지나면서 빌딩의 벽을 이룬 도시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마치 평원에 규칙바르고 곧게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 기분이다. 도로옆에 무성하게 자라는 가로수 사이로 인듯인듯 나타나는 낮은 건물의 모습에서 서구 여타 도시의 번잡하고 활기찬 도시풍경은 찾을 수 없다. 도로로 나뉘어진 각 섹터는 섬처럼 이웃 섹터와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생활은 섹터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도의 자족하는 공동체사회의 모습이다.

3. 캐피털의 건축

외부공간

이 곳의 방문자가 캐피털의 입구에 당도하여 건물을 보기 위해선 광장을 향해 오르막 길을 잠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약간 휘어진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에 대법원이 나타난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인공의 언덕에 가리워졌던 의회동이 왼쪽에 나타난다. 이것은 설계자의 연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다. 왼쪽에 공사중 파낸 흙더미로 만들어진 인공의 언덕과 오른쪽의 숲이 그 연출의 세트이다.

캐피털 마스터 프랜은 평면자체가 기하학적 변주의 시이다. 거기에는 건물의 평면도와 같은 감각의 진수가 담겨있다. 의회동과 대법원 영역의 경계에는 명상의 계곡이라 불리는 인공계곡이 있고 의회동 정면에 좀 떨어진 거리에는 그들의 탑이 서있다. 그리고 양건물의 축과 직각방향에 펼친손의 모뉴먼트가 서 있다. 의회동과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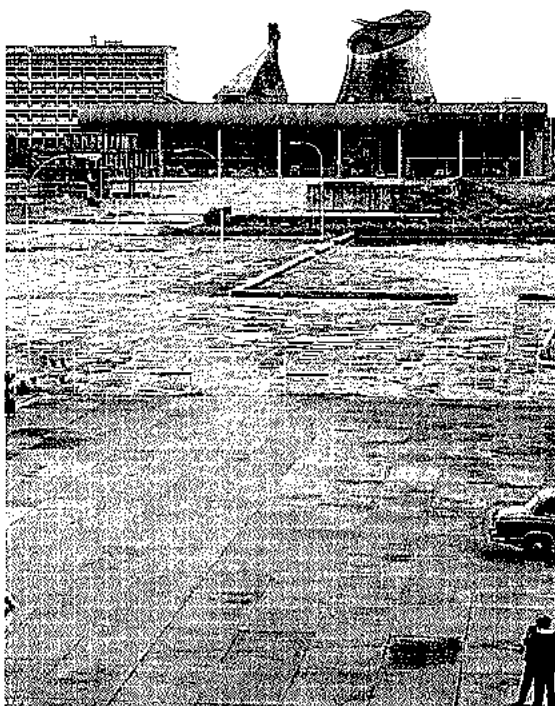
법원 앞에는 인공의 풀에 건물이 비치도록 되어있다. 의회동과 법원사이의 거리는 460m에 이른다. 이러한 각각의 성격을 지닌 건물과 조형적으로 계획된 시설물들의 화음이 전해지는 이 외부공간은 캐피털에서 가장 강한 상징성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 서면 캐피털의 몇개의 건물에 가리워지는 것을 제외하고 멀리 평원 끝까지 시선이 닿아 고요하게 느껴진다. 현대인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고요함과 침묵의 힘인지도 모른다.

행정동은 이곳의 중심에 초대되어 있지 않다. 주 광장에서 행정동은 의회동의 너머로 비쳐서 보인다. 르 꼬르뷔제의 생각에는 행정동은 단지 사무하는 기관으로 인식된 듯 하다. 이 곳에 초대된 또다른 건물은 그 행정의 수반이 거처하는 총독관저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실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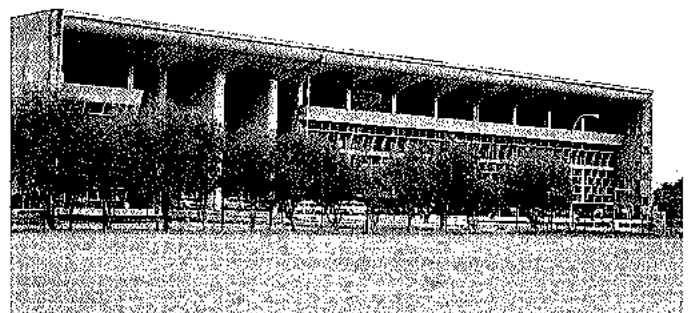
대법원

대법원은 캐피털 건축 가운데 가장 먼저 착수된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1951년 현지의 방문에서 건물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찾아냈다. 태양이 이 나라에서는 명령적인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그들의 차양을 만드는 것이 제일의 해결책이다. 브레이즈 소레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낭만적인 표현요소로서도 안정맞춤이었다. 계획할 당시에 그려진 그의 낭만과 시심을 알 수 있는 스케치가 남겨져 있다. 거대한 차양이 외부공간을 포용하듯 펼쳐져 있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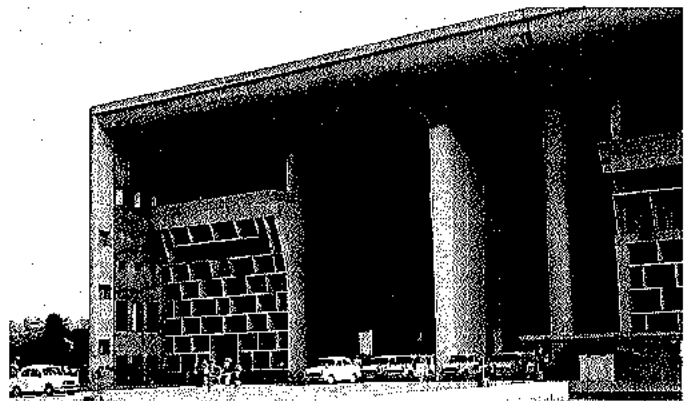
대법원의 지붕에 떠있는 연속된 볼트의 거대한 우산의 그들은 그 건물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회



대법원에서 바라본 의회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주출입구 상서

화적인 비례로 구성된 브리즈 소레이유가 외부에 설치되어 지붕형태와 함께 강한 조형적 힘을 발산하고 있다. 법정은 기둥과 기둥사이에 작은 칸막이상자처럼 끼워져 있다. 주 출입구는 지붕까지 오픈되어 의사당쪽에 면해 있다. 두꺼운 측벽의 개구부와 같이 도려낸 부분과 아치 터널을 이루는 기둥에 가가원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어 강렬한 느낌을 더해준다. 내부로 진입하면 3층까지 연결된 경사로에 다다르게 된다. 경사로에 연결되어 엘리베이터 홀과 각층의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대법원 후면에 돌출된 사무실 블록의 매스도 브리즈 소레이유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생명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조형의 힘에 있다. 그러나 건물내부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 천정의 노출배관, 그리고 콘크리트의 시공상태가 너무 조잡하다는 느낌이 든다. 건물의 이용계층이 낮아서인지 건물이 관리상태도 좋지 않고 지저분하여 이롭게 느껴졌다. 높은 층높이에 의해 길어진 경사로를 오르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르 꼬르뷔제에게 있어서 이 경사로는 인도의 건축에서 개념상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인도인에게는 기계보다 보행의 이동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르 꼬르뷔제가 설계와 건축에 전념할 때에도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시인과 화가나 조각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회동

그의 초기의 스케치에는 의회동도 마주보는 대법원과 같은 이미지로 계획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을 진행해 가면서 변화해 나갔다. 그는 아페다바드를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사바마티 강가에 줄지어 솟아

있는 쿨링타워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것을 회의장의 구조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내부의 그 매스가 지붕위로 치솟아나와 이 건물을 특징짓는 조형적인 틀이 되었다.

이 건물의 내부공간의 중요한 개념은 기둥의 숲이 리듬을 만들어 내는 높고 서늘한 공간이다. 이것은 내부의 외부공간이다. 상·하원의 회의장과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내부광장에서 흩어져 각기 다른 목적의 장소로 찾아 들어간다. 각층을 이어주는 것은 르 꼬르뷔제가 즐겨 사용하는 경사로이다. 이 곳을 오르며 다양한 장면의 스펙타클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회의장 꼭면 셀의 상부는 경사지게 하고 거기에 금속제 뚜껑을 덮었다. 이 뚜껑은 바로 물리실험실과 같은 장치로 자연채광의 조절, 인공광, 환기, 그리고 한편으로 전자 음향기구를 겸한다.

음향처리에 불리한 원형의 평면에서 흡음재료의 사용 위치에 따라 음을 반사하고 흡수할 수 있게 하여 계산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벽면은 르 꼬르뷔제의 그림에 의한 거대한 티피스트리와 조형적 모티프들의 균형에 의해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건물의 외관은 기하학적인 매스와 덧 붙여진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되어 졌다. 건물의 정면에는 빗물흐름의 형상이 매우 조형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판형의 기둥은 자유스럽게 크고 작게 뚫려 있다. 외부에 설치된 브리즈 소레이유는 단순한 매스에 볼륨감을 더해준다.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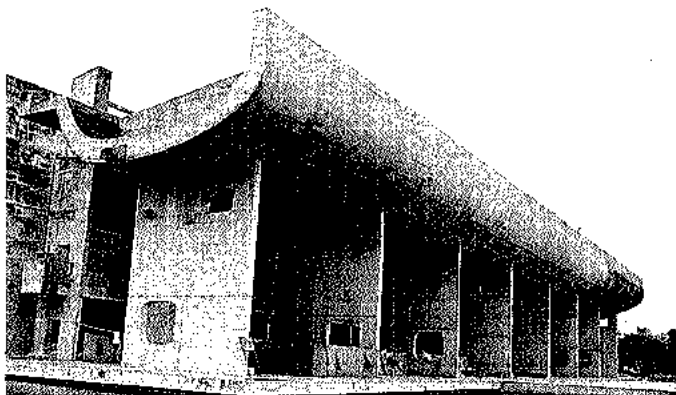
르 꼬르뷔제의 작품 중에는 조각가가 하듯이 조형적으로 통일된 형, 그리고 조립공이 하듯이 고립된 형태나



대법원의 내부통로



의회동 전경



의회동 입구의 캐노피

부품의 조합의 두가지 수법 중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행정동도 단순한 매스의 독립적인 구성에 조형요소가 첨가되고 각 요소간에 긴장을 유발시키는 르 꼬르뷔제의 후자의 수법이 읽혀진다. 행정동의 특징은 길이 245m의 길이의 길다란 매스에 손잡이처럼 매달린 경사로의 외부매스, 그리고 모듈러에 의해 크고 작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긴 건물은 신축 조인트에 의해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 건물에 들어가려면 먼저 외부에 설치된 출입관리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건물의 중앙부분에는 수 층분의 높이를 가진 개구부가 있어서 외부에서 건물의 앞뒤를 연결해 주고 있다.

현관을 진입하면 대법원과 같은 코아 구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건물의 규모에 비해 에레베이터의 대수가 적다는 느낌이 들었다. 각층의 이동은 경사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외부에 혹처럼 붙여진 경사로의 내부는 정사각형의 모자이크된 작은 창으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온다. 지붕에 올라가면 예의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르세이유 아파트에서처럼 경사로와 계단 그리고 흥미로운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외부시설물의 장치들이 조형적인 콘트라스트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옥상정원은 넓은 평원으로 시선을 가져가는 조방의 장치로서 더 큰 가치가 느껴진다.

펼친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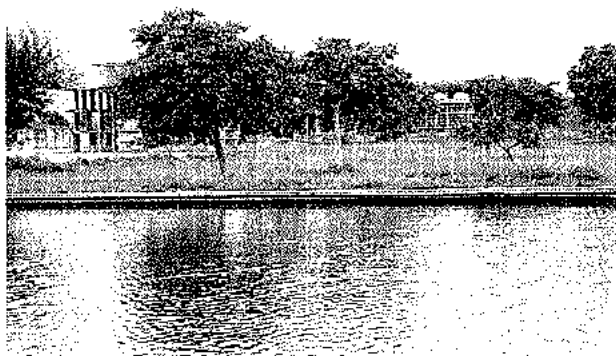
선사시대 이래 손은 작업의 도구로서 뿐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해 왔다. 즉 인간의 손으로 기원할 수도,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작가로서 그 자신의 손은 창작의 상징체였다. 찬디가르 캐피털을 계획하면서 그는 평화를 염원하는 상

징으로서 손의 모뉴먼트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1945년 11월 26일 르 꼬르뷔제는 네루수상에게 보내는 한통의 편지에서 펼친손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인도는 예지와 윤리, 그리고 자각을 지니고 있다. 이 손은 창출된 부를 받기 위해 펼쳐져 있고 그것을 자국민 및 다른나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펼쳐져 있다. 펼친손은 기계문명의 2단계, 즉 조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줄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인도의 기술자 바르마는 르 꼬르뷔제에게 이렇게 써 보냈다. 「인도에는 람 브하로자(Ram Bharosa)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봉사하기를 지향하는 최고선에 대한 지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허한 국민입니다. 당신의 펼친손의 철학은 인도인들에게 전면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손은 멀리서도 보여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손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 있게 되어있다. 펼친손의 지면아래에는 오픈된 공공토론의 무대와 객석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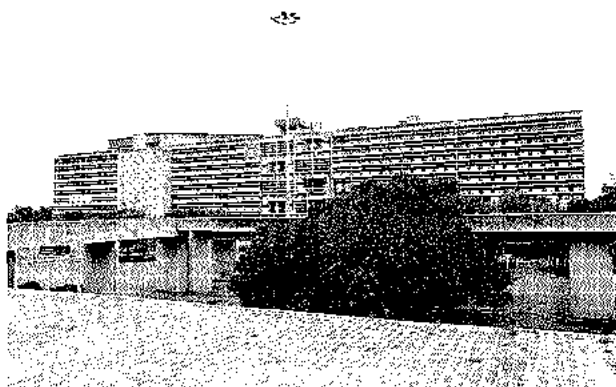
4. 그외 지역의 작품

미술관과 어린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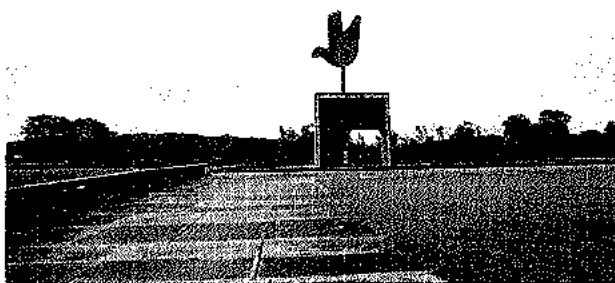
와상으로 성장해가는 미술관. 이 구상은 1931년 처음으로 계획된 이래, 끊임없이 되풀이 제안되어,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유기적 구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로서는 와상의 미술관이란 자연의 성장법칙과 일치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기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는 1950년대에 동계열의 3개의 미술관을 아메다바드와 동경에 각각 실현하였다. 그중 아메다바드의 작품이 시초이다. 이 곳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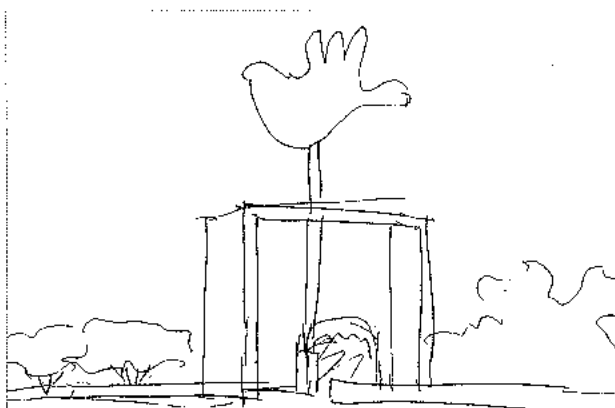
의회동 전면의 인공호수



행정동 전경



펼친손 전경



펼친손 스케치

그 원형이 세심한 주의에 의해 더욱 세련되어 건축적 힘이 느껴진다. 캐피털의 의회동에 사용된 빗물홈통이 축소되어 측면에 매달려 있다. 이 홈통과 상부에 돌출된 톱라이트는 단순하게 처리된 건물의 매스에 생기를 불려 일으킨다.

피로티를 통해 현관에 진입하면 평면의 일부가 2층까지 오픈된 홀이 있다. 그의 미술관에 대한 구성을 보면 동일한 기능의 장소가 필요한만큼 연결되고 또 필요에 따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2층까지는 경사로를 통해 오르게 되어있다. 내부의 분위기는 노출콘크리트와 부분적으로 칠해진 벽과 천정면의 시각적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도에 지어진 여타 건축과 같은 서늘한 느낌이다. 미술관 내부의 천정에서는 톱라이트에 의해 자연광이 부드럽게 실내에 퍼져 전시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인공조명과와의 조합에 의해 잘 조절되어지고 있다.

르 꼬르뷔제에 의해 실현된 3개의 미술관이 동일한 개념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의 동선구조와 내부 마감과 채색여부, 그리고 빛의 취급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각각의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어린이박물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르 꼬르뷔제 기념관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두개의 건물이 각기 콘크리트와 철골이라는 구조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로잔에서는 평소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다른 표현의 실험성을 느꼈으나 친근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기억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도적인 소박한 표현이 친근감을 갖게 한다. 단지 이 건물에서 어색하게 느껴진 부분은 떠있는 지붕구조에 돌출된 보였다. 외벽창은 라푸우렛 수도원에서 음악가 바이잔스키와 같이 연구한 음

향의 기하학과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에 독립된 매스로 구성된 경사로로는 눈높이 천정스라브 밑에서 설치된 연속창의 어스름한 채광에 의한 동굴과 같은 원초적인 공간의 이미지 등 그의 특유의 공간처리 방법으로 되어있다.

건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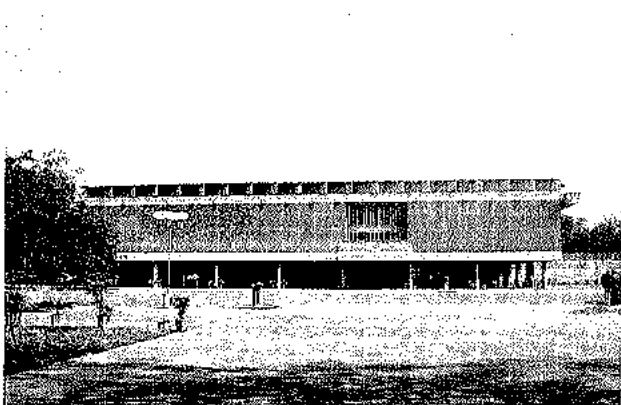
건축학교의 배치는 아틀리에와 중정이 교실을 둘러싼다. 건물은 직북으로 향해서 북광선의 은은하고 서늘한 광선을 받도록 하였다. 방의 칸막이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외벽은 보통 적흑벽돌로 되어있다. 캐피탈에 가까이 있는 건축이 강한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교실의 창은 천정쪽에 높이 설치되어 있다. 교실에서 창너머 주변풍경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고 강한 직사광선이 책상위에 비추어 눈부시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것은 말년의 베니스 병원에서 제안했던 실내 채광의 원리와 유사하다.

파도의 물결모양이 반복되는 듯한 외부형태는 그의 건축 가운데 독특한 이미지이다. 외부형태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단순한 모습이지만 내부는 조형감이 충만하다. 들려진 지붕의 곡면구조는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어 노출 콘크리트의 마감으로 되어 있다. 공동블럭의 창틀을 쌓아만든 회랑은 벽으로부터 빛이 흘러들어 창 기하학적 패턴을 바닥에 수 놓는다.

오토 크립하우스

찬디가르의 주위에는 파치아리강과 마니, 마줄가 강이 있으나 몬순시를 제외하고 대개는 말라있다. 5월과 6월의 폭열기에는 모래와 먼지가 시를 덮는다. 그래서 물을



미술관 전경



어린이 박물관 전경



미술관의 전시실 내부



건축학교의 회랑 내부

채우기 위한 독을 만들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호수에 물이 가득 고였다. 이렇게 저장된 호수에 의해 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마련되었고 보트놀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클럽하우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르 꼬르뷔제는 캐피톨 북쪽에 건물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히말라야 들까지 넓은 풍경을 가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르 꼬르뷔제는 도로에서 3m 내려온 곳에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산책로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 건물은 등간격의 스펀에 의한 소박하고 낭만적인 작품이다. 단순한 매스와 그 윤곽 안에서의 복잡한 콘트라스트와 개방된 공간처리가 자연스럽다. 단순한 구성 안에 거장의 자연스러운 솜씨가 녹아있는 작품이다.

5. 피에르 잔느레의 작품

르 꼬르뷔제의 전작업에는 많은 협동자가 등장한다. 언젠가 르 꼬르뷔제 건축에서 그 협동자들의 역할을 정확히 규명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피에르 잔느레의 역할에 대하여 기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 말없고 겸손한 건축가의 개인 작품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다. 찬디가르에 있는 간디 기념관은 그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 작품에서 나타난 디테일의 솜씨는 한마디로 르 꼬르뷔제 작품 그 자체의 느낌이었다. 르 꼬르뷔제의 아이디어가 실현하는데 이 사람의 많은 도움이 있었음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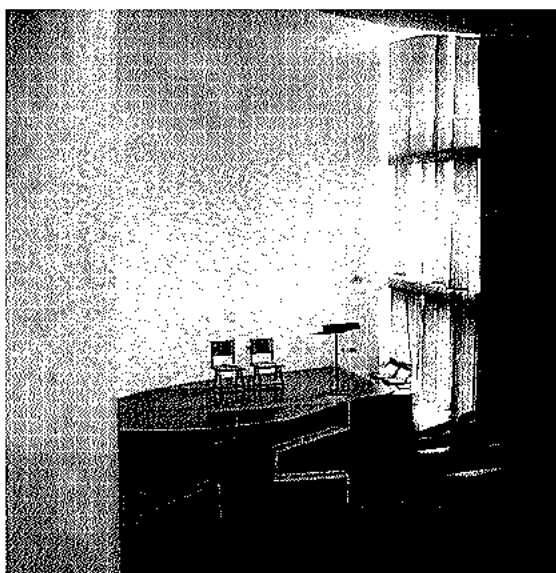
알프레드·로토는 1968년 6월에 「베르크」지에 피에

르 잔느레의 역할을 훌륭하게 표현한 말을 실었다. “이 걸출한 건축가, 무비의 남자를 너무도 뒤쪽에 숨겨온 것은 아닐까, 르 꼬르뷔제 자신과 현대 건축이 피에르 잔느레에게 부하한 것을 되돌아 보지 않고”라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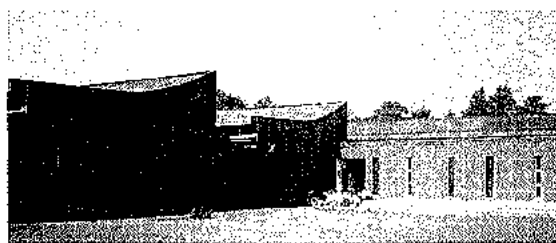
6. 찬디가르의 교훈

여기에는 한 건축가의 꿈과 의뢰자의 요구에 의해 건설된 거대한 드라마가 있다. 우리는 찬디가르의 거대한 건축적 힘 앞에서 현실안에서 꿈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본래의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현실은 르 꼬르뷔제의 세대가 꿈꾸던 이상의 미래사회로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거는 이상과 꿈이 있었음이 진실이었다.

우리는 르 꼬르뷔제가 애정을 갖고 평생동안 변함없이 추구해온 성과앞에 서 있다. 그리고 건설된지 30년이 지난 오늘 찬디가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적이 되든지 동지가 되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건축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건축의 역사상 드물게 시적 감성을 건축에 표현한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 시적 감수성의 정신이 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건축이 추구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이다. 건축은 시대 물질적 상황이 아닌 인간의 속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생존의 불안 앞에서 르 꼬르뷔제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사고가 결집된 찬디가르는 미래의 건축창조에 길잡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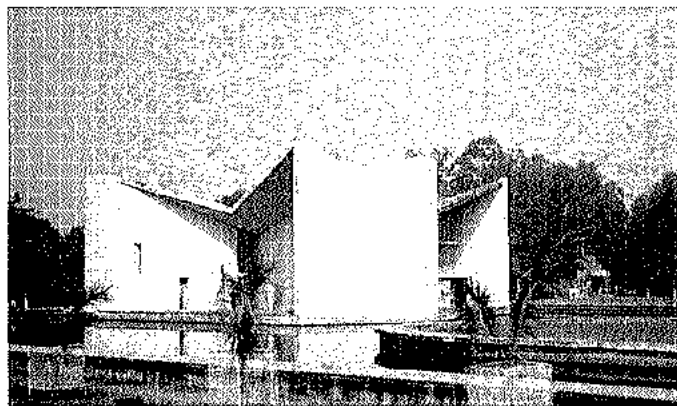
간디기념관의 강당 내부



건축학교의 중정 부분



클럽하우스의 피로티 부분



간디하우스 전경



필자가 정인국 교수를 처음 면담(面當)하게 된 것은 1968년 홍익대학 재학시절의 강의실에서 이다.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마치 한 마리 큰 학과 같은 걸음으로 긴 복도를 걸어오셨다. 적당한 이마에 머리는 올백으로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눈이 깊고 입매가 다부지다. 비교적 큰 키와 조금 여윈 체격에 다리가 특히 길어 휘청거리듯이 걸어 오셨다. 교단에 선 이 분은 우리에게 세계의 건축예술이라는 창을 활짝 열기 시작하였다. 건축과의 고학년에서 비로서 만난 그 첫 강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적 충격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다가온 단학(丹鶴)과 같은 인상은 점차 그분의 걸모습만이 아니라, 이 세기말의 선비와 같은 내적세계를 알게 되면서 더 짙어갔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대학부설연구소에 들어 보다 깊이 그의 내면세계를 알아가며 '겉과 속의 일의성'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강의는 항상 생동적이다. 그 이유는 그의 강의를 현장성이 생생하고, 역사라는 시간성을 분명히 하며 내용을 주지시켜 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건축을 국제성에서 말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지체성을 통해 현재를 알게하는 그의 설득력은 항상 인상적이었다. 197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장에 임명되며 홍익대학의 최고학부로서 면모가 완성된다. 같은 해에 건축·도시계획연구소장에 취임한다.

정인국 교수는 1974년 한국건축가협회장에 피선되며, 그 동안 잠시 소원하였던 건축사회에 다시 깊이 개입한다.

한국의 건축가—정인국(完)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 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영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한국 목조건축양식론」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홍익대학 대학원장 정인국/1973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국제건축가연맹 UIA 관계

1974년에 한국건축가협회장에 피선된다. 당시 부회장은 한정섭과 이해성 교수였다. 이 1974년에서 1976년까지 2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건축가협회의 팔목할 만한 사업은 국제건축가연맹 UIA를 통해 국제무대에 나서는 것이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가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이 건축 사회에서 제기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協會는 建築創造家들의 團體이기 때문에 그러한 人間의 集團으로서의 純粹性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社會의 다른 團體가 人緣, 地緣, 學問에 의하여 얽히고 설힌 관계로 苦悶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協會만은 超然히 建築家다운 孤高함을 지키면서 오직 韓國建築이 무엇을 追求하는 사람들의 團體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建築哲學을 確固히 하고자 하는 本人의 宿願을 여러 會員들

의 힘을 빌려 成就하고자 합니다. 解放된지도 이미 30년이 지난 오늘 建築家 個個人の 自己 建築作品에 대한 態度는 있어도 어떤 時期에 있어서 韓國의 立場을 엿볼 수 없습니다. 이 길을 위하여 建築批評을 暢達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建築家들 자신이 自慢과 自己陶醉와 偏見을 버리고 思索할 줄 아는 雅量을 베푸는 일이 앞서야 할 줄 압니다. 셋째로 建築家들의 韓國文化社會에서의 자리를 한 단계 높이는 일이 여러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建築家와 施工業者의 區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나 建築家들의 作品의 質의 향상과 建築論의 暢達과 文化藝術團體 안에서의 役割만 제대로 한다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素地는 되어 있습니다.”¹⁾

이러한 정인국 회장의 목표는 그 후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이북 출신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때 변방인이었고, 학연과 지연으로 기존 사회의 구도에서 불편하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의 이러한 학연과 지연의 타파를 위한 충언은 그밖에 여러 경우에서 많이 토로되는 것과 같이, 그의 심상에는 이러한 고질적 폐쇄의 구조가 한국건축계를 위해 건강하지 않은 요소라는 기억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둘째, 건축의 철학 부재에 대한 문제는 동시대의 한국건축이 갖는 원천적이고도 해소되지 않는 허점이다. 문화인의 인식도 무위도식의 양태로서 그러하거나, 사회적으로 보습의 기회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인국 회장은 가장 앞서 자신이 실천을 보여 간다. 셋째, 한국문화 사회에서 건축의 위상이 그의 사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건축의 진화라는 것이 몇몇의 건축적 관심이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회와 문화와 함께 총체적으로 진보된다는 메커니즘임을 설득하고자 함이다.

1974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규칙이 다시 개정된다.

건축으로서는 제23회부터 국전운영위원회에 건축부문이 처음 참여하게 되어 정인국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때부터 국전은 4부로 구성되는데, 1부 - 구상 회화 및 조각, 2부 - 추상회화 및 조각, 3부 - 서예 및 사군자, 4부 - 공예, 건축, 사진으로 구성되되, 2, 4부는 봄에, 1, 3부는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박사학위 수여 / 1974년

그는 건축사회의 기여를 위한 신인 발굴과 함께 그의 교육적 책무는 국전에서 건축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책무를 위해 당시 엄덕문, 강명구 등과 함께 찾은 국전에서의 기회는 당시로서 건축의 사회화를 위한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였다.

1975년 5월의 13

차 국제건축가연맹(UIA) 베니스 총회에는 정인국, 나상기, 김수근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북한은 이미 1967년 대회부터 계속 이사국에 선임된 바 있는데, 이 총회에서 한국의 이사국 진출을 막으려고 전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북한은 국제정치와 문화계에서 한국에 크게 뒤져있지 않았다. 정인국 교수는 UIA 이사국 피선을 자축하는 리셉션에서 건축가 단체 활동의 국제화, 문화전문 단체로서 건축가협회의 결속을 위한 동기로서 강조하며, 그리고 대북(對北)관계에서 뒤쳐졌던 이념적 감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最近의 國際情勢는 多極化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國際間的 地位向上을 위한 모든 努力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는 오늘 建築家 團體라고 종래와 같이 坐視할 수 없는 形便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北僞建築家集團體는 계속 8년 동안 理事國으로 行세하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變遷하는 國際情勢와 對北僞와의 關係를 고려할 때 우리 韓國建築家協會가 當당 理事國으로 選出되어야 겠다는 信念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韓國의 建築家 자신들의 문제에 關係해서 協會가 國際團體 機構에 理事國으로 當選되었을 경우 그 지위가 우리 社會에서 더 높게 評價되며 우리의 社會的 職分도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希望이 결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행하게도 理事國으로 當選되기는 하였으나 과연 文化施策者나 社會에서 더 향상된 待遇를 받을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우리들 自身이 더욱 努力해야 될 줄 압니다. 協會도 창립된지 20년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명실공히 협회를 이끌고 나아갈 世代가 交替될 적합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뒤에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일을 해 놓고 물러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協會 안에는 山積한 많은 問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國際的인 活動舞臺를 넓혀주는 것이 韓國建築 水準을 향상시키는 實效한 것이라 느껴집니다.…”²⁾

문화공보부의 총회 참가비 지원과 외교적 자원과 함께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던 이 UIA 총회에서 정인국은 이사, 김수근은 교체이사가 된다. 그러나 정인국 교수는 이사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1976년 별세하였다.

이미 그는 UIA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 1974년부터 박사학위 논문과 건축단체장의 업무로 그의 건강은 피폐해 가고 있었다.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먼 외국 여행길을 염려하고 말렸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



홍익대학 건축전시회

1) 건축가협회 회장 취임사 1974. 3.

2) 韓國建築, 世界舞臺 跳躍의 契機 이북 / 회장 鄭寅國 / 建築家 75.6.-10.



제13차 UIA총회, 베니스 / 왼쪽으로부터 나상기, 정인국, 김수근

의 뇌리에는 한국건축가협회장에 취임하며, 그가 한국건축가사회에 던진 문제와 해결의 상당한 답이 이 총회의 성과에 달렸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건축이 갖는 동시성으로서 시대적 가치관 화석화(化石化)된 물적 대상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가치로 지속될 형성의 가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고무하는 것은, 비록 불변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성으로서 가치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국면을 관류하여 온 현재성으로서 가치까지이다. 이와 같은 동시성의 관점에서, 이론과 작품 작업을 하기에, 합리주의 - 지역적 가치성 - 한국성의 모색에 이른 과정을 동태적으로 실천한다.

정인국의 작품, 학술, 사회에는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사실상 그는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중에서 지고의 예술적 성과를 본 것은 충분치 않다. 그의 이론과 실천이 항상 정합(整合)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실천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어떤 한계성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합리주의 시기에 사무소 스펠은 거의가 6m 그리드 단위였다.

그가 원칙에 너무 쉽게 타협되는 경향도 보인다. 그가 낭만적 기운에 기울어진 시기라 하여도 그의 조형은 합리주의의 전형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다. 한국성의 시기에서 그의 조형은 합리주의의 원칙성을 뛰어넘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의 학술적 성과가 국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연구계획에는 더 큰 나머지의 것이 남아있었다. 그의 사회적 성과는 지대하나, 그 자신이 학자라는 한계에서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대적 역할이 예술, 사회, 학술이라는 총체성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허기(虛氣)가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정인국 교수 자신에 있어서나 그의 시대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더니즘을 정리하며 건축의 문화적 동태성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 자각의 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였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의 아주 사소한 요구조차 물리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자 하였다. 그러하고 보면 그의 천수(天壽)를 우리 시대사회가 빼앗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한 작가가 그의 시대적 소명과 건축관을 어떻게 일치시키며 한 시대의사를 밝히는가를 그에게서 배운다. 비록 20년에 지나지 않는 작업시간을 통해 3개의 시대정신을 경험하며, 자기 변용을 거듭하는 동안 궁극적인 자기 결론을 성취하는 경과를 살피게 되었다. 정인국 교수에게 있어서는 그 이후에 남은 궁극성이 무엇인

지는 가늠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도 확실한 것은 건축의 시대적 책임을 강조하며 또한 시대적 논리를 실천하는 그의 뜻이다.

1974년 10월 21일, 문화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정인국에게 보관문화훈장(寶冠文化勳章)을 서훈하는데, 그 훈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축적 표현에 깊은 연구가 있으며, 국전 심사위원, 문화재위원으로 피임된 이래 역사적 구조물 보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유의 건축양식의 분석 평가 및 중요건물의 건축활동의 참여와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한국건축 발전에 공헌하였다." 위의 훈공이 정인국 교수의 전모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개인의 훈공으로서 매우 장황하다. 아마 이것이 정인국 교수 또는 이 시대상황에서 선구자들이 가지게 되는 하이브리드한 사회적 역할이었다. 그는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건축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책임을 일구었다. 정인국은 대한건축학회의 이사에서 참여이사까지를 지내나, 학회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관계가 다져지지는 못하였다. 1976년 대한건축학회상 학술부문이 정인국 교수에게 추서(追叙)된다.

1974년 초 그는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국제 Habitat 회의에 참석할 계획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간암의 병마에 휩쓸리게 되고, 이 여행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다.

그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더니스트와 같이 일제시대의 교육경험을 가지고, 광복 후에 건축적 실천을 도모한다. 더욱이 그는 이북출신의 월남 지식인으로서 이데올로기라는 난류를 거슬러 넘어와야 하였다. 해방후 파쇄하여진 사회에서,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척박한 경제와 문화의 환경에서 합리주의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빨리 세계의 건축 상황이 제3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설파하며, 한국적 모더니즘을 실천하여 보인다. 지역적 특질은 그의 절대적 가치관이 되며, 그 고유성을 찾기 위한 원형질의 연구로 되짚어 간다. 이 일련의 과정은 그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한국성의 모색이다. 동시에 그는 건축이 얼마나 사회적이며 총체적으로 거동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교육계, 건축단체, 국제 무대에서 마지막 기운까지 소모하는 것이다.



건축가협회 회장 정인국 / UIA 이사국 피선 축하 리셉션

禮記의 祭統편에 “祭者 所以追養繼孝世 孝者 畜也 順於道 不逆於倫 是之謂畜”이란 글이 있다. 이를 풀이해 보면 “아버이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생전에 어버이에 향하던 효심과 봉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전의 효도를 부족하게 여기고 봉양 역시 흠족하게 여기지 않음이 진실된 효자의 마음이다. 그런고로 어버이가 돌아가신 후 그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와 봉양을 제사로써 하는 것이다. 효란 畜(기른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사람된 도리에 따라서 人倫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이로써 어버이에게 봉양을 다 하는 것. 이것을 畜이라고 한다” 이렇듯 제사란 효의 근본으로서 생전에 못다한 효도와 봉양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조상숭배는 아직까지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으로서 생생히 남아 있다. 특히 제례에 관계된 의식은 오히려 번성일로에 있는 느낌마저 든다. 가령 문중에서 재실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비석을 크고 화려하게 새로 세우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상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효의 대상일 뿐이다. 제사는 죽은 자를 산 사람 모시듯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숭배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敬拜이지 신앙은 아니다. 죽은 사람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종교의 범위에 들기도 하지만 관

념적으로 死者에 대한 추모이지 신앙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재실 건물에는 ‘追慕’나 ‘遠慕’ ‘景慕’ 등의 상징적 용어의 현판을 걸어놓는다.

제사라 하면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일컫는 것으로 요즈음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天地나 日月, 星辰을 비롯하여 風師, 雨師, 社稷, 山岳, 江川 등을 대상으로도 제사를 지내왔다. 이 모든 것이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영원적인 의식인 셈이다.

家禮에 의하면 선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가옥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례는 사후세계의 관념과 밀접한 관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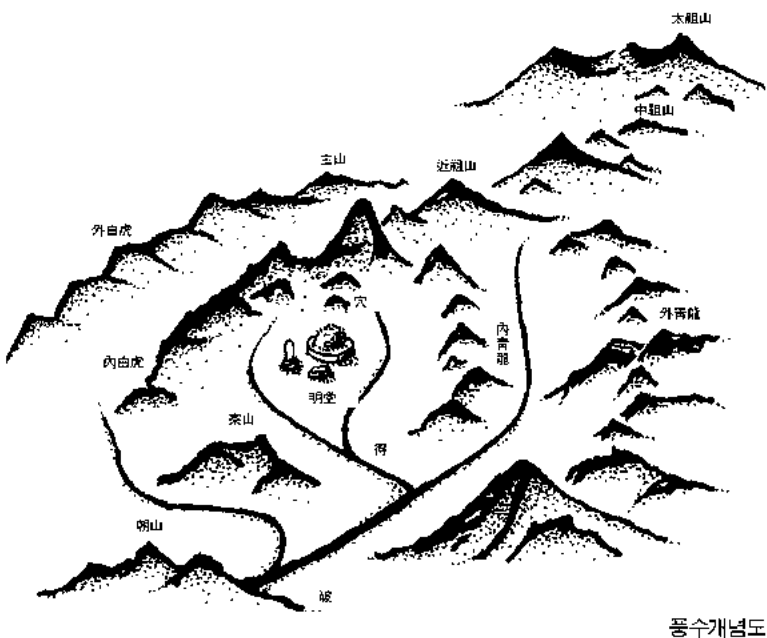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재실건축

김지민 / 목포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Chi-Min

1. 머리말
2. 향교건축
3. 서원건축
4. 재실건축
5. 가묘건축
6. 정려건축
7. 맺음

1)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91, p.65



풍수개념도

제를 가진다. 禮書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례는 祠堂祭, 時祭, 禰祭, 忌日祭, 墓祭의 다섯가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행되고 있는 제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茶禮, 忌祭, 時祭로 나누고 있다. 그 가운데 시제는 墓祀로 구분하기도 하며, 차례는 省墓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제례중 본고에서는 時祭에 관계된 건축적 형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時祭란 해마다 음력 10월에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로 다른 말로 時祀 또는 時享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멀리 사는 후손들까지도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내는데 특히 이름높은 선조의 시제에는 많은 후손들이 모여 성대하게 의식을 치른다. 제수비용은 문중답을 마련하여 그 전담의 수확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자손들이 시제시마다 거두어 비용을 마련하기도 한다.

재실 건립의 의미-同姓同族的 개념

시제시 많은 후손들이 모이는 것은 문중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 만큼 문중이 번창하였다는 뜻이다. 다른 표현을 쓰면 묘자리가 명당이라는 뜻도 된다.

재실이란 제수를 장만하고 제례절차를 논의하고 또한 많은 후손들의 숙박을 위해 마련된 건축적 공간이다. 곳에 따라서는 문중의 모임이나 書齋 같은 강학기능을 하는 곳도 있다. 재실은 齋舍, 齋閣 등으로도 호칭되는 데 재사란 명칭은 주로 경북의 안동지방 등지에서 주로 불려진다. 본고에서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널리 호칭되는 재실이란 명칭을 사용하겠다.

유교제사가 처음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고려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실 건축의 본격적인 역사는 역시 조선시대부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조선초기 王陵주위에는 능의 보호와 제사의 기능을 위한 건물이 지어졌는데 가령 세종 2년(1420)에 만들어진 山陵制度를 보면 능 주위에 5칸 규모의 丁字閣과 함께 능을 수호하는 17

칸의 齋所를 두었다는 기록²⁾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마 일반 사대부 가문의 제례 관습에도 영향을 끼쳐 지금과 같은 재실건축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재실의 건립도 역시 유교적 사회윤리관이 배경이 된다. 주자가례에 의한 禮齋는 제사로 이어져 가묘, 서원·사우의 사당 등이 세워지고 또한 문중 중심의 재실이 건립되게 되었다. 이같은 문중재실의 마련은 조선후기(특히 17C 중반 이후)에 와서 일반화되는 역사적 산물로 주목되고 있다. 이는 17-18C에 일반화된 서원·사우의 건립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지위를 높이며 또한 당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지역의 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대체로 17C 중엽 이후 문중의 활동은 ① 몇 개의 堂內家族이 연계된 혈연·생활공동체적인 동족마을의 문중활동과 ② 군현단위의 지역적 배경과 그 사회적인 기반에서 자신들의 족적인 지위확보를 위하여 入鄉祖·中始祖·派祖를 정점으로 군현내 隣親의 여러 동족마을의 조직들이 동원 연계되는 향촌사회구조와 직결되는 문중활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³⁾ 예컨대 재실의 건립은 ① 門祠의 건립경향 ② 長子중심의 제사상속과 재산 상속 ③ 中始祖의 강조 ④ 同姓同族 관념의 강화 등과 연결되는 일련의 변화양상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물론 이중에는 20C 이후부터 최근에 창건된 재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예로 전남 보성군의 경우 크고 작은 재실이 61개 있으나 이중 25곳 정도는 해방이후에 창건된 재각이다. 이러한 현상은 숫적으로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숫적으로 많은 만큼 재실은 향촌사회의 유교 문화적 경관 구성요소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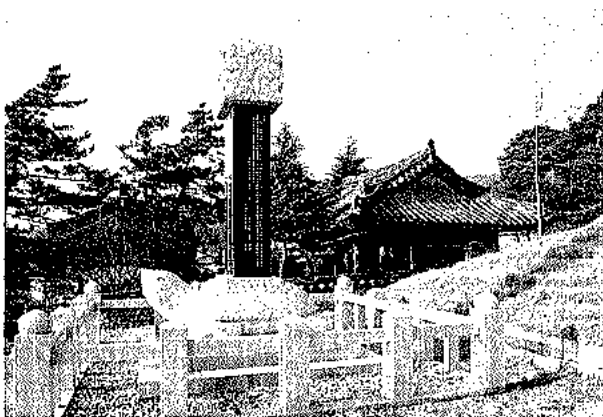
2) 世宗實錄 卷 第七 二十五: ...下階之平下溪直南五十步二尺間構丁字閣五間於丁字閣西北階上設燒錢臺石一如上燒錢臺石之排又於陵東南山下平地六步許構守陵齋所十一間之奉
3)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295



1



3



2

1. 시제시 飲福 모습. 시제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진설,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중헌, 철차, 삼시, 합문, 계문, 헌다, 철시복판, 사신, 음복, 절상 순으로 이루어진다.
2. 최근에 세운 경남 거창 어느 문중의 묘비. 가문번창의 한 척도 인양 대단히 화려하고 장대하다. 뒷쪽의 건물은 1975년경에 신축한 재실이다.
3. 경북 안동의 안동권씨 능동재사 전경. 고려 三太師 중의 한 분인 權幸 선생의 묘제를 위한 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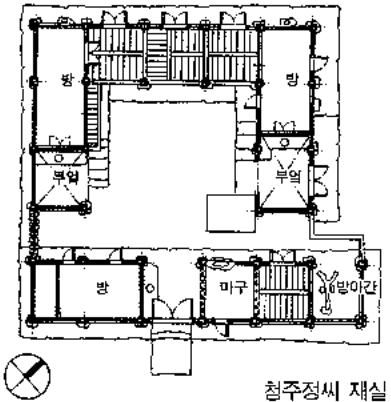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재실은 宗家, 書院, 祠宇, 精舍, 亭子 등과 더불어 씨족마을의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실의 여러 모습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은 경북 안동지방이다. 이 지방은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답게 재실건축도 잘 발달되어 있다. 가령 문화재급 재실만도 15곳 정도가 되는데 이중 安東權氏 陵洞齋舍, 義城金氏 西枝齋舍, 安東權氏 所等齋舍, 晚雲洞 慕先樓 등은 국가 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가 높다. 이외 固城李氏 齋舍, 崇室齋舍, 可倉齋舍, 台庄齋舍, 南興齋舍 등도 독특한 재실건축의 모습을 안고 있다. 한편 전남의 海南尹氏 永慕堂과 追遠堂 등도 이 지역의 주목되는 재실이다.

건립사례

영모당·추원당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제라리와 강정리에 위치한 영모당과 추원당은 우리에게 漁夫四時詞로 널리 알려진 孤山 尹善道(1587-1671) 문중의 재실이다. 영모당의 건립 배경은 寒泉處士 唯益의 이곳 은둔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진다. 유익은 魚樵隱 尹孝貞의 증손자이자 杏堂 尹復의 손자로서 그의 형인 유익과 함께 성균관유생으로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러던 중 형인 유익이 李爾瞻의 폐비상소에 가담하자 아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자 강진 한천동에 낙향하여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다. 유익은 한천동에서 은둔하던 중 우연히 개간중에 선대의 墓前誌石을 발견하였고(海南尹氏族譜에는 지식의 발견자를 조카인 尹善五로 적고 있음), 이로써 실전되었던 尹光瑛과 두 아들 田鳳, 田鶴 3부자의 묘를 찾게 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尹光瑛은 해남윤씨 시조인 尹存喜의 8세손으로서, 해남 녹우당에 보존되어 있는 보물 제483호 <至正十四年奴婢文卷(1354년, 恭愍王 3年)>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이를 계기로 유익을 중심으로 한 이곳 해남윤씨들은 묘소를 새롭게 수축하였으며, 곧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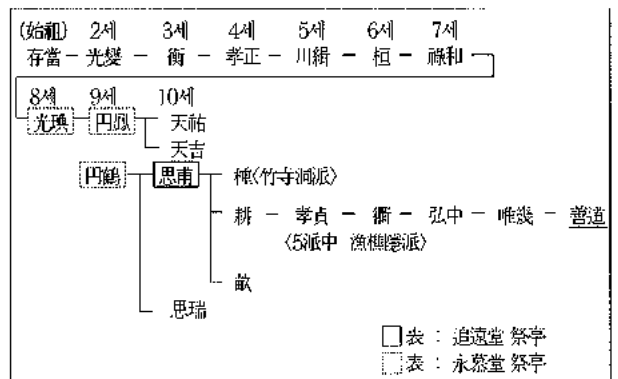
1687년(숙종 13)에는 묘역에 재실을 창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永慕堂인 것이며 이때부터 尹光瑛, 尹田鳳, 尹田鶴 3부자를 祭享하기로 하였다고 한다(그러나 이 부면에 관하여는 그 뒤인



청주정씨 재실

1728년(英祖4)에 이르러 재손들이 회의를 거쳐 3부자를 享祀하였다는 기록도 있다(海南尹氏 族譜). 창건당시 각파에서는 임원을 정해 각 파별로 派錢과 성금을 모아 5칸의 齋室과 齋直舍, 大門, 子孫留宿室 등을 축조하였고, 1812년(純祖12)에 일부를 보수하였다. 최근의 건물은 1970년대 초에 일부 보수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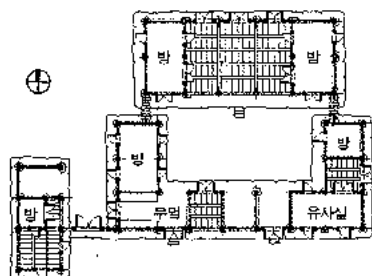
光瑛의 先代로서 묘소가 전설된 7대선조(앞의 삼도 참조)를 뒤희는 제단을 영모당 후정에 마련하여 齋享하고 있다.



<永慕堂·追遠堂 관련 해남윤씨 世系圖>



경북 안동의 남흥재사 루각 당호. 전국의 많은 재실에서는 선조의 경배사당을 고취하기 위해 遠慕樓, 追遠樓, 景慕齋, 世慕齋, 慕先齋 등의 당호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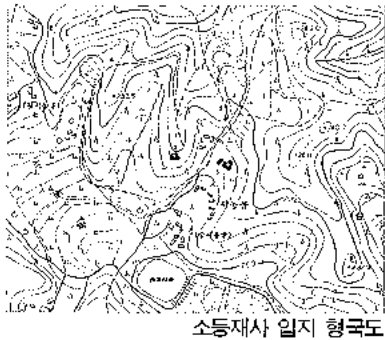


소등재사 배치·평면도



송실재 루 내부와 지붕틀 가구

추원당은 해남 윤씨 德井洞派의 직계선조인 通札公 尹思甫와 兵曹參議 尹耕을 향사하기 위해 1649년(仁祖27) 孤山 尹善道(1587-1671)가 주축되어 건립한 재실이다.



소동재사 입지 형국도



사지재사 입지 형국도

尹善道는 5斗落을 회사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며 (門中에 전해오는 바로는 20斗落), 이 과정에서 康津·海南地域의 후손들이 거출한 墓位畝는 總 4石 4斗 5升落只로 2결 34부 7속이었다.

고, 内外子孫으로 참여한 사람은 尹善道, 李揆, 嚴鼎耆, 尹善繼, 尹善覺, 尹善昌 등 15人이었다. 한편 이와 함께 尹善道는 바로 이해에 追遠堂의 건립을 추진하여 완성을 보게 된다. 건립당시 추원당의 규모는 5칸이었다.

묘지와 재실의 자리-風水

재실은 墓祭를 위해 마련된 건축적공간이기 때문에 재실의 자리는 묘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우선 기능상 묘와 근거리에 위치해야만 시제시 편리하고 아울러 고지기의 묘역관리도 용이하다. 따라서 묘지의 입지환경 고찰은 넓은 의미에서 재실의 입지환경 고찰이 될 수도 있다. 옛부터 후손들의 길·흉·화·복을 곧잘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우선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조상의 묘자리다. 조상의 묘가 명당이어야만이 후손들이吉하다는 것이다.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 문제는 곧잘 우리의 가정과 문중에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門中墓 특히 始祖墓의 자리 선정을 유교사상이 팽배했던 당시의 사회관습으로 보아 후손들의 관심은 매우 지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朱子家禮에 의해 전승되어 온 조상숭배의 유교적 관습이 역행으로 다시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풍수의 개념을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世系圖에서 보는 바처럼 海南尹氏 10世 思甫에게는 3子가 있었고 長子인 種으로부터 竹寺洞派가 갈려나가고 次子인 耕의 系下에서 다시 5派(魚樵隱派, 龍山派, 項村派, 富春派, 支石派)가 구별된다. 고산 윤선도는 이중(思甫-耕-孝貞-衢-弘中-唯幾)로 이어지는 魚樵隱派에 속하였다. 思甫의 부(円鳳)와 伯父(円鶴), 祖(光琰)를 모시는 큰 문중재실은 永慕堂이고, 이 追遠堂은 그 아래에서 다시 분리 건립된 耕이하 5파의 재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649년이 追遠堂이 건립되기 이전인 1634-5年 사이에 尹善道는 당시 星山懸監으로 있으면서 직계선조인 6대조 思甫와 5대조 耕에 대한 享祀를 도모하게 된다. 당시 그는 그의 6대조인 思甫와 비 淑人宋氏, 5대조인 耕 및 비 淑夫人李氏, 淑夫人鄭氏墓가 퇴해 봉괴직전에 있음을 알고 耕이하 5派 諸宗孫들과 협의하여 향사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에 内外子孫들은 1人當 布 1匹과 白米 1斗 이상씩을 거출하여 이를 殖利하므로써 秋享經費로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미구에 다른 弊端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尹善道는 다시 諸宗들을 모아 상의하여 祭畝를 마련하였다. 이 1649년 5월의 사정을 알려주는 古文書가 海南 蓮洞의 綠雨堂文書 中에 있는 〈坡山先祖墓位畝立券〉(1649년 5월)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당시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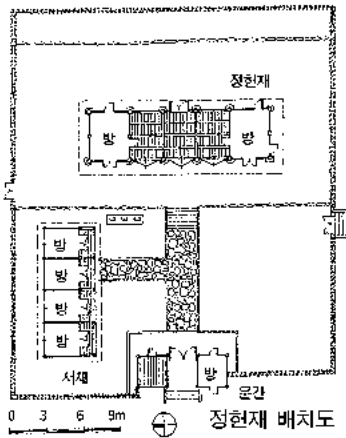


6



7

4. 경북 안동의 안동김씨 태장재사 루 아래. 루를 건립한 재실은 이렇듯 재실의 정문을 루 아래에 둔다.
5. 경북 예천의 청주정씨 재사. 정면으로 6칸의 문간채를 둔 이 지방의 전형적인 ㅁ자형 재실이다.
6. 전남 승주의 옥천조씨 재실인 정헌재. 호남지방 재실은 몸채가 一자로된 강당형(중앙 대청, 양측 방) 재실이 조명의 기본규범으로 자리한다.
7. 정헌재 정문인 솟을삼문.



風水란 산수가 신비로운 생기를 내재하여 인간생활의 배후에서 인간의吉凶禍福을 좌우한다고 믿고, 거기에 인간과 死靈을 일치·조화 시킴으로써 인간생활의 복리를 추구하려고 한 하나의 속신으로 '風水' 혹은 '地理'가

원칭이며 '堪輿' '地術' '陰陽'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 풍수사상은 중국에서 발생, 발달한 것으로 지력송배 신앙을 陰陽五行說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사상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원래의 발상지인 중국에서 보다 더욱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보급·심화되어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의 일부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⁴⁾ 묘지 풍수라 불리는 陰宅 풍수는 일반적인 풍수형상도가 이상형으로 채택된다(그림 풍수 개념도 참고). 즉 뒤쪽으로 산을 업고 그 산의 완만한 기슭에 묘가 들어선다. 좌우 청룡과 백호가 날개를 드리우고 남쪽으로는 평야와 천을 가로질러 멀리 조산이 바라보이는 식이다. 묘 구역이 陰基로서 성스러운 천상의 세계라면 재실 구역은 산 사람이 활동하는 俗 개념의 陽基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구역은 서로 교화하면서 음양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陰基·陽宅과 陰宮은 풍수 술법이 같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풍수 방법론상 반대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마저 있으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雪心賦에 〈陽宅이 陰宮과 다른 점은 그 地勢가 넓어야 한다는 점이다. 局面이 좁으면 안된다. (若言陽宅何異陰宮 最要地勢寬平 不宜堂局逼窄)는

구절이 있는데 이의 解義에서 陽基와 陰宮의 법술이 다르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陽宅은 사람 사는 곳이고, 陰宮은 墳墓이다. 陽宅이든 陰宮이든 그 祖山, 來龍, 過, 峽, 起, 頂과 靑龍, 白虎, 朝山, 案山, 羅城, 水口등이 두루 같은 것인지는 다른 것은 거의 없다. 다만 다른 점은 陽宅의 경우는 그 穴場이 꼭 짜이게 좁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陽地는 面이요, 陰地는 線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陽宅은 반드시 그 地勢가 寬平하고 明堂의 巨국이 넓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가깝게 붙고, 좁아서 답답하면 못사람의 집을 포용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陽基를 보는 경우 모든 것을 陰宅 보는 방법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고 다만 規局이 衆居를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지 여부에만 신경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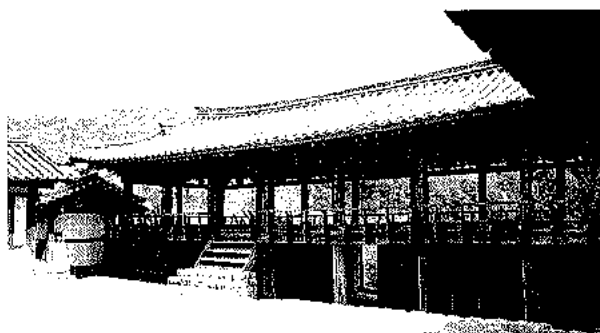
〈표〉 재실건립시기

재실명	재실주재인물	문 중	재실건립	비 고
능동재사	權幸 (고려시대사)	安東權氏	효종4년 (1653)	600여년 동안 夫傳 1465-1489년 사이 봉분축조
송실재	柳中郞 (1515-1573)	豐山金氏	영모루 (1706)	사찰(陵洞寺)이 재실로 송실재 본채는 조선중기 사찰건물
서지재사	金誠一 (1538-1593)	英城金氏	인조12년 (1634)	
소동재사	權規 (1427-1502)	安東權氏	영조2년 (1726)	폐사 인수 권공-안동감씨 시조 18대손
남동재사	南暉珠 (1326-1372)	英陽南氏	1500년대	南興寺 건물을 개조
태장재사	金宜平	安東金氏	영조20년 (1750)	안동감씨 시조
대지재사	金楊震 (1467-1535)	豐山金氏	1500년대	
정현재	趙倫 (1346-1428)	玉川趙氏	중종37년 (1542)	현 규모(1781년)
영모당	尹光煥 (14C)	海南尹氏	숙종13년 (1687)	300여년 동안 夫傳 唯齋이 지석 발견
추원당	尹恩甫	海南尹氏	인조27년 (1649)	孤山 尹恩道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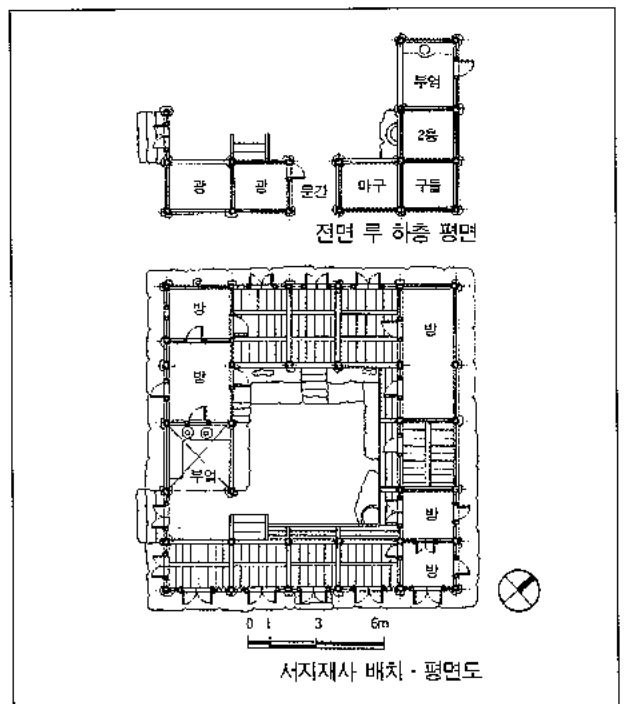
4) 이수봉, 백제문화전역의 상례풍속과 풍수철화 연구, 백제문화개발 연구원, 1986,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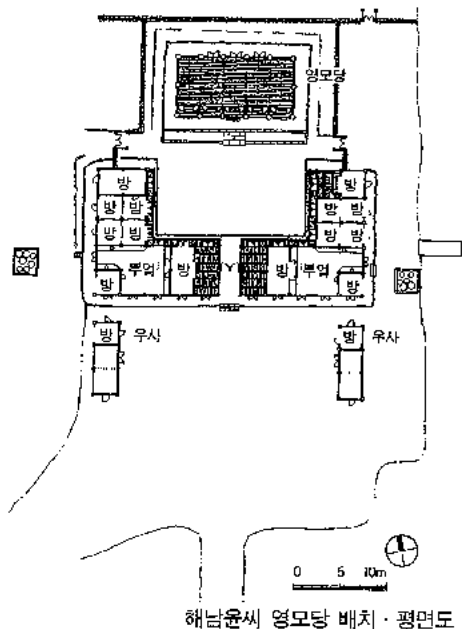
전남 구례에 있는 윤씨문중 추모재. 1886년에 건립된 단출한 재실이다.



능동재사의 루각. 루는 문중회의 장소이며 또한 제례후 음복례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재실의 건축구성-복합공간의 내적질서



쏟으면 된다.⁵⁾ 재실의 건립은 물론 묘보다 후에 이루어진다. 문중의 논의를 거쳐 장소와 건물규모 등이 결정되며 그 시기는 재실별로 일정치 않다. 몇몇 주요재실의 건립시기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재실은 일반적으로 같은 능선인 경우에는 묘 아래편에 위치한다. 거리로는 100m 이내가 많다. 기능상으로 우선 적당한 거리이며 개념적으로는 상·하의 유교적 질서가 잘 지켜져 있는 셈이다. 즉 상위개념인 조상의 혈 아래에 후손들의 양택이 자리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반드시 묘 아래편에만 위치하지는 않는다. 지형이나 능선 관계상 측면과 앞쪽 능선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재실 입구의 가까운 길목에는 神道碑⁶⁾가 세워져 신성한 선조의 묘 구역임을 묵시적으로 알게 해주며 한편으로는 선조의 공덕을 교훈적으로 알게 해주기도 한다.

재실은 지극히 同性同族이 건립의 주체가 된 건축으로 어떠한 공공의 개념이 극히 약한 건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 시대의 향교나 서원건축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물론 향교는 官學으로서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건축물이고 서원 또한 학연중심의 정통사학으로서 공공의 개념이 상당수 내포되어 있는 건축이다.

재실건축은 문중의 여러 여건, 가령 경제력, 문중의 세력기반, 문중의 결집력 등에 따라 건축모습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지역적인 제례 정서 등도 건축구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재실의 기능이 ①祭需장만 ②문중 논의 ③참제인의 유숙 ④묘역관리 등 복합적인 만큼 건축공간 또한 다양성을 갖는다. 즉 살림집 구조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모임의 장소, 陳設의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이 하나의 내적질서를 갖고 유기적으로 조합될 때 완성된 재실 건축이 등장하게 된다.

재실의 건축구성은 향교나 서원과 달리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호남지방의 경우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소위 '강당형' 건축으로 일관된다. 즉 중앙으로 대청을 드리고 그 양측으로 방 두 개가 꾸며지는 '자형'의 단순한 구조가 재실의 본체로 건립된다. 규모는 정면 3칸, 4칸, 5칸 등 문중에 따라 다르다. 본체 전면으로는 솟을대문(또는 평대문)이 세워지고 그 양측으로는 주로 참제인의 유숙을 위한 방이 연속으로 드러진다.(예산송씨 영호재, 진주송씨 화산재, 해남윤씨 영사재, 청주한

5)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1984, p.253~254

6) 神道碑: 묘비의 하나로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길가에 세운 돌비. 신도비란 한나라 楊震의 故太尉楊公之神道碑에서 비롯하여 중2품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 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고려시대에 시작된 듯하다. 이때의 것은 <東文選>과 기타의 문집에 그 비문이 전해질 뿐인데, 3품이상되는 사람의 무덤에 세웠다. 조선시대의 제도에서는 2품이상에 한하여 세울 수 있었다.



8



10



9

8. 경북 안동의 인동권씨 소동재사. 1726년에 물채인 추원재를 건립하고 다음해에 □ 자형으로 확산하였다.

9. 소동재사 왼쪽 능선에 위치한 권곤(1427~1502)의 묘소.

10. 영암남씨 문중의 남흥재사 전경. 창건은 1500년대로 추정되며 고대 南興寺 법당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씨 재실, 영안정씨 학포공 재실 등). 물론 이 경우도 문중의 여건에 따라 단순히 솟을삼문만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남양홍씨 재실, 진천송씨 담경재, 경주김씨 영전 재 등). 제수장만과 묘역지기가 거처하는 고직사는 담장 밖에 별도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담장내 측면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진주유씨 시사재, 고흥유씨 재실, 순천김씨 추원당 등).

이 지역 재실건축은 우선 건물구성이 단순하고 개방적이다. 또한 대청이 있는 본체에 부속등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 한편 영남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루'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 지역 향교건축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남지방에서도 특히 경북지방의 재실은 규모도 크고 특히 '루'와 함께 전개되는 건축적 구성은 다른 지방의 재실과 크게 구별된다. 건축모습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의 마당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자형 형식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이 지역 상류주택의 □자형 구성방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옛 사찰터나 사찰건물 일부가 재실로 바뀌는 즉, 儒佛 교체의 현상도 나타나 주목된다(송실재, 남홍재사, 소동재사 등). 이러한 모습은 조선초 여러 향교에서 폐사의 자리를 이용하거나 사찰의 재목 등을 향교건립에 사용했던 사례와 같다고 볼 수 있다(해평, 진주, 안의, 개령, 나주, 창평, 고령, 향교 등)이 지역에서도 일자형 강당이 본체로 들어서고 그 전면에 대문과 함께 담장이 둘러지는 단순한 '강당형' 재실도 상당수 보인다(사천재사, 추원재, 영모재, 을수재, 양양재, 신흥재, 함포재 등). 한편 일자형 강당 전면에 규모가 큰 ㄷ자형의 건물이(부엌, 대문간, 고방, 방, 마루)이 들어서서 즉 중앙으로 중정을 두는 재실도 여러곳에서 보인다(대지재사, 고성이씨재사, 소동재사, 서현재사 등).

그러나 완전한 □자형 재실은 몸체가 ㄷ자형으로 구성되고 그 전면에 2층 누각이나 문간 기능의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이다(청주정씨 재사, 하회류씨 재사, 운천재

사 등). 한편 누각이나 아래채가 뜬 □자형이 아닌 완전히 연결된 형식도 보인다(남홍재사, 서지재사, 가창재사, 태장대사 등). □자형 재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중정 마당에서 본채 기단까지 상당한 높이를 갖는다. 서지재사의 경우는 2.0m정도가 된다. 본체의 위계성(제관실 위치, 진설장소 등)이 잘 드러나 있으면서 공간적으로도 □자형에서 오는 폐쇄성이 상당히 반감된다. 한편 전면에 2층 누각이 있을 경우 시각적으로 루 바닥과 연결되어 공간의 연속성이 이루어 진다.

재실에서 누각은 문중회의, 휴식, 제례후 음복장소, 우천시 망제 등의 기능을 갖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특히 영남지방 재실에서만 주로 보이는 이 건물은 재실의 공간적 질서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잡아주며 한편으로는 다소 경직된 □자형의 내,외부 공간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사례 2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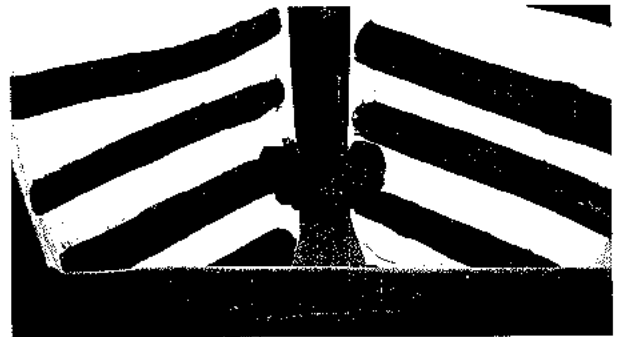
西枝齋舍: 경북안동시 와룡면 서지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제182호로 지정된 재실이다. 이 재실은 인조 12년(1634)에 鶴峯 金誠·(1538-1593)선생의 묘제를 위해 마련된 재실이다. 학봉은 안동생으로 일찍이 퇴계선생의 문하에서 성리학적 수양을 쌓았고 이를 전생애를 통해 실천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선생은 56세되던 해에 의병과 판군을 지휘하던 진주에서 순국하셨다. 현재 학봉선생의 묘소는 재실에서 서쪽으로 약 100m지점 능선에 있으며 그 입구에는 신도비각이 세워져 있다. 재실은 산 능선아래 거의 평탄한 지형에 乾坐 夷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재실은 완전한 □자형 건물로 이 지역 재실건축의 규범이 잘 드러나 있다. 몸체격인 윗채는 중정마당으로부터 약 2m가까이 되는 높은 기단위에 자리하고 있다. 몸체 중앙으로는 3칸 대청이 꾸며져 있고 그 좌우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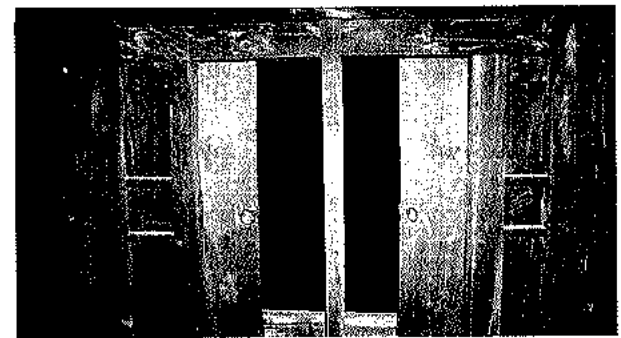
11

11. 학봉 김성일선생의 묘소에 딸린 서지재사 전경. 전면에 2층 누각이고 중앙 아래에 출입문이 있다.



12

12. 남홍재사 누각의 마룻대공. 초공을 갖춘 고식 대공이다.



13

13. 가운데 설주가 있는 남홍재사 루각의 영쌍창.

는 참제인의 유숙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몸채와 모두 연결된 2층 누각은 중정쪽으로는 난간만을 두어 개방시켰고 바깥쪽은 2짝 판장문으로 처리하였다. 4칸 규모로 꾸며진 루는 문중회의와 묘제후 음복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루 우측의 방 2칸은 문중의 제일 어른이 거처하는 방으로 본 재실에서 제일 위계가 높은 방이다.

루 아래는 주 출입구인 문간이 1칸 나 있고 그 나머지는 고방, 마루, 부엌 등으로 꾸며져 있다.

구조는 모두 민도리집 구조로 간결하게 꾸며져 있다. 지극히 절제된 유교적 이념이 집 구석 모두에 배어 있는 듯 하다. 루각의 지붕틀 역시 남도리를 절은 3량구조로 꾸며져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永慕堂: 전남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 70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된 재실이다. 주변은 그리 높지 않은 산들로 둘러져 있고 뒷편 우측의 산기슭에는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영모당이 들어선 곳은 평탄한 지형이며 좌향은 癸坐丁向으로 남향배치이다. (연혁은 건립사례 난 참조).

건물의 배치는 일축선 배치로 정연한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넓게 조성된 재실의 바깥마당에 다다른 좌우측에 정대청으로 우사가 건립되어 있으며 앞쪽으로는 정면이 11칸이나 되는 긴 행랑채가 위치하고 있다. 행랑채의 중앙에 난 솥을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영모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행랑채의 구조가 영모당쪽으로 날개를 둔 ㄷ자형 구조여서 앞쪽에서 영모당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자연히 그 사이에는 비교적 넓은 중정마당이 형성되어 제례 및 많은 문중인의 모임에 편리한 외부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영모당 뒷편 담장 밖으로는 1980년에 중앙중친회에서 발의 주관하여 시조공에서 칠세조까지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본채인 영모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단층 겹처마 팔작집이다.

건물 내부는 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방을

두지않고 모두 대청으로 꾸몄으며 바닥에는 넓은 장마루를 깔았다. 그리고 전면으로는 반간쪽으로 마루를 설치하고 안쪽에 창호를 시설하였다.

장대석 2벌대 기단위에 대형의 막돌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약하게 배흘림을 둔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그 위로는 주두를 놓고 창방을 걸었다. 창방과 주심 도리의 장혀사이에는 1소로화반을 주간 모두에 1구씩 배치하였다. 공포는 기둥위치와 주두위치에서 쇄서를 낸 2익공식이며 주두에서는 도리 방향으로 밑면이 초각된 첨자를 보내 그 위에 놓여진 소로로 주심도리의 장혀를 받게 했다.

가구는 전후 평주위에 대량을 걸고 그 위에 동자주를 놓아 종량을 얹힌 5량가이며 측면의 중심기둥으로부터 대량 위로는 총량을 걸었다. 동자주위로는 주두를 엮고 도리방향으로 첨자를 보냈으며 종량위에 대공은 판대공으로 윗쪽에는 초각을 하여 장식화했다. 도리는 모두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전면 주간에는 모두 4분치 들어열개창을 설치하였고 뒷편에는 중앙으로 3칸에만 2짝의 판장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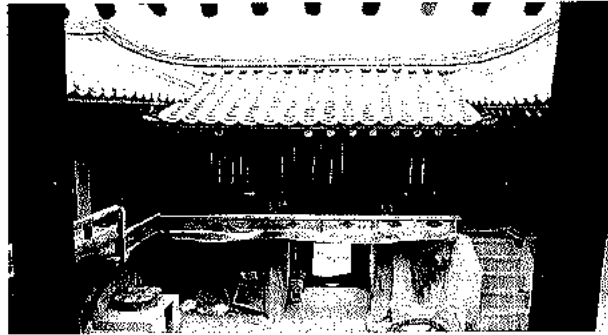
문간겸 행랑채는 강당쪽으로 트인 ㄷ자형 구조로 된 총 34칸 규모의 큰 행각이다. 중앙으로 1칸 솥을대문을 두었으며 그 양측으로는 같은 평면형식으로된 ㄱ자형의 대청구조로 되어 있다. 실의 주 구성은 제수장만을 위한 정지가 끝으로 넓게 꾸며져 있고 날개쪽으로는 참제인의 숙박을 위한 온돌방을 모두 배치하였다.

가구는 중앙기둥으로부터 전후 평주위로 대량을 걸고 그 위로 종량을 얹힌 5량가이며, 도리는 남도리를 절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나 중앙의 솥을 문간만은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꾸몄고 양측의 정지 상부로는 해남 윤고산 고택의 안채에서와 같은 환기용 솥을 지붕창을 설치하였다.

우사는 2동 모두 같은 규모와 양식으로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우진각집이다. 배깁행랑채 성격의 건물이나 이곳에서는 우사라고 호칭한다.



14



15



16

14. 전남 강진의 해남윤씨 재실인 영모당. 방없이 온통 대청으로 처리하였다.

15. 서지재사 몸채에서 본 루각. 중앙에 완전한 ㄷ자형 마당이 형성되어 있다.

16. 영모당 지붕틀 가구 모습.

1. 욕실 및 화장실

욕실겸 화장실은 부엌과 함께 노인주거내에서 가장 섬세하고 까다로운 건축계획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 항상 바닥에 물을 많이 흘려 보내야 하는 필요성이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미끄러짐에 대한 위험이라던가 행동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보조자 없이 입욕을 원한다는 점 등이 특별한 계획적 배려를 요구하는 한 단면이다.

욕실에서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보조장치 및 기기는 오히려 행동반경의 급격한 제약을 가져오고 자립을 해친다. 따라서 욕실 내에 각종 기기 및 장비를 선정, 설치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욕실계획의 범주에는 많은 사소한 배려가 요구되어 진다. 예를 들면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된 각종 손잡이의 위생문제, 접근이 용이하고 손쉬운 샤워를 위해 욕조를 없애고 바닥에 그냥 물을 흘려 보내야 하는 시스템의 편의성 이면에 충분한 기계적 강제 환기의 보강 혹은 오직 장식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된 바닥타일 미끄러짐의 위험 등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점이다.

각종 액세서리 선정시에도 넘어질 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적은 형태와 재료, 부착방법 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노인의 입욕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가족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염성 박테리아가 방문객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고려한다.

3인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변기에 세면기가 갖춰진 반드시 별도의 화장실이 요구되어 진다.

욕실에서 '무장애 활동공간(Barrier Free Zone)'의 깊이는 욕실기구 전면으로부터 100c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120cm,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150cm×150cm(휠체어 회전공간)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욕실의 크기는 최소 약 4.6㎡(사위조) ~ 5.5㎡(욕조)의 정사각형태가 소요된다.

화장실의 위치는 현관과 침실에서 최단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욕실의 문은 반드시 밖으로 열리도록 한다(대안-미닫이 문). 이는 '무장애 활동공간'의 확보에도 용이하지만 위급시 쓰러진 사람이 출입문을 차단하여 구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문의 유효폭은 80~85cm를 유지한다.



[사진] 세면기 하부가 비어있는 세면기는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좋게 해준다

노인주거의 설계기준(3)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I.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II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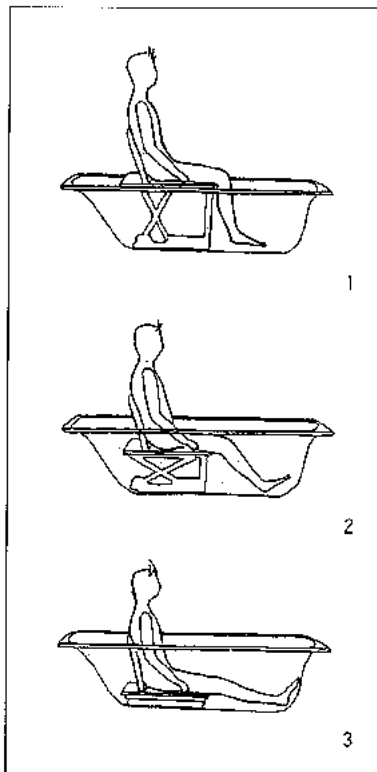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I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V.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외) 1

VI.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내) 2



[그림1] 욕조용 Lift

[건축적인 배려]

① 욕실에는 휠체어를 타고 진입 가능한 샤워장이 있어야 한다.

② 욕조를 샤워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욕조내에 바닥높이 조절용 Lift를 설치하여야 한다([그림1] 참조).

③ 세면기는 반드시 평편하고 휠체어를 타고 접근 가능하도록 세면기 밑이 비어 있어야 한다([사진1] 참조).

④ 세면기의 높이는 필요시 이용자에 적합하도록 조정 가능해야 한다.

다.

⑤ 변기의 좌대 높이는 반드시 48cm를 확보해야 한다.

⑥ 이 높이는 개개인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⑦ 뒷 벽면에서 변기의 전면까지는 70cm가 되어야 한다.

⑧ 높이 조정이 자유로운 벽걸이형 변기([사진2] 참조)를 사용하면 변기에의 접근도 용이하다.

⑨ 욕실 및 화장실에는 반드시 강제 환기시설을 한다.

⑩ 화장실 및 욕실문은 반드시 밖으로 열리도록 계획

⑪ 대형 유리면은 반드시 명암이 분명한 안전유리로 계획

⑫ 출입문의 안쪽에 수평으로 약 60cm의 손잡이를 높이 85cm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⑬ 시각장애의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열린 문이 통행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사진2] 벽걸이형 변기 : 벽걸이형 변기는 필요시 6~10cm 범위내에서 높이 조정이 가능하다

⑭ 특별히 욕실 및 화장실의 벽, 바닥, 천장은 각종 장비와 설비를 고정시키기에 충분히 견딜만 한 견고성을 지녀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위생기구나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않는다([사진3] 참조).

② 욕실 및 화장실은 바닥난방을 적극 권장한다. 바닥난방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배움으로 이용하는 노인에게 따뜻한 발판 역할을 해주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에 용이하며, 건조한 바닥면을 유지하므로 곰팡이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③ 난방, 실내 온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반드시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난방이 되어야 하고 실내 온도는 26℃부터 필요시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별도의 개별 난방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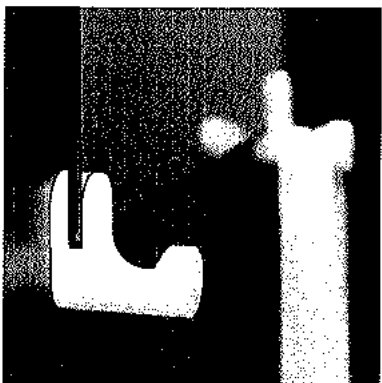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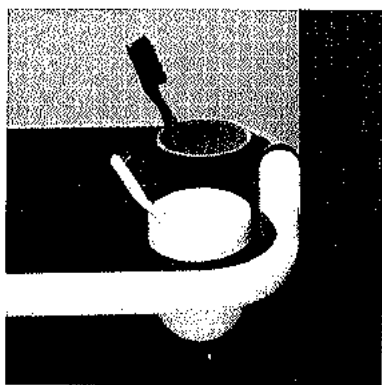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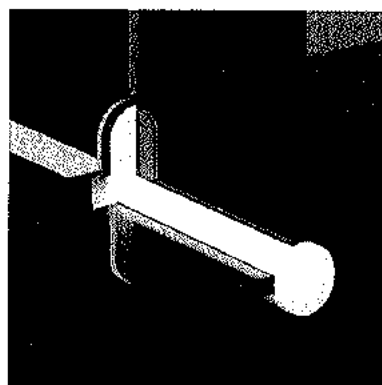
④ 병모양의 이동식 소변기를 세척하거나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코너를 화장실내에 확보해야 한다.

⑤ 이 병은 매우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고 사용후 자동세척기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⑥ 샤워호스에 연결된 수도꼭지는 세면기에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다.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감을 때 등에 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⑦ 팔의 동작에 제한을 받거나 몸을 굽힐 수 없는 노약자 등을 위하여 변기는 반드시 자동세척형 비데(Bidet)가 달린 것으로 설치한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시험 사용을 한 후 설치한다.

⑧ 변기에서 손이 닿는 곳에 샤워호스에 연결된 수도



[사진3] 욕실액세서리 :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욕실 기구는 노인들이 넘어질 경우를 대비한 배려이다

꼭지가 있으면 용변후 세척용으로 매우 유용하고 위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⑨ 벽걸이형 변기(휠체어의 접근이 바닥에 고정된 변기보다 유리)등이 설치된 뒤편 벽면으로부터 변기 전면까지의 깊이가 70cm가 유지되도록 추천한다. 이는 몸의 동작에 제한을 받는 이용자에게 변기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척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변기 자체로 부족한 깊이의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설비가 요구된다.

⑩ 휴지걸이는 손에 잡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한다. 뒷벽면이나 측벽 뒷부분에 치우쳐 있어서는 아니된다.

⑪ 변기의 플러쉬 밸브 또한 손에 잡기 쉬운 벽면에 눌러서 터뜨리는 레버(Lever)식 손잡이로 되어있는 것이 좋다. 변기 뒤편 저수조에 달려 있거나 벽면에 매립된 밸브의 경우에는 접근이나 작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용자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 욕조와 샤워기

[욕조]

① 욕실의 실내온도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32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난방시설을 갖추 것을 추천한다.(예를들면 초소형 벽걸이용 전기온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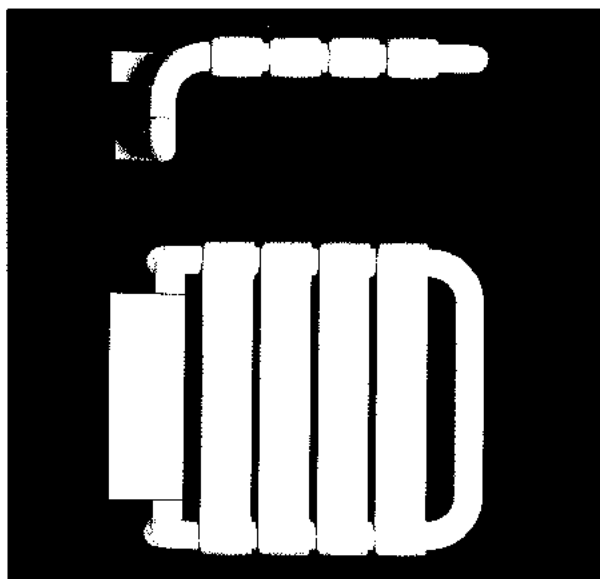
② 미끄럼 방지용 바닥 마감재,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타일은 피한다.

③ 욕조 속에 설치하여 앉거나 누운 상태로 욕조 윗면 높이까지 바닥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Lift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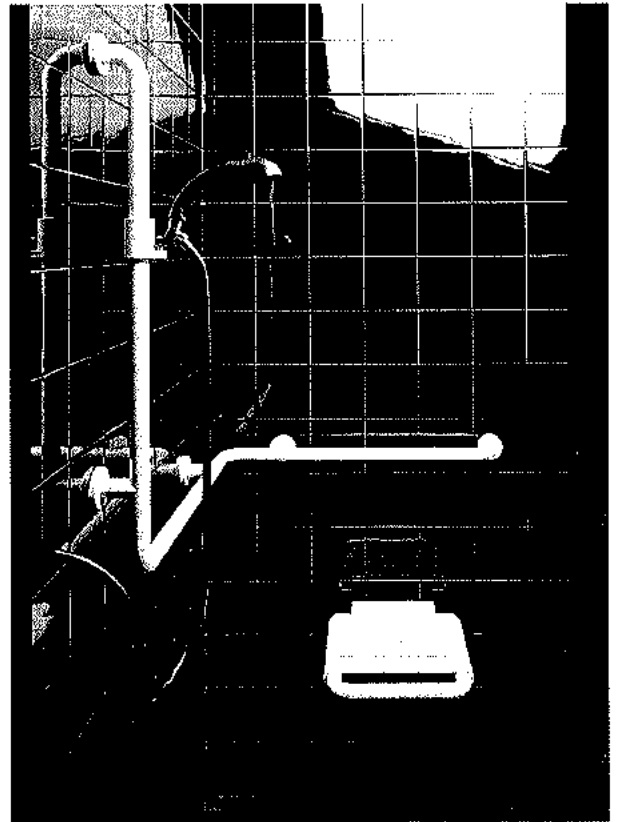
④ 욕조의 바닥면과 벽면은 반드시 직각에 가까운 것이 미끄럼을 방지하기에 유리하다.

[샤워기]

① 자동 잠금 샤워꼭지, 누르면 샤워물이 흘러나오나 일정하게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자동으로 잠기는 샤워기의 설치



[사진4] 샤워용 벤치 : 샤워용 벤치는 배수 및 위생처리가 용이해야 하며 필요시 접을수 있으면 좋다



[사진5] 샤워실

② 접이식 샤워의자, 벽걸이형으로 최소 좌대규모가 40cm x 45cm는 되어야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사진4]참조).

③ 샤워의자는 차갑지 않아야 하고 특정한 높이에 설치 가능해야 하며 손잡이와 함께 설치하여 측면에서 미끄러지며 올라앉을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서 누운 채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접이형 침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때도 높이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하여 욕조나 변기, 샤워의자 등으로 옮겨 앉힐 수 있는 장치는 특별한 경우에만 선택한다.

⑥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샤워기 주변에는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커튼 등을 설치하여 앉은 상태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한다([사진5]참조).

2) 변기

① 변기의 좌대는 히팅이되고 쿠션이 있는 것이 좋다.

② 변기의 좌고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변기에 좌대만 추가로 올려놓으면 이것이 미끄러지거나 고정되지 않아 이탈될 위험이 있다.

③ 불가피하게 옮겨 앉하기 위한 Lift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의 접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중증 장애자를 위해서는 천장에 설치하는 Lift를 추천한다.

⑤ 자동 향문세척장치는 가능하면 시험사용후에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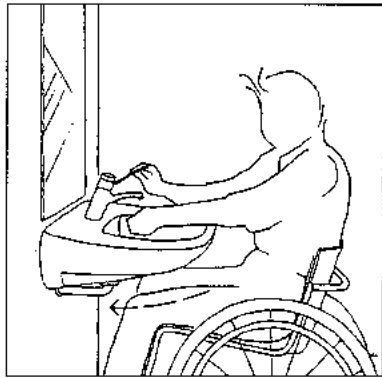
⑥ 공기 건조기가 부착된 자동 향문세척기 보다 변기에 부착된 비데(Bidet)가 훨씬 위생적이고 여러모로 기

능적이며 편리하다. 이 통합변기는 노인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히 편리하다.

3) 기타 위생기구와 액세서리

[세면기]

① 샤워호스에 달린 이동식 수도꼭지가 고정식보다 유용하다.



[그림2] 세면대

② 세면기 앞에 손잡이 달린 견고한 접이식 의자가 있으면 노약자에게 유용하다.

③ 전동식 높이 조절형 세면대는 필요시에만 선택한다.

④ 카운터식 세면대에 윗판이 특별히 평활하

고, 세면기 아래로 휠체어가 들어가며, P-Trap, 전면 물흐름 방지턱, 측면 사용가능성 등이 확보되면 좋다([그림2]참조).

⑤ 접이식 손잡이

⑥ 고정 혹은 접이식 공기 건조기(Air Towel, Hair Dryer)

[수도꼭지]

① 수도꼭지는 사전에 부착하여 두기보다는 사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논의후 선정한다.

② 손으로 잡고 돌리지 않아도 되는 레버(Lever)식 손잡이만을 사용한다.

③ 전자 감응식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④ 적절한 온도 선택이 용이한 냉온수 통합형 싱글레버가 적합하다.

⑤ 손으로 레버 수도꼭지를 작동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길이가 긴 레버형 수도꼭지도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⑥ 지지대는 반드시 접이식으로 하고, 지지대와 세면기 내부 앞쪽 모서리까지는 최소 18cm~22cm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⑦ 물의 온도 조정도 반드시 레버식 손잡이에 의하도록 한다. 샤워실내의 모든 수도꼭지는 찬물에서 아주 뜨거운 물로의 조정범위가 200° 이상 수도꼭지를 회전하여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이는 냉온 혼합수의 온도변화가 미세한 회전만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⑧ 세면기의 수도꼭지는 가급적이면 추가적인 샤워용 수도꼭지와 같이 설치한다.

⑨ 벽면에 부착되어 샤워, 욕조, 세면기 등에 이동시키며 사용할 수 있는 호스달린 수도꼭지는 누르면 물이 나오고 일정시간후에 자동으로 물이 잠기도록 한다.

⑩ 샤워용 수도꼭지는 반드시 샤워용 의자에 앉은 자

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⑪ 만약 동일한 샤워용 수도꼭지를 변기 가까이 설치할 경우 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

⑫ 벽면 고정형 수도(샤워)꼭지는 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인에게는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치되기 때문이다.

[액세서리]

① 휴지걸이, 벽면에 접이식으로 부착한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것은 피한다.

② 수건걸이, 필요(위급)시에는 제2의 보조용 손잡이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③ 거울, 상·하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아래거울은 아래로 약간 숙여지도록 부착한다.

④ 거울, 기울기 없는 거울, 그러나 앉거나 선자세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한다(60cm × 70~90cm).

⑤ 비누는 한손으로 집을 수 있는 것이나 손을 대면 나오는 물비누가 좋다.

⑥ 비누통은 욕조나 샤워기 옆 지지용 손잡이에 걸 수 있는 탈착(이동)형이 바람직하다.

⑦ 변기솔은 물받침대와 함께 벽걸이형으로 설치한다.

⑧ 양치질용 물컵은 유동식 걸쇠에 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 수납선반은 별도의 선반보다는 카운터형 세면대의 좌우 여유면을 이용,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전기면도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별도의 위치를 선정한다.

[기타 특수설비]

① 전자 감응식 수도꼭지

② 사용하는 물의 온도, 수량 등을 수도꼭지와 케이블로 연결된 조정기를 통해 조절하는 시스템도 있다. 이 경우 물의 온도가 벽에 매립된 표시창에 나타나며 세면대, 비데, 욕조, 샤워기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표시창에는 물이 흐르는 동안에만 온도가 표시된다.

③ 세면기 주변에 헤어드라이, 전기면도기 등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걸쇠

④ 수건 건조기는 방열기의 기능과 통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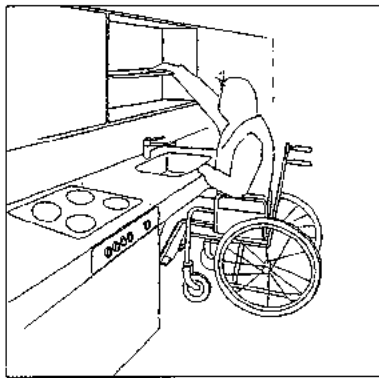
⑤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빨래걸이는 특히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비상호출기]

① 모든 실에는 반드시 고정된 비상호출기 연결장치(전화기나 전자 감응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에는 무선 비상호출기를 이용한다. 호출기 이용자는 손목시계 형태나 목걸이 형태의 비상호출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위급시 단추를 누르면 전화기에 연결되어 작동하는(요즘 흔히 이용되고 있는 무선호출기 '삐삐'와 같음)비상 신호가 구조대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으로 특히 상주 밀착 간호가 없는 노인에게 매우 유용하다.

③ 비상호출기는 자동전화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3] 개수대, 준비대, 조리대

이 자동전화기에는 사전에 입력된 연결전화번호와 미리 녹음된 메시지가 있어 비상호출과 함께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다. 이 구난 메시지는 친척, 친구, 이웃 혹은 병원, 장애인과 노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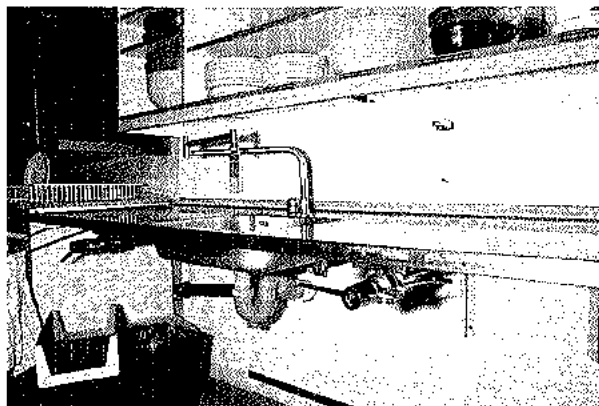
위한 사회복지봉사단체 등의 구급대에 즉시 전달되도록 되어야 한다.

④ 이때 이 전화기는 첫 메시지가 송출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인터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현재 시중의 상당수 전화기는 이미 인터폰 겸용 기능이 완비되어 있다). 호출자가 위급상황에 있으므로 전화기에 다가가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위기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이 기기는 이외에도 출입문 개폐기능, 전화를 통한 가전제품 원격 조정기능 등이 다양하게 통합될 수 있다.

2. 부엌

부엌은 주택의 심장이다. 가정주부(혹은 가사를 돌보는 남편)이 일상생활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엌에서 소비하고 이는 가족규모가 커지면 더욱 늘어나



[사진6] 개수대 : 하부가 비어있는 개수대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유용하다

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가족이 가장 길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며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은 연령이나 장애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므로 부엌은 주거의 구심점이 된다.

이 주거의 심장부가 대부분 취약한곳, 위험한곳, 기능이 결여된 곳으로 계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가 없는 가정주부에게도 다양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면 장애나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이 몇배로 가중되는 셈이 될 것이다.

① 조리대(가열대), 작업대(준비대), 개수대 하부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반드시 완전히 비워둘 것([그림3]참조). 이들의 높이는 반드시 사용자의

작업 높이에 적합 하도록 조절 가능해야 하고 휠체어가 개수기 아래로 자유롭게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배수구의 조절 등이 필요하다.

② 조리대, 작업대, 개수대는 가능하면 코너를 이용해 좌우로 배치한다.

③ 미끄럼방지용, 그러나 청소하기 용이한 바닥마감재의 선택

④ 냄새 여과용 마감재의 선정

⑤ 강제(기계)환기 시스템의 채택

⑥ 휠체어의 손잡이 높이부분에는 스위치 등 조작기를 두지 아니한다. 이는 휠체어로 추돌하기 쉽고 서있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⑦ 부엌 구성품들은 강한 대비를 갖도록 디자인하며 특히 가열대 등 안전지대는 효과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개수대]

① 건조대가 달린 휠체어 접근용 개수대, 이 때 건조대는 솔, 냄비 등 무거운 그릇을 개수대속에 집어넣지 않고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개수대속의 전면은 모서리 부분이 각이지지 않고 가급적 원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건조대 위에 놓인 솔 등 무거운 그릇을 씻기위해 물을 채울려면 수도꼭지가 샤워기처럼 호스에 연결되어 있거나 좌우로 자유로이 이동가능하며 충분한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개수기 아래부분에 찌꺼기 모음통을 설치한다.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한다.

[작업대]

① 휠체어 접근용 작업대는 전면에 흘러내림 방지턱이 있어야 작업대위의 물건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우측으로 치우친 전면 일부는 보조탁자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밀어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방지턱을 두지 아니한다.

② 조리한 음식이나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고 좌우로 밀어서 옮길 수 있도록 작업대는 조리대, 개수대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통판을 이용한다(예를들면 [그림4]와 같이 개수대에서 끄집어내어 작업 대를 거쳐 조리대위에 까지 연속적으로 솔들을 밀어 옮길 수 있도록 처리).

③ 별도로 조도조정을 할 수 있는 직접조명을 작업대 위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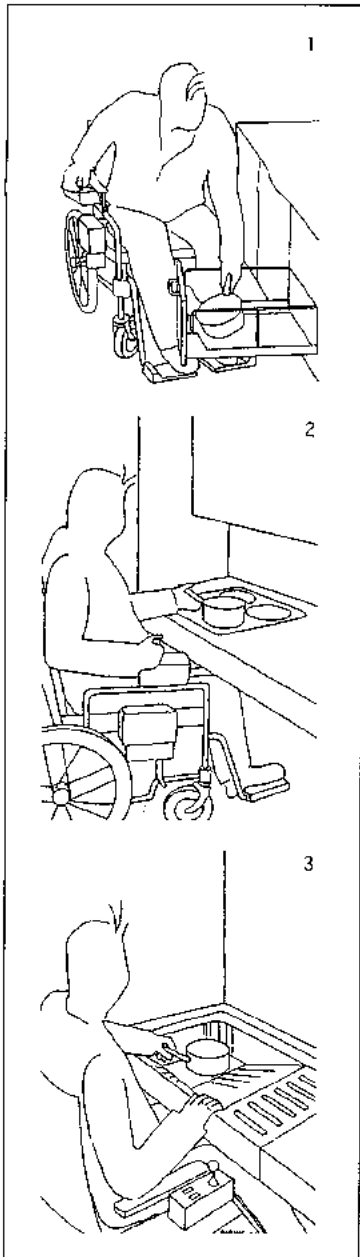
④ 자석 등을 이용한 솔, 냄비 등의 미끄러짐 방지 장치 혹은 상부판의 일부를 마찰력이 큰 재료로 마감처리

⑤ 접이 혹은 서랍식 도마, 작업대 상판아래, 개수대 후면 등에 접이 혹은 서랍식으로 매립하여 앞으로 빼내어 사용하고 쓰레기는 모음통(또는 개수대)에 바로 들어가도록 처리한다.

⑥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주작업대는 가급적 큰 면적을 할애한다.

[개수대-작업대 조리대]

① 전면 모서리에는 어떠한 조작기도 부착하지 않는



[그림4] 개수대, 건조대, 수납장

다.

② 작업대를 벽면의 모서리 부분에 두고 좌우로 조리대와 개수대를 설치할 경우 좌우를 대각선으로 이은 작업대의 상부 코너부분은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조리용품의 수납공간으로 활용한다.

③ 또다른 해결 방안으로서 이 코너에 아래는 전자레인지, 상부는 수납장으로된 전동식 오르내리장을 만들어 필요부분이 작업대 상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조리대]

①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가열판(끓이고자 하는 솥)의 위치에 음향적 혹은 형태적(가열판의 중앙 위치에 약간들어간 표시를하여 수저등으로 위치를 확인)인 표시를 한다.

② 특히 세라믹 가열판의 경우에는 작동 유무가 표시

등에 확실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표시등은 남은 열에 대한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③ 가열대 주변 상판은 열에 전달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④ 모든 작동 조작기는 조작이 아주 단순해야 하고 반드시 가열대와 격리된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⑤ 가열대위에 조리기구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소화되어야 한다.

⑥ 시각장애자를 위해서는 가열단계를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양각된 표시나 '딸각 딸각' 하는 음향 표시 기능을 첨가한다.

⑦ 과열방지장치(자동 소화장치)

⑧ 강제 증기배기장치(Hood)

⑨ 디지털 표시등은 절대금물이다(특히 가열대 작동 유무를 디지털로 표시하면 노인들은 잘 판독하지 못한 다)

⑩ 가열대 뒷편에 조절용 조작기의 부착은 절대 금물

이다.

⑪ 가열대 뒷면에 민곳에서도 가열대에서 조리중인 솥, 냄비 등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리방지용 거울을 달면 매우 유용하다

⑫ 노인들은 대부분 'High-Tech(Computer)' 에 애로를 느낀다. 따라서 기구의 선택시에는 조작이 가장 단순한 것을 선택하고 자동기기는 수동으로의 전환 사용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⑬ 각각의 조작기에 점자를 추가로 표시해 두면 매우 유용하다.

⑭ 모든 손으로 조작하는 조작기에 추가적으로 눈에 확연히 띄는 표시와 양각된 표시를 한다.

[저장, 냉장, 냉동고]

① 얇은자세에서 이용가능하고, 서랍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냉동, 냉장고

② 상부장은 필요시에만 설치하고 개별 주문에 의해서만 상하 이동용으로 설치

③ 전동 상하이동식 상부장은 개별 주문이 있을 때만 설치

④ 포장되지 않았거나 낱알상태로 산 식료품(예, 쌀 등 곡류)은 하부장에 수납하도록 한다.

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설치

⑥ 환불용 병등의 분리수거통 설치

⑦ 사용빈도가 높아 매일 혹은 자주 반복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수납한다.

⑧ 레일에 고정되지 않은 바퀴달린 하부장은 추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⑨ 식기세척기는 그릇을 넣고 꺼내기 쉽게 완전히 서랍식으로 끄집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물건을 쌓는 위치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30~40c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한다.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부엌내에서 가장 우선 확보해야할 시설이다. 휠체어 위에서 끓는 음식을 추가로 손에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의 위험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① 모든 조리용 전기제품은 자동 꺼짐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끄는 것을 잊었을 경우 자동으로 절연되도록 한다.

② 강력한 기계식 급·배기시설을 반드시 한다.

③ 강제 급·배기의 기능을 전제로한 기기(예, 가스보일러)를 부엌내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④ 보일러, 온수기 또는 표면온도가 25℃를 상회하는 기계설비를 부엌내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계의 경고신호(정전, 과열, 산소결핍, 누출, 각종 기능 정지 등)는 반드시 부엌의 어느곳에서나 음향적,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온도팽창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⑦ 부엌가구 전면의 활동공간은 반드시 항상 장애물 없이(끓는 음식을 떨어뜨렸을 때 등의 대피를 위하여) 비어 있어야 한다.

⑧ 활동공간내로 내미는 부엌가구의 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열려있는 문이 시각장애자에게 심각한 위험요소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서랍식, 접이식 혹은 주름문의 형태가 좋다.

[탁자]

다양한 형태의 탁자가 가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많은 이러한 탁자들은 장식적인 효과도 있고 거주자의 개인 취향에 따른 결정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몇몇 탁자의 형태나 유형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탁자의 가장자리 밖으로 비스듬히 내민 다리를 가진 탁자의 경우에는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 ①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탁자상판 아래면까지의 유효높이는 최소 69cm가 되어야 한다.
- ② 날카로운 모서리와 면, 4.5cm이상되는 상판하부 덧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③ 비스듬히 경사진 다리는 피한다.
- ④ 아래가 빈 작업용 탁자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최소폭 150cm, 기타 이용자는 최소폭 120cm가 소요된다.
- ⑤ 이 탁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거나 흔들거리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상판은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기타사항]

- ① 필요시 실명한 가정주부를 위한 녹음기를 설치한다. 이는 요리법을 듣기위해 필요하다.
- ② 초인종, 전화, 무단침입 경보등을 청각 장애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점멸표시등, 가능하면 비디오폰과 병행하여 설치한다.
- ③ 다른실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음향 감지기

3. 발코니

- ① 발코니 바닥면의 유효 폭과 깊이는 최소 150cm×150c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② 모든 다른 활동공간의 계획은 사안별로 앞에서 세웠던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 ③ 휠체어에 앉은 채로 경관을 내다볼 수 있도록 난간, 화단 등의 높이를 조정한다.

④ 노인과 장애자를 고려해서 바닥 마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특히 자기질 타일은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곳은 날씨에도 발코니에 나가 앉는 것을 고려하여 투명유리나 어닝 등으로 지붕을 씌우고 바람막이 벽, 방열기, 흙 혹은 나무를 소재로한 취미활동용 작업대, 전등, 화분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의무기준이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재로서의 추천사항이다.

배수시설 또한 완전해야하고 여러곳에 방수콘센트를 설치한다. 이는 여름철 모기 유인기, 이동식 T.V, 전기그릴 등을 필요시 자유롭게 설치 사용하기 위함이다.

발코니 설치시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계획이다. 실내와 문턱없이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문은 반드시 외부에 달고, 문앞에 트렌치를 만들거나 목재 등으로 배수가되는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를 설치한다.

방음, 방풍 등을 해결한 완벽하게 문턱없는 외부 출입문은 국내시장에 아직 보급된 바 없다. 앞서 출입문 기준에서 밝힌바와 같이 미닫이는 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문턱을 바닥에 매립할 수는 있어도 여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여닫이 역시 바닥면에서는 문턱없이 완전한 여밈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2cm이하의 방풍턱과 끼움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물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국가들에서 수입한 일부 제품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여 완벽한 방음성을 확보한 여닫이 출입문이 있으나 고가이어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 ⑤ 문턱없는 발코니 문
- ⑥ 앉은 자세에서 가볍게 열 수 있는 발코니 문
- ⑦ 필요시 햇빛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가변식 가리개
- ⑧ 전화기 접속구 혹은 무선전화기
- ⑨ 방수 콘센트
- ⑩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화단
- ⑪ 미끄럼방지용 바닥 마감재, 간격이 큰 깔판 등은 배제한다.

협회 건축정보센터 구축을 서두르자 ①

정보화시대를 우리 것으로

Last Entrance to Information World

옥태범 / 그룹모인 건축사무소, 본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by Ok Tae-Beom

무슨 거창한 '정보화 시대'를 논하기에는 본인의 지식이 일천하지만, 그러나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데 그 구슬조차도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으니 '시작이 반'이라고 기왕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구슬들을 모아서 쉽게 좀 꿰어 보자는 말씀.

단, 국내외 정기 간행물들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사무실, 게다가 그 방대한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인덱스까지 갖춘 사무실, 설계에 관한 자료와 도면, 디테일 라이브러리까지 구축된 사무실, 수많은 질의·회신과 민원 해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무실, 건축관련 법규들이 철저히 업데이트되는 사무실, 신기술과 재료의 성능과 시방, 가격까지 두루 꿰뚫은 사무실, 현장에서의 충실한 감리가 다음 설계에 충실히 피드백되는 사무실, 혹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사무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자료따위는 필요없이 내 머리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사무실이라면 이 줄고에 귀한 시간을 할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사례조사를 하려니 책이 없고, 책은 있어도 일일이 찾을 엄두가 안나고, 기존의 자료들을 창조하기에는 수소문하기가 너무 힘들고, 장기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보니 불과 5, 6년전 사무실 자료 찾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준공된 건물을 증축하려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법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지난번에 구입한 법규책의 내용이 아직도 유효한지 일일이 관청에 확인해야 하고, 멀리 있는 지방의 주차장 조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직원 파견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제품 카다로그의 일방적인 광고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도 여의치 않

고, 노출 콘크리트 마감의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감리한 분을 만나 조언 듣기도 쉽지 않고, 가진 책은 많아도 풀어서 정리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묘수가 궁금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별써 어느 대학교에선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라는 것까지 만들었다던데, 하물며 건축사협회가 현재의 당면한 요구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앓은뱅이 공통(?)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하여 PC통신에 우리 건축사협회의 방을 만들자는 말이다. 그리고 그안에 각종 소그룹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보따리도 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요긴한 자료 공개해서 존경(?)도 받고, 표준화의 기준도 되고, 또 누군가 그 자료를 발전시킨다면 그 또한 공개할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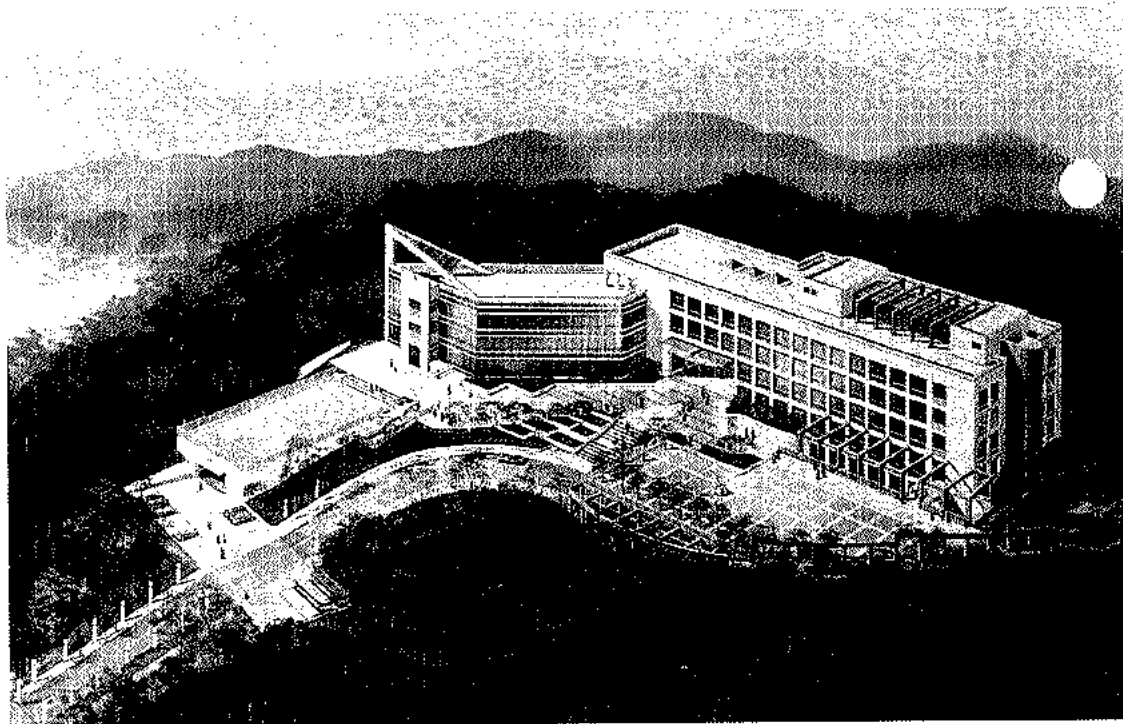
그러면 전기한 온갖 구차한 이쉬움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첫 발자욱이 되리라 생각한다.

남들보다 고생은 1/10로 줄이고, 효율은 10배로 높이는 길, 이것이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화 세계의 특권이다.

별써 외국의 유명 사무소들이 속속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지금—

.....

막차 떠나기 전에 표부터 끊자.



조감도

해운산업연구원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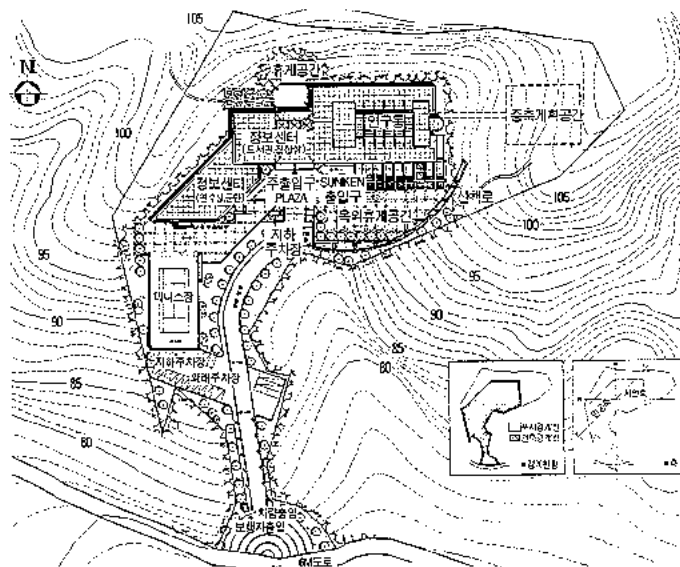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운산업연구원은 효율적인 연구활동과 연수교육훈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 지난 3월 11일 한기건축(황인호+조영식)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대지 지형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기능과 정보센터의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상징성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아키 필건축(서원필)안이 선정됐으며, 도울건축(심우근)안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현상설계에서 당선작에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우수작에 상금 1천만원, 가작에 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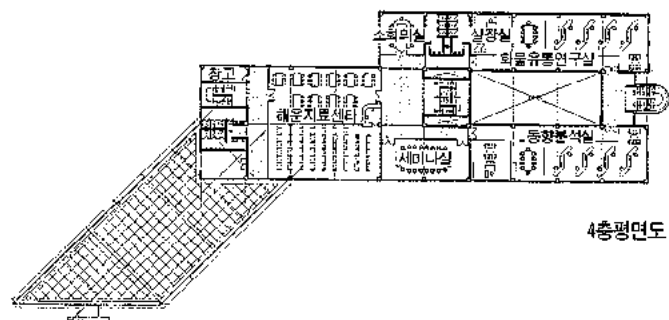
당선작

한기건축(황인호+조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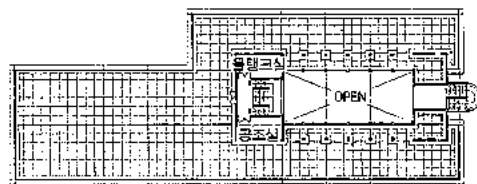
위치/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88-1
 대지면적/9,900㎡
 건축면적/1,888㎡
 연면적/7,596㎡
 건폐율/18.87%
 용적률/64.92%
 규모/연구동-지하1층, 지상4층
 정보센터-지상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알루미늄복합패널,
 18mm파스텔 목층유리
 설계담당/문호, 이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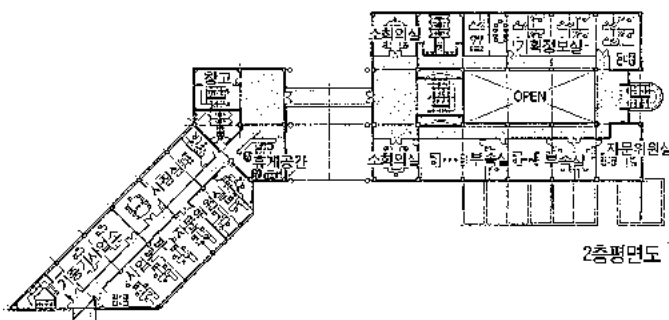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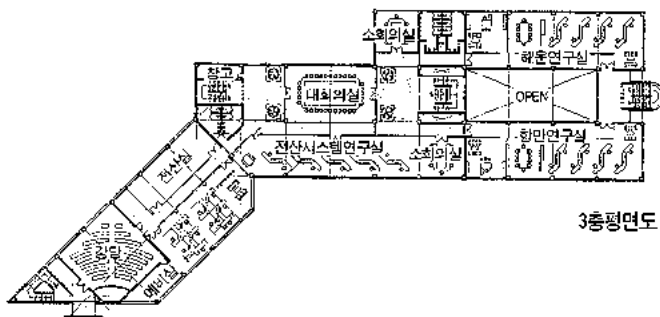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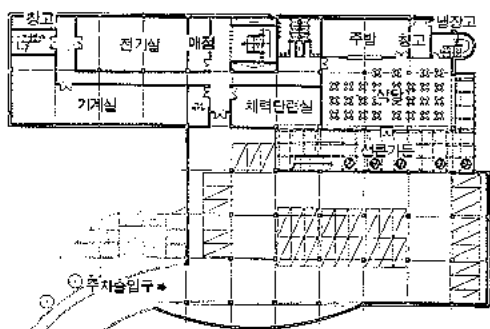
옥탑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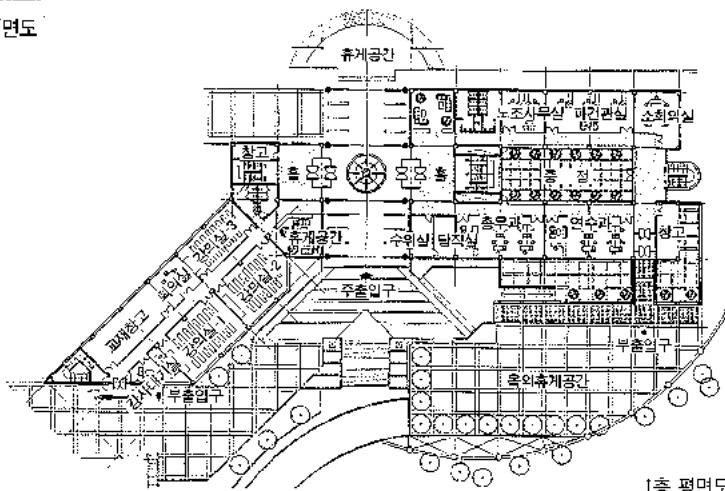
2층평면도



3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계획의 배경

이 프로젝트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해운항만산업 선도형 연구원으로서 해운·항만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반하는 연구기능과 해운 항만분야의 전문인력을 위한 연구기능의 복합기능을 갖고있는 건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장소성과 지적생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간성, 쾌적성을 꾀하는 한편,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해운정보의 체계적분석 및 수집을 위한 해운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획대지는 신갈인터체인지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경부고속도로의 서측부지에 위치한 남동향의 비정형 대지로서 완만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쪽의 트인조망과 자연환경의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을 등고선 방향과 일치시켜서 후면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주어진 대지안에서 모든 시설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선을 따라가며 매우 밀도있게 설계해야 했기때문에 레벨조정과 동선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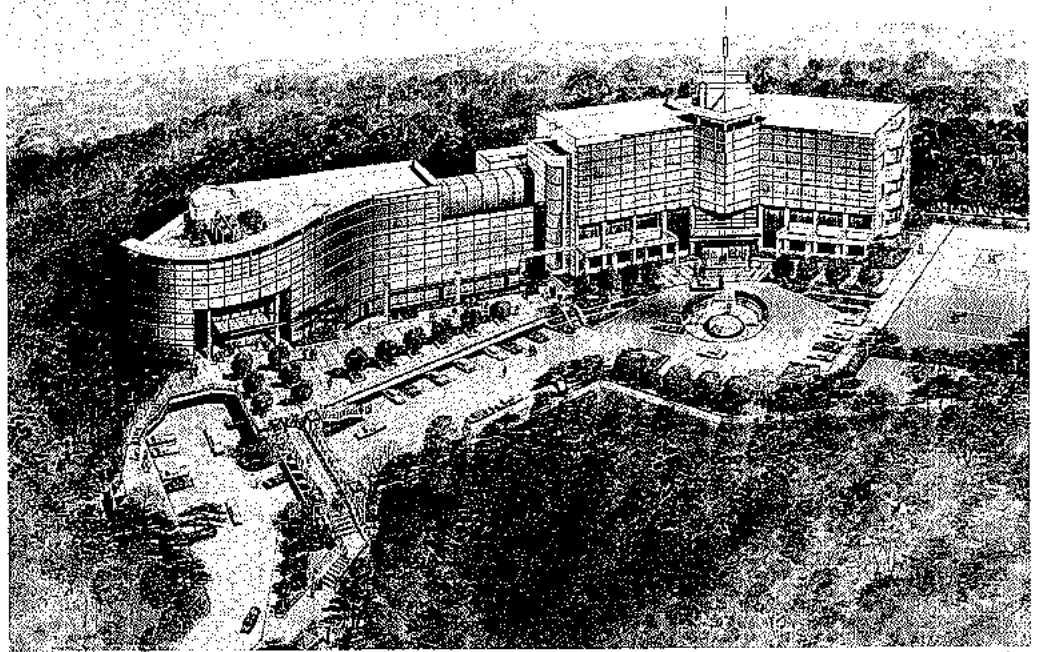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대지축과 지형에 맞춰 남향위주의 매스형태를 취하고 장래 증축을 고려한 수평적 연속배치로 계획하였다. 또한, 주축(남북축)을 중심으로 연구동과 정보센터로 계획하였으며, 두 시설간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연계성을 계획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선계획에서는 연구원 동선과 차량동선을 가능한 분리시켰으며, 연구원 차량동선은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건물 전

면 데크하부에 처리하여 동선의 혼란을 극소화하였으며, 데크상부는 연구생들의 녹지휴게 공간으로 구성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였다.
-두 시설간의 주출입구는 피로티를 도입하여 건물의 활력을 부여했으며, 접근육구에 적합한 상징성을 부각시켜 건물인지도 및 접근처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 건물인 연구동에 중정을 도입하여 연구실의 채광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할 뿐아니라 유기적인 외부공간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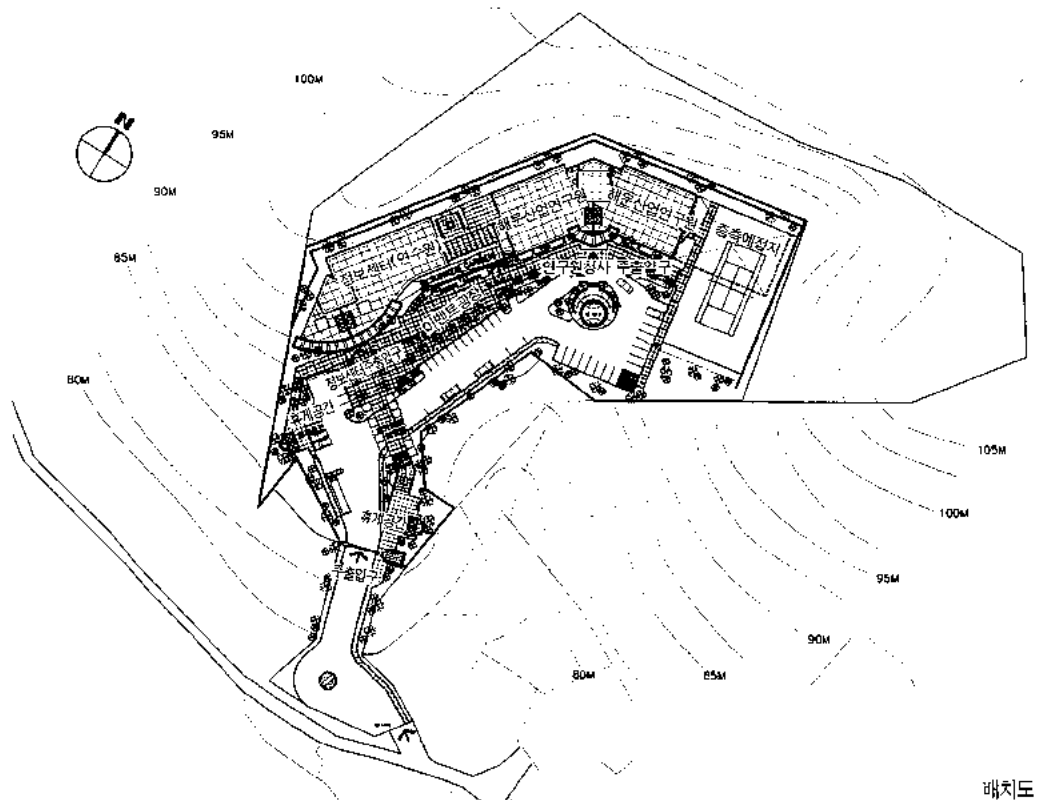
우수작

아키 필 건축
(서원필+김종호+최홍철)

위치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88-1(임야)
대지면적 / 9,900㎡(2,995평)
건축면적 / 1,913.53㎡(578.8평)
연면적 / 6,840.92㎡(2,069.4평)
건폐율 / 19.3%
용적률 / 59.1%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조감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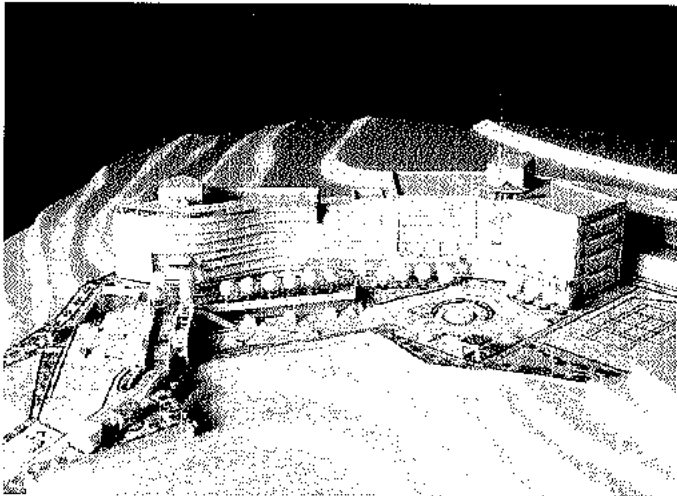
해운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상급기관인 해운항만청
청사의 몇개 층을 빌려쓰고 있는
데, 이번 현상설계를 통하여 독립
된 연구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더부살이에서 독
립을 하게되면 그 설레이미 이만
저만이 아니고, 또 행길 일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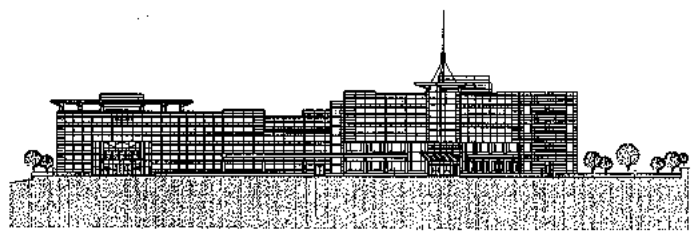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발주처의
심경을 더듬으며 설계가 진행되
었다.

기존의 녹지지역에서 떼어낸
계획 대지는 그 모양에서부터 동
서남북과 대지 축, 진입축, 가시
선(可視線)등이 엇갈리며, 설계자
를 괴롭게 하였다. 대지에서 지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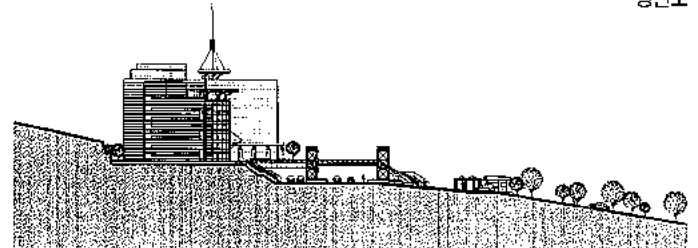
인 경부고속도로는 주위의 능선
때문에 바라보긴 쉬워도, 반대로
우리가 앉힐 건물을 그 쪽으로 내
보이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지의 경사
가 별편을 바라보고 있고, 또 향
이 남동(南東)이라 기후에 적응하
기에는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다.
등고선을 따라서 길게 누운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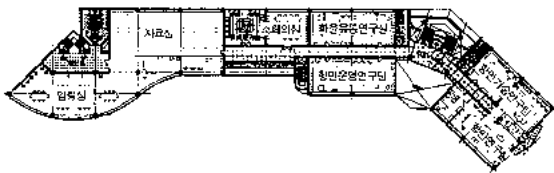
모형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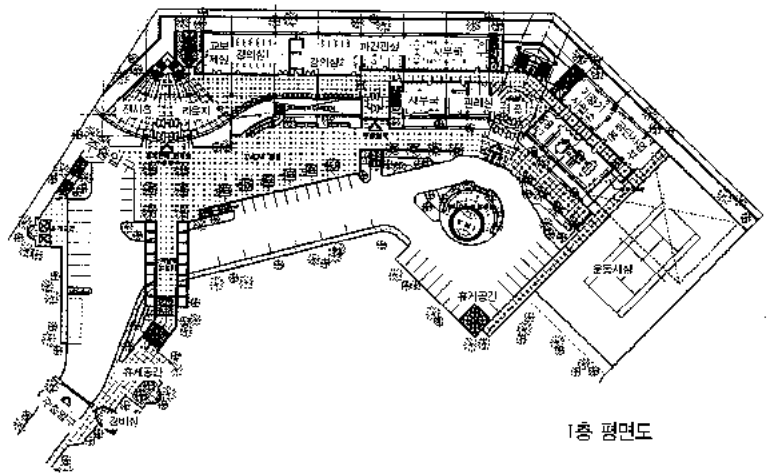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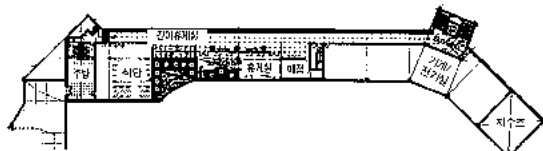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을 생각하게 된 것도 부정형(不定形)의 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 보자는 의도였고, 그 의도를 좇아서 건물의 주 출입구 및 잔입 방향, 주차장의 배열, 외부공간의 순서 그리고, 내부 공간 연계관계가 큰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외부형태에 도입된 부드러운 곡면은 내부 동선의 흐름까지도 적잖

이 영향을 주었고,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모였다가 풀리고 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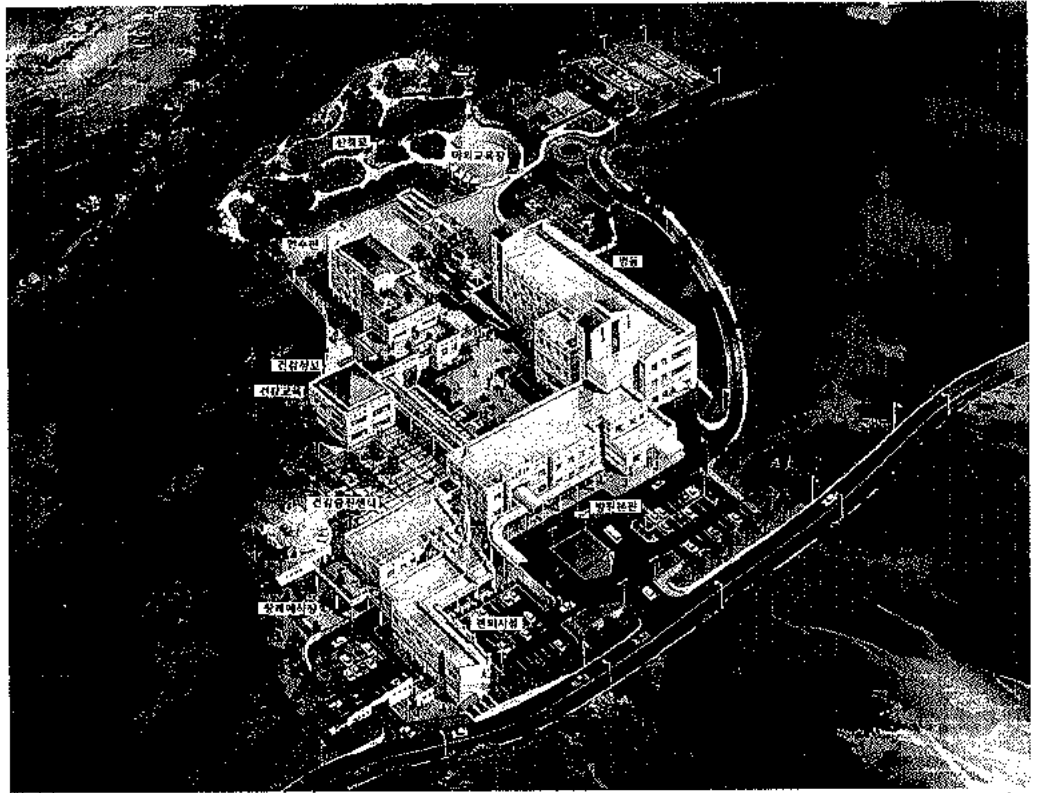
주어진 프로그램에 고유기능의 연구공간과 교육기능의 정보센터, 그리고 두 기능을 보좌하는 관리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재결합하는 일도 건물의 배치만큼이나 여러 갈래로 흩어져 구심

점을 잃기 쉬웠다.

긴 동선 상에서 재미난 일을 겪으려 하다보니 계획의 구성이 미약해진 감도 없지는 않으나, 나름대로 연구공간의 독특함을 짚어 보았다는 것이 우리의 위안이다.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은 계획된 건물이 해운산업연구원답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해 보고, 또 그 중 선택된 것이 프로젝트에 살아있으나, 그것의 진위는 우리의 의도나 해석을 나열하기보다는 연구원 출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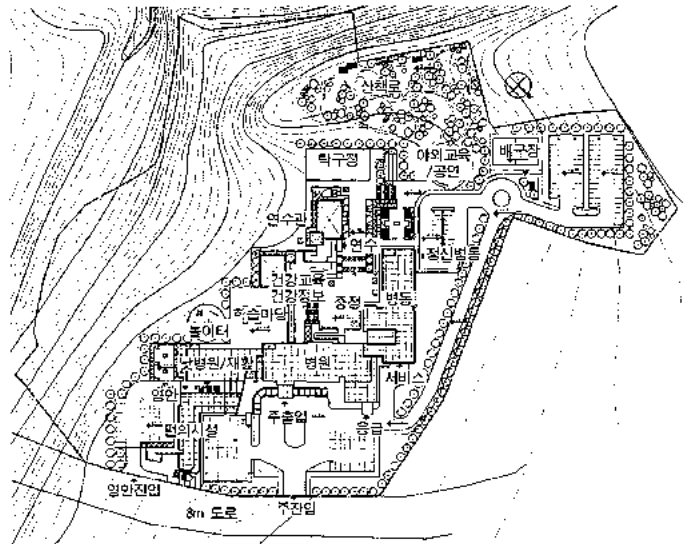


조감도

연천군보건의료원

Yonchon Public Health Center & Hospital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통합된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연천의료원/보건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3월 9일 대건건축(곽은영)+MEDICONSULT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정림건축안이 선정됐으며, 이번 설계경기를 통해 그동안 민간의료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공공보건체계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치도

당선작

대건건축 (곽은영)+MEDICONSULT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6번
지외 18필지

대지면적 / 39,903.0㎡

건축면적 / 3,466.54㎡

연면적 / 10,180.52㎡

건폐율 / 8.68%

용적률 / 25.5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드라비트패널, THK 18

컬러복층유리, 아스팔트 상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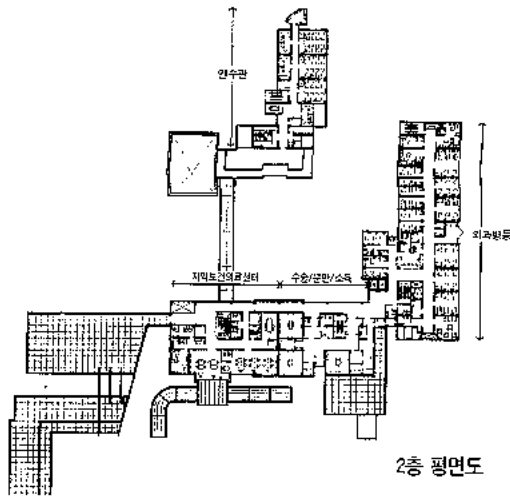
배치계획

계획대지는 전곡읍에서 남서방향 직선거리 1km 지점에 약 12,000평 규모로 한탄강변에 위치하며 동서로 약 230m 정도의 장방형 형상을 가지고, 북측에서 남측 하수처리방향으로 골짜기를 이루어, 골을 위주로 동서로 높아지는 지형을 형성하며 8m도로에 접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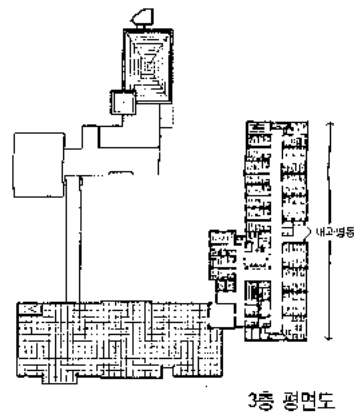
연천의료원은 병원과 건강증진센터, 지역보건당국, 연수관, 장례의식장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로 구분된다.

건물의 형태는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의 수평적인 형태를 이루고, 대지 레벨 차이에 의하여 의료원에 접근시 시각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되며 또한 건물진입의 인지성과 정면성을 갖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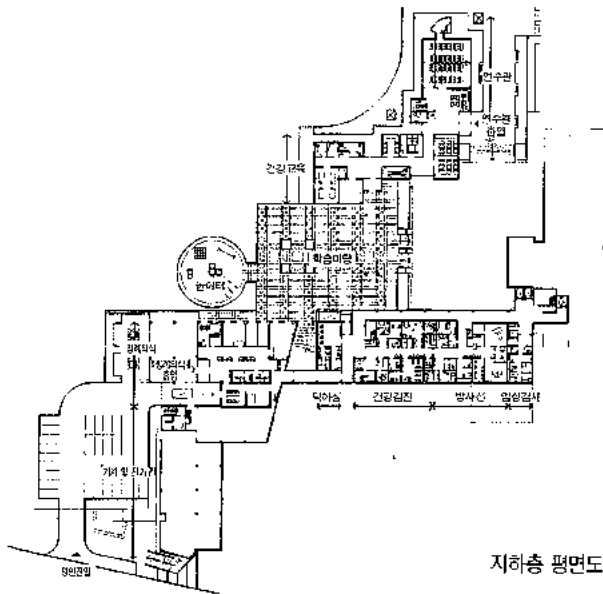
도로 진입부분에 광장 및 주차부분을 형성하고, 진입광장에 면해서 병원 및 건강증진센터를 배치하여 병원의 외래 및 건강증진센터의 낮병원, 재활센터가 외부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였고, 내부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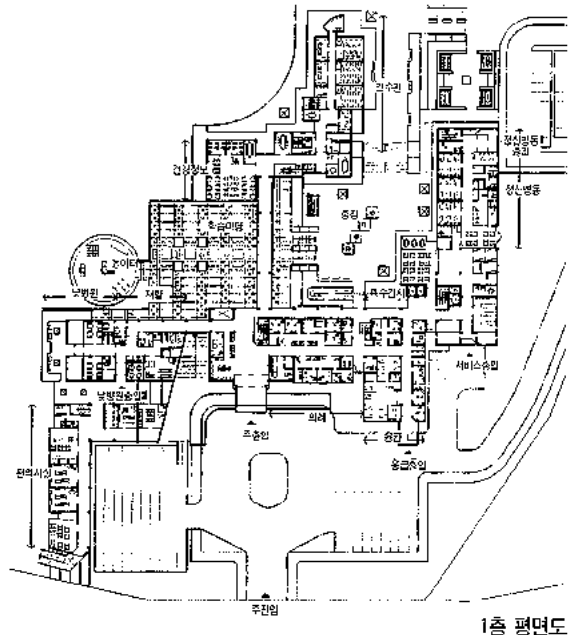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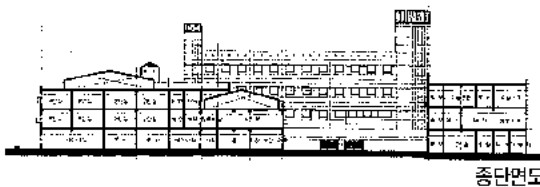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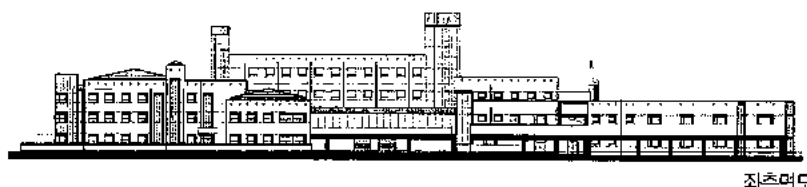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중단면도



좌측면도

또 의료시설과 연수시설간에는 학습마당 및 중정을 설치하여 옥외휴게공간을 형성하고 야외교육장 및 산책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주출입구에는 로비가 형성되며 외래진료부 및 재활병동 건강증진 및 건강정보 등 연수시설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된다. 1층에는 접수/대기 및 외래진료/특수검사/응급을 두며, 재활/낮병동은 외래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케 한다. 외래진료/특수검사는 아간에는 차단하며

응급출입구만을 개방하여 병동동선도 응급출입구를 이용한다. 1층에 식당 및 주방, 창고를 두며 직접 서비스 출입동선에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며, 세탁 및 오물처리 등 물자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도록 수직동선체계와 인접배치한다.

외래진료부에서는 직접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두어 방사선부와 검진센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외래 진찰실도 외과계와 내과계로 구분 별도의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검진센터와 방사선부는 인접 배치함으로써 장비 및 인력의 상호시설이용으로 효과를 얻도록 한다. 1층 후면

부에는 정신병동을 설치하여 외부에서의 별도진입동선 및 출입구를 설치한다.

2층은 지역보건당국 및 수술/분만 그리고 병동으로 구성된다. 지역보건당국은 로비에서 계단을 이용,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수술/분만은 1층 응급 및 외래에서 계단 및 Elev를 이용 연결되어 있다. 수술/분만과 인접해서는 외과병동을 형성 환자의 수평이동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병동은 1간호단위(50병상)로 구성되며, 간호사실은 승강기 및 계단에 인접하여 방문객 및 환자의 통제 및 감시가 가능하며 집중관찰을 인접 배치하여 관찰이 쉽

게 하였다. 병실은 5인실을 기준 병실로 하며, 내부에 화장실을 두어 환자 및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토록 계획하였다. 병동에는 환자식당을 별도로 두어 식사 후에는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였으며 간이주방/세탁/욕실 어린이 놀이공간등을 확보 쾌적한 병동환경을 조성하였다. 간호사실 주변에는 상담/회의/생의/회상실 등을 집중배치하여 효율을 높이며 동선은 내부복도로 타 동선과는 분리시켰다.

3층 병동은 내과계병동으로 구성한다. 옥탑층은 앞으로의 증축에 대비, 수직 Core를 미리 확보하여 놓는다.

우수작

정림건축

위치 / 경기도 포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6

번지까 18필지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 면적 / 39,903㎡

건축 면적 / 4,429㎡

연면적 / 10,406㎡

건폐율 / 11.1%

용적률 / 24.4%

규모 / 병원 -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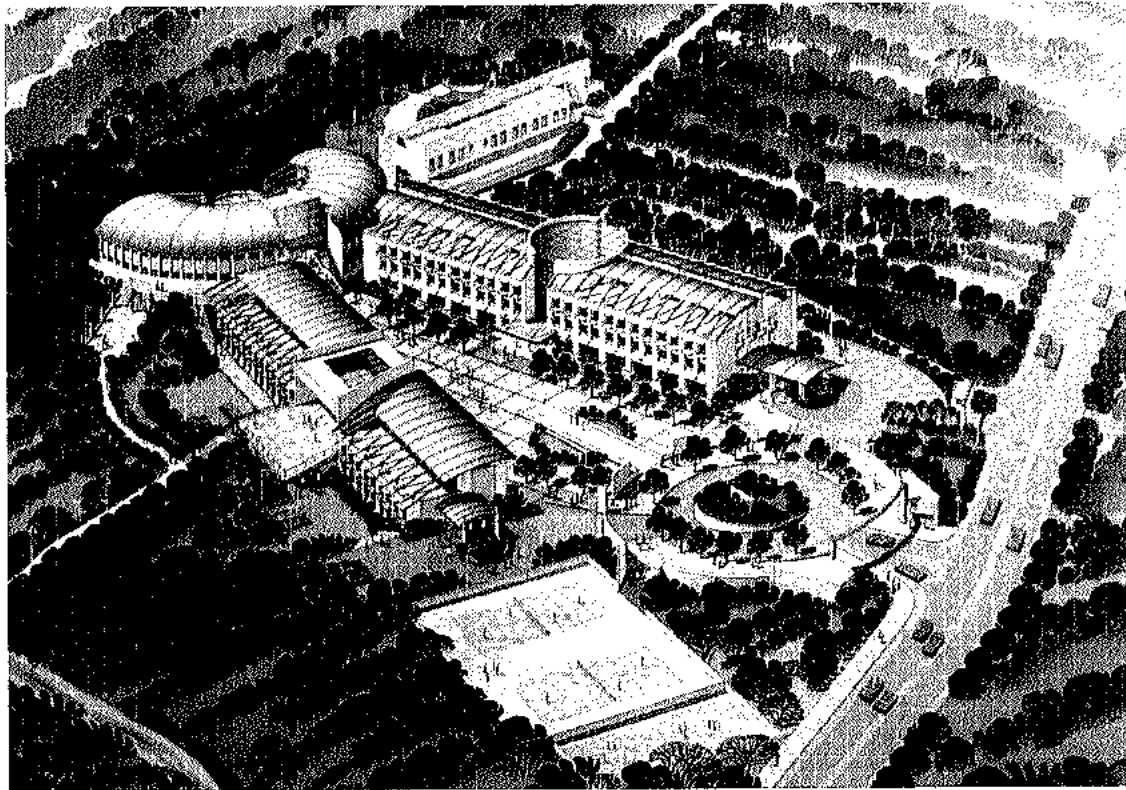
건강증진센터 및 지역보건당국 - 지상2층

연수관 - 지상2층,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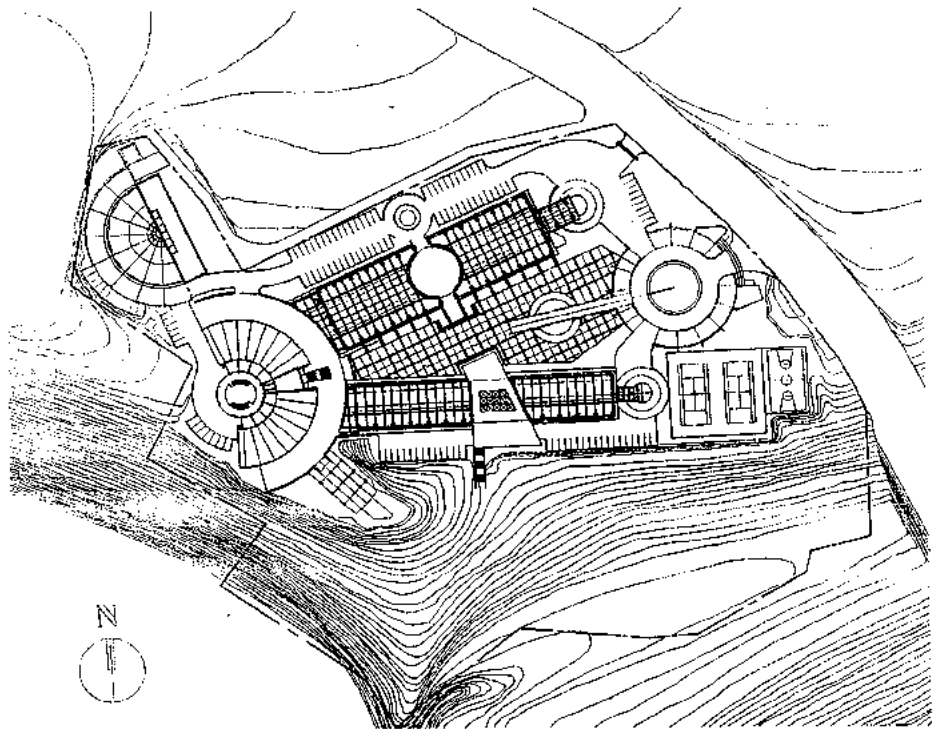
영안실 - 지상1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외장재 / 화강석, 목층유리



조감도



배치도

배치개념

대지축으로 병원동, 방위축으로 보건 증진동을 배치하고 두축이 만나는 장소에 연수동을 그 북측으로 영안실을 배치하여 축과 위계를 최대한 고려했다.

동선개념

- 병동부와 보건증진동 동선을

입구에서 분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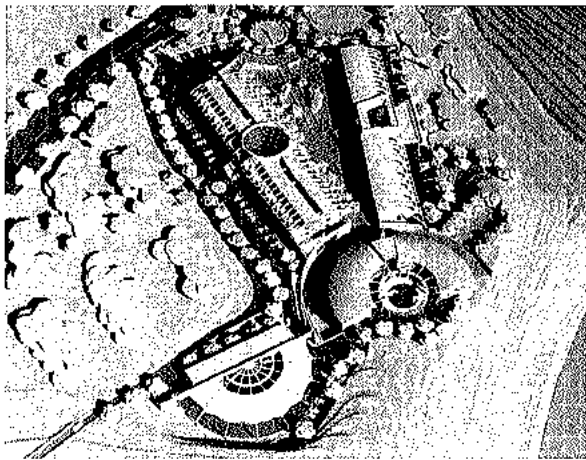
- 교통체계 및 보행자 동선을 재구성하여 각각의 활동을 위한 동선체계를 명확히 인지시켜주었으며 차량 이용객의 승하차장과 통과 동선을 분리하였다.

외부마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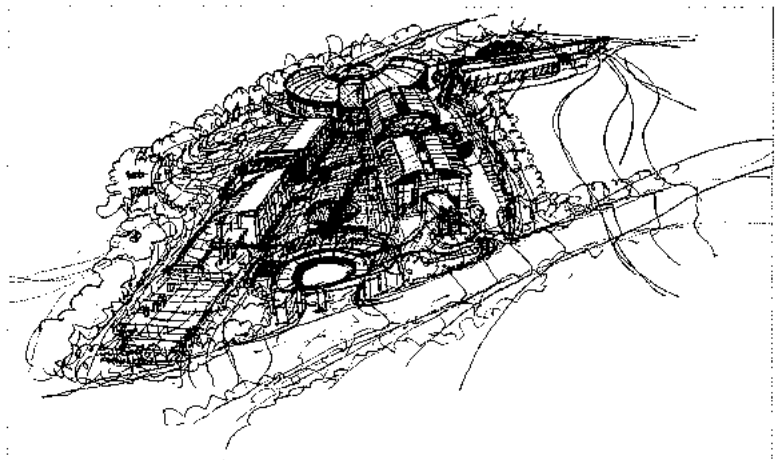
입면의 각 요소들은 그 스케일

및 마감재로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개의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통일감을 부여하며 새로운 Image를 창출할 수 있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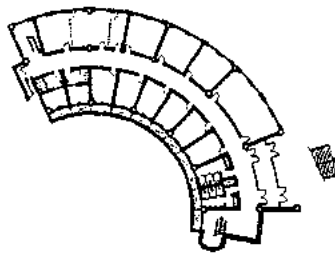
외부마감 재료를 화강석 및 인도사암, 파스텔 유리등을 사용하여 현대적 병원의 Image를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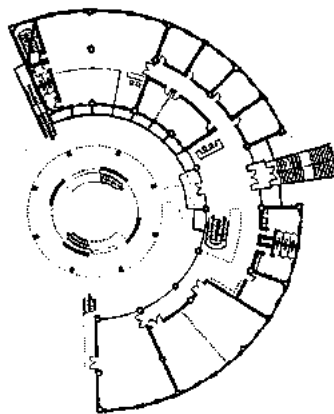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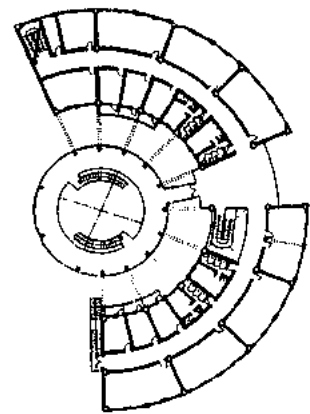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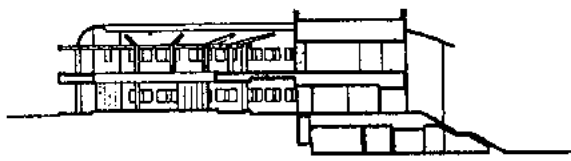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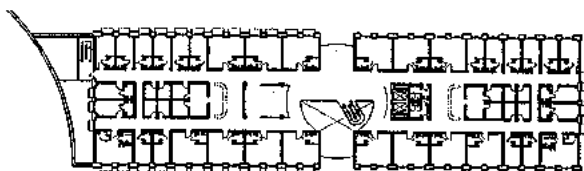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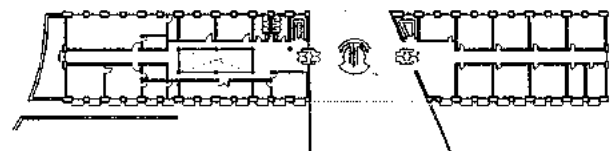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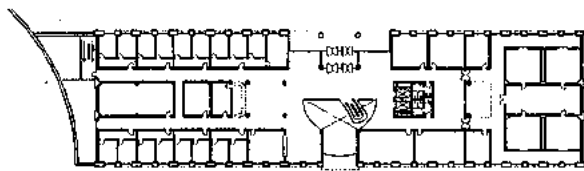
연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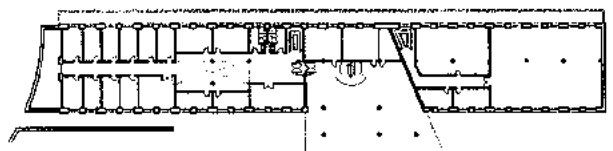
병원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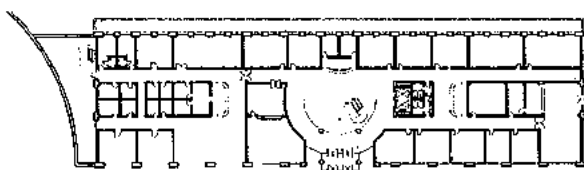
건강증진센터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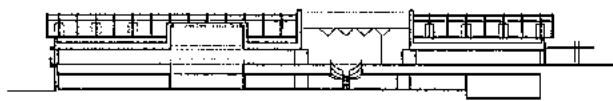
병원 2층 평면도



건강증진센터 1층 평면도



병원 1층 평면도



건강증진센터 단면도



투시도

대전 서구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Ice-Link in Seo-gu, Taejeon-shi

대전 서구청에서는 남선공원내 4천여평의 부지에 실내빙상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겨울 스포츠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제2수도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이번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9일 창건축(김영경)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최종 4개 작품이 참여했으며, 우수작은 포스트건축(박대원+정형량)안이, 가작은 아도무건축(장석웅)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

창건축 (김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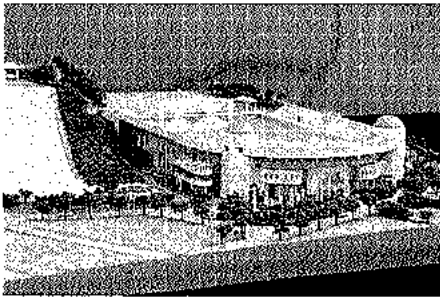
위치/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84
지역/공원시설,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33,316.0㎡
건축면적/10,163.6㎡
연면적/11,950.0㎡
시설면적/11,013.0㎡
건물규모/지상2층, 지하2층
건폐율/6.66%
시율/7.20%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노출콘크리트, 화강석, 적벽돌
주요시설/1층-안정판다 구역 및
기타시설
지하1층-실내빙상장, 스케이팅
수영장 등

배치계획

- Sky-Line을 자연스럽게 유도
-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건물배치로 절토, 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인근공원과 조화를 고려하였다.
- 능선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건축물의 노출 Mass를 극소화시켰다.
- 남선 근린 공원과 유기적 조화
- 상부 공원이용자 및 눈썰매장 이용자의 접근에 따른 방향성 부여로 공간의 흡인력을 향상시키도록 계획하였다
- 건물의 전면 부분이 도로에 노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공원쪽으로 최대한 인접시켜 배치하여 전면도로에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눈썰매장과 연계성을 고려하

여 인접하여 식당가를 배치하였다

- 도시 맥락의 수용
- 빙상장 주출입구의 전면 광장은 이용객의 흐름 및 정체가 반복되는 공간으로서의 완충역할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조형물을 도입하여 공간전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시민 휴게시설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 주진입(Main ENT)과 다수의 보조진입(Sub ENT)을 두어 눈썰매장, 농구장 주차장 등과 유기적 결합으로 흡인력을 향상시켰다.
- 시설별 이용의 편리성 확보
- 이용의 빈도성을 고려 빙상장을 주 출입구에 근접 배치하였다.
- 시설의 사용자별 이용 동선을 구분하여 출입구를 분산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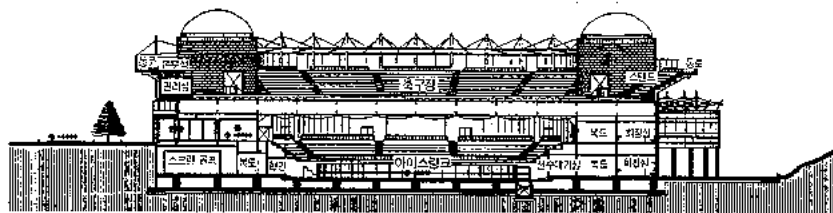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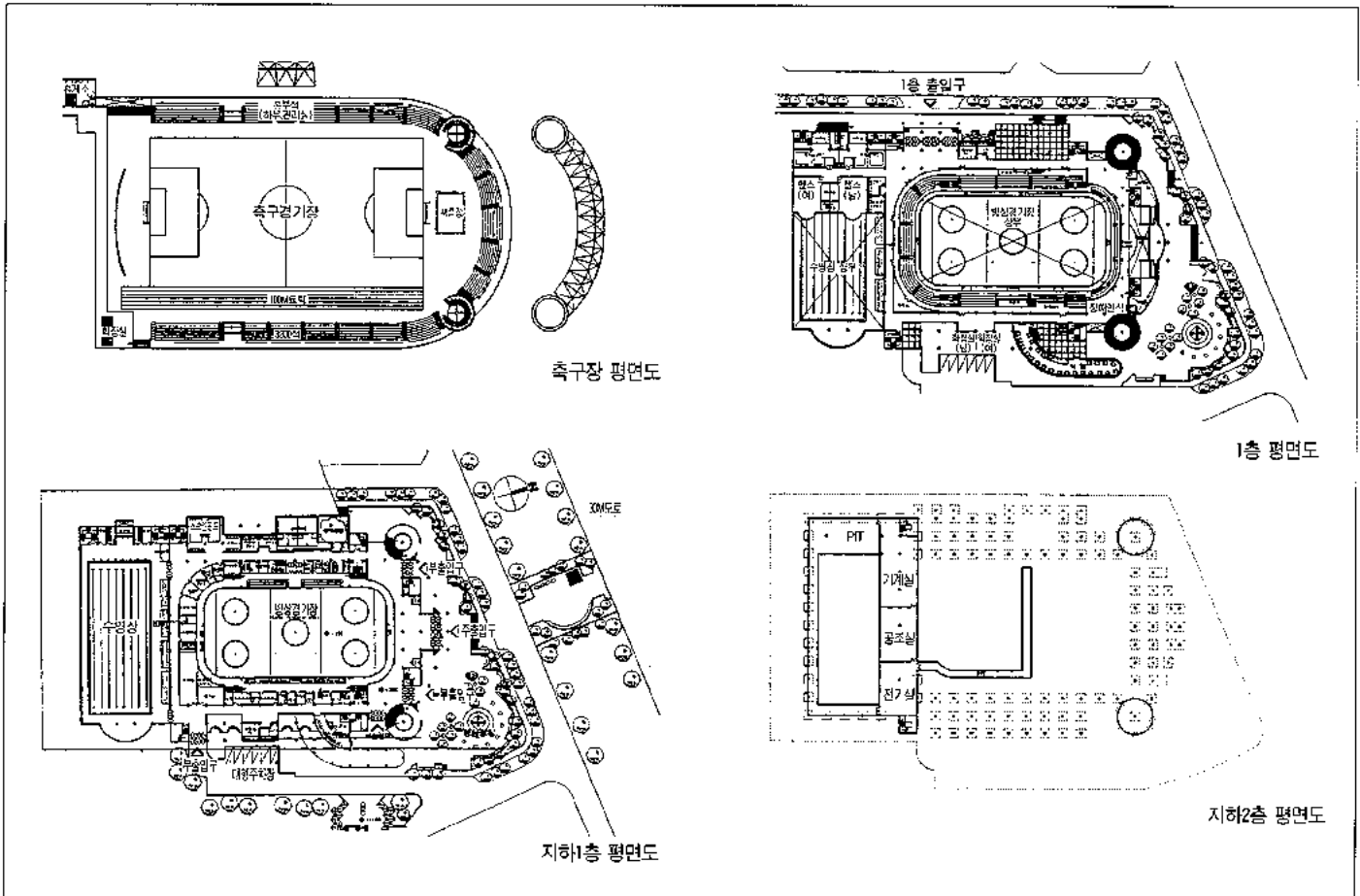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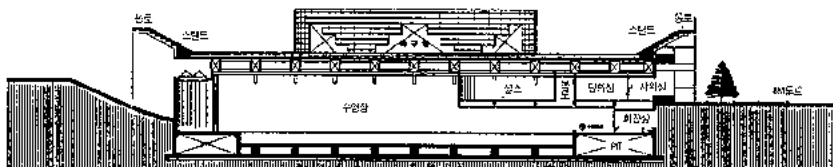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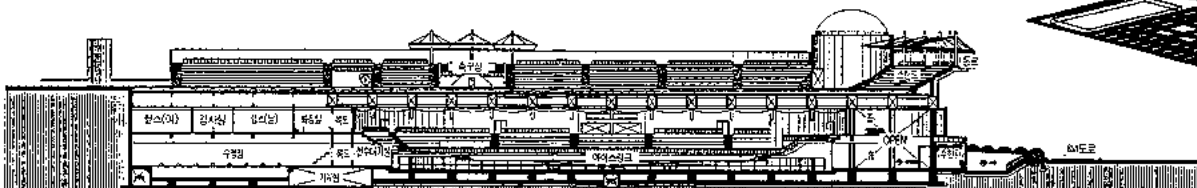
모형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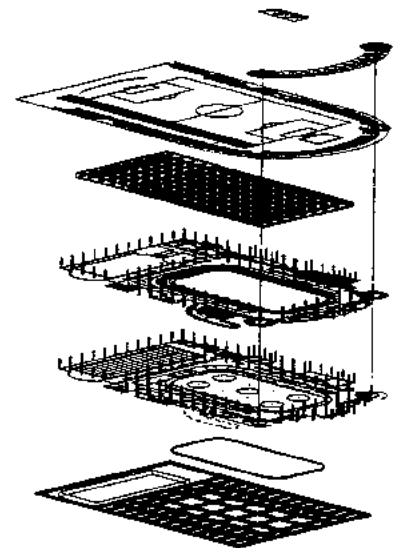
중단면도 1



중단면도 1



횡단면도



구조단면 개념도

우수작

포스트건축 (박대원+정형량)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84

지역 / 공원시설, 자연녹지지역

부지면적 / 공원 - 152,659.4㎡

계획대지 - 13,316㎡

건축면적 / 1,443.3㎡

연면적 / 13,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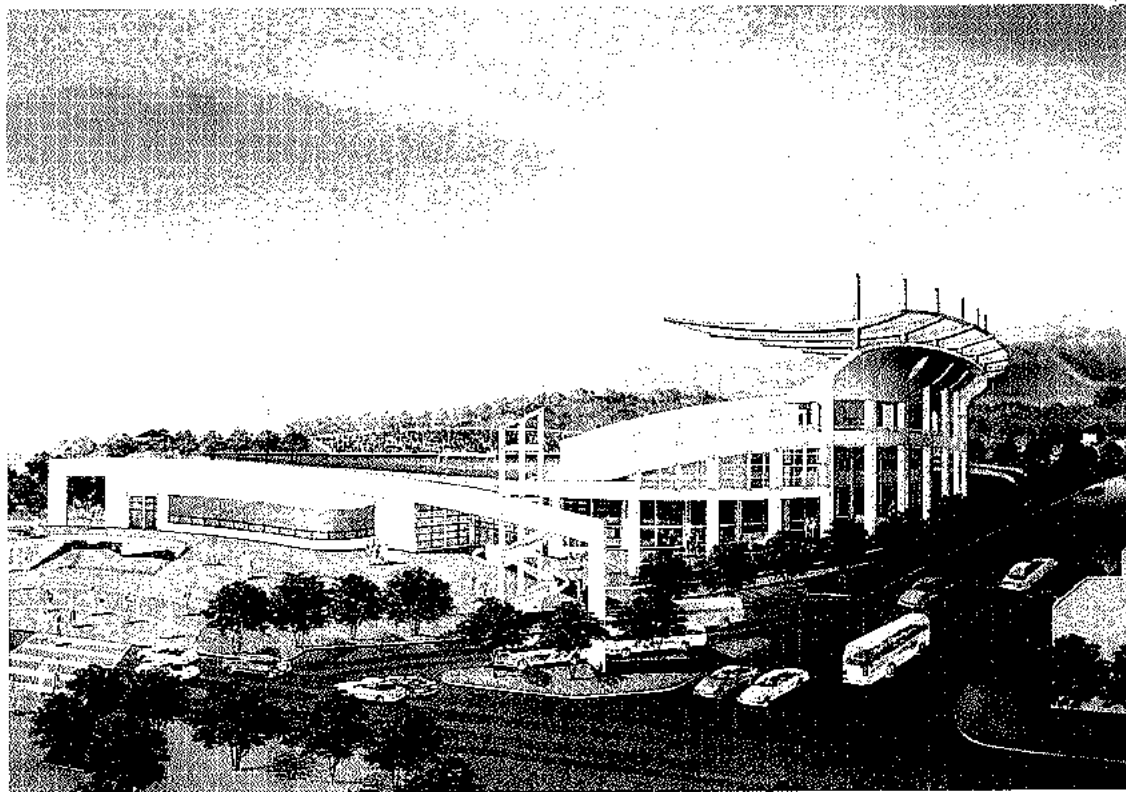
건폐율 / 4.28%

시설면적 / 10,6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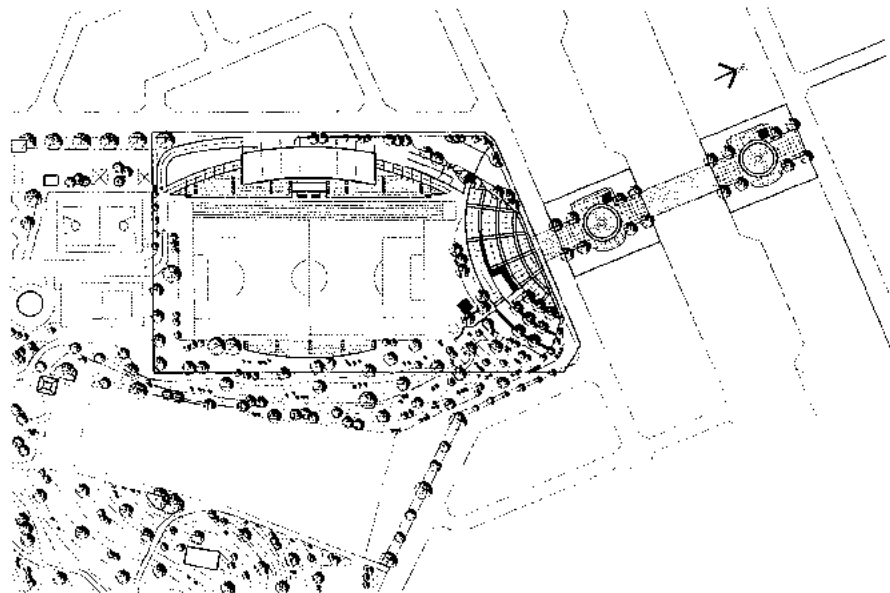
시설률 / 39.66%

구조 / 콘크리트 라멘조

(빙상장, 수영장 상부 인케트러스)



조감도



배치도

배치 및 평면계획

• 축구장 주스탠드의 배치는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소음차단측면과 관람객의 시선을 보다 많은 자연경관에 노출시킴으로써 근린공원의 휴식기능 제고 및 운동시설 고유의 기능에 따른 서향배치를 하며 축구장은 전통적 남북방향 배치로 시합중인 경기자의 태양광선에 의한 경기장 장애를 배제하였다. 축구장 규격은 시설을 제한상 국제규격 배치는 불가능 하므로 질의 혁신에

의거, 축소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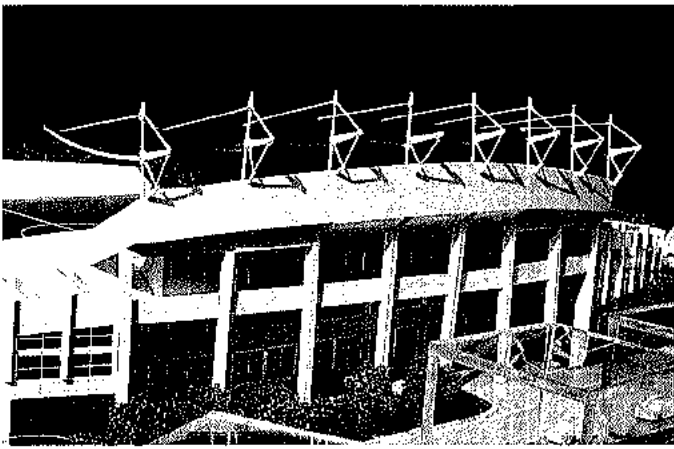
•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유입되는 이용자를 안전하게 계획대지로 끌어 들이기 위해 두개의 시민광장 사이의 도로 하부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며, 이는 진입광장에서 상호연계축 개념으로 만나게 된다.

• 진입광장은 계획대지 및 주변 눈썰매장 시설에 의한 외부에서의 인지성 강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매개 공간으로써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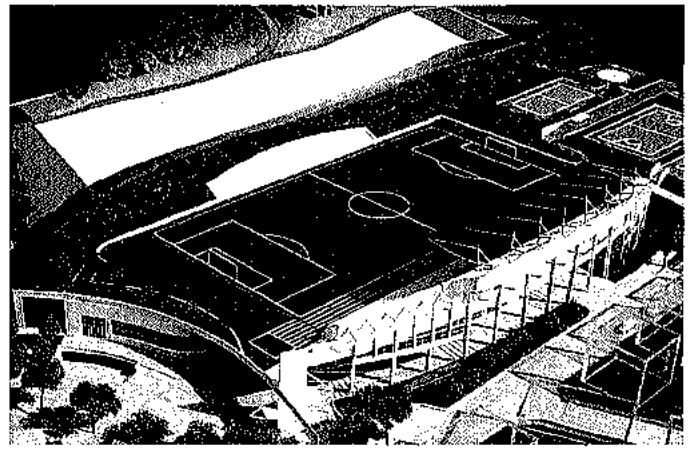
• 내부에서의 시설 Zoning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빙상장, 수영

장, 기타 스포츠 시설, 수역시설로 Zoning하여 각 시설의 Zone별 출입 통제와 가능함과 동시에 모든 경우에 중앙홀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중앙홀에 면하여 설치되는 다양한 수역시설의 사업성을 극도로 상승시키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민원봉사실을 두어 이용객에 대한 행정 Service가 가능토록 하였다.

• 빙상장은 경기종료 후 관람객의 일시퇴장 및 시설유지 차량의 진입 등을 고려 진입광장측에 면하여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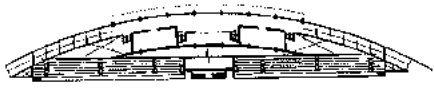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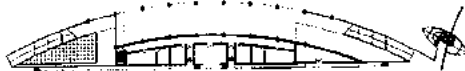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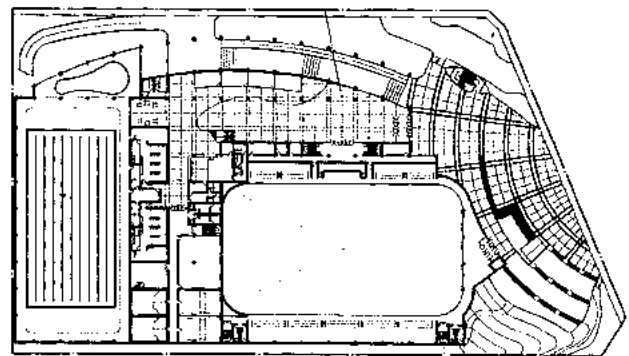
관람석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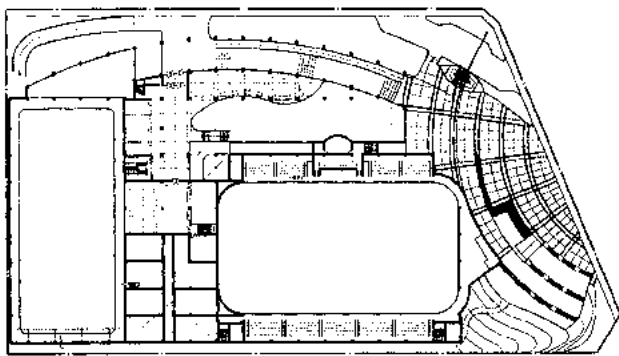
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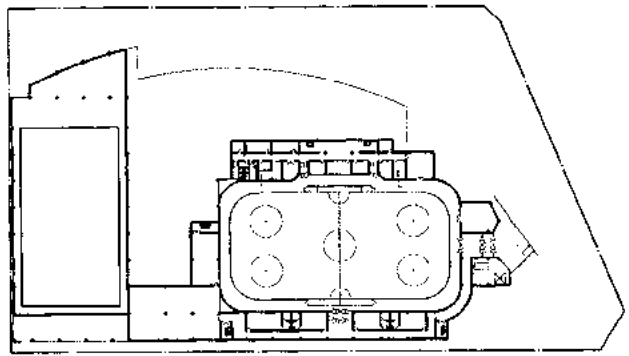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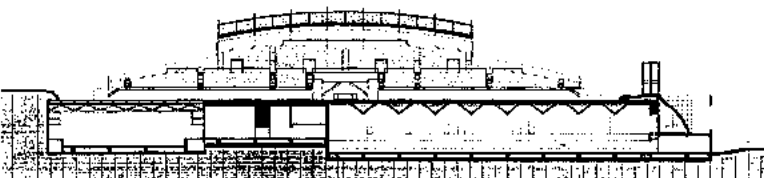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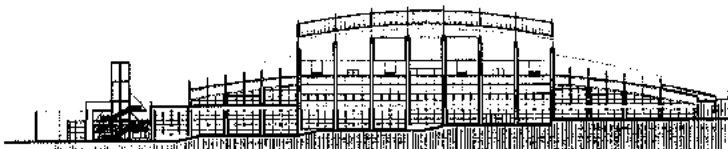
지하 빙상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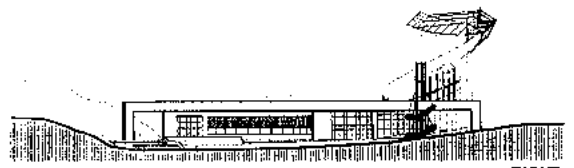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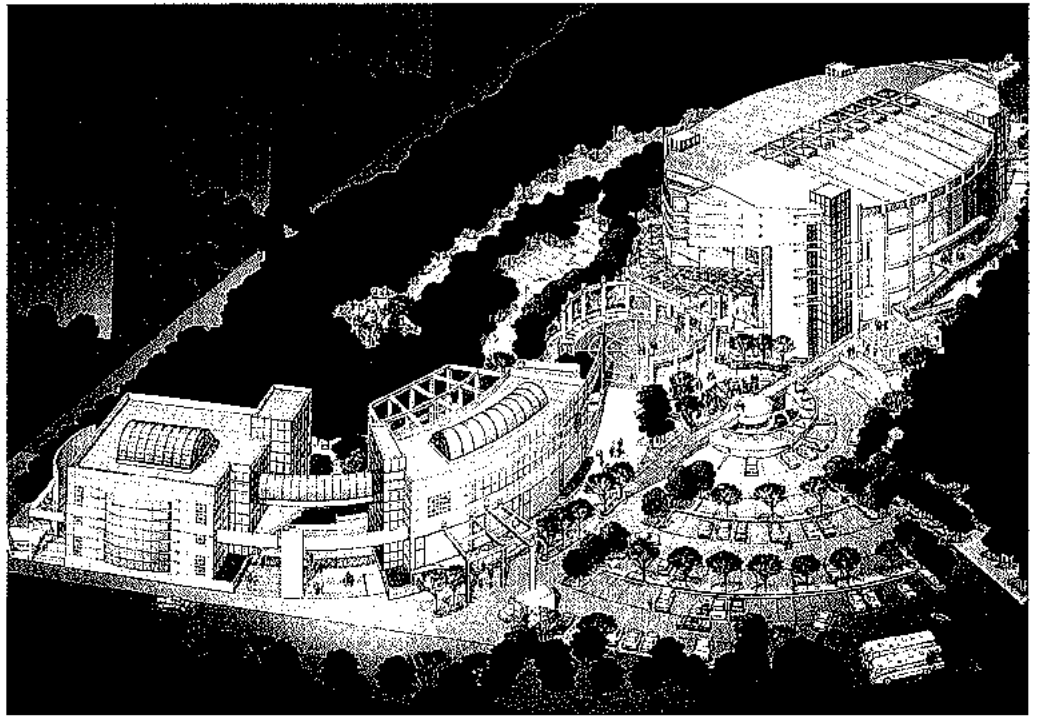
측면도



정면도

Competition

현상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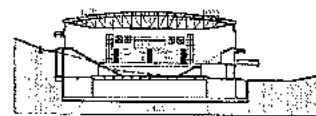


조감도

대전 서구 다목적 종합체육관

Gymnasium in Seo-gu, Taejeon-s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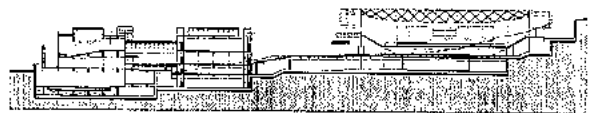
대전 서구청에서는 지방화에 따른 지역 체육공간 확충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대전 소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김인수+최재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4월 4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총 7개 작품이 참여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는 상패와 설계용역권이 주어지는 당선작 외에 상패와 상금 1천2백만원이 수여된 우수작에 서울의 코파건축(이근홍)안이, 상패와 상금 8백원이 수여된 가작에는 대전의 정주건축(이길주)안이 각각 선정됐다.



생활체육시설 횡단면도



주민편의시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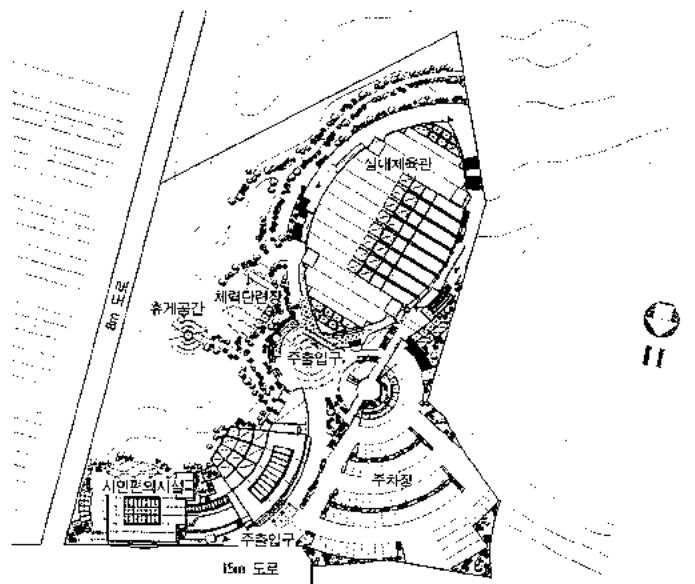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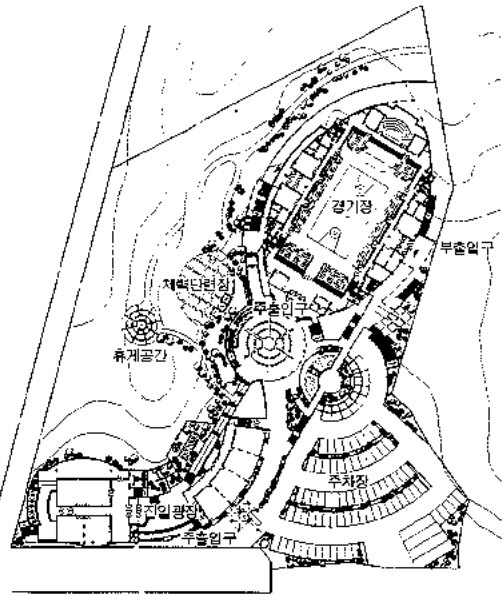
당선작

신화(엔)종합건축
(김인수+최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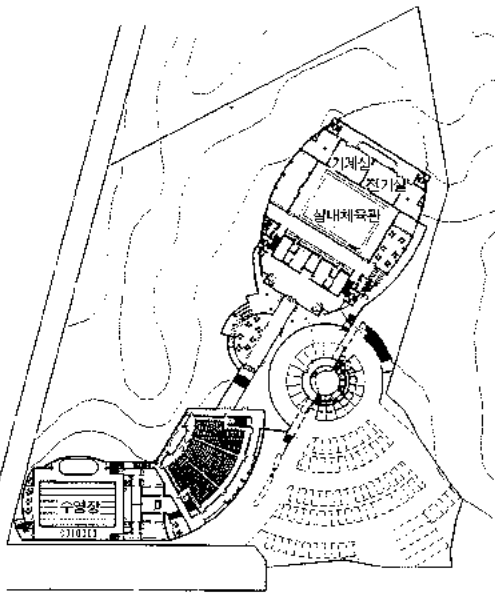
위치/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산7-11, 답 427
대지면적/19,260㎡
건축면적/3,847.66㎡
연면적/11,652.30㎡
건폐율/19.97%
용적률/32.745%
규모/지하1층, 지상2층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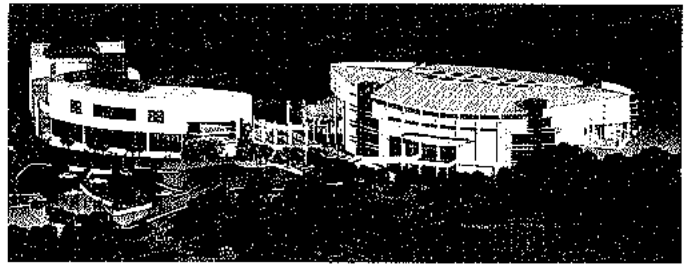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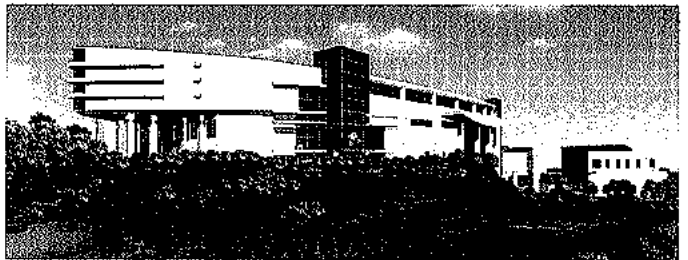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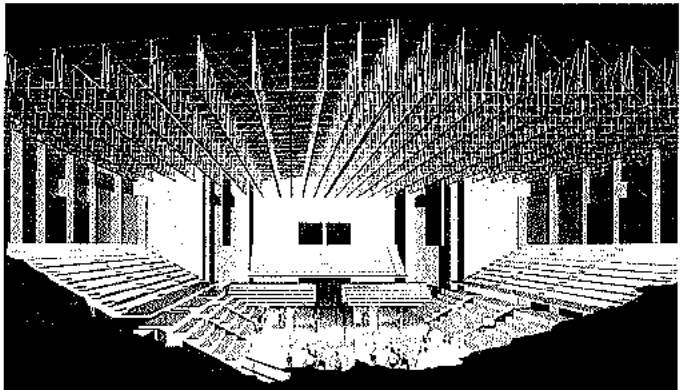
CAD 모델링 1



CAD 모델링 2



CAD 모델링 3



CAD 모델링 4

평면 계획

-개념 설정

- 주공간(생활체육시설)과 부공간(국민편의시설)의 평면 분리
- 지형에 순응하는 평면형태 및 층별 기능분석
- 유선형의 공간 및 통로 확보
- 유기적 공간조성과 안정감 확보
- 다목적 체육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능의 적절한 조합

-동선 계획

- 상징성 및 인지도 고려

: 건물의 외부를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유선형의 동선 유도

- 출입의 편의성을 도모한 관람객 동선 고려
- 체육관과 분리된 편의시설 이용객의 동선고려
- 직원 및 선수 동선의 분리
- : 물품하역, 선수전용 차량동선의 제고로 지하공간 이용
- 장애자 동선 고려

배치 계획

-배치 계획

- 자연지형을 이용한 Mass와

동선의 흐름

- 주축과 방위축의 교차점에 완충공간 형성
- 원활한 차로와 보행자 동선 분리
- 주공간(생활체육시설)과 부공간(국민편의시설)의 적절한 분리와 연계성 제고
- 자연 경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자연스러운 진입 동선

-축의 설정

- 주축 : 등고선을 따라 자연에 순응하는 축
- 방위축 : 보행자 동선과 주차 동선의 유도
- 진입축

- 건물의 유형에 순응하는 주 진입
- 체육관 이용상 편리한 진출입

-외부 공간

- 체육관에 이르는 지점에 쉼터를 통한 광장 형성
- 기존의 산책로와 연결되는 건물외곽의 산책로 형성
- 외부(자연지형)와 내부(판매시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옥외 휴게공간 형성
- 쉼터 외부통로(Bridge) 등을 통하여 다양한 옥외공간 연출

96년도 3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6백3십7만5백11㎡보다 43.0% (7백4만5천6백45㎡) 감소한 9백3십2만4천8백6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 누계 3천1백4십만5천1백4㎡보다 19.8% (6백2

십1만3천6백69㎡) 감소한 2천5백1십9만1천4백3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2월분 8백1만8천6백97㎡보다 16.3% (1백3십만6천1백69㎡) 증가한 9백3십2만4천8백6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월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2,174,694	3,697,138	1,522,444	70.0
감소지역	부 산	1,963,021	1,008,249	(954,772)	-48.6
	대 구	1,699,035	683,427	(1,015,608)	-59.8
	제 주	104,554	47,536	(57,018)	-54.5
	인 천	975,004	336,006	(638,998)	-65.5
	광 주	580,022	351,522	(228,500)	-39.4
	대 전	330,249	131,344	(198,905)	-60.2
	경 기	3,311,474	1,067,838	(2,243,636)	-67.8
	강 원	661,822	166,059	(495,763)	-74.9
	충 북	468,969	325,565	(143,404)	-30.6
	충 남	1,817,072	215,129	(1,601,943)	-88.2
	전 북	440,178	184,142	(256,036)	-58.2
	전 남	337,189	191,939	(145,250)	-43.1
	경 북	618,588	329,183	(289,405)	-46.8
	경 남	888,640	589,789	(298,851)	-33.6
합 계		16,370,511	9,324,866	(7,045,645)	-43.0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2월분	3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708,635	745,721	37,086	5.2
다 세 대 주 택		311,283	317,037	5,754	1.8
연 립 주 택		109,849	72,524	(37,325)	-34.0
아 파 트		2,699,933	3,447,723	747,790	27.7
근린생활시설		1,320,041	1,479,323	159,282	12.1
종 교 시 설		78,809	92,223	13,414	17.0
의 료 시 설		35,847	58,619	22,772	63.5
교육연구시설		261,054	243,365	(17,689)	-6.8
업 무 시 설		485,803	175,691	(310,112)	-63.8
숙 박 시 설		90,549	123,630	33,081	36.5
공 장		1,117,184	963,501	(153,683)	-13.8
기 타		799,710	1,605,509	805,799	100.8
계		8,018,697	9,324,866	1,306,169	16.3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 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5,527	5,620	1,411,806	2,965	3,064	745,721	(2,562)	(2,556)	(665,885)	-47.2	
다 세 대 주 택	802	840	359,633	508	552	317,037	(294)	(288)	(42,596)	-11.8	
연 립 주 택	114	120	156,786	40	40	72,524	(74)	(80)	(84,262)	-53.7	
아 파 트	182	880	5,617,532	109	271	3,447,723	(73)	(609)	(2,169,809)	-38.6	
근린생활시설	4,891	5,004	2,252,985	3,311	3,523	1,479,323	(1,580)	(1,481)	(773,662)	-34.3	
종 교 시 설	142	155	100,106	101	111	92,223	(41)	(44)	(7,883)	-7.9	
의 료 시 설	38	42	82,211	27	30	58,619	(11)	(12)	(23,592)	-28.7	
교육연구시설	121	129	305,406	94	107	243,365	(27)	(22)	(62,041)	-20.3	
업 무 시 설	148	149	1,621,895	75	77	175,691	(73)	(72)	(1,446,204)	-89.2	
숙 박 시 설	144	168	281,986	146	159	123,630	2	(9)	(158,356)	-56.2	
공 장	895	1,245	1,759,311	675	901	963,501	(220)	(344)	(795,810)	-45.2	
기 타	1,098	1,348	2,421,054	895	1,070	1,605,509	(203)	(278)	(815,545)	-33.7	
합 계	14,102	15,700	16,370,511	8,946	9,905	9,324,866	(5,156)	(5,795)	(7,045,645)	-43.0	() = 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3월분)

구분 용도별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1,831	12,011	3,061,456	7,974	8,225	2,186,438	(3,857)	(3,786)	(875,018)	-28.6	
다 세 대 주 택	2,004	2,115	997,896	1,568	1,668	918,056	(436)	(447)	(79,840)	-8.0	
연 립 주 택	282	309	392,380	214	219	277,810	(68)	(90)	(114,570)	-29.2	
아 파 트	431	1,704	10,299,479	308	682	9,585,619	(123)	(1,022)	(713,860)	-6.9	
근린생활시설	10,484	10,752	4,947,892	7,860	8,319	3,863,043	(2,624)	(2,433)	(1,084,849)	-21.9	
종 교 시 설	295	334	240,186	242	264	246,218	(53)	(70)	6,032	2.5	
의 료 시 설	67	73	189,837	60	69	148,689	(7)	(4)	(41,148)	-21.7	
교육연구시설	291	315	804,486	230	268	833,416	(61)	(47)	28,930	3.6	
업 무 시 설	296	296	2,132,759	211	221	909,933	(85)	(75)	(1,222,826)	-57.3	
숙 박 시 설	359	397	558,632	333	377	286,185	(26)	(20)	(272,447)	-48.8	
공 장	2,258	3,283	3,957,403	1,720	2,275	2,686,584	(538)	(1,008)	(1,270,819)	-32.1	
기 타	2,678	3,348	3,822,698	2,259	2,728	3,249,444	(419)	(620)	(573,254)	-15.0	
합 계	31,276	34,937	31,405,104	22,979	25,315	25,191,435	(8,297)	(9,622)	(6,213,669)	-19.8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3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2,174	2,180	2,174,694	491	491	3,697,138	(1,683)	(1,689)	1,522,444	70.0	
부 산	928	1,072	1,963,021	888	1,184	1,008,249	(40)	112	(954,772)	-48.6	
대 구	1,578	1,727	1,699,035	1,011	1,012	683,427	(567)	(715)	(1,015,608)	-59.8	
인 천	548	588	975,004	282	288	336,006	(266)	(300)	(638,998)	-65.5	
광 주	390	529	580,022	599	659	351,522	209	130	(228,500)	-39.4	
대 전	389	414	330,249	248	248	131,344	(141)	(166)	(198,905)	-60.2	
경 기	2,695	3,126	3,311,474	1,755	1,898	1,067,838	(940)	(1,228)	(2,243,636)	-67.8	
강 원	720	858	661,822	496	540	166,059	(224)	(318)	(495,763)	-74.9	
충 북	666	733	468,969	431	473	325,565	(235)	(260)	(143,404)	-30.6	
충 남	567	627	1,817,072	416	493	215,129	(151)	(134)	(1,601,943)	-88.2	
전 북	536	567	440,178	232	232	184,142	(304)	(335)	(256,036)	-58.2	
전 남	550	627	337,189	373	404	191,939	(177)	(223)	(145,250)	-43.1	
경 북	902	1,067	618,588	504	619	329,183	(398)	(448)	(289,405)	-46.8	
경 남	1,200	1,322	888,640	1,089	1,218	589,789	(111)	(104)	(298,851)	-33.6	
제 주	259	263	104,554	131	146	47,536	(128)	(117)	(57,018)	-54.5	
합 계	14,102	15,700	16,370,511	8,946	9,905	9,324,866	(5,156)	(5,795)	(7,045,645)	-43.0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3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5년			1996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4,878	4,908	4,420,698	3,618	3,625	11,173,152	(1,260)	(1,283)	6,752,454	152.7	
부 산	2,360	2,652	2,798,158	2,014	2,707	2,431,094	(346)	55	(367,064)	-13.1	
대 구	3,506	3,713	2,346,098	2,839	2,881	2,089,483	(667)	(832)	(256,615)	-10.9	
인 천	1,132	1,234	2,228,113	761	775	809,821	(371)	(459)	(1,418,292)	-63.7	
광 주	945	1,269	1,452,322	1,005	1,174	714,221	60	(95)	(738,101)	-50.8	
대 전	786	848	754,412	517	517	296,735	(269)	(331)	(457,677)	-60.7	
경 기	6,106	6,981	6,499,859	4,173	4,551	2,888,427	(1,933)	(2,430)	(3,611,432)	-55.6	
강 원	1,511	1,818	1,280,908	1,018	1,092	318,397	(493)	(726)	(962,511)	-75.1	
충 북	1,410	1,609	991,770	936	1,067	625,711	(474)	(542)	(366,059)	-36.9	
충 남	1,142	1,282	2,461,622	757	780	542,937	(385)	(502)	(1,918,685)	-77.9	
전 북	743	730	980,371	500	502	478,267	(243)	(228)	(502,104)	-51.2	
전 남	1,128	1,314	698,926	923	1,018	451,279	(205)	(296)	(247,647)	-35.4	
경 북	2,097	2,681	1,925,950	1,070	1,401	649,273	(1,027)	(1,280)	(1,276,677)	-66.3	
경 남	2,995	3,349	2,375,544	2,545	2,897	1,588,216	(450)	(452)	(787,328)	-33.1	
제 주	537	549	190,353	303	328	134,422	(234)	(221)	(55,931)	-29.4	
합 계	31,276	34,937	31,405,104	22,979	25,315	25,191,435	(8,297)	(9,622)	(6,213,669)	-19.8	()=마이너스

건기협 신고업무 우리 협회에서 분담

건축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인협회 신고업무를 우리 협회가 분담하게 되었다. 지난달 4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거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통합관리해 왔던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인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대한 경력 및 부실발점 관리업무를 건축설계업무의 특성을 고려 대한건축사협회가 분담 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안문제로 대두됐던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인력의 신고문제는 일단락 됐으나 건축사사무소 소속 기술인력의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 10여 만원에 달하는 신고수수료 부담 등 세부적인 신고추진업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개최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3월 20일(제5회)과 4월 16일(제6회) 협회 중회의실에 개최되었다.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순으로 진행된 회차별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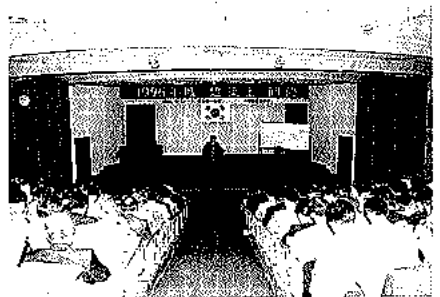
- 추대회원 추대 추가 승인의 건
- 정관 제7조제2항제1호에 의거 대구건축사회 소속 이성완 회원을 추대회원으로 추가 추대하고 96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함.
- 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 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의한 96년도 건축사 연수교육을 별첨자료인「96년도 건축사연수교육 시행계획(안)」중 교육일정 제2일차 설계공사감리기준 교육시간(09:00~12:30)을 교

육위원회와 협의 조정하여 건축계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 결의함.

제6회

- 회관 보수·보강공사 및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 회관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김무언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안길원 이사와 이의구 이사, 건축위원회 산하 구조분과위원 중 1인 등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등 협회건물 전체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기로 함.
- 건축실무 및 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기획 용역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 경남건축사회 직원 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함.

96년도 건축사 연수교육 실시



연수교육 광경

96년도 건축사 연수교육이 지난 4월 22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전국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교육예정인원 총 5,723명을 14개 기수로 나누어 각 기수당 2일간(18시간)씩 실시하는 올해 건축사 연수교육에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교육과 설계·공사감리 기준의 제정에 따른 세부내용에 대한 교육,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식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중점 실시된다. 건축사 연수교육은 건축사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전문분야의 새로운 정보의 전달을 통해 대내외적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건축육구의 다양화에 따른 건축전문인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률의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연수교육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일정표

일 자	기 수	교육장소	건 축 사 회	인 원
4. 22(월)~23(화)	1기	본협회 강당	강남1	430
4. 24(수)~25(목)	2기		강남2	424
4. 29(월)~30(화)	3기		서초	478
5. 2(목)~3(금)	4기		강북, 도봉, 성동, 동대문, 광진, 강동, 송파	389
5. 6(월)~7(화)	5기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중랑	381
5. 8(수)~9(목)	6기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 금천, 성북, 노원	361
5. 13(월)~14(화)	7기		경기1	440
5. 15(수)~16(목)	8기		인천, 강원, 경기2	435
5. 21(화)~22(수)	9기		광주, 전북, 전남	386
5. 27(월)~28(화)	10기		대전, 충북, 충남	424
6. 4(화)~5(수)	11기	대구, 경북대학교 시청각실	대구, 경북	588
6. 10(월)~11(화)	12기	부산 시민회관	부산	567
6. 20(목)~21(금)	13기	제주하늬관광호텔	제주	50
6. 26(수)~27(목)	14기	마산공설운동장 국민생활관	경남	370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9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13,003명 접수

지난 4월 10일 마감된 96년도 건축사면허 예비시험에 서울 7천1백26명을 비롯 총 1만3천3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인원 2만5천명의 절반수준으로 대학졸업자들이 건축사예비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응시기회면에서 조건이 유리한 건축기사(1급)시험에 치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건축기사시험은 1년에 5차례나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건축사예비시험은 1년에 1차례 밖에 응시할 수 없어 수험생들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이에따라 앞으로 시험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은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며, 건축사자격시험은 9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서신고 허가신청후 7일 이내 준수해야

우리협회의 회원인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후 반려 또는 취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허가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도서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민원회신이 있어 설계도서 신고를 둘러싼 민원 해소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8일 서울건축사회가 협회에 질의한 건축설계도서신고와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달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이같은 내

용의 회신을 접수받았다. 이로써 그동안 건축설계도서신고와 관련해 회원과 시도 건축사회와의 민원해소의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목재건축에 관한 특별 강연회 개최

캐나다 주택무역사절단의 일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유명 건축가 LUBOR TRUBKA

씨의 특별강연회가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 우리협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양국간 건축정보 교환 및 선진국의 건축기술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목재건축에 관한 강연외에 휴양시설의 대규모 크리어스판 구조, 쇼핑센터 건설을 위한 조립식 목재구조, 대규모 복합주거단지 등에 관한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또 강연후에는 우리협회 국제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양국간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강연회 광경

부산건축사회, 회원 친선 체육대회 개최



체육대회 광경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4월 5일 부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회원 280여명과 가족 그리고 부산건축사회, 복지회 임직원 등 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제5회 건축사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원만한 봄날씨 속에서 열린 이날 체육행사에서 회원들은 총 6개팀으로 나누어 배구, 족구, 피구 등 종목별 대항경기를 치렀으며, 이어 열린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순서에서는 참가자들 전원이 참여해 흥겨운 분위기속에 회원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한편 이날 체육행사의 종합우승은 금정·연제구와 기장군 복합팀이 차지하였다.

부산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개강식 광경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민건축대학 강좌를 개설,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 부산건축사회가 제2기 시민건축대학을 개강하였다.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회관 12층「예당」에서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2기 수강생 219명을 비롯해 내빈, 강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강식에서는 경과보고 및 개식사, 축사 등 공식행사 순서에 이어 강좌운영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운영위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편 이날 개강식 후에는 '풍수지리와 건축'이란 주제로 박시익(고려대 강사/서울도봉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사의 첫 강의가 열렸다.

경남건축사회, 96년도 건축사보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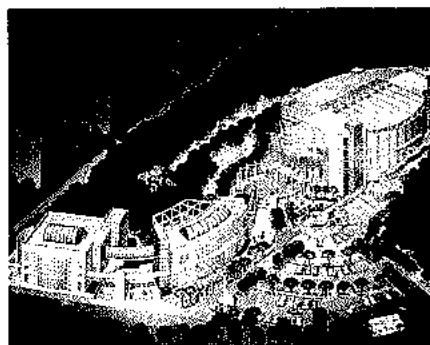
경남건축사회(회장 이동일)는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역내 건축사보 257명을 대상으로 96년도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부지역(마산, 창원, 김해, 통영, 밀양, 거제)과 중부지역(울산, 양산), 서부지역(진주, 거창, 사천, 하동) 등 3개 지역으로 나

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순회설시원 이번교육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 및 감리요령, 전산서식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중부지역 건축사보 교육 광경

대전 서구 다목적종합체육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다목적종합체육관 당선작 조감도

대전광역시서구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실시한 대전 서구 다목적종합체육관 현상설계공모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7개 작품이 응모해 학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해 결정된 이번 설계공모의 당선작에는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인수, 최재인)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에는 (주)코파건축사사무소(대표 이근홍)안이, 가작에는 (주)정주건축사사무소(대표 이길주)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대전광역시서구청은 지난 4월 4일 서구청 구청장실에서 이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당선작에 설계용역권 및 상패, 우수작에 상금 1,200만원과 상패, 가작에 상금 800만원 및 상패를 수여하였다. <본지 현상설계란 참조>

대전 서구 실내빙상장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대전광역시서구청이 실시한 대전 서구 실내빙상장 현상설계공모의 심사결과가 발표되었

다. 총 4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설계공모의 당선작에는 창건축(대표 김영경)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에는 포스트건축(대표 박대원, 정형량)안이, 가작에는 아도무건축(대표 장석웅)안이 각각 결정되었다. 서구 실내빙상장은 대전 남선공원내 4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본지 현상설계란 참조>



실내빙상장 당선작 조감도

판문점「자유의 집」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조달청이 통일원의 자유의 집 개축 결정에 따라 지난 1월에 실시한 판문점 자유의 집 현상설계공모에서 (주)담건축(대표 오영국)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지난 1월 24일에 현장설명회 이후 작품제출일인 3월 29일까지 총 12개의 응모작품이 참가하였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담건축의 안은 건물의 형태가 통일을 소망하듯 두손을 합장한 형태로 지붕은 강도를 수호한다는 취지에서 방패연의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 1층에는 남북출입구와 이산가족 면회실이, 2층에는 남북통도 및 회의실, 3층에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다목적 예비실, 4층에는 90평 규모의 전망대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담건축의 확정설계안에 따른 설계실시안이 오는 6~7월경 조달청에 제출되면, 이에따라 97년 남북출입국관리센터를 겸한 새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다.

경북 도립 예천전문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도립 예천전문대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경북북도 도립 예천전문대 현상설계공모에 담건축(대표 맹준호)안이 당선되었다. 또 우수작에는 금성건축(대표 한종연)안이, 가작에는 남양건축(대표 임봉수)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예천전문대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947번지 일대에 연면적 14,901.8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사진작가 임정의 건축사진전 안내

건축사진작가 임정의(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씨의 건축사진전이 오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열린다. '흐름의 공간'이라는 테마로 선보일 이번 사진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20여년간 작품활동을 해 온 임정의씨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작가가 우리의 옛건축을 오랜기간 답사하며 느껴 온 공간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준비해 온 청암건축사진연구소측은 오는 6월 1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관람객과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한다.

· 문의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전화 567-2700), 후지포토살롱(전화 273-5480)

제1회 IDEA세미나,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IDEA(International Design and Architecture) Institute가 주최하는 제1회 IDEA 디자인 세미나가 오는 6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다. 높은 수준의 세미나와 디자인 수업을 통해 국가간의 문화적 교류를 증대하고 또한 실재하는 도시·건축문제를 세미나를 통해 직접 적용,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와 건축의 조직적 연구를 고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엔리크 미랄레스(IDEA디렉터, 건축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대 교수), 카를로스 헤르난데스(IDEA디렉터, 건축가, 콜롬비아 하브리아나 대학 교수), 도미오 와타나베(일본 나고야대학 교수), 강병준(한국 건축가) 등 30여명의 참가 교수외에 세계각국의 교수와 건축가,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비용은 4월 20일 이내 등록자에 한해 미화 4천2백달러, 5월 20일까지 등록할 경우 4천4백5십달러, 6월 10일까지 등록할 경우 4천7백5십달러로 5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와 미화 1천달러를 선납한 후 6월 10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디자인 주제 및 주제해석,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세미나의 참가교수인 강병준(053-814-8443~4)교수에게 문의하면 된다.